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하향이동 동사 ‘디다’의
문법화 연구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전공

김 미 경

하향이동 동사 ‘디다’의 문법화 연구

지도교수 이승재

이 논문을 언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전공
김미경

김미경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위 원장 남승호 (인)

부위원장 이승재 (인)

위 원 권재일 (인)

위 원 박철우 (인)

위 원 박진호 (인)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한국어의 보조동사 ‘지다’의 기원을 중세 한국어의 동사 ‘디다’에서 찾고, ‘디다’의 문법화 진입 및 그 이후의 의미 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디다’는 대상 논항이 중력에 순응하여 공중을 거쳐 낙하하는 사태를 가리키는 하향이동 동사로서, 이동하는 개체가 자신의 이동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발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디다’는 하향 이동과 쓰러짐 등의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었으며, ‘떨다’, ‘쁘다’, ‘흐르다’, ‘갓골다’ 등의 다양한 술어와 함께 원인-결과로 이루어진 이동 사태를 서술하였다. 이때 ‘디다’가 나타내는 결과로서의 이동은 선행하는 술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는데, 결과를 서술하는 ‘디다’가 고빈도로 반복되면서 선행하는 술어가 가리키는 변화의 결과로 특정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로 추상화된 것이 ‘디다’ 문법화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의미 추상화는 다시 ‘디다’의 분포 환경 확대를 부르고, 분포 확대는 다시 의미 추상화로 되먹임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구문 의미 평준화로 명명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문법화가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지다’ 및 ‘디다’ 표지의 기능 논의에서 제안된 피동이나 상태변화는 문법 표지 ‘디다’의 분포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결과상(resultative), 반사동(anticausative), 상태변화(change-of-state) 등의 범주를 이용하여 문법 표지 ‘디다’의 분포를 기술하였다. 이를 범주의 의미적 인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져오는 변형을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 변화로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술어의 의미 유형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체계를 이용하면 사동과 반사동 등의 결합가 범주는 결과상 등과 함께 술어의 의미 유형 변환이라는 대범주를 이루게 된다. 이 대범주를 이용하여 종래 형용사 파생 동사나 동사 파생 형용사 등으로 조어법에서 논의되던 현상과 결과 구문, 결과 분사, 결과상, 상태 변화 등의 다양한 현상을 사동 및 반사동과 동종의 현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술어 의미 유형 변환은 사동, 반사동, 결과상 등으로 문법 표지 결합에 의해 표시될 수도 있지만, 자·타 양용동사나 자·형 양용 술어처럼 동일한 술어의 다의로 표시될 수도 있고, 아예 별도의 형태로 표시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각각 변형 부호화, 동형 부호화, 이형 부호화 전략으로 정의하고 동형 부호화를 문법화의 토대가 되는 의미적 중의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술어가 동형 부호화 전략으로 인하여 의미 유형 중의성을 띠기 때문에, ‘디다’가 다른 술어에 결합했을 때 해당 술어가 서술하는 사태의 유형 및 ‘디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전체 술어가 서술하는 사태의 유형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디다’ 표지의 의미가 이러한 재분석을 통해 발생함으로써 문법 표지 ‘디다’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문법화, 지향이동, 상태변화, 피동, 결과, -어지다

학번: 2013-30025

차 례

1 서론	1
2 기본 논의	5
2.1 한국어 ‘지다’ 문법화에 대한 기존 논의	5
2.1.1 문법 표지 ‘지다’의 기원	5
2.1.2 ‘지다’ 표지의 문법적 의미	9
2.2 문법화 연구를 위한 어휘부 모형	17
2.3 문법화 연구를 위한 문법 분석	22
2.4 문법화와 재분석의 구분	27
2.5 연구 자료	30
3 술어의 의미 유형과 부호화 전략	33
3.1 한국어 ‘디다’ 표지 분석과 새로운 술어 분류의 필요성	34
3.1.1 ‘디다’ 표지 분석의 난점	34
3.1.2 ‘디다’ 표지 분석과 새로운 술어 분류 체계의 필요성	43
3.2 단순 사태와 1항 술어의 의미 유형	46
3.2.1 [속성], [상태], [동작]	47
3.2.2 [동작]의 하위 분류	51
3.2.3 단순 사태와 ‘지다’ 표지 결합 어휘	54
3.3 복합 사태와 술어의 의미 유형	58
3.3.1 [동작]과 [작용]	58
3.3.2 [상태]와 [결과상태]	65
3.3.3 복합 사태와 ‘지다’ 표지 결합 어휘	69

3.4	술어의 다의성과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73
3.4.1	단순 사태의 인접 의미 유형 동형 부호화	75
3.4.2	복합 사태의 인접 의미 유형 동형 부호화	80
3.5	문법 표지를 이용한 인접 의미 유형 변형 부호화	88
3.5.1	술어의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	88
3.5.2	개체의 변화와 <사동>, <반사동>, <기동>	93
3.5.3	변화의 결과 확장과 <결과>	98
3.5.3.1	Nedjalkov(1988)의 결과상태 유형론	99
3.5.3.2	<결과>와 그 유사 범주들	110
3.5.3.3	<결과>와 그 유사 명칭들	116
3.5.4	상태의 원인 확장과 <변성>	123
3.5.4.1	[속성]-[상태] 술어의 [변성] 부호화	125
3.5.4.2	<변성>과 그 유사 범주들	127
4	한국어 ‘디다’의 역사적 변화	133
4.1	‘디다’와 ‘지다’의 구분	134
4.2	단독으로 사용된 ‘디다’	138
4.2.1	‘디다’의 기본 의미	140
4.2.1.1	‘디다’의 이동 논항	141
4.2.1.2	‘느리다’, ‘듣다’, ‘쁘다’와 ‘디다’의 비교	145
4.2.2	‘디다’의 확장된 의미	154
4.2.2.1	부속 사건 확장	154
4.2.2.2	은유적 확장	163
4.2.3	‘디다’의 소멸 의미	170
4.2.3.1	‘비듬 디다’, ‘띠 디오다’	171

4.2.3.2	‘디여 가다’	172
4.2.3.3	동사 후행 ‘디다’의 합성동사 분석 비판	176
4.3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180
4.3.1	처소 변화 유형의 본동사 ‘디다’	181
4.3.2	상태 변화 유형의 문법 표지 ‘디다’	188
4.3.2.1	타동사 결합 ‘디다’ 표지	194
4.3.2.2	자·타 양용동사 결합 ‘디다’ 표지	196
4.3.2.3	자동사 결합 ‘디다’ 표지	199
4.4	형용사에 결합하는 ‘디다’	204
4.4.1	형용사 하위부류별 ‘디다’의 분포	205
4.4.2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과 ‘디다’ 변형 전략의 경쟁	216
4.5	‘-을/을’ 파생 어근에 결합하는 ‘디다’	226
4.5.1	‘-을/을’ 접사의 술어 내 분포와 기능	228
4.5.1.1	‘-을/을’ 접사의 추출	228
4.5.1.2	‘-을/을’ 접사의 [(D)속성] 부호화	231
4.5.2	‘-을/을’ 결합 ‘디다’ 표지의 발달	238
4.5.3	‘-을/을’ 파생 어근과 역형성	240
5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	249
5.1	15세기 ‘디다’의 문법화 진행 단계	250
5.2	‘디다’ 문법화의 유형 분류	253
5.2.1	지향이동과 상태 변화	253
5.2.2	비행위성 자동사와 상태 변화	257
5.3	‘디다’의 문법화 진입	261
5.3.1	구문 의미 평준화	261

5.3.2	처소 변화 ‘디다’와 <결과> 표지 ‘디다’	265
5.3.3	<결과> 표지 ‘디다’와 ‘잇다’의 비교	268
5.4	‘디다’의 문법화 진행	271
5.4.1	행위주 부재	272
5.4.2	변화 발생	275
5.4.3	결과 발생	278
6	결론	281

표 차례

3.1	현대 한국어 구어 말뭉치의 ‘지다’ 표지 유형별 빈도	36
3.2	어휘의 원형적 의미 부류와 그 특성(Croft 1991:65)	48
3.3	[속성], [상태], [동작]의 구분	48
3.4	사태 구성 요소에 따른 [속성], [상태], [변성], [행위]의 구분	53
3.5	술어의 결합가 판정 비교	59
3.6	결합가를 이용한 [속성], [상태], [동작], [작용]의 비교	60
3.7	사동·기동 짝의 부호화 유형(Haspelmath 1987:21)	87
3.8	영어와 한국어의 사망 사태 부호화 비교	88
3.9	사동·기동 부호화 전략의 분류와 전통적 분석 대조	91
3.10	[속성],[상태],[동작],[작용]과 Nedjalkov(1988) 술어 의미 분류의 대응	100
3.11	Nedjalkov(1988)의 상태 분류와 [상태],[결과상태]의 대응	103
4.1	《우리말샘》의 ‘디다’ 어휘 목록	138
4.2	‘디다 ⁰⁰⁷ ’과 ‘디다 ⁰¹⁰ ’의 어미 활용형 비교	144
4.3	처소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하향이동	182
4.4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2: 쓰러짐	186
4.5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회복 불가능한 변화	191
4.6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2: 회복 가능한 변화	192
4.7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3: 불특정한 변화	193
4.8	‘디다’ 결합 술어 속성변화 유형: 단일어 형용사 결합	207
4.9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흐다’형 형용사 결합	209
4.10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보조형용사 결합	209
4.11	문법 표지 ‘지다’ 표지의 장르별 출현 양상	221

4.12 조리서 내 출현 환경별 형용사 빈도 변화	225
4.13 ‘부수다/브스다’ 후대형과 ‘-을/을’ 접사 파생	227
4.14 『우리말샘』 등재 ‘흔ㄷ-/건ㄷ-/근ㄷ-’ 어근 파생 패러다임	236
4.15 ‘부슬-’계 어근 파생 패러다임	241
4.16 ‘우글-’ 계 어근 파생 패러다임	244
4.17 ‘디다’ 결합 술어 속성변화 유형: ‘-을/을’ 파생 어근 후행	247

제1장 서론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는 피동 범주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연구되어 온 보조동사이다. 그러나 다른 보조동사들이 ‘가다’, ‘오다’, ‘싶다’ 등으로 지칭되는 데에 비해 유독 ‘지다’ 표지의 형태로 선행하는 어휘의 활용 어미 ‘-아/어’까지 포함하여 지칭되는 경향이 있다. 본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싫다’도 마찬가지이므로 본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어근이 되는 ‘지다’의 기원에 대해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다’ 표지의 기원으로는 허웅(1975)에서 제시한 ‘디다[落]’ 설이 널리 수용되어 있지만, 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디다[落]’와 ‘지다’ 표지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 연구자가 의문을 표했지만 이렇다 할 설명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의 유사성을 근거로 삼아 살찌다의 ‘지다[生]’가 ‘지다’ 표지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¹⁾ 그러나 언어 변화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의 유사성은 두 형태를 관련짓는 데에 유용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의미의 유사성은 연구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다’ 표지 용례의 의미 해석에 의존하는 논의는 연구자별 직관의 차이를 드러낼 뿐 합의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지다’ 표지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언어유형론의 문법 범주 분석과 역사언어학의 어휘별 문법화 경로 논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지다’ 표지의 변화를 한국어사의 일부로 다루는 대신, 범언어적 언어 변화 연구의 관점에서 그 하위 주제인 이동 동사 및 비행위성 자동사의 문법화 사례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디다’는 후기 중세에 이미 문법 표지로 사용되었다.

1) ‘지다[生]’는 ‘지다[肥]’에서 발달한 형태이다. 이 두 어휘의 관계는 4장에서 논의한다.

-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는 〈결과〉(resultative) 표지로서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를 원인이 되는 변화를 함의하는 상태 술어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 〈결과〉 ‘디다’ 표지는 〈기동〉(inchoative) 및 〈반사동〉(anticausative) 표지로 분화하였으며,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를 행위주를 배제하고 사태를 서술하는 술어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 〈기동〉 및 〈반사동〉 ‘디다’ 표지는 〈변성〉(fientive) 표지로 분화하였으며, 속성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를 해당 속성 또는 상태로의 변화 사태 술어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 ‘디다’ 동사의 문법화는 ‘뼈러디다’와 ‘업더디다’처럼 동사에 결합하여 동사별로 다른 결과 사태를 나타내는 ‘디다’의 의미를 하나로 수렴시키고자 하는 압력에 의해 일어나고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문법 표지 ‘디다’의 기능 중에서 〈결과〉와 〈변성〉은 그동안의 문법 범주 논의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다뤄져 왔다. 〈결과〉는 대개 동사의 의미 또는 문법상의 영역에서 논의되었으며, 〈변성〉은 대개 동사의 다의 또는 동사 파생의 영역에서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개념을 결합가(valency)와 동일한 성격의 문법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디다’의 문법화는 물론이고 술어에 결합하는 문법 범주 중에서 그동안 잘 설명되지 않았던 개념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문법 표지 ‘지다’의 문법화 및 의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피고,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를 서술한다. 또한 문법화에서 일어나는 의미 변화 연구로서 어휘부 모형과 문법 범주의 정의 및 재분석과 문법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글의 견해를 밝혀 둔다. 3장에서는 문법 표지 ‘디다’의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토대로서 술어가 사태를 부호화하는 전략을 살펴 〈결과〉, 〈기동〉, 〈반사동〉, 〈변성〉 범주를 그 부호화 전략의 일종으로 도입한다. 4장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본동사 ‘디다’가 문법화의 전조인 의미 확장을 겪은 흔적을 확인하고,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형태가 본동사와 문법 표지로 나뉨을 확인한다. 또한 16세기에 새로이 출현하는 형용사와 ‘디다’의 결합 용례 및 ‘-(으)러디다’ 류 술어의 용례를 살펴 이 ‘디다’ 형태가 〈변성〉 표지임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디다’ 문법화의 배경으로 구문 의미 평준화를 제안하고,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본동사 ‘디다’의 쓰임을 토대로 ‘디다’의 문법화 진입점을 추정하여 그로부터 이어지는 ‘디다’의 문법화 진행 경로를 분석한다. 6장에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서술한다.

제2장 기본 논의

2.1 한국어 ‘지다’ 문법화에 대한 기존 논의

한국어의 문법 표지 ‘지다’는 현대 및 후기 중세 한국어의 공시 문법 분석에서 문법적 지위, 의미, 그리고 기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여러 논의에서 문법 표지 ‘지다’의 문법적 지위를 접미사, 합성동사, 보조동사 등으로 규정해 왔으나, 이 글은 ‘지다’라는 개별 형태의 통시태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연구하므로 공시문법체계 상의 문법적 지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각 시기의 공시문법 연구에서 문법화 연구의 결과와 해당 시기의 문법 체계 전반을 고려하여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지다’ 논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2.1.1 문법 표지 ‘지다’의 기원

한국어 ‘지다’ 구문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현대 한국어의 ‘지다’ 동사가 ‘디다[落]’ 계통과 ‘지다[生]’, ‘지다[負]’, ‘지다[敗]’의 네 계통으로 나뉨을 밝힌 손세모돌(1995)를 경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지다’ 형태가 가리키는 ‘生’, ‘負’, ‘敗’, ‘滅’ 등의 의미가 ‘落’에서 확장된 다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落’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문법 표지 ‘지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되었다. 예를 들어 성광수(1976:161–162)에서는 ‘滅, 負, 敗’를 ‘落’의 의미에서 확대 또는 전변된 용례로 서술하였고, 이강로(1967)에서는 ‘지다’가 ‘落’과 ‘負’, 그리고 ‘되어 있는 존재의 상태’의 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마지막은 ‘生’에 대응한다. 배희임(1986:182–184)에서는 ‘落, 負, 敗’를 ‘下, 低’의 원시적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기동(1978:561)에서는 ‘지다’ 표지의 의미 중 하나가 ‘지다[敗]’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현대 한국어 ‘지다’를 ‘落, 生, 負, 敗’ 등의 다의어로 보고 ‘지다’ 표지와의 연관성을 찾는 시도는 본격적인 문법화 연구의 관점에서 ‘지다’를 다룬 Rhee(1997:179–189)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손세모돌(1995)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인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이용하여 ‘디다[落]’와 그 나머지의 ‘지다[負, 敗, 生]’를 구분하고 다시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 ‘지다[負]’, ‘지다[敗]’와 ‘지다[生]’를 구분한 아래, ‘지다’ 표지의 기원이 되는 ‘지다’ 동사의 후보는 ‘디다[落]’와 ‘지다[生]’로 압축되었다. 따라서 문법 표지 ‘지다’의 기원이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落]’ 동사에 있다는 허웅(1975:419)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고 그 의미적 연관을 밝히는 연구가 요청되었으나, 손세모돌(1992)에서도 이를 밝히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Rhee(1997:179–189)에서는 ‘디다’ 동사가 중력에 의한 이동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지다’ 표지의 의미와 ‘落’ 사이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의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민정(2005:16)에서 ‘디다’ 동사가 위치의 이동을 나타내며 이것이 추상화되면 현대 한국어 ‘지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논의되는 ‘변화’와 관련이 생긴다는 주장을 폐기는 하였으나, 그 추상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따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웅(1975)보다 더 나아갔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함희진(2008)에서 ‘디다[落]’가 아닌 ‘지다[生]’ 동사가 ‘지다’ 표지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일견 새로운 주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다’ 표지의 기원에 관한 오래된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落’에서 파생된 ‘生’ 및 ‘滅’의 의미가 ‘디다’ 동사에 있으며, ‘지다’의 의미는 ‘落’보다는 그 파생된 의미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직관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임홍빈(1978:358–359)은 성광수(1976)에 대해 ‘落’의 뜻은 문법 표지 ‘지다’의 논의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지다[生]’의 의미가 문법 표지 ‘지다’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해당 논의에서 ‘지다[生]’와 ‘디다[落]’ 사이에 의미 확장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임홍빈(1993:393–397)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지다’가 ‘지다[落]’와 ‘지다[生]’로 “분리된 상태”인 것으로 보았으므로 ‘落’과 ‘生’을 기원적으로는 하나의 동사에서 뺀어 나온 두 의미로 보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이후로도 반복하여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조오현(1983:1–7)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역사적 자료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현대 한국어 ‘지다’가 ‘落’과 ‘生’을

뜻할 수 있다는 양상을 근거로 삼아 문법 표지 ‘지다’의 기원은 ‘落’과 ‘生’을 뜻하는 ‘지다’ 동사라고 서술하였으며, 박희순(1992:137–138)에서는 조오현(1983)을 인용하여 ‘지다’ 동사가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동사에서 변천되어 왔다고 하면서 그 ‘지다’ 형태의 의미로 ‘떨어지다, 되다, 생기다’를 들었다. 우인혜(1997:179–186)은 이 주장이 가장 잘 정돈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다[生]’의 의미가 ‘디다[落]’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과정을 ‘그늘지다’, ‘방울지다’, ‘장마가 지다’, ‘그림자가 지다’, ‘얼룩이 지다’, ‘가뭄이 지다’ 등의 예를 이용하여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지다’의 문법적 의미가 ‘落’에서 파생된 ‘生’에서 기원한다고 보는 논의들은 대부분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진되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지다[生]’와 ‘디다[落]’가 서로 다른 어휘로 공존했으므로 의미 변천 관계로 묶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예를 들어 우인혜(1997)에서 ‘落’과 ‘生’의 접점 사례로 들고 있는 ‘그늘지다’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지다’ 형태로, ‘그림자가 지다’는 ‘디다’ 형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 자료를 고려하면 이 견해는 ‘지다[生]’ 기원설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디다[落]’를 배제하고 ‘지다[生]’가 ‘지다’ 표지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흔히 관찰되는 ‘스러디다’와 같은 용례에 포함된 ‘디다’ 형태가 문법 표지 ‘지다’의 선대형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 역구개음화가 활발히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문법 표지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디다’의 사례를 모두 문법화된 ‘지다[生]’가 사용된 예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함희진(2008)은 바로 이 반박을 수행한 논의로서,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고려하여 문법 표지 ‘지다’의 ‘지다[生]’ 기원설을 재정립한 것이다. 함희진(2008)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에 ‘滅’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 ‘스러디다’와 같은 용례를 본동사 ‘디다’가 결합한 합성동사로 분석함으로서 이 난점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그리고 16세기 말 한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치워디니(추워지니)”와 같은 사례를 문법화된 ‘지다[生]’의 용례로 분석하고 후기 중세 한국어에 역구개음화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디다’의 용례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른 동사에 ‘-아/어’ 어미를 매개로 직접 후행하는 ‘디다’ 용례 중에서 본동사 ‘디다’로 분석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희진(2008)에서 ‘디다’의 파생 의미로 든 ‘소멸’, ‘분리’ 등의 의미가 본동사 ‘디다’에서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 의미는 대상의 하향이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스러디다’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지다’라는 ‘지다[生]’의 의미가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상태 변화 의미와 유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문법화에서 본동사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다[生]’의 분포가 명사 혹은 어근에 직접 후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손세모돌(1995:1009)의 지적을 고려하면 ‘지다’ 표지의 기원을 ‘지다[生]’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어휘가 문법 요소로 변화하는 첫 단계는 출현 환경이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다[生]’가 언제, 어느 환경에서 ‘-아/어’ 어미를 매개로 동사에 후행하는 용법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 한, ‘지다[生]’ 기원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허웅(1975)로 돌아가 ‘디다[落]’ 기원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다[生]’와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디다[落]’ 동사와 ‘지다’ 표지의 관계를 직접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로는 박민정(2005)에서 ‘디다[落]’의 하향이동과 상태 변화가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유일하다. 이 글에서는 ‘디다[落]’의 하향이동을 지향이동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지향이동과 상태 변화의 관계를 이용해 ‘지다’ 표지와 ‘디다[落]’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지향이동 동사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가다’의 문법화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디다[落]’와 ‘지다’ 표지의 의미적 관련은 지향이동과 상태 변화의 의미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들의 의미적 유사성은 지향이동 사건이 곧 위치 변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기원이 ‘디다[落]’이고, 그 문법화 시점은 15세기 이전이며, 이들의 의미적 관련성은 위치 변화와 상태 변화가 모두 변화 사건의 하위 부류라는 점에 있음을 보일 것이다.

2.1.2 ‘지다’ 표지의 문법적 의미

현대 한국어 ‘지다’의 문법적 의미는 피동 범주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다’ 표지가 형용사 및 자동사에도 결합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상태 변화를 중심 의미로 놓고 타동사와 결합했을 때에 피동적 해석을 부가적으로 도출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타동사와 결합했을 때에 목적어가 주어로 상승한다는 특성을 중시하여 선행하는 어휘에 따라 피동과 상태 변화를 각각 인정하는 견해이다.¹ ‘디다[落]’가 문법화한 결과물을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로 보는 이상, 그 문법적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한국어 역사 자료에 나타나는 ‘디다’ 표지의 의미 분석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중심 의미를 상태 변화로 분석하는 이정택(2001:121)이나 박민정(2005:32–40)은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 또한 상태 변화 의미를 나타낸다고 단언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반면에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기능을 선행하는 어휘에 따라 피동과 상태 변화로 나누는 손세모돌(1992:88–90)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도 문법 표지 ‘디다’가 동사에 결합하면 피동을, 형용사에 결합하면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고 서술하였다. Rhee(1997:179–189)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주장을 표하는 단계조차 없이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의미별로 역사적 용례와 현대의 용례를 섞어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만약 ‘지다’ 표지가 피동 범주를 나타내느냐 하는 쟁점을 제외하면, 문법 표지 ‘지다’가 ‘어떠한 상태로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데에 대부분의 인식이 일치한다. 이는 ‘지다’ 표지 분석에서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다.² 이는 형용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유형에

1) 이 상태 변화 의미를 기동(inchoative)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가 형용사 또는 자동사에 결합하는 분포 및 그 의미를 설명하는 문법적 개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며, 이 절에서는 상태 변화 의미설과 같은 주장으로 묶어서 다룬다.

2) 상태 변화의 의미 외에 가능한 의미가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이는 70~80년대에는 ‘지다’의 의미 중 하나로 항상 거론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정택(2004:123)은 자동사에 결합하는 ‘지다’ 표지가 어색하다고 하면서 구어 일부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비아냥거려지더라”와 같은

대한 분석이기는 하나, 동사에 결합하는 사례도 똑같이 해석하는 논의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분석 사례를 보자. 이강로(1967:15–16)은 ‘지다’ 계통의 어휘와 ‘디다’ 계통의 어휘를 구분하지 않고 다뤘다는 한계가 있으나, 제시한 사례를 통해서 추정하면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를 “되어 있는 존재의 상태”로서 “어떠한 동작이나 변동의 결과 현존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나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임홍빈(1978:352–360)에서는 피동 변형과 구분되는 “정태화(stativization)”를 제안하고 ‘지다’ 표지를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정태화를 일으키는 술어로 분석하였다. 서승현(1996:274)는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를 피동으로 분석하는 견해를 부정하고 ‘지다’ 표지가 기여하는 고유한 의미 특성을 다른 구문과의 공기 관계를 통해 기술하였는데, 해당 논의에서 지적한 과정성(Processive), 지속성(Durative), 기동성(Inchoative), 완결성(Completive)의 의미 특성 조합은 ‘지다’ 표지가 상태 변화 사건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³ 후기 중세 한국어 ‘지다’ 표지의 분석 사례로는 허웅(1975:419)에서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에 후행하는 ‘디다’ 형태가 “(절로) 어떤 경지에 도달함”의 뜻을 나타낸다고 분석한 것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고영근(1987:214–218, 248)은 후기 중세의 ‘디다’ 형태를 피동 표지로 분석하되 문법상의 하위 부류인 완료상 항목에서도 ‘디다’ 표지를 언급하고 “한 상태가 끝나고 다른 상태가 시작됨을 표시하고자 할 때 쓰인다”고 기술하였다.

문장이 쓰이기는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현배(1937:392)에서는 “이 길로 가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 진다.”와 같은 예문을 보조동사 ‘지다’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가능 의미로 쓰인 ‘지다’ 표지 용례를 역사 자료에서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지다’ 표지의 가능 의미가 발달하는 과정은 다른 연구로 미룬다.

3) 서승현(1996)에서 ‘과정성’으로 서술된 특성은 《영어학 사전》의 정의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서승현 1996:265, 각주22), 사전의 서지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뒤에서 논의하는 Croft(1991)의 “process”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 있다’와의 결합을 기준으로 동작성과 과정성을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들어지다’, ‘차려지다’ 등 명백한 피동으로 해석되어 온 타동사 결합 사례들은 태의 관점에서 피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어휘가 가리키는 사건의 관점에서는 행위주의 영향력에 의해 대상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지다’ 표지를 피동으로 해석하는 가장 큰 근거는 ‘지다’ 표지가 타동사와 결합했을 때에 대상 논항이 주어로 실현되고 행위주가 주어의 지위를 잃는 통사적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정언학(2006:24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홍빈(1978)에서 정태화를 제안했듯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통사적으로 그러한 변형을 가져오는 다른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면, ‘지다’ 표지의 의미에 피동을 더할 이유는 사라진다.

선행 어휘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되는 의미 특성은 곧 ‘지다’ 표지 문법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태의 변화야말로 ‘지다’ 표지 문법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어떤 문법 범주인가 하는 탐색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한국어학의 ‘지다’ 표지 초기 논의에서 상태 변화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로의 변화’로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웅(1975)은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의 의미를 서술할 때에 ‘절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동사에 결합한 사례를 나열하여 마치 반사동 범주를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웅(1983)에서 “날씨가 추워진다”를 “절로 됨”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아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없이 결합하여 어떠한 종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한국어 독자적 범주 개념을 최현배(1937)에서 이어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정택(1994)에서는 형용사에 결합한 ‘지다’ 표지의 의미를 상태 변화로 분석하면서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 변화’는 이강로(1967)의 “동작이나 변동의 결과”, 이상 억(1970)의 “한 조건(환경)에서 다른 조건으로 이행”이나 허웅(1975)에서 고형인 ‘디-’의 의미로 파악한 “(절로) 어떤 경지에 도달함” 그리고 성광수(1976)의 “결과적인 상태”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이정택 1994:553, 각주 10)

즉, 한국어학의 논의에서 상태 변화는 일종의 원개념처럼 다뤄졌으며, 정의가 주어지기보다는 예시로서 설명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없는 현대 이전의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지다’ 표지의 문법화를 연구할 때에는 한국어를 인간 언어의 한 사례로 보고 다른 언어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언어와 비교할 수 있는 문법 범주를 이용하여 ‘지다’ 표지가 표현하는 문법적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타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범언어적 문법 범주에서 ‘지다’ 표지에 대응하는 개념을 찾으려는 시도는 Lee(1973:168–178)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논의에서는 형용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것이 한국어의 대표적인 상태 변화 구문이라고 하여 ‘지다’ 표지를 상태 변화 사건이 시작됨을 나타내는 기동 표지(inchoative)로 분석하였다.⁴ 단 이 논의에서의 기동은 문법상(grammatical aspect)의 하위부류가 아니라 어휘 의미의 하위부류로서, 역시 어휘 의미의 하위 부류인 사동과 대립한다. 따라서 문법적 지위로 말한다면 ‘지다’ 표지를 동사 어근의 의미를 수정하는 어휘파생요소로 분석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김윤신(2005) 등으로 이어져 ‘커지다’, ‘높아지다’, ‘깨지다’ 등을 모두 파생된 기동 동사로 보고 선행 어근의 사건 구조에 따라 파생된 기동 동사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와 달리 ‘지다’ 표지를 상 범주로 분석하는 견해 있다. 고영근(1987:248–249)에서는 이 문법적 의미를 문법상의 하위 개념인 완료상으로 명명하고 상태 변화 사건이 종료되어 새로운 상태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 완료상으로 분석되는 범주들은 대개 통사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완료상과 의미적으로 비슷하되 통사적 변형을 일으키는 다른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인혜(1997)은 ‘지다’ 표지의 문법 범주를 고영근(1987)과 반대로 상태 변화 사건이 시작

4) 성광수(1976:173–175)에서 ‘지다’ 표지를 ‘기동적 피동’으로 분석하면서 도입한 ‘기동’은 “inceptive, inchoative”로 옮겨지고 “동사의 동작이 과정의 시초에 있음”을 이른다는 점에서 Lee(1973)에서 서술하는 ‘기동’과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철수는 극장에 (자주) 가(아) 진다’와 같은 가능한 용법이므로 동일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됨을 의미하는 기동상으로 분석하지만, 이 논의에서 정의하는 기동상은 상(aspect)의 하위 부류임과 동시에 어휘 의미의 하위 부류이다. 우인혜(1997:190–192)에서는 이를 “기동상의 양면 기능”으로 표현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지다’ 표지를 분석할 때에 상 표지로서의 용법과 기동 동사 파생 표지로서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고 양면적 특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다른 언어의 분석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범언어적 문법 범주로서 문법상은 어휘 의미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 논의에서 제안한 기동상이 문법상의 하위 범주라면 어휘 의미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관여하지 않는 범주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어휘 의미의 특성으로 연구되는 어휘상의 하위 범주로서 제안을 한 것이라면, 어휘파생요소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인혜(1997)에서는 기동상이 속하는 상위 문법 범주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지 않아서, ‘지다’ 표지를 범언어적 문법 범주와 연관시키는 논의로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이상의 논의들은 공시 문법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지다’ 표지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에 도입하는 범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표는 ‘지다’ 표지와 관련된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가 현대 한국어의 문법 표지 ‘지다’ 표지가 되기까지 해당 어휘에 일어난 의미의 변천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지다’ 표지가 지니는 의미를 최대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의미를 최대한 세분하여 살핀 연구로는 남수경(2011b)를 들 수 있다. 이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범언어적 문법 범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다’ 표지의 의미를 분석한 논의이다. 이 논의에서는 ‘지다’ 표지가 동사에 결합했을 때에 피동, 반사동, 가능, 무의도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하고 형용사에 결합했을 때에는 ‘상태 변화(fientive)’ 범주를 나타낸다고 제안하였다.

이 ‘상태 변화(fientive)’는 종래 한국어학에서 제시된 개념을 이은 것이 아니라 Haspelmath(1987)에서 이어온 것으로서, 형용사에 결합하여 형용사가 가리키는 상태로의 변화 사건을 가리키는 술어를 형성하는 문법 범주이다. Lee(1973)에서 형용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뿐만 아니라 동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도 기동 동사 파생으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 형용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만을 상태 변화 범주의 실현으로 기술한다는 차이가 있다. 남수경(2011b)에서는 ‘상태 변화 사건의 시작’을 가리키는 문법상의 하위 범주 “ingressive, inceptive”와 구분되는 상태 변화(fientive) 범주의 개념을 종래의 기동상(inchoative) 논의에서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상태 변화 사건의 전체 과정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남수경(2011b)은 ‘지다’ 표지가 상태 변화 사건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점에서 ‘지다’ 표지의 의미 특성으로 [+기동성]과 [+완결성]을 동시에 든 서승현(1996)과 통하는 점이 있다. 이는 상태 변화 사건의 종결적 측면을 강조한 고영근(1987)과 다르고, 시작 측면을 강조한 Lee(1973) 및 우인혜(1997)과도 다르다. 또한 이 상태 변화 범주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과제로 남기고 있어서(남수경 2011b:189, 각주12), 그 상위범주를 파생법이나 문법상 중에서 고르지 않고 제3의 가능성 또한 고려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논의와 차이가 있다.

남수경(2011b)의 ‘지다’ 표지 의미 분석은 ‘지다’ 표지 문법화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논의에서 이용한 Haspelmath(1987)은 반사동 범주에 대한 연구로서, 반사동에 “endoreflexive”, “fientive”, “inceptive”, “indefinite object deletion”, “resultative”, “passive”가 직접 인접해 있는 의미 지도(semantic map)를 제시하면서 어느 한 표지가 문법화를 통해 다른 표지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수경(2011b)에서 분석한 ‘지다’ 표지의 기능 영역도 이 의미 지도 위에 존재한다. 이는 ‘디다’의 문법화 1단계에서 생겨난 기능이 이를 중에 있다면 인접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본동사 ‘디다’가 문법화를 거쳐 처음으로 얻은 의미로 주목하는 범주는 “resultative”이다. Haspelmath(1987)에서 제시된 “resultative”는 Nedjalkov(1988)에서 제시된 범주로서, 박진호(2003)에서 ‘-어 있다’를 분석하면서 ‘결과상’으로 번역하여 도입한 예가 있다. 이 범주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로 변형하므로 임홍빈(1978)에서 제안한 정태화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resultative” 범주의

의미와 분포 특성은 Nedjalkov(1988)에서 잘 기술되었지만, 아쉽게도 그 상위 범주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 범주에 대한 논의가 없기는 “fientive”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resultative”를 <결과>로, “fientive”를 <변성>으로 옮기고 이들이 사동 및 반사동과 함께 하나의 큰 문법 대범주를 형성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 대범주가 담당하는 기능 영역은 종래 형용사에서 동사를 파생하는 조어법과 자·타 양용동사 논의 및 결합가와 문법상 등의 영역에서 따로따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를 한데 모아서 살펴보면, 술어가 부호화하는 사태의 유형 변환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문법 표지는 결합하는 술어가 의미 유형에 의해 제약되므로 태(voice)나 문법상(grammatical aspect) 표지보다 분포가 제한된다. 이 범주가 기능하는 영역은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문법 표지 ‘지다’의 의미가 <결과>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에 선행하는 동사들의 의미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종래 ‘지다’ 표지가 분포하는 환경이 자동사와 타동사 등의 품사를 이용하여 기술된 결과,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환경의 의미 특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다’ 표지가 출현하는 환경의 의미 특성 이야기로 ‘지다’ 표지의 의미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지다’ 표지가 실현된 술어의 의미 특성뿐만 아니라 그에 결합한 선행 어휘의 의미 특성을 세심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다’ 표지에 결합하는 선행 어휘의 의미 특성에 주목한 논의로 김경순(1987)과 이정택(1994)를 들 수 있다. 김경순(1987)은 선행 어휘의 의미 자질을 [\pm 진행성], [\pm 반복성], [\pm 결과성], [\pm 상태성]의 조합으로 나누어 각각의 조합에 ‘지다’ 표지가 결합했을 때에 가능, 피동, 상태 변화 중 어떠한 문법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분류하려고 시도한 연구로서, 선행 어휘의 의미 특성에 따라 ‘지다’ 표지를 분류하려는 첫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동일한 의미 자질 조합에 피동과 가능, 피동과 가능과 상태 변화, 가능과 상태 변화 등으로 복수의 문법적 의미가 대응하고 있어 성공적인 분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정택(1994:553–564)는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의미가 피동이 아니라 상태 변화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 어휘의 의미 특성에 따른 결합 제약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타동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은 상태 변화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며 주어 자체가 변화를 겪는 대내적 변화, 주어와 환경의 관계가 변화를 겪는 대외적 변화, 주어의 생성과 소멸 등 존재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범언어적으로 <결과> 표지가 결합하는 동사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글은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가 동사에 결합하는 <결과> 표지 ‘디다’로 발달하였고, 이는 다시 형용사 및 의태어 어근에 결합하는 <변성> 표지로 발달하였다고 본다. 말하자면 ‘지다’ 표지의 상태 변화 설에서 상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의미는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에도 남아 있으나, 그동안 이 의미를 피동 범주를 이용해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결과>로 변형된 타동사로 구성된 문장은 행위주를 생략하고 사용된 피동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피동 범주로 분석되기 쉽다. 반면에 <결과>로 변형된 자동사로 구성된 문장은 자동사의 피동 태라는 개념이 피동 범주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므로 피동으로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자동사에 결합한 ‘지다’ 표지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으면 ‘지다’ 표지의 의미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15세기 자료에서부터 ‘녹다’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노가디다’, ‘늙다’에 결합한 ‘늘거디다’, ‘죽다’에 결합한 ‘주거디다’ 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자동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양상은 남수경(2011a)에서 ‘낡아지다’, ‘늙어지다’ 등의 사례를 들었듯이 현대 한국어에서도 확인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자동사에 결합한 ‘지다’ 표지는 대개 ‘가지다’의 예를 들어 가능한 의미로 분석되지만, 남수경(2011a:251)에서 제시한 ‘늙어지다’, ‘낡아지다’ 등의 ‘지다’ 표지는 가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다’, ‘늙다’, ‘낡다’는 모두 자동사이지만 논항의 의미역이 다르므로 의미 특성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결과> 범주가 결합하는 술어는 통사적 성질이 아니라 의미 유형으로 구분되므로, ‘지다’ 표지를 <결과> 표지로 분석하면 품사와 관계없이 동사에 결합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지다’ 표지의 의미를 <결과> 및 <변성>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이들

범주가 속하는 대범주를 도입하고 이를 이용해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4장에서는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디다’ 표지에 결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술어를 의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의 분포가 <결과> 표지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점을 보이기로 한다.

2.2 문법화 연구를 위한 어휘부 모형

우리는 언어를 이용하여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태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다. 이렇게 특정한 사태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사태의 부호화(encoding)라고 부르기로 하자. 예를 들어, 대상의 물성이 파괴되거나 변형되기 어렵게 변화하는 사태는 한국어에서 ‘굳다_V’, ‘굳다_A’, ‘굳히다’, ‘굳어지다’, ‘굳게 하다’, ‘굳어 있다’ 등으로 부호화된다. 이들은 어근 ‘굳-’을 중심으로 대상의 물성이 특정한 속성으로 변화하는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사태를 서술한다.

어휘부와 통사부를 엄격히 구분하는 정적인 어휘부 모형에서는 동형의 어휘인 ‘굳다_V’, ‘굳다_A’와 파생어인 ‘굳히다’를 어휘부에 두고, ‘굳게 하다’, ‘굳어 있다’ 등의 술어는 어휘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 있는 ‘굳다’, ‘하다’, ‘있다’ 등의 형태가 통사 층위에서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모형에서 ‘굳어지다’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공시 문법에서 해당 술어의 형태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어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굳다’와 ‘지다’가 통사부에서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굳어지다’가 어휘부나 통사부 중 어느 하나의 층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정적 언어 모형은 분석 대상의 의미와 특성이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법화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적인 어휘부 모형을 도입하기가 곤란한다. 정적 어휘부 모형은 언어 형태들 간의 관계를 살펴 해당 형태의 의미와 특성을 고정한다. 그러나 문법화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바꿔 말하면, 문법화 연구는 어휘부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어휘부 구성 요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따라서 문법화 연구에서 가정하는 어휘부 모형 또한 그러한 변화를 허용하는 모형이어야 한다.

문법화 연구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려면 역사언어학 내에 존재하는 공시태 연구와 통시태 연구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 언어학은 소쉬르가 언어를 연구하는 관점을 공시와 통시로 구분하여 제안한 이래로(소쉬르 2012:161–165), 역사적 변화와 관계없이 한 시기에 존재하는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 공시태 연구와 언어 변화를 분석하는 통시태 연구로 나뉜다. 이 공시태와 통시태 구분에 따르면 15세기 한국어 문법 체계를 연구하는 것과 21세기 한국어 문법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모두 공시태 연구이다. 반면 한국어의 특정한 언어 요소에서 진행되어 온 변화의 양상을 포착하고 앞으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어를 대상으로 삼더라도 통시태 연구이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가 수행되는 양상을 보면, 특정한 과거 시점의 문법 체계를 연구하는 공시적 문법 연구와, 언어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루는 통시적 문법 연구가 하나의 분야를 이루어 같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곤 한다. 소쉬르는 이 섞임을 경계하여 역사언어학 대신에 통시언어학을 제안하였지만,⁵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시와 통시의 관점 구분만 받아들인 채로, 과거의 공시태 및 통시태는 역사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현재의 공시태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나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언어학 연구를 수행할 때에 연구자는 자신이 통시태를 다루는지 과거의 공시태를 다루는지 끊임없이 의식할 필요가 있다. 통시태 연구는 문법 체계가 아니라 문법 체계를 이루는 요소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룬다(소쉬르 2012:174-177). 이를 바꿔 말하면 통시태 연구는 어휘부 구성 요소에 일어나는 형태, 의미, 기능의 변화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시태 연구의 대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가변적인 것으로

5) “예컨대 역사와 ‘역사언어학’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불러일으키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사가 사건의 서술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한 기술도 포함하는 것처럼,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계기 상태를 기술하면서 동시에 시간축에 따라 언어를 연구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시키는 현상을 별도로 고찰해야만 합니다.”(소쉬르 2012:165, 밑줄은 필자)

다루면서 그 변화의 요인도 포함하는 동적인 어휘부 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Bybee(2007b)의 발생적 어휘부(emergent lexicon)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발생적 어휘부 모형은 화자가 경험한 언어 자극의 총체가 어휘부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 모형에서 언어 현상을 해석해 보면, 공시태 분석에서 기술되는 정적 어휘부의 구성 요소 목록은 화자들이 지닌 발생적 어휘부의 단면을 추상화하여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적 어휘부 모형에서 상정하는 어휘부는 단어, 구, 문장, 특정한 대화 패턴까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언어 형태가 여기저기 중복되는 비효율적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이 어휘부는 화자가 언어 자극을 경험할 때마다 갱신되며, 형태소의 표상은 어휘부에 수록된 언어 형태들 간의 일부 중복 관계를 토대로 생겨난다.

이렇듯 발생적 어휘부 모형은 언어 사용 경험이 어휘부를 실시간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빈도 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즉, 특정한 언어 형태가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그 사용된 경험의 양만큼 해당 형태가 어휘부에서 지니는 표상도 강해진다. 특정한 언어 형태가 사용되는 맥락이 두 종류로 나뉘어 반복된다면, 해당 형태의 표상 또한 각 맥락의 정보를 반영하여 둘로 갈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특정한 언어 형태가 반복 사용을 통해 기존의 의미에서 변형된 새로운 의미를 얻는 과정을 포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발생적 어휘부 모형을 채택하면, ‘디다’의 문법화는 ‘디다’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반복하여 사용됨으로써 이 맥락에 어울리는 ‘디다’의 해석이 새로운 ‘디다’ 표상을 구축하는 과정이 된다.

[주어 + 술어 + -아/어 + 디다]

이렇게 보았을 때, ‘디다’의 문법화를 이해하려면 ‘디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맥락을 구성하는 주어, 술어, 그리고 술어와 ‘디다’를 연결하는 ‘-아/어’ 어미의 의미 특성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의미 특성과 ‘디다’의 의미 특성이 만나 ‘디다’의 새로운 해석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어’ 어미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만큼

의미 특성을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있다’, ‘가다’, ‘오다’ 등 ‘-아/어’를 매개로 하는 다른 문법 표지들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 요소에서 ‘-아/어’ 어미를 제외한 주어, 술어, ‘디다’의 의미 특성을 단서로 삼아 ‘디다’의 문법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듯 발생적 어휘부는 문법화 현상을 포착하기에 적절한 모형이지만, 그러한 장점에 따르는 단점도 있다. 제안자인 Bybee 본인도 서술하였듯이, 이 모형은 어휘 지식과 문법 지식을 다른 층위로 나누지 않으며 언어 지식이 잉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시태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어휘부-통사부의 구분 및 정적 어휘부 모형과 대척점을 이룬다. 따라서 공시태 분석에 익숙한 연구자에게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적 어휘부 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정적 어휘부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부분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이 두 모형이 포착하고자 하는 어휘부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발생적 어휘부 모형은 언어 지식이 절차 지식(procedural knowledge)에 속한다고 본다(Bybee 2007b:279).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는 언어 처리 과정을 별도의 층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적 어휘부 모형을 채택하는 연구는 대개 어휘부 층위와 통사 층위, 그리고 언어 처리 층위를 따로 나눈다. 언어 처리 층위를 따로 나누는 모형에서 발생적 어휘부 모형이 포착하고자 하는 현상은 언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발생적 어휘부 모형은 언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지식을 포착하는 모형이 된다.

언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지식이라는 표현이 낯설지만,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가정함으로써 정적 어휘부 모형을 유지하면서 언어 사용이 언어 지식의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언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지식에 주목하는 예로, Bergen and Chang(2013)의 체화된 구문 문법(Embodied Construction Grammar)을 들 수 있다.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 이론들을 택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형태소와 단어의 경계를 넘는 구문(construction)을 어휘부의 구성 요소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어휘부 구성 요소를 형태소와 단어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단위는 통사부에서 결합되고 의미 합성에

의해 해석된다고 보는 연구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체화된 구문 문법은 구문을 어휘부가 아니라 언어 처리 과정에 존재하는 단위로 본다는 점에서 이 경쟁 구도에서 독립되어 있다.

체화된 구문 문법은 언어 사용자가 지닌 상황에 대한 모형(embodied simulation)과 언어 표현을 연결하는 단계, 즉 언어 처리 과정에서 언어 표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다룬다. 이 문법에서는 사용된 언어 요소의 단위로 구문을 가정하기는 하지만, 다음의 설명에서 보듯이 그 언어 요소가 반드시 구문일 필요는 없다.

Consistent with a constructional view, ECG treats all linguistic unit, including lexical items [...], as well as larger phrasal constructions and other traditional grammatical notions, as variants of the same kind of things – mapping between form and meaning.(Bergen and Chang 2013:178)

위 인용문의 핵심은 체화된 구문 문법이 언어 요소들을 더 구분하지 않고 형태-의미 짹이기만 하면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구문 문법의 관점은 따른다면 구문을 구성하는 더 작은 구문들(전통적인 용어로는 단어와 형태소, 통사 구조 등)은 상속 관계(inheritance networks)로 연결되어 해석되겠지만, 전통적인 통사 구조 생성 및 의미 합성의 결과로 해석되더라도 위의 접근 방법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

구문을 언어 처리 단계에 존재하는 실체로 보는 것은 언어 변화를 기술할 때에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개입하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거의 대부분의 문법 이론에서 배경 지식을 언어 지식과 분리하여 다룬다. 그러나 언어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배경 지식은 어휘부를 구성하는 언어 요소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본동사 ‘디다’의 기본 의미는 하향이동이다. 그러나 하향이동을 겪는 대상이 액체일 때에는 ‘불어나다, 고이다’로, 대상이 생물일 때에는 ‘넘어지다’로 확장되는 등으로 ‘디다’가 하향이동에 부수되는 사건을 가리키도록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확장이 일어나려면 언어가 사용되는 전 과정의 어딘가에 배경 지식이

언어 지식에 간섭하는 층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 지식에 대한 모형은 표상된 지식 층위뿐만 아니라 언어 처리 층위에서도 상정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이 글이 채택하는 어휘부 모형에 대한 가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화자의 언어 지식이 형성되는 구조가 발생적 어휘부 모형에서 상정하는 구조와 같다고 가정한다. 또한 정적 어휘부 모형에 의해 포착되는 어휘부 구성 요소의 특성은 변화 중인 발생적 어휘부의 단면을 추상화함으로써 포착된 임시적 양태라고 가정한다. 또한 발생적 어휘부 모형이 포착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은 언어 처리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가변적인 어휘부 지식의 일부가 안정된 정적 어휘부 지식으로서 언어 사용자의 마음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

2.3 문법화 연구를 위한 문법 분석

이 글은 현대 이전의 한국어 자료에서 ‘디다’ 형태가 지녔던 문법적 의미를 다룬다. 그런데 어휘적 의미는 맥락에 의해 그나마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하지만, 문법적 의미는 추정하는 과정에서 분석자의 가설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현대 언어의 문법을 분석할 때에 모어 화자의 진술을 믿는 대신에 화자의 직관을 조사하는 설문과 실험 등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어 화자가 없는 역사 자료를 대상으로 어떻게 문법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의 인지 구조의 보편성을 가정함으로써 넘어설 수 있다. 문법 층위의 언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조건을 생각해 보자.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청자의 머릿속에서 처리되어 정보로 변환된다. 이 과정에서 청자는 선형으로 발화된 언어 표현을 접할 뿐이고 청자가 의도한 문법 구조는 접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언어 정보를 처리할 때 사람들은 언어 표현에 스스로 문법 구조를 부여하며, 청자와 화자가 각각 부여하는 문법 구조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용자에 따라 다른 문법 구조에 대응하는 일은 일상적인 언어 수행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사람의 인지가 비슷한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자들이 비슷한 인지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서로 다른 문법 구조를 부여하더라도 그 다음의 폭이 제한된다. 이는 언어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다. 언어 처리에 특화된 구조가 보편적 인지 구조 안에 있으리라는 가정이나, 범언어적으로 적용 가능한 문법 범주가 있으리라는 가정이 모두 이 점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언어 형태가 지녔던 문법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의 화자들이 이용하는 문법적 의미를 분석하여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화자들이 지녔던 문법적 직관을 실험할 수는 없지만, 그 때의 언어 사용자가 부여했을 법한 문법 구조를 공시적 문법 분석의 성과를 이용해 제안할 수 있다. 그것이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반례가 주어지기 전까지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ccc} A & \xrightarrow{f} & B \\ \downarrow g & & \downarrow h \\ A' & \xleftarrow{f^{-1}} & C \end{array}$$

과거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언어 표현 A 와 그것이 문법화한 후대형 A' 가 있다고 하자. 우리는 A 와 A' 의 의미가 각각 무엇이며, A 가 지난 의미의 무엇이 변화하여(g) A' 가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 알고자 한다. 우리는 자료 해석을 통하여 A 와 A' 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의미 특성을 세세하게 나누어 살필 수는 없다. 그러나 문법화에서 일어난 의미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A 와 A' 의 의미 특성을 더 쪼개어 비교하고 싶다. 이를 위해, A 및 A' 와 문법적으로 같은 특성을 지닌(f) 현대의 언어 요소를 설명하는 문법 개념 B 와 C 를 각각 찾는다. 이때에 A 와 B 및 A' 와 C 의 동일성은 구조주의적 문법 분석에 근거한다.⁶⁾ 공시적 문법 분석에서 제안된 B 와 C 의

6) 여기에는 서로 다른 언어 형식의 문법적 특성이 동일하면 그 형식에 부여되는 문법적 구조도 동일하다는

의미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언어 변화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h*), 그것을 *A*가 *A'*로 문법화하면서 발생한 의미 변화의 내용으로 간주한다($g = f^{-1} \circ h \circ f$).⁷⁾

이와 같이 이 글은 언어유형론에서 복수의 언어를 분석할 때에 사용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현대 이전의 언어 자료를 분석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언어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과도 다르고, 개별 언어의 문법 체계를 기술하는 연구와도 다르다. 어떤 언어 형태의 의미는 해당 언어 내에서 해당 형태가 다른 형태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피동 표지 ‘-이-’와 현대 일본어의 피동 표지 ‘-(a)re’는 각 언어의 문법 분석에서 모두 피동 표지로 분류되지만 그 의미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여러 언어의 피동 표지가 공유하는 의미 특성을 추출하여 범언어적 피동 범주를 탐색할 수도 있고, 각 언어의 피동 범주의 특성을 따로따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연구는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범언어적 피동 범주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는 이론적 부담이 있고, 후자의 연구는 서로 다른 언어의 피동 표지들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있다.

언어유형론의 문법 분석 방식 중에 비교를 위한 도구적 문법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해 가는 논의가 있다(Haspelmath 2010). 다시 피동의 예를 들어 보자. 주격(nominative) · 대격(accusative) 언어의 타동사는 문장을 이를 때에 무표적으로 행위 주(agent)를 주어로 하는 능동문을 이루며, 문장의 초점은 행위주에 있다. 대부분의 주격 ·

가정이 있다. 한국어 피동 연구에서 ‘-이-’, ‘-을-’, ‘-리-’, ‘-기-’의 형태가 다르고 각각 결합하는 어휘의 종류도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로 분석되는 것을 떠올리면 이 가정이 언어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됨을 알 수 있다.

7) 이 도식은 수학의 가환그림(commutative diagram)을 이용한 것이다. 이 도식이 바탕을 두고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A*가 *C*로 대응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함수 $f(A) = B$ 이고 함수 $g(B) = C$ 라는 정보는 알고 있다면, 함수의 합성을 이용하여 *A*가 *C*로 대응되는 관계를 $g(f(A)) = C$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간단히 나타내면 $h = g \circ f$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한 가정을 해당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작성은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대격 언어에서, 이 능동문의 타동사를 교체하지 않고 형태·통사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대상이 주어가 되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행위주 대신에 대상(patient/theme)에 초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각 언어별로 이러한 변형을 수행하는 표지는 접사일 수도 있고 보조 동사일 수도 있으며, 행위주를 부가적으로 실현시킬 수도 있고 아예 실현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언어를 동시에 설명하는 피동의 정의를 찾는 대신에, 초점 변경, 접사 결합, 행위주 부가 실현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피동 범주로 정의하고, 그러한 특성의 표지라면 각 개별 언어 문법에서 피동 표지로 분석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동 표지로 간주하여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구적 문법 범주란 연구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형태·통사·의미 특성을 조합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를 시작할 때 용어를 정의하는 관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Haspelmath(2010)에서 제안된 도구적 문법 범주의 특징은 보편·선험적 문법 범주를 부정한다는 데에 있다. 이 제안에서 문법 범주는 개별언어의 문법 체계를 분석한 결과물로서 해당 언어의 분석에 최적화된 것과, 연구자가 여러 언어의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나뉜다. 전자의 예로 권재일(1991)에서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분석하면서 문법 범주를 문법적인 관념을 표현하는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문법 범주의 실현 방식을 곡용 및 활용뿐만 아니라 구문과 어휘를 더하여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WALS)》에 제시된 문법 범주별 유형론 기술을 들 수 있다.⁸

도구적 문법 범주를 이용한 문법 분석은 특정 언어의 특정 형태가 지닌 의미 중 하나를 기술할 뿐, 해당 형태의 의미를 그 범주로 한정하지 않는다. 표지가 지닌 다른 의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도구적 문법 범주를 이용한 문법 분석에서는 특정 언어의 특정 형태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대신에 특정 형태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문법화가 진전되어 문법 표지에 새로운 문법적 의미가 생겨나는 현상을

8) <https://wals.info>

다를 때에는 해당 표지의 의미를 어느 한 범주로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도구적 문법 범주를 이용하면 해당 표지가 지니는 여러 의미를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렇게 도구적 문법 범주를 이용한 언어유형론적 문법 분석은 개별 언어 분석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문법 표지 ‘디다’의 분석이 지금까지 제안된 후기 중세 및 근대 한국어의 공식 문법 체계를 수정하는 제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 전개하는 <결과> 표지 ‘디다’ 논의는 이것이 파생 접사인지 보조 동사인지, 이 기능을 한국어 피동 범주의 일부로 분류해야 할지 새로운 범주를 도입해야 할지 등의 논의와 독립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종래 논의되던 문법 범주들 중에서 결합가(valency)를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유형을 변환하는 문법 범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결합가는 사동(causative)과 반사동(anticausative)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 대범주로서,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증감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의 내용이 변형되는 방식은 개체의 증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동사 ‘굳다⁰⁰¹’과 형용사 ‘굳다⁰⁰⁷’을 비교해 보자.⁹⁾ 두 술어가 서술하는 사태의 고유한 내용은 같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론에서 두 술어를 동사와 형용사로 분리하는 까닭은 동사는 변화가 있는 사태를 나타내고 형용사는 변화가 없는 사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변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태의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사태의 구성요소로 개체, 변화, 시간선을 도입하고, 이들의 조합에 따라 사태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켜 새로운 술어를 만드는 변형은 종래 단어 파생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형태론적 특성을 제외하고 술어의 의미 변화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동사 파생이나 형용사 파생뿐만 아니라 보조 동사를 이용한 구문 형성이나 양용 동사의 사동·기동 교체 등을 모두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 구성 요소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포착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를 변형하여 새로

9) ‘굳다⁰⁰¹’과 같은 오른쪽 어깨번호는 《우리말샘》에서 부여된 번호를 나타낸다.

운 술어를 형성하는 사태 부호화 전략을 문법 범주로 정의하여 이러한 현상들을 포착할 것이다.

이 글에서 위와 같은 문법 범주를 설정하는 까닭은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 과정에서 ‘디다’가 지녔던 의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2.1.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문법 표지 ‘디다’ 및 그 후대형 ‘지다’의 중심 의미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여러 주장이 대립해 왔다. 그러나 문법화 연구의 관점에서는 ‘디다’의 중심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보다 해당 분석들이 포착하고자 하는 의미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동과 반사동에 더하여 사태 구성 요소를 변형하는 문법 범주로 <결과>(resultative) 및 <변성>(fientive)을 제안하고, 이들이 한국어 ‘디다’ 및 그 후대형 ‘지다’의 분포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이들 범주가 어떻게 ‘디다’의 문법화 경로를 구성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결합가 및 그 하위 범주의 정의를 제외하면, 이 글에서 사용하는 문법 범주의 정의는 널리 사용되는 문법 범주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문법 범주의 정의가 널리 통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범언어적으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의미 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다만 결합가 및 그 하위 범주들은 이 글에서 정의를 좁혀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논의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개념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혼동을 막기 위해, 이 글에서 따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문법 범주는 훌화살괄호 ‘<>’로 감싸 표기하겠다.

2.4 문법화와 재분석의 구분

앞에서 언어 변화의 조건으로 하나의 언어 발화에 화자가 부여한 문법 구조와 청자가 부여한 문법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언어 사용자는 한 언어 요소에 한 문법 구조를 부여하지만, 분석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언어 요소에 두 문법 구조가 대응하

는 셈이다.¹⁰⁾ 이처럼 분석자의 관점에서 한 언어 요소에 대응하는 두 가지 문법 구조를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리고 한쪽이 해당 언어의 언어사에서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다가 이후에 관찰되는 구조일 때, 이를 재분석이 관여한 현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재분석의 정의가 연구자가 전제하는 문법관의 종류만큼 다양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변화의 유형인가, 변화의 기제인가, 아니면 변화 그 자체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인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단절적 변화인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적 변화인가? 세대간에 일어나는 현상인가, 한 사용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문법 체계에 일어난 변화인가, 언어 요소에 일어난 변화인가? 재분석은 문법화의 일부인가, 문법화와 별개의 현상인가, 혹은 문법화를 포괄하는 개념인가?

이 글에서는 재분석을 화자 내에서 특정 언어 요소에 부여하는 새로운 문법적 구조가 생겨나는 점진적인 변화로서 변화의 한 유형으로 다룬다. 김미경(2015)에서도 다루었지만, 재분석을 특정 이론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버리면 해당 논의가 그 이론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글은 문법화 연구 일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되도록 이론 중립적으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분석을 ‘특정한 언어 요소에 부여되는 새로운 문법 구조가 생겨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그 기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¹¹⁾

이렇게 볼 때 모든 문법화는 재분석을 수반한다. 문법화는 어휘가 특정한 환경에 고정되는 변화부터 어휘의 음운형태적 변화까지 모든 측면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재분석은 문법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문법화의 결과로 특정한 언어 요소에 부여되는 새로운 문법 구조가 언어 사용자의 문법 체계를 바꾸는지, 아니면 기존의 문법 체계에 존재하는 구조(시니피에)는 유지된 채로 구조에 대응하는 형식(시니피앙)만 늘어나는 것

10) 편의상 화자와 청자로 대별하였지만 언어 사용의 모든 국면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11) 재분석의 기제는 언어학과 뇌신경과학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문법화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로서 Argyropoulos(2008)을 들 수 있다.

인지는 변화의 사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양쪽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문법화를 특정 언어 요소에 일어나는 변화로 한정하여 다룬다. 요약하면 이 글은 ‘디다’의 문법화를 개별 어휘 ‘디다’에 부여된 새로운 문법 구조의 발생으로 한정하며, 그 새로운 문법 구조가 당시의 공시적 문법 체계에 미친 영향은 다른 연구로 넘긴다.

이 글은 동일한 시기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디다’ 용례에 대응하는 복수의 문법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디다’의 문법화를 순간적이고 단절적인 변화로 다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은 정적인 문법 모형을 통해서 변화를 포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지식을 정적 체계로 기술하는 한, 문법화는 한 언어 요소가 서로 다른 두 구조에 대응하는 단절적인 변화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형으로는 언어 변화의 점진성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디다’의 사례를 본동사와 문법 형태소로 나누어서 제시하지만, 당시의 화자가 본동사 ‘디다’와 문법 표지 ‘디다’를 서로 다른 언어 요소로 구분하였으리라는 가정은 하고 있지 않다.

종래의 문법화 연구 중에는 특정한 언어 요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구조가 생겨나는 순간’에 주목하여, 새로운 용법으로 언어 요소의 기능이 확장되는 순간과 그러한 용법이 점진적 형태 변화로 나타나는 단계로 문법화 과정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Givón 1991:122-123). 또는 화자의 창조적 언어 수행과 의미 변화 현상을 분리하기 위해, 특정 언어 요소에 화자가 의도한 해석과 다른 해석을 청자 혹은 학습자가 부여하는 현상으로 재분석을 정의하고, 화자가 의도한 문법이 청자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화자가 의도한 구조와 다른 새로운 구조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단절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Fortson 2003).

언어 수행 과정에서 언어 요소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는 것은 확실히 순간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법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미 변화는 개개인의 언어 수행에서 일회적으로 관찰되는 창조적 사용의 결과물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마음에

구축되는 어휘부(lexicon)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반복된 사용의 결과물이다.¹²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 변화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의미 변화는 순간적인 현상일 수 없다. 그보다는 언어 사용자가 한 언어 요소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한 후,¹³ 그 새로운 용법을 반복적으로 새로운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사용자의 마음 안에서 그 용법이 문법 지식의 일부로 자리잡는 점진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법화에서 일어나는 의미 변화 역시 점진적인 변화라고 본다(Bybee 2007a:973-974).

2.5 연구 자료

이 글에서 ‘디다’와 관련하여 검토한 한국어 용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디다’, ‘지다’, ‘듣다’
- ‘-아/어’ 어미를 매개로 ‘디다’ 및 ‘ㄷ’ 구개음화형 ‘지다’에 선행하는 어휘 또는 어근
- ‘듣다’에 직접 선행하는 어휘 또는 어근

후기 중세 한국어의 ‘지다’는 함희진(2008)에서 현대 한국어 보조동사 ‘지다’의 기원으로 주장한 어휘이다. 이 글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지다’의 분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혹은 명사에 직접 후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과,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인 15세기에 문법 표지로 해석되는 ‘디다’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들어 이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또한 하향이동을 나타내는 또 다른 동사 ‘듣다’가 ‘디다’와 마찬가지로 <결과> 표지로 사용된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하향이동 의미가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¹⁴

12) 이 글에서는 언어 사용자의 문법이 생애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 언어 사용자의 문법이 생애 초기에 습득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루는 재분석은 재분석이 아니라 언어 습득으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

13) 여기서의 사용은 다른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것과 스스로 정보를 발화하는 것 모두를 가리킨다.

14) 문법 표지 ‘듣다’와 ‘디다’는 전자가 선행 동사 어근에 직접 합성되는 데에 비해 후자는 ‘-아/어’ 어미를 매개로

또한 문법 표지 ‘디다’의 기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디다’ 표지에 선행하는 어휘 및 어근들이 어떠한 의미 특성을 지니는지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약 200여 종의 어휘 또는 어근을 검토한 결과, ‘디다’ 표지에 선행하는 어휘나 어근은 위치/자세 변화 또는 상태 변화 사태를 서술하는 것과 대상의 속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언어적으로 <결과> 표지가 결합하는 동사는 종결성(telic) 상태 변화 동사로 한정되며, 이러한 결합 제약이 <결과>를 완료나 피동 등의 다른 범주와 구분하는 특징이 된다. 이는 하향이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듣다’에 선행하는 어휘들도 동일하다.

한국어 역사 자료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 6월에 공개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펴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그리고 경북대학교 연구팀에서 구축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용어 색인 DB 구축》에 수록된 문헌들을 이용하였다.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 자료는 21세기 세종 계획의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를 원본과 대조하여 교감하고 언해문에는 대응하는 한어(漢語) 원문을 찾아서 병기하는 등의 정비를 거친 자료이다. 한어-한국어 병렬말뭉치라는 특성이 ‘디다’에 선행하는 어휘의 의미 특성을 탐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¹⁵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다른 언어의 개입 없이 사용된 텍스트로서 번역문 중심이라는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용어 색인 DB 구축》에 수록된 조리서들 또한 다른 언어의 개입 없이 한국어로 직접 서술된

결합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후기 중세 시기에 동사가 합성될 때에 ‘딕먹다’와 같은 어간 직접 합성이 쇠퇴하고 ‘-아/어’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이 늘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른 연구로 넘긴다.

15)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한어 원문의 언해가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텍스트이지만, 그 내용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여러 불경에 수록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한어로 된 초고가 있었을 것이며, 이를 ‘저경’으로 지칭하여 구절별로 저경을 찾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최기표 2018).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에 수록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한어 원문은 그러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저경 탐색 방법은 김미경(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술서로서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에 수록된 번역문 중심의 기술서들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에는 작성 연대가 미상으로 처리된 문헌이 많은데, 실제로는 문헌의 성격을 근거로 작성 시기를 좁힐 수 있다. 조선시대 필사본 조리서 또한 DB가 구축된 이후 후속 연구에 의하여 작성 시기가 좁혀진 문헌들이 있다. 따라서 수록된 문헌의 서지 사항을 다시 조사하여 각 문헌이 작성된 시기 또는 통용된 시기를 좁히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세기 단위로도 좁힐 수 없으면 연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용례 검색은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여 옛한글로 이루어진 어절들을 자소 단위로 분해한 다음 정규식(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자소의 연쇄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이 몸이 죽어져서 후세에나 불가 헛였더니 천만의외 오늘 다시 상봉하니 《남원 고사 5:7》

자소 분해 ㅇ | 모노모이 | 스트로우즈 | 네시 | 네 헤이스 | 네이 | 네이
느리가 흐 | ㅇ | 네스티니 | 흐즈 | 네모나리 | ㅇ느 | ㅇ느니 | 르드
| 스 | 스 | 네이비느이흐 | 네 |

단순히 ‘死’를 검색하면 ‘죽어져서’와 ‘천만의외’가 모두 검색되지만, ‘는’에 후행하지 않는 ‘死’를 찾으라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죽어져서’만을 찾아낼 수 있다.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용례를 검색할 때에는 수많은 음운 변화형과 연철, 분철, 중철 등의 다양한 표기법이 문제가 되는데, 자소로 분해하여 검색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용례를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다.¹⁶

16) 자소 분해를 이용해 옛한글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김미경·박수지·이상아(2016)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소 분해 코드를 제공해 주시고 검색 코드 작성은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장 술어의 의미 유형과 부호화 전략

한국어 ‘디다’ 및 그 후대형 ‘지다’의 문법화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표지의 분포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범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언어유형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과〉, 〈변성〉, 〈기동〉, 〈반사동〉의 네 범주를 정의하여 한국어 ‘디다’ 표지의 문법적 의미를 기술하고 그 분포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¹⁾

이 글에서 정의하는 〈결과〉 범주는 Nedjalkov(1988)의 “resultative”를, 〈변성〉은 Haspelmath(1987)의 “fientive”를, 그리고 〈기동〉과 〈반사동〉은 언어유형론 일반에서 논의되는 결합가(valency)의 하위 범주인 반사동(anticausative)을 토대로 삼는다. 이를 범주는 종래 문법론의 여러 영역에서 따로따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들 범주가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 구성 요소의 변환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합가 범주를 술어 의미 유형 변환 범주로 확장하여 재정의하고, 이 범주가 가져오는 문법적 변형을 포착하기 위한 술어 의미 유형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3.1절에서는 ‘디다’ 표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 범주들을 살펴보고, 해당 범주들을 정의하려면 새로운 술어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핀다. 3.2절과 3.3절에서는 단순 사태와 복합 사태를 나누어 사태 구성 요소 조합에 따라 한국어 ‘디다’ 분석에 관련된 술어의 의미 유형을 분류한다.²⁾ 3.4절과 3.5절에서는 술어의 의미 유형 변환이 술어로 부호화되는 전략을 동형 부호화와 변형 부호화로 나누어 살핀다. 특히 변형 부호화 전략을 논의하면서 한국어 ‘디다’의 의미를 포착하는 〈결과〉, 〈변성〉, 〈반사동〉, 〈기동〉 범주를

1) ‘디다’의 후대형인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는 〈결과〉, 〈변성〉, 〈기동〉, 〈반사동〉 이외에 가능(potential)과 무의도(unintentional)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남수경 2011b). 그러나 그 늘어난 의미들은 이들 네 범주에서 확장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확인되는 이 네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문법 표지 ‘디다’ 및 그 후대형 ‘지다’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2) 이 술어 의미 유형 분류 체계는 4장에서 한국어 ‘디다’ 표지에 선행하는 술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하고, ‘디다’ 표지가 가져오는 술어의 의미 변형을 논의하는 토대가 된다.

이 전략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도입하겠다.³⁾

3.1 한국어 ‘디다’ 표지 분석과 새로운 술어 분류의 필요성

이 절에서는 한국어 ‘디다’ 표지의 의미를 분석할 때의 어려움을 살피고, 언어유형론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범주를 이용해 ‘디다’ 표지의 의미를 제안한다. 공시 문법 체계 기술을 위한 의미 분석과 달리, 문법화 분석을 위한 의미 분석에서는 맥락에 따라 ‘디다’ 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복수의 의미를 세분하여 찾아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주장하는 ‘디다’ 표지의 의미들 중 상당수는 해당 범주가 속하는 상위 범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해당 범주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디다’ 표지의 분포와 의미 특성을 예측하는 문법 범주들의 문법적 특성도 논의해 두기로 한다.

3.1.1 ‘디다’ 표지 분석의 난점

현대 한국어 문법 표지 ‘지다’ 및 그 선대형인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연구의 난점은 그것이 표상하는 의미가 분명해 보이는 데 비해 그 분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깊다’가 ‘깊어지다’가 되면 곁에서 속까지의 길이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사태를 의미하고, ‘끄다’가 ‘꺼지다’가 되면 타오르던 불이 소멸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둘은 ‘결합한 술어와 관련된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단독으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녹다’나 ‘죽다’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한국어에서 ‘쓰다’의 피동사 ‘쓰이다’에 다시 ‘지다’ 표지가 결합하여 ‘쓰여지다’를 형성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쓰이다’와 ‘쓰여지다’는 어떤 관계인가? 형용사에 후행하는 ‘지다’ 표지와 동사에 후행하는 ‘지다’

3) 이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및 변형 부호화 전략은 5장에서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가 어떻게 진전되었을지 논의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표지는 하나의 표지인가? 아니면 동형의 다른 두 표지인가?

이 글은 ‘쓰여지다’와 같은 구성이 이중피동으로서 사용자들이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어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의 관점에서만 성립하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통시적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당대의 문법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언어 사용 형태는 과거의 흔적이거나 변화의 전조일 뿐이다. 언어 변화 연구는 규범에 맞지 않는 사례를 통하여 화자의 언어 사용이 ‘그러한 방식으로’ 어긋나도록 허가하는 구조를 탐구한다. 다음은 흔히 ‘지다’ 표지의 남용으로 지적되는 예이다.

(1) 현대 한국어의 이른바 ‘지다’ 표지 남용 사례

- ㄱ. 너비 3mm, 길이 14.7cm 크기의 1천 5백개 대나무 껍질에 붓글씨로 8-10자 정도의 시험문제가 적혀져 있는 이 榜策은 한개의 원통속에 넣어져 과거때 응시자들이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990년 3월 13일》
- ㄴ. 그것은 「무엇때문에 작가가 되었는가」란 곤혹스런 질문을 받을 때에 가장 뚜렷해지는데 나는 웬지 작가가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버린」 것같이만 느껴 진다. 《경향신문 1992년 10월 24일, 이문열 기고 칼럼》
- ㄷ. 행정구역의 조정이 갈수록 어려워져지는 현실 《매일경제 1995년 9월 11일》

(1ㄴ)의 화자가 ‘되어져버리다’를 홀낫표로 강조한 것을 보면, ‘되어 버리다’나 ‘되었다’만으로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다’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은 1990년대 화자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례가 아니라 아직 기술되지 못한 의미를 표현하는 ‘지다’ 표지의 사례로 해석되어야 한다.⁴

4) 이 글은 ‘지다’ 표지의 사용이 일본어 피동 표현의 영향을 받은 번역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한정연(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지다’ 표지의 사용이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님을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결과물》(2012년 12월 배포)의 현대어 구어 말뭉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뭉치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구축되어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의 한국어 구어를 수록한 것으로서, 전화 대화, 일상 대화, 연설·강의·강연, 즉흥적 독백, 토론·회의, 방송극·영화의 6가지 발화 상황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일상 대화, 전화 대화, 연설·강의·강연 발화로 구성한 620,563 어절의 말뭉치에서 ‘지다’ 표지의 분포를 조사하여 총 1,634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문법 표지로 쓰인 것이 확실한 ‘지다’ 표지는 1,589건이다. 이 문법 표지 ‘지다’의 유형별 빈도를 제시하면 표 3.1과 같다.

	사례 빈도	유형 빈도
형용사 + 지다	1.3 (807건)	174
타동사 + 지다	1.09 (679건)	121
자동사 + 지다	0.02 (14건)	9
피동성 표현 + 지다	0.14 (89건)	39
‘지다’ 표지 전체	2.56 (1,589건)	343

표 3.1: 현대 한국어 구어 말뭉치의 ‘지다’ 표지 유형별 빈도

표 3.1의 사례 빈도는 말뭉치 내에서 해당 ‘지다’ 표지 유형이 확인된 건수 및 해당 수치를 1,000어절당 출현 수로 정규화한 값이고, 유형 빈도는 ‘지다’ 표지에 선행하는 어휘의 종수이다. 자동사에 결합하는 유형과 피동성 표현에 결합하는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적게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의 자료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계획된 발화와 즉흥적 발화 양쪽에서 관찰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한 실수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다’ 표지에 결합한 자동사보다 피동성 표현의 종수와 빈도가 더 많다는 것도 주목할 점인데, 이것은 자동사에 결합하는 ‘지다’ 못지않게 피동성 표현에 결합하는 ‘지다’ 역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의미한다. 다음은 각 유형의 예시이다.

(2) 구어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선행어휘 유형별 ‘지다’ 표지

ㄱ. 형용사 결합

그 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가까워졌지 (6CT_0051)

ㄴ. 타동사 결합

관객들이 보기엔 그게 그렇게 그게 당연하게 안 느껴지는 거야 (7CT_0043)

ㄷ. 자동사 결합

일단 병역, 병역 숫자가 채워져야지 그 계급이 쫙쫙쫙 올라가는데, 그걸
감축을 못 하지 (7CT_0040)

ㄹ. 피동성 표현 결합

근데 그거는 뭐 우리에 인간성에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보여져 (7CT_0037)

이상과 같이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는 형용사, 타동사, 자동사, 피동사 및 피동성 표현 모두에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지다’ 표지의 논의에서 잘 언급되지 않지만 다음의 ‘-으러지다’ 형들도 ‘지다’ 표지의 사례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현대 한국어 ‘-으러지다’ 류와 의태어 어근

ㄱ. 냄비가 우그러지다.

ㄱ' 이 옷은 우글쭈글해서 입을 수가 없다.

ㄴ. 연탄재가 부스러져 골목이 지저분하다.

ㄴ' 정상에서의 환희도 잠깐. 부슬부슬한 화산암 가루에 한 번 미끄러져 구른 후,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내려오다 보면 …《물결 21》

ㄷ. 비바람에 뭉그러진 야트막한 토담 너머로 김첨지 부자가 불안고 가는 모습을
맨 먼저 본 사람이 상남댁이었다. 《김원일, 불의 제전》

ㄷ' 우선 밑간장은 양파 마늘 생강 통후추를 넣고 양파가 뭉글뭉글해질 때까지 끓입니다.《물결 21》

(3)에서 ‘지다’ 표지에 선행하는 ‘-을’ 계 의태어 어근들은 중첩하여 부사로 쓰이거나, 다시 ‘-하다’와 결합하여 의태어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 어근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면 어근이 가리키는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며, 그 점에서 형용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유형과 다를 것이 없다.

형용사와 타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결합하는 ‘지다’ 표지는 종래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작성된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이 모든 유형의 ‘지다’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디다’ 표지에 결합한 어휘의 통사적 유형

- ㄱ. 그 물 주고 우 여닐굽 필지 연져 도훈 모를 사 두더니 즉시 ھ르 병히여 그 모리 주거디니 모슴 몰 심심하니 있다《98번, 신천강씨》
- ㄴ. 다문 늙고 괴오니 하 파려하니 괴시니 업서 이제는 니즘 헛고 이리 늘거디니 괴신 몯히여 ھ노라《153번, 신천강씨》
- ㄷ. 내 열아 ھ랜날브터 알픈 거슬 지그미 못최여서 알로라 누어녀셔 알티 아닌는 병이니 견듸노라마는 모수미 미양 설오니 털디 막막히예라《41번, 신천강씨》
- ㄹ. (五)…우리 살며 몯 사르미 이제 인누니 ھ나웃 나간 휘(六)면 물 프러디듯 ھ리《140번+160번, 채무이》
- ㅁ. 즐시가 세 // 갈아뎌 몯 살게 되거다《4번, 신천강씨》
- ㅂ. 나도 혀여 □□□ 나토 여슈니 되오 쪼 몯 뿐 □□니 되니 정시니 아득 ھ고 훌 □□□ 나쳐디니 지아븨 니를 일도 빅기 □ 잇다가 밀리 업서 계오 구러하니《95번, 신천강씨》
- ㅅ. 나리 치워디니 엇디 ھ거뇨《149번, 신천강씨》

- . 나는 하 쉬이 우그려늘거져 괴시니 간디 업고 정시늘 일코 이시니 《15번,
신천강씨》
- ☒. 벼리 방덕도 업서도 흐려니와 바덧 휘〃 흔 저긴들 업스마 헐쁘다던 턴들 션산
미양 가 호랴 놔도 봇그려워 흐노라 《83번, 김훈》

(4ㄱ-ㄷ)은 자동사 ‘죽다’, ‘늙다’, ‘눕다’에 결합한 예이고, (4ㄷ-ㄹ)은 자·타 양용동사 ‘풀다’와 ‘가르다’에 결합한 예이고, (4ㅂ)은 피동사 ‘잊히다’에 결합한 예이고, (4ㅅ, ○)은 형용사 ‘칩니다(춥다)’ 및 의태어 어간 ‘우글-’에 결합한 예이다. (4ㅈ)은 해석이 분명치 않으나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 타동사 ‘헐쁘다’의 양성어간형 ‘헐쁘다’에 결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건대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 표지에 선행하는 어휘의 품사별 분포는 16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는 피동사에 ‘지다’가 결합하는 것이나, 자동사에 ‘지다’가 결합하는 것이 후대에 발생한 예외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법 표지 ‘디다’의 분포 환경을 기술하는 데에 품사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디다’ 표지의 분포를 기술할 수 있는가? 현대 한국어보다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분포가 더 제한적이므로,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의 분포를 설명하는 범주를 확정한 후 해당 범주와 관련된 문법화 경로를 토대로 현대 한국어 ‘지다’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문법 표지 ‘디다’에 선행하는 술어는 모두 종결성 상태 변화 사태와 관련이 있다. 이는 Nedjalkov(1988)에서 기술된 “resultative” 범주 표지의 분포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⁵⁾

Nedjalkov(1988)의 “resultative”는 1항 술어와 2항 술어를 가리지 않고 종결성 상태 변화

5) 박진호(2003)에서는 이 “resultative”를 ‘결과상’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 글은 “resultative” 범주가 결합하는 술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료나 진행 등의 문법상과는 다른 범주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resultative”的 상위 범주와 관련된 혼동을 막기 위해 “resultative”에 대응하는 범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결과>(resultative)로 표기하겠다. 다만 이 글에서 정의하는 <결과>는 Nedjalkov(1988)에서 기술된 현상의 일부를 포착하는 개념이므로, Nedjalkov(1988)에서 기술된 범주를 지칭할 때에는 “resultative”로 표기하겠다.

술어에 결합하여 해당 변화가 일어난 결과 상태를 서술하는 술어를 형성하는 문법 범주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를 “resultative” 표지로 포착하면 ‘디다’가 ‘궂다(끓다)', '겄다(꺾다)' 등의 자·타 양용동사에 결합하거나 '녹다' 등의 자동사에 결합하는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김미경 2016). ‘디다’ 결합 술어가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후기 중세 한국어 ‘그때’ 수식과 술어의 해석

- ㄱ. 그때 冊액 두 字 | 효야디여 아모도 모르더니(時去聖久書缺二字 以問於師 師不能達《釋迦譜 卷第一》)《석보상절 3:10, 1447》
- ㄴ. 그때 世尊이 刁利天에 겨샤《석보상절 11:11》
- ㄷ. 그때 六師이 무른 다 모랫고《석보상절 6:29》
- ㄹ. 그때 世尊이 즉자히 化人을 보내샤《석보상절 6:7》
- ㅁ. 그때 여러 世界옛 化身 地藏菩薩이 어우러 혼 모미 드외샤《석보상절 11:8》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그때(그 때)’는 (5ㄴ, ㄷ)과 같이 상태 술어를 수식하면 해당 시점에 그 상태가 성립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5ㄹ, ㅁ)과 같이 변화 사태 술어를 수식하면 해당 시점에 그 변화가 일어남을 나타낸다. (5ㄱ)에서 ‘효야디다’와 ‘모르다’를 수식하는 ‘그때’는 글자가 뚫개지는 변화의 시점이 아니라 뚫개진 상태가 성립되어 있는 시점을 나타내므로, 이 ‘효야디다’가 결과 상태를 서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를 “resultative” 표지로 보는 분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resultative” 범주로 변형된 술어는 상태 술어가 되는데,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 결합 술어는 전통적으로 변화 사태를 나타낸다고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6)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 결합 술어와 변화 사태 서술 가능성

- ㄱ. 가히 뼈를 너흘면 입시울 효야디는 둘 모르고(欲如狗嗜枯骨 …唇齒破盡不知厭足《釋迦譜 卷第二》)《월인석보 7:18》

- ㄴ. 프른 거시 드려시니 부르매 竹筍이 것거뎅고(緣垂風折筍) 《두시언해 15:8-9》
- ㄷ. 모매 두루 흰 어르러지 점점 펴디여 벼름 곁거든 《구급간이방 6:86》
- ㄹ. 法이 펴디여 가미 물 흘러 녀미 ㅋ틀씩 流行이라 ھ니라 《월인석보 9:40》

후기 중세 한국어 ‘-느’ 표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와는 결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최동주 2015:67-69). 이때문에 후기 중세 한국어 형용사와 ‘-느’ 표지의 결합은 당시의 형용사에 상태 변화를 서술하는 용법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진다. 이에 따르면 (6ㄱ)과 같이 ‘-느’ 표지가 결합한 ‘ㅎ야디다’는 상태가 아니라 상태 변화 술어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후기 중세 한국어의 ‘-어 있다’를 “resultative” 표지로 보는 분석이 있다(박진호 2003). 이에 따르면 (6ㄴ)의 ‘것거디다’는 ‘-어 있다’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종결성 상태 변화 술어로 해석된다. ‘점점’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일이 가끔 확인되기는 하지만,⁶⁾ 대부분의 경우 동사를 수식하므로 ‘-느’ 표지와 마찬가지로 변화 사태 술어를 구분해 내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ㄷ)의 ‘펴디다’는 변화 사태 술어가 된다. 마지막으로 (6ㄹ)의 ‘-어 가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에 결합하는 대표적인 문법 표지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후기 중세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펴디다’가 변화 사태 술어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6)의 모든 ‘디다’ 결합 술어를 여전히 상태 술어로 해석하는 분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분석은 (6)의 다른 표지들에 대한 종래의 분석을 상당수 수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부담이 크다.⁷⁾

그렇다면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의 분포 환경을 종결성 상태 변화 술어로 한정하되 ‘디다’ 결합 술어가 변화 사태를 서술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범주가 존재하는가? 김미경(2017)에서는 그러한 범주의 후보로 반사동(anticausative)을 지적하였다. 반사동 범주는

6) ‘점점’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버드리 부르미 업슈이 녀기를 니버 프른 비치 점점 노갑도다 《백련초해 1면, 1576》

7) 이 논의가 지금의 형태로 구성되기까지 꼼꼼한 비판과 조언을 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박진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상태 변화를 서술하는 타동사에 결합하여 대상을 주어로 하는 1항 술어를 형성한다. 반사동 범주의 가장 큰 특징은 원인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7)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결합 술어의 반사동 해석

- ㄱ. 복은 사루물 잘 주기느니 이 藥을 머그면 그 毒이 제 스러디느니라《구급방언 해 하:59》
- ㄴ. 돌히 계워 즉재 씀 흘리고 그장 소리하고 떨오 붓아디니라《능엄경언해 7:88》
- ㄷ. 이런ᄃ로 절로 물어디여 ھ야디리라《능엄경언해 9:45》

(7)의 모든 ‘디다’ 결합 술어는 별도의 행위주나 원인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사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가 반사동 범주를 나타낸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6)과 (7)을 토대로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를 반사동 범주 표지로 분석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김미경(2017)은 그러한 견해를 취하여 김미경(2016)에서 주장했던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의 “resultative” 해석을 폐기하고 반사동 설을 주장하였다. 김미경(2017)에서 주장된 논의의 핵심은 반사동을 사동·기동 교체(causative/inchoative alternation)의 기동 짹을 형성하는 범주로 정의하여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의 의미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석은 ‘녹다’, ‘섞다(썩다)’ ‘죽다’와 같은 비대격 술어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미경(2017)에서는 이를 기동 동사의 비대격성을 나타내는 잉여적 강조 표지로 해석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분석은 다시 그 강조의 동기를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김미경(2017)에서 제안된 반사동 개념을 따를 경우, 반사동 술어와 기동 동사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김미경(2016)과 김미경(2017)의 한계는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의 의미를 “resultative”

범주와 반사동 범주 중 어느 하나로 택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법화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디다’의 공시적 의미를 기술하는 일은 중요하다. 다만 문법 체계의 기술을 위한 공시적 분석과 달리, 문법화 연구를 위한 공시적 분석은 대상 언어 자료가 과거에 일어난 변화의 흔적과 진행 중인 변화의 전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중요하게 의식해야 한다.

즉, 문법화 연구를 위한 문법 표지 분석은 해당 표지가 ‘어떤 의미인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들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법화 연구를 위한 ‘디다’ 분석에서는 ‘디다’ 표지가 “resultative”에 대응하는 맥락과 반사동에 대응하는 맥락이 모두 발견되면 이들 모두를 ‘디다’의 문법화 경로를 구성하는 의미 후보로 받아들여 고찰해야 한다. 이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공시 문법 체계에서 ‘디다’ 표지의 의미가 무엇으로 분석 되느냐와 별개의 문제이다.

“resultative”와 반사동은 Haspelmath(1987)의 반사동 표지 연구와 Haspelmath(1990)의 피동 표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의미 영역이 인접해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이들 범주에 인접한 의미 영역으로 서술된 “fientive”는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가 형용사에 결합하여 상태 변화 사태를 나타내는 용법을 잘 설명한다. 또한 ‘디다’ 및 그 후대형 ‘지다’는 전통적으로 피동, 기동(inchoative), 가능 피동(potential passive) 등과 함께 논의되어 왔는데, 그러한 의미 영역들 또한 ‘resultative’, 반사동, “fientive”와 인접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 범주의 성격 및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써 ‘디다’의 문법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1.2 ‘디다’ 표지 분석과 새로운 술어 분류 체계의 필요성

설명의 목표를 위와 같이 잡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는 위 범주들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언어유형론의 문법 범주 논의에서 피동은 태(voice)의 하위 범주로서 문장을 변형하며, 반사동은 결합가(valency)의 하위 범주로서 어휘를 변형한다는 데에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resultative”, “fientive”, 기동 등의 상위 범주는 아

직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resultative”는 상 범주의 일종으로 논의되나 같은 상 범주에 속하는 완료(perfect) 및 완망(perfactive)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fientive”는 상위 범주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동은 상 범주의 문법론에서는 “inceptive” 또는 “inchoative”로, 어휘 의미론 논의에서는 “inchoative”로 논의되고 있으나 두 개념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resultative”, “fientive”, 반사동, 그리고 어휘 의미론에서 논의되는 기동 동사 파생의 네 가지가 모두 새로운 술어를 형성하는 문법 범주라는 특성을 공유하며, 이들이 한국어 ‘디다’ 표지의 초기 문법화 경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속하는 문법 대범주 영역은 종래 결합가 범주로 명명되어 동사가 취하는 행위주 논항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새로운 동사를 파생하는 범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국어의 ‘-게 하다’ 구문과 영어의 ‘make N V’ 구문을 결합가의 하위 범주인 사동(causative)으로 분석하는 관행을 생각하면, ‘파생’은 이 의미 영역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합가 범주의 정의를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에서 행위주 관련 정보를 변형하여 새로운 술어를 만드는 범주로 수정할 수 있다.

한편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시하는 사태에 변화 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동사 파생 형용사(deverbal adjectives)나 형용사 파생 동사(deadjectival verbs)처럼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에서 변화 관련 정보가 바뀌는 변형도 결합가와 같은 성격의 문법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이러한 술어 변형은 형태론의 조어법 논의에서 다뤄질 뿐, 문법 범주로는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태 변화 술어를 변형하여 해당 변화의 결과 상태를 지시하는 술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동사에 결합하는 형용사 파생 표지와 “resultative” 표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 또한 상태 술어를 변형하여 해당 상태로의 변화를 지시하는 술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형용사에 결합하는 동사 파생 표지와 “fientive” 표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

반사동과 기동 동사 파생은 이미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범주로 논의되어 왔고, “fientive”는 그 상위 범주가 별도로 논의된 바 없으므로 이들을 새로운 술어를 형성하

는 범주로 해석하는 것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resultative”는 상 범주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역사가 있으므로, 이 범주가 속하는 대범주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resultative”를 문법상 범주가 아니라 새로운 술어를 형성하는 범주로 보면, 이 범주가 완료나 완망과 달리 결합하는 술어의 종류가 제약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resultative”가 나타내는 것은 화자의 관점에서 본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내용상 흐름에 따른 종결이므로, 종결성 변화 사태를 가리키는 술어 이외에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동, 반사동, 기동 동사 파생, “resultative”, “fientive”에서 변형되는 사태 참여자와 사태 내 변화 관련 정보는 모두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묶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주를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 구성 요소를 변형하는 범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일으키는 변형은 곧 술어의 의미 변형이므로, 이들이 속하는 대범주의 역할을 술어 의미 유형 변환으로 줄여서 부르기로 하자.

술어의 의미 유형을 변환하는 범주를 설정한다면, 술어의 의미 유형을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이다. 술어의 의미 유형 분류 사례로 Nedjalkov(1988)에서 술어가 서술하는 내용을 “state”, “action”, “quality”로 나눈 것이나, Stassen(1997)에서 술어가 서술하는 사건(event)을 “action”, “process”, “state”로 나눈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논의에서는 유형의 중요한 특징을 서술했을 뿐,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분류들은 Vendler(1957)에서 제안된 동사의 상적 분류처럼 모든 술어를 분류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가 아니라, 두드러지는 술어 의미 유형을 나열한 목록에 가깝다.

그러나 Dowty(1979)나 Levin(1993) 등에서 사용된 술어 분해(meaning decomposition)의 발상을 응용하면, 술어의 의미 유형을 사태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치환함으로써 모든 술어를 분류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술어의 의미 유형을 사태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유형을 토대로 사동, 반사동, 기동 동사 파생, “resultative”, “fientive” 등이 술어의 유형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형하는지 논의한다. 그럼으로써 술어 의미 유형 변환 범주가 문장을 변형하는 태 및 문법상 범주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내고, 한국어 ‘디다’ 표지의 분포와 의미 특성을 포착하는 문법 범주들을 정의하겠다.

3.2 단순 사태와 1항 술어의 의미 유형

앞 절에서는 한국어 ‘디다’ 표지의 의미가 되는 문법 범주들을 정의하기 위해 사태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른 술어 의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사태 구성 요소의 목록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 그 자체가 아니라 술어로 부호화되는 추상화된 사태이다. 따라서 여러 술어를 비교하여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 사태를 비교하여 유형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사태의 언어적 부호화에 관여하는 사태 구성 요소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동사, 형용사, 명사, 계사와 명사·형용사의 조합 등이 술어를 이룰 수 있지만, 한국어 ‘디다’ 표지와 관련된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된 술어를 중심으로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유형을 나누고 각 사태 유형들을 비교함으로써 술어 의미 유형 변환 범주와 관련된 사태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Croft(1991)의 품사 유형론 논의 및 Stassen(1997)의 1항 술어 유형론 논의를 활용할 것이다. Stassen(1997)은 사태 참여자가 하나인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들을 연구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도 사태 참여자가 하나인 단순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의 의미 유형을 먼저 살펴본다. 그 후 절을 바꾸어 단순 사태에 다른 요소가 추가된 것을 복합 사태로 정의하고 한국어 ‘디다’ 문법화와 관련된 복합 사태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다뤄진 술어의 의미 특성과 이 글에서 도입하는 술어의 의미 유형 사이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이 글에서 도입하는 의미 유형에는 대괄호 ‘[]’를 써워 구분하겠다.

3.2.1 [속성], [상태], [동작]

지금까지 한국어 ‘디다’ 표지의 의미는 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데 상태란 무엇인가? 기존의 논의에서 상태는 일종의 원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국어사전에서 제시되는 “사물·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 정도로 통용되었다. 이 때에 상태와 대조되는 것은 대개 동작이다. 동작은 사건 내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상태는 없는 것이다. 즉, 사태의 구성 요소에 ‘변화’가 포함되느냐 여부로 차이가 난다.

한편으로 상태는 형용사 논의에서 속성과 대조되기도 하는데, 이때 상태는 대상의 일시적인 특성으로, 속성은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구분된다(유현경 1998:124). 그렇다면 동사에서 논의되는 상태와 형용사에서 논의되는 상태는 같은가,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의의 여지 없이 ‘같다’이며, 그 직관을 떠받치는 자료로서 동사와 형용사의 양쪽에서 품사 분류가 문제되는 “잘생기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김선영 2014).

동사와 형용사 각각의 연구에서 제안된 상태의 정의를 조합하면, 상태는 ‘대상이 일시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미 유형으로서 동작 및 속성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동작과 속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속성, 상태, 동작을 같은 층위에서 정의하고 비교하기 위해, Croft(1991)에서 제안된 어휘의 원형적 의미 특성 논의를 살펴보자.

Croft(1991)은 명사, 동사, 형용사를 원형적 품사 부류로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그는 각 품사의 원형적 의미로 객체, 동작, 속성을 제안하고, 이 세 의미를 결합가(valency), 상태성(stativity), 지속성(persistence), 정도성(gradability)의 조합으로 구분하였다(표 3.2).

표 3.2에서 상태성 값인 상태(state)와 과정(process)은 어휘가 묘사하는 사태 내에 시간축 상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구분되고, 지속성 값인 지속(persistent)과 전이(transitory)는 어휘가 묘사하는 사태가 시간축 상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에 의해 구분된다. 이를 조합하면 [속성](屬性, property)은 변화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사태이고, [동작](動作, action)은 변화가 있고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사태이다.

	결합가	상태성	지속성	정도성
[객체]	0	상태	지속	없음
[속성]	1	상태	지속	있음
[동작]	≥ 1	과정	전이	없음

표 3.2: 어휘의 원형적 의미 부류와 그 특성(Croft 1991:65)

앞서 형용사 논의에서는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속성과 구분된다고 했다. 표 3.2의 특성 조합으로 이 구분 기준을 번역할 수 있을까? Croft(1991)은 지속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상태성이 있는 사태와 과정성이 있는 사태는 둘 다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를 이용하면 어휘가 가리키는 사태의 유형을 나누는 특성으로 지속성과 상태성, 지속성과 과정성, 전이성과 상태성, 전이성과 과정성의 네 가지 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이성과 상태성의 조합을 이용하면 ‘변화가 없고 지속되지 않는 사태’를 [속성]과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상태의 직관적인 정의와 동일하다. 즉, 상태성과 지속성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속성] 및 [동작]과 구분되는 제3의 의미 유형으로 [상태](狀態, state)를 설정할 수 있다. 용어 중복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태성의 값을 변화의 유무로 바꾸고 지속성의 값을 지속 여부로 바꾸어 [속성]과 [상태], [동작]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

	변화	지속
[속성]	-	+
[상태]	-	-
[동작]	+	-

표 3.3: [속성], [상태], [동작]의 구분

그런데 변화가 없고 지속되지 않는 사태라는 것은 어떤 사태인가? 이와 관련하여 Nedjalkov(1988:4)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문법적 변형을 이용한 상태서술의 범언어적 유형을 살핀 것으로서, 표 3.3과 동일한 기준을 이용하여 술어의 의미유형을 동작(action), 상태(state), 속성(quality)으로 구분하였다.

Nedjalkov(1988)에서는 상태와 속성이 둘 다 변화가 없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상태는 시작과 끝, 적어도 시작이 있는 데 비해 속성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Croft(1991)에서 지속성을 논의하며 지속되는 사태와 지속되지 않는 사태를 구분하는 성질로 반복가능성을 든 것과 일맥상통한다. Croft(1991)에서 든 예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8) 지속 사태와 비지속 사태의 구분(Croft 1991:65, (11–13))

- ㄱ. John is always sick.
- ㄴ. John is always eating potato chips.
- ㄷ. * John is always tall.

(8 ㄱ)의 ‘always’는 그것이 수식하는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가 반복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Croft(1991)은 지속되는 사태는 그 성격상 반복될 수 없으므로 ‘always’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8 ㄱ)의 ‘sick’은 지속성이 없고, ‘always’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8 ㄷ)의 ‘tall’은 지속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복은 끝 이후의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반복가능성을 이용한 구분은 곧 시간적 경계를 이용한 Nedjalkov(1988)의 구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태의 시간적 경계가 없는 것을 지속성으로, 경계가 있는 것을 전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Croft(1991)에서 제안된 속성과 동작은 각각 형용사와 동사의 원형적 의미유형이고, Nedjalkov(1988)에서 제안된 것은 술어의 의미 유형이다. 이 두 연구의 구분 기준을 섞어도 되는 것일까?

Croft(1991:67)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품사 변형 없이 술어로 쓰이는 형용사를 흔히

찾을 수 있고 동사는 전형적으로 술어로 쓰이므로, 이를 단일어로 된 술어가 지니는 의미 유형으로 재해석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재해석의 결과가 Nedjalkov(1988)은 물론 뒤에서 볼 Stassen(1997)에서 제안된 술어의 의미 유형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⁸

이상을 종합하면 [상태]는 단일어로 된 술어가 지니는 의미 유형으로서 ‘변화가 없고 시작이나 끝이 있는 사태’이고, [속성]은 역시 단일어로 된 술어가 지니는 의미 유형으로서 ‘변화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사태’이다. 이를 ‘속성은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고유한 특성이나 성질’이고 ‘상태는 사물이나 현상이 처해 있는 현재의 모양이나 형편’이라는 유현경(1998:124)의 정의와 비교해 보자. 사물의 본질인 특성은 그 정의상 사물이 존속하는 동안 유지될 것이므로, [속성]이 지속되는 기간은 사물의 존속 기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속성]은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서술일 때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며 변화도 없는 사태를 가리키게 된다. 그렇다면 [속성] 유형의 사태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 반면 [상태]는 그 정의에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으므로, 사태 내부에 시간의 흐름이 있으며 사태의 시작과 끝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시간의 흐름이 바로 ‘시간선(timeline)’으로서, 변화와 더불어 사태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된다.

[속성] 유형의 사태에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것은 곧 내적 시간 구조가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동작]과 [상태] 유형의 사태는 모두 시간적 경계를 지니므로 사태 내부의 변화 유무와 관계 없이 내적 시간 구조가 있다. 따라서 시간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상태]와 [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속성]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Stassen(1997)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Croft(1991)에서 제시된 술어의 개념은 인도유럽어 계통의 전통적인 문법 분석에서 문장을 주부(subject)와 술부(predicate)로 나누는 것과 가깝고, Stassen(1997)에서 쓰는 술어의 개념은 논리학에서 다루는 술어 논리(predicate logic)에서 사용되는 것과 가깝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언어학의 여러 논의에서 같은 것으로 통용될 뿐더러 두 지적 전통의 차이가 이 글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Lyons(1977:430–438)을 참조할 수 있다.

Stassen(1997)은 논항을 하나만 지니는 술어의 특성을 범언어적으로 살핀 연구로서, 술어가 지니는 의미 특성의 유형을 넷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각 부류 소속 관계(class membership), 사건(events), 속성(properties), 위치(location)이다. Stassen(1997)에 따르면 사건은 주로 동사 혹은 형용사로 부호화되고 속성은 형용사 혹은 명사로 부호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술어의 의미 유형을 크게 사건과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이용하면 [동작]과 [상태]로 이루어진 상위 유형 [사건](事件, event)을 설정할 수 있다. [동작]과 [상태]를 [속성]과 구분하는 것은 시간선이므로, 이 글에서 구축하고 있는 술어의 의미 유형 체계에서 [사건]은 시간선이 있는 사태로 정의된다.

3.2.2 [동작]의 하위 분류

지금까지 Nedjalkov(1988), Croft(1991), Stassen(1997)의 세 유형론 연구를 이용하여 범언어적으로 1항 술어가 지닐 수 있는 의미 유형으로 [속성], [상태], [동작]을 도입하고, 사태의 구성 요소로 시간선과 변화가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속성]과 나머지 둘을 구분짓는 시간선을 이용하여 [동작]과 [상태]를 아우르는 상위 유형 [사건]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동작]을 나머지 둘과 구분짓는 ‘변화’ 요소 및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특성은 아직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사태의 부호화에 참여하는 개체의 특성은 사태 내 변화 유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다. 이는 종래 동사의 의미역 연구에서 행위주(agent)와 대상(theme/patient)의 차이로 논의되었다. 이 특성이 술어의 의미 유형 분류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Stassen(1997)의 사건 부호화 유형 논의 및 Perlmutter(1978)의 비대격 술어 논의를 이용하여 논의하겠다.

Stassen(1997)은 1항 술어의 의미 유형 중에서 사건은 그 하위 유형으로 ‘동작(actions)’, ‘과정(processes)’, ‘상태(state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Stassen(1997)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을 ‘과정’과 ‘상태’, 그리고 Croft(1991)보다 좁은 의미의 ‘동작’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해당 논의에서 ‘동작’, 과정, 상태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 각각을 나누는 구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Vendler(1957)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사의 상적 유형 분류에서 사용하는 ‘과정’의 개념과 전통적 문법 분석에서 동사를 분류할 때에 사용하는 ‘과정’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Stassen(1997)이 생각한 ‘동작’과 ‘과정’의 정의를 탐구하는 대신, Stassen(1997)의 ‘사건’이 주로 동사 또는 형용사에 의해 부호화되는 의미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자.

Perlmutter(1978)은 1항 술어와 비인칭 피동(impersonal passive) 변형의 관계를 관찰하여 모든 1항 술어는 비대격과 비능격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해당 논의에서 술어의 정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제시된 사례들과 논의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Perlmutter(1978)에서 의식한 1항 술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구성되는 술어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후의 비대격 가설 논의가 거의 동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비대격과 비능격은 그 출발과 명칭에서 드러나듯 술어의 의미 유형이 아니라 술어의 통사적 유형이다. 그러나 술어의 통사적 행동이 의미 특성과 관련이 깊은 만큼, Perlmutter(1978:162–163)에서도 비능격성 및 비대격성을 예측하는 의미 특성이 간단히 언급되었다. 비능격성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능동성(active) 혹은 동작성(activity)과 관련이 깊고, 비대격성은 술어의 유일 논항이 대상(patient)이거나, 술어를 이루는 어휘가 형용사이거나 존재동사인 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⁹

Van Valin(1990)은 이를 더 발전시켜 비대격성 및 비능격성을 예측하는 의미 특성으로 어휘의 상적 구조(lexical aspect) 및 행위주성(agentivity)을 제안하였다. 이 의미 특성 중에서 행위주성이 [동작]을 더욱 세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¹⁰ 다만 Van Valin(1990)의 행위주성은 범주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이므로, 행위주성의 유무를 논하기보다는

9) 대상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기동 동사(inchoative)들이 전형적으로 비대격성을 띤다는 관찰이 중요하다.

10) Van Valin(1990)에서 제안된 상적 유형은 Vendler(1957)에서 제안된 네 가지 구분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1항 술어를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행위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작인(作因, agency)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정의하는 작인은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가 사태를 변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동력으로서,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사태를 포착하는 언어 사용자가 개체에 부여하는 성질이다. 따라서 유정물도 작인이 없는 개체로 포착될 수 있다. 작인성은 어휘의 통사적 성질이 아니라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특성이므로, 개별 언어의 문법에 영향을 받는 비대격·비능격 구분과 달리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판정될 것이다.

작인성을 도입하면 술어의 의미 유형을 나누는 사태 구성 요소는 개체, 변화, 시간선에서 작인성 개체, 비작인성 개체, 변화, 시간선으로 수정된다. 작인성은 개체의 성질이므로, 작인성 개체와 비작인성 개체의 구분을 간단히 작인의 유무로 줄여서 표현하기로 하자. 이를 통해 [속성], [상태], [동작]의 범언어적 의미 유형 구분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다시 작인성이 있는 개체가 참여하는 [행위](行爲, activity)와 작인성이 없는 개체가 참여하는 [변성](變成, process)으로 나눌 수 있다. 작인의 유무를 변화의 유무 및 시간선의 유무와 조합하면 표 3.4와 같다.

	변화	시간선	작인
[속성]	-	-	±
[상태]	-	+	±
[변성]	+	+	-
[행위]	+	+	+

표 3.4: 사태 구성 요소에 따른 [속성], [상태], [변성], [행위]의 구분

표 3.4는 변화, 시간선, 작인의 세 요소를 조합하여 얻을 수 있는 8가지 의미 유형 중에서 이 글의 논의와 관련된 유형들이다. 작인성은 [상태]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작인성이 있는 [(A)상태]와 작인성이 없는 [(P)상태]로 명명하기로 하자.

이러한 구분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Lakoff(1966)에서 논의된 영어의 상태동사 및 상태형용사 사례를 들 수 있다. 해당 논의에서 Lakoff는 영어의 동사와 형용사가 품사 대신에 상태(STATIVE)와 비상태(NON-STATIVE)라는 통사적 유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태 유형은 비동작(NON-ACTIVITY)이라는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고 비상태 유형은 동작(ACTIVITY)이라는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동작성과 비동작성의 대립은 표 3.4의 변화의 유무에 대응한다.

한편으로 Lakoff(1966:I-13)은 이러한 일반화의 예외로 ‘remain, stay, keep’ 등의 동사와 ‘sit, stand, huddle, squat’ 등의 동사를 들면서, 이들은 비동작성, 즉 변화 없음의 의미 특성을 지니지만 통사적으로 비상태 유형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작인성을 의미 특성으로 추가하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해당 논의에서 상태동사로 제시된 ‘know, see, hear’ 등은 변화와 작인이 모두 없는 사태이고, 예외로 든 ‘remain, sit’ 등은 변화는 없지만 작인이 있는 사태이기 때문이다.¹¹

또한 해당 논의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carefull, cruel, rude, shy’ 등의 이른바 동적(dynamic) 형용사들도 명령형으로 실현되는 등 비상태 유형의 통사적 행동 양식을 보인다(Dowty 1979:110–117). 이들 또한 해당 서술을 받는 개체가 통제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작인성을 지닌다.

3.2.3 단순 사태와 ‘지다’ 표지 결합 어휘

지금까지 단순 사태를 부호화하는 1항 술어를 사태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 의미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유형별로 사태를 구성하는 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속성] 사태, ±작인성 개체

[행위] 사태, 시간선, 변화, +작인성 개체

11) 여기에서 ‘sit’ 류의 동사들이 변화가 없는 사태를 가리킨다는 기술을 의심할 수 있다. 이는 3.4.1소절에서 서로 다른 사태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을 논의할 때 다루기로 한다.

[변성] 사태, 시간선, 변화, -작인성 개체

[(A)상태] 사태, 시간선, +작인성 개체

[(P)상태] 사태, 시간선, -작인성 개체

위의 유형들을 이용하여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어휘 중에서 단순 사태를 서술하는 것을 분류해 보면,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 유형과 ‘지다’ 표지의 의미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성], [상태], [변성]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가 변화 자체와 관련되는 것과 달리, [행위]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는 변화의 잠재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용례를 통해 두 ‘지다’ 표지를 비교해 둔다.

(9) [속성]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의 해석

- ㄱ. 온종일 동인과 서인들 지랄 같은 싸움에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허리와 다리가 노그라질 듯 녹신거린다. 《박종화, 임진왜란》
- ㄴ. 아버님 공장에선 생고무를 쪘서 노글노글하고 탄성이 좋은 고무를 만들려면 적어도 한 시간 반은 가열을 해야 하거든요. 《박완서, 미망》

(10) [상태]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의 해석

[(A)상태] : 예전보다 주차위반 딱지 발급이 조금 신중해진 것 같지만 곧 혼잡 통행료를 내야될 것 같아 걱정¹²

(11) [변성]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의 해석

[변성] : 그래서 같은 기간을 말리더라도 바닷바람에 말리게 되면 속살까지 말라져서 더 말랑말랑하고 당도도 더 높아지는 거죠.¹³

(12) [행위]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의 해석

12) 연합뉴스 “<地自制 1년> 변화의 모습 ④시민 눈에 비친” 1996년 6월 11일

13) KBS NEWS “[화제포착] 바닷가 출신 곶감·산에서는 오징어?”, 2012년 11월 8일

- ㄱ. [노래방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전화를 받으니) 곧바로 노래방에 가지더라¹⁴⁾
- ㄴ. 요즘 도로가 정말 좋아졌다. 와 강릉에서 우리집까지 세시간만에 와지더라!¹⁵⁾
- ㄷ. 어제 {카톡·네이버·트위터·티켓팅·서버} 이/가 안 들어가져서 고생했어.

(9–11)에서 ‘지다’가 결합한 술어들은 모두 대상의 상태 변화 사태와 관련이 있다. 반면 (12)의 ‘가다’와 ‘오다’에 결합한 ‘지다’ 표지는 특정한 상태로의 변화가 아니라, 특정한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양태(modal)적인 의미를 지닌다.

[행위] 술어에 ‘지다’ 표지가 결합한 술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는 ‘지다’ 결합 전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에서는 변화를 통제할 수 있지만 ‘지다’ 표지가 결합한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에서는 통제력이 없다. 둘째, 행위주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저해하는 조건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12ㄷ)과 같이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행위주는 변화를 일으킬 의사가 있지만 변화를 저해하는 조건 때문에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1항 술어에 ‘지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는 다시 1항 술어가 된다. 또한 ‘지다’가 결합한 전체 술어는 주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 표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전체 술어는 [변성] 사태를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디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는 대상 논항을 주어로 삼는 1항 술어로서 변화 사태를 서술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는 [변성] 사태를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결합 술어는 (5)에서 보았듯이 상태성 사태를 서술하기도 하였는데, 현대 한국어의 ‘지다’ 결합 술어는 그러한 특성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13)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와 현대 한국어 ‘지다’의 상태성 비교

14) 뉴스1, “영지 ””복면가왕’ 섭외 당일, 3kg나 빼졌다”(인터뷰②)”, 2016년 6월 4일

15) [namaste1220]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2011년 5월 24일)

<https://blog.naver.com/namaste1220/110109587977>

- ㄱ. 그때 冊액 두 字 | 호야디여 아모도 모른더니(時去聖久書缺二字 以問於師 師不能達《釋迦譜 卷第一》)《석보상절 3:10》(=5 ㄱ)
- ㄴ. ? 그 때 책이 해져 거기 적힌 두 글자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 ㄷ. 그 때 책이 해져 있어 거기 적힌 두 글자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13 ㄱ)의 ‘호야디여’를 (13 ㄴ)과 같이 ‘해져’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13 ㄴ)의 ‘해지다’는 일차적으로 변화 사태로 해석되는데, ‘해지다’가 지시하는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이므로 ‘그 때’와 같은 순간 시점 부사구의 수식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13 ㄴ)은 일차적인 해석이 거절된 다음에야 상태로 해석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로 해당 사태를 서술한다면 (13 ㄷ)의 ‘해져 있어’와 같은 표현이 선호된다. 이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가 현대 한국어의 ‘지다’ 표지로 발달하면서 다른 술어와 결합하여 상태성 사태를 나타내는 용법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¹⁶⁾

후기 중세 한국어의 문법 표지 ‘디다’는 1항 술어 중에서는 [변성], [속성], [(P) 상태] 유형의 술어에 결합한 사례만 확인되며, [(A) 상태]나 [행위] 유형 술어에 결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10)과 같은 [(A) 상태] 술어가 ‘지다’와 결합하게 된 것은 더 후대의 일이다. 즉, 1항 술어에 결합하는 한국어 ‘디다’ 표지의 분포는 [변성], [(P) 상태], [속성] 술어에서 [(A) 상태] 술어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문법화를 거쳐 [행위] 술어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술어가 부호화하는 단순 사태의 유형을 [속성], [상태], [동작]으로 나누고 [동작]을 [변성]과 [행위]로 나누어, 이들을 1항 술어의 의미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항 술어의 의미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태를 구성하는 개체, 시간선, 변화를 도입하고, 개체의 속성으로 작인성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술어 의미 유형 분류 체계로 현대

16) 이 글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결합 술어가 단순 사태 유형인 [상태]가 아니라 3.3절에서 도입할 복합 사태 유형 [결과상태]를 서술할 수 있었으며, 후대에 이 용법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결합 술어의 의미 유형 분석은 4장에서, 해당 용법의 약화는 5장에서 논의한다.

한국어 ‘지다’가 결합하는 술어들을 분류하면, 현대 한국어 ‘지다’의 의미는 결합한 술어의 의미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전체 술어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1항 동사로 분석되는데, 이 글의 의미 유형 분류 체계에서는 [변성] 술어에 대응한다.

이로써 한국어 ‘디다’ 문법화와 관련된 술어 중에서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1항 술어 및 ‘디다’ 표지가 결합한 전체 술어의 의미 유형을 도입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2항 술어의 의미 유형을 정의하는 일과,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가 결합하여 상태성 사태를 서술하는 (5ㄱ)과 같은 사례에서 ‘디다’가 결합한 전체 술어의 의미 유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다. 다음 절에서 단순 사태를 확장한 복합 사태 개념을 이용하여 이들 의미 유형을 도입하겠다.

3.3 복합 사태와 술어의 의미 유형

이 절에서는 단순 사태가 확장된 복합 사태의 유형을 살펴본다. 다만 사태가 확장된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개의 단순 사태가 합쳐진다는 것이므로, 사태의 구성 요소 조합도 훨씬 다양해진다. 논의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복합 사태 술어의 유형을 모두 도입하지 않고 ‘디다’ 문법화와 관련된 확장 유형 두 가지만을 한정하여 도입할 것이다. 하나는 [동작]에 개체를 추가하여 서술하는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를 그 원인이 되는 변화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서술하는 [결과상태]이다.

3.3.1 [동작]과 [작용]

한국어 ‘디다’가 결합하는 술어는 자동사와 형용사 등의 1항 술어 외에 양용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양용동사는 한국어 ‘움직이다’ 또는 영어의 ‘open’과 같이 사동·기동 교체를 보이는 동사를 가리킨다. 기동 용법으로 쓰인 양용동사는 [변성]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양용동사는 [변성] 유형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동형으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어 ‘디다’ 표지에 결합하는 사동 용법의 양용동사와 타동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지시하는 사태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가 변화를 겪도록 영향력을 가하는 사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동작] 사태에 기존의 개체와 영향 관계에 놓이는 개체가 더해짐으로써 확장된 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 사태가 확장된 복합 사태 유형을 [작용](作用, effect)으로 부르기로 하자. [작용] 사태는 영향자 개체와 피영향자 개체가 각각 어휘로 실현되는 2항 술어로 부호화된다.

이 글의 분류에서 특정한 유형의 술어가 논항을 두 개 취하는 2항 술어라는 것은 타동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 글의 술어 유형은 순수하게 사태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의미적으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타동사가 피동으로 변형된 술어는 행위주 논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1항 술어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글의 술어 분류 체계에서는, 피동으로 변형된 타동사가 행위주 논항과 함께 실현되었다면 이는 2항 술어로 분석된다. 타동사는 공시 문법 분석을 거쳐서 추상화된 어휘의 유형이지만, 이 글의 술어 의미 유형은 술어가 문장을 구성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정되는 사례별 유형이기 때문이다.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 문법 분석의 2항 술어와 이 글의 2항 술어의 개념을 간단히 비교해 두면 표 3.5와 같다.

예문	공시 문법 분석	이 글의 분석
They were surrounded.	1항 술어	1항 술어
They were surrounded by counter-protestors.	1항 술어	2항 술어
Counter-protestors surrounded them.	2항 술어	2항 술어

표 3.5: 술어의 결합가 판정 비교

공시 문법 분석에서 2항 술어는 두 개의 논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비문이 되는 술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표 3.5의 2행에서 ‘by counter-protestors’를 생략하더라도 1행과 동일한

문장으로서 여전히 정문이므로, 2행의 ‘be surrounded’는 1항 술어로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구축하는 사태의 유형 분류 관점에서 보면, 1행은 ‘그들’이 둘러싸였다는 사태를 부호화할 뿐 무엇에 둘러싸였는지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1행과 2행의 각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는 구성 요소가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의미 유형도 다르다. 따라서 이 글의 분류 체계에서 1행과 2행의 술어는 형태를 공유할 뿐, 서로 다른 유형의 술어로 분석된다.

[동작]이 [작용]으로 확장되더라도 추가된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태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작용]의 사태 구성 요소를 [속성], [상태], [동작]과 비교하면 표 3.6과 같다.

	변화	시간선	작인	결합가
[속성]	-	-	±	1
[상태]	-	+	±	1
[동작]	+	+	±	1
[작용]	+,+	+,+	±,±	2

표 3.6: 결합가를 이용한 [속성], [상태], [동작], [작용]의 비교

[작용]이 기존의 개체가 참가하는 사태와 추가된 개체가 참가하는 사태의 연속으로 구성되므로, 모든 의미 특성 값을 두 개씩 지닌다. 개체의 추가로 확장되는 복합 사태 술어 자체의 유형을 검토한다면 [작용]이 두 개씩 지니는 구성 요소의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다시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행위] 또는 [변성]에서 개체만 추가하여 확장된 유형을 [작용]으로 정의했으므로 개체의 특성인 작인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14) 영어 ‘break’ [변성] 사태의 작인성 영향자 확장

- ㄱ. He dropped the glass jar and it broke_[intr] into pieces.

- ↳ . He broke_[tr] the glass jar.
- (15) 영어 ‘bathe’ [행위] 사태의 작인성 영향자 확장
- ㄱ. I didn’t want to get up, eat or even bathe_[intr]. (COCA)¹⁷
 - ↳ . We feed and bathe_[tr] the kids by the clock. (COCA)
 - ㄷ. We bought many bath toys to make the kids bathe regulary.
- (14↳)은 작인성이 없는 개체를 상정하는 1항 술어 ‘break’ 사태에 작인성을 지닌 개체를 추가로 도입하여 이루어진 사태이다. (15↳, ㄷ)은 1항 술어 ‘bathe’가 지시하는 사태에 다시 작인성이 있는 개체를 추가로 도입하여 이루어진 사태이다. 그러나 (15↳)은 ‘bathe’ 변화를 겪는 개체를 비작인성 개체로 포착했고, (15ㄷ)은 작인성 개체로 포착한 것이 다르다. 개체의 유정성과 관계없이 작인성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인성이 개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화자가 부여하는 성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15)에서 새로 도입된 개체는 기존의 개체가 변화 사태를 겪도록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사태에 참가한다. 한편 변화를 겪는 개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 (16) 영어 ‘sit’ [행위] 사태의 피영향자 추가 확장
- ㄱ. She sits, Bible open on her lap, too numb to move. (COCA)
 - ↳ . [W]hen she’s calmed down, she sits me in her lap. (COCA)
 - ㄷ. Polly walked into the room and sat the teddy bear next to the music box.¹⁸

(16↳–ㄷ)의 ‘sit’은 [행위] 사태에 피영향자 개체가 추가되어 확장된 사태를 가리킨다. (16↳–ㄷ)과 (15↳)을 비교하면, 영어에서 [동작]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든 작인성 영향자 개체와 비작인성 피영향자 개체로 이루어진 사태는 결국 같은 의미 유형으로서 같은

17) (COCA)로 표시한 예문은 현대 미국 영어 말뭉치(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https://corpus/byu.edu/coca>)에서 가져온 것이다.

18) *Just My Joe*, 2011, Joan Elliott Pickart

방식으로 부호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15ㄷ)의 부호화 방식과 비교해 보자. 피영향자 개체의 작인성 유무가 술어의 부호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비작인성 피영향자 개체를 포함하는 [작용]을 [(P)작용]으로, 작인성 피영향자 개체를 포함하는 [작용]을 [(A)작용]으로 구분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작용] 유형에서 영향자가 비작인성 개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영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면 영향자 개체의 작인성 유무는 술어의 부호화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7) 영어의 ‘open’ [변성] 사태의 비작인성 영향자 확장

- ㄱ. He typed in “Big Pine” and the file opened immediately.¹⁹
- ㄴ. [S]ince the one password opened all the files ...²⁰

(18) 영어의 ‘walk’ [행위] 사태의 비작인성 영향자 확장

- ㄱ. He walked.
- ㄴ. Every gust of cold wind made him walk faster.²¹

(17–18)과 (14–15)의 부호화 방식을 비교해 보면 영향자 개체의 작인성보다는 피영향자 개체의 작인성이 [작용] 술어의 부호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용]의 하위 유형을 [(P)작용]과 [(A)작용]으로 한정해 두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용] 및 관련 의미 유형의 사태 구성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 사태,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

[(A)작용] 사태,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_{피영향자}, ±작인성 개체_{영향자}

[(P)작용]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_{피영향자}, ±작인성 개체_{영향자}

19) *The Men and the Eagle*, 2011년, Patrick Hale, 323면

20) *Doughnut*, 2013년, Tom Holt

21) *Read aloud bedtime stories*, 2003년, Publications International, 247면

[변성]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

[행위]와 [(A)작용], [변성]과 [(P)작용]은 영향자 개체를 제외하면 사태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 [(A)작용]과 [(P)작용]은 피영향자 개체의 작인성에 의해 구별된다. 개체 간 영향 관계를 별도의 사태 구성 요소로 포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작인성에 이어 개체가 지니는 속성으로 표현하였다.²²

[작용]과 [동작]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이 소절에서 검토한 모든 예문에서 [동작] 사태 술어가 [작용] 사태 술어와 형태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편의상 [동작]에서 [작용]이 확장되는 것으로 다루었지만, 역으로 [작용]이 [동작] 유형의 사태로 축소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²³

이렇게 [동작]에서 확장된 복합 사태인 [작용]을 도입함으로써, 동사의 의미 특성으로 다뤄지던 상태 변화 개념을 이 글의 술어 의미 유형 분류로 끌어들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상태 변화’라는 용어를 최대한 피해 왔는데, 이는 이 용어의 정의가 다소 직관적일 뿐더러 이와 관련된 개념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Fillmore(1970) 이래로 술어의 의미 유형으로 상태 변화를 다루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므로, 해당 전통의 논의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글의 술어 의미 유형 분류와 Fillmore(1970) 식의 ‘상태 변화’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 둘 필요가 있다.

22) 이와 관련하여 [작용] 사태에 존재하는 영향 관계를 개체 간 관계가 아니라 사태 간 관계로 포착하는 방법도 있다(Koontz-Garboden 2009:82).

23) 3.5절에서 이러한 [동작]-[작용] 간 사태 축소 및 확장의 변형 부호화 전략으로 <사동>, <반사동>, <기동>을 논의한다.

24) 전통적으로 상태 변화 동사와 관련된 “process” 용어와 동사의 상적 분류 체계에서 사용되는 “process” 개념의 차이 등이 그러한 혼란의 사례가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We need, however, to be on guard against possible confusion, as some authors, especially philosophers in the context of discussion of mind-body identity, have used “process” as the counterpart of “accomplishment.”(Mourelatos 1981:201)

Fillmore(1970)은 영어의 동사들이 보이는 통사적 행동 유형에 따라 ‘hit’으로 대표되는 동사들과 ‘break’로 대표되는 동사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전자를 표면 접촉(surface contact) 동사, 후자를 상태 변화(change-of-state) 동사로 명명하였다. 이 두 부류는 동사가 가리키는 사태가 종료되었을 때에 대상 논항에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영어의 표면 접촉 동사와 상태 변화 동사의 구분(Fillmore 1970:125, (17-18))
- ㄱ. I hit the window with a hammer; it didn't faze the window, but the hammer shattered.
 - ㄴ. * I broke the window with a hammer; it didn't faze the window, but the hammer shattered.

(19)에서 표면 접촉과 상태 변화는 각 어휘가 실현된 문장의 의미 해석, 즉 의미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 이 의미 특성을 ‘영향입음성(affectedness)’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Fillmore(1970:132, 각주 10)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hit’류 동사도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영향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19)에서 타격을 받은 유리는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타격을 받기 전의 유리와 다르다. Fillmore는 이것을 대상의 이력(histories)에 일어난 변화로 보아 대상의 물리적 실체에 일어난 변화와 구분하고 상태 변화 동사를 구분짓는 특성을 후자로 두었다. 따라서 표면 접촉과 상태 변화는 변화의 정의에 따라 대상에 일어나는 변화의 유무로 구분되거나 변화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

이 글의 술어 의미 유형 분류 체계에 따르면, 표면 접촉과 상태 변화는 모두 변화와 시간선을 지닌 사태로서 참여하는 개체의 수에 따라 [작용] 또는 [변성] 사태로 분류된다. 영향입음성은 행위주성 연속체에서 행위주(Agent)의 반대쪽 극에 있는 피행위주(Patient)의 대표적인 특성이다(Van Valin 1990:226). 따라서 상태 변화 동사가 영향입음성이 강하다는 것은 상태 변화를 겪는 개체에 작인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1항 술어로 표현되는 상태 변화는 이 글의 [변성] 유형에 해당하고, 2항 술어로 표현되는 상태 변화 및 표면

접속은 [(P)작용]에 해당한다. 이 두 유형은 한국어 ‘디다’와 관련하여 자주 한데 묶여서 다뤄질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변성]과 [(P)작용]을 묶어서 상태 변화로 지칭하기로 한다.

3.3.2 [상태]와 [결과상태]

앞 소절에서는 개체와 관련된 사태 확장을 살펴보았다. 이 소절에서는 변화와 관련된 사태 확장을 살펴본다. 앞서 개체를 작인성에 따라 세분하였는데, 변화 또한 사태의 종결 여부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 변화의 종결성을 반영한 분류로 Nedjalkov(1988)에서 종결성(terminative) 동사와 비종결성(non-terminative) 동사를 구분한 것이나, Vendler(1957)에서 한계(telic) 동사와 비한계(atelic) 동사를 구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술어의 의미 유형을 사태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누고 있으므로, Vendler(1957) 계통의 상적 유형 분류와 혼동되지 않도록 ‘종결성’ 용어를 사용하겠다.

(20) [행위] 사태와 종결성

- ㄱ. 비종결: Regan sings, holding up the Financial Times. (COCA)
- ㄴ. 종결: Regan sits, holding up the Financial Times.

(21) [변성] 사태와 종결성

종결: [W]e're gonna have to wait until all this snow melts. (COCA)

[행위] 사태는 종결성 변화 또는 비종결성 변화로 구성될 수 있지만, [변성] 사태는 종결성 변화로만 구성된다. 이는 [변성] 사태에 참여하는 비작인성 개체는 비작인성의 정의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성] 술어가 서술하는 사태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성] 사태를 이루는 변화는 모두 언젠가 끝이 난다. (20 ㄱ)의 사태는 그 노래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데 비해, (20 ㄴ)이나 (21)의 사태는 내재된 끝이 존재한다. 앓는 사태의 끝은 의자가 엉덩이에 닿는 것이고, 녹는 사태의 끝은 눈이 물이 되는 것이다. 이들 종결성 [동작] 사태의 끝은

다시 [상태]로 포착될 수 있으며 종종 동형으로 부호화되어 술어의 의미 유형 중의성을 만들어 낸다.

(22) 영어 ‘sit’ 사태의 [행위]-[상태] 중의성

Regan sat, holding up the Financial Times.

(23) 영어 ‘melt’ 사태의 [변성]-[상태] 중의성

We left when the snow melted in April.

(20)의 비종결성 ‘sing’ 사태가 과거 시제로 사용되더라도 과거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데 비해, (22)의 종결성 ‘sit’ 사태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하나는 ‘Regan’이 앉는 [행위]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앉아 있는 [상태]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다. (23)의 ‘melted’ 역시 눈이 녹는 [변성]과 눈이 녹은 [상태]의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24-25)와 같이 변형된 술어들은 [변성]과 [상태] 사이에서 중의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변성]과 [상태]가 합쳐진 사태를 서술한다.

(24) 영어 ‘melt’ 사태의 범위 확장

ㄱ. [R]oast until vegetables are fragrant, and cheese is melted. (COCA)

ㄴ. These [crustal rocks] become melted and mixed into the magma²⁵

(25) 영어 ‘freeze’ 사태의 범위 확장

ㄱ. The river is frozen solid.²⁶

ㄴ. The lake froze solid.

25) *Volcanoes, Earthquakes And Tsunamis: Teach Yourself*, David Rothery, 2010.

26) *The Frozen Thames*, Helen Humphreys, 2012.

(24ㄱ)의 ‘be melted’와 (25ㄱ)의 ‘be frozen solid’는 각각 녹은 상태와 언 상태를 지시하면서 그것이 ‘melt’와 ‘freeze’ 변화의 결과임을 함께 서술한다. 이는 상태를 그에 선행하는 원인이 되는 변화를 포함하여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4ㄴ)의 ‘become melted’와 (25ㄴ)의 ‘freeze solid’는 녹는 변화와 어는 변화를 지시하면서 그 변화의 결과 상태가 어떠할지를 함께 서술한다.

변화와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도록 사태를 확장하면, 이를 서술하는 술어는 변화를 서술하면서 그 결과인 상태를 함의하거나, 상태를 서술하면서 그 상태의 원인인 변화를 함의한다. 이때 확장된 사태 술어의 변화 또는 상태 함의는 변화와 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변화와 관련되어 확장된 복합 사태는 모두 종결성 상태 변화 사태와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24ㄱ)과 같이 변화를 함의하는 상태 서술에 주목하여 이를 [결과상태]로 명명하겠다. 이러한 확장이 Nedjalkov(1988)의 “resultative” 범주가 결합한 술어의 의미 특성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특정한 상태를 서술하는 [상태] 술어와 해당 상태의 원인이 되는 변화를 함의하는 [결과상태] 술어는 여러 언어에서 동형으로 나타나며 구분이 쉽지 않다(Nedjalkov 1988:7). [결과상태]와 [상태]의 차이가 형태의 차이로 반영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6) 영어 ‘dark’ 사태의 [결과상태] 및 [상태] 부호화

- ㄱ. [결과상태]: Given a choice between the two versions of the photo, Jane prefers the darkened one.(Koontz-Garboden 2010:287, (2a))
- ㄴ. [상태]-[속성]: Given a choice between the two versions of the photo, Jane prefers the dark one.

(26ㄴ)의 ‘dark’가 사진의 이전 상태에 대한 함의 없이 현재 [상태]만을 가리키는 데 비해, (26ㄱ)의 ‘darkened’는 사진이 이전에는 어둡지 않았으며 어떤 변화의 결과로 지금 어둡다는 정보를 함의한다. [결과상태] 술어 ‘darkened’가 [상태] 술어 ‘dark’보다 더 복잡한 형태인 것은 [결과상태]가 복합 사태로서 [상태]보다 더 복잡한 구조임이 반영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Nedjalkov(1988)에서 서술된 “resultative”의 유형론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상태] 사태는 주로 변화 사태 술어를 변형하여 부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 정의하는 [결과상태]는 변화 사태를 변화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갯수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결과상태]의 하위 유형으로 [작용] 사태에서 확장된 사태와 [동작] 사태에서 확장된 사태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7) [행위]와 [결과상태] 확장(Nedjalkov 1988:7, (5))

- ㄱ. [행위] : John has sat down.
- ㄴ. [(A) 결과상태] : John is sitting.

(28) [변성]과 [결과상태] 확장

- ㄱ. [변성] : The lake froze.
- ㄴ. [(P) 결과상태] : The lake is frozen.

(29) [작용]과 [결과상태] 확장 1(Nedjalkov 1988:8, (8))

- ㄱ. [작용] : John has put on a hat.
- ㄴ. [(A) 결과상태] : John has a hat on.

(30) [작용]과 [결과상태] 확장 2(Nedjalkov 1988:8, (11))

- ㄱ. [작용] : John has opened the door.
- ㄴ. [(P) 결과상태] : The door is opened.

(27–30)에서 (ㄴ) 술어들은 (ㄱ) 술어들이 지시하는 변화의 결과로 생겨난 상태를 서술한다. 사람이 앉아 있다면 앉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호수가 열었다면 어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며,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다면 쓰는 사건이 선행했을 것이고, 문이 열려 있다면 여는 사건이 선행했으리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29)에서 보이듯, 영향자 개체 자신이 상태 변화를 겪는 [작용] 사태에서 확장된 [(A) 결과상태]는 2항 술어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30)처럼 피영향자가 상태 변화를 겪는 [작용] 사태에서 확장된 [(P) 결과상태]는 영향자 개체 없이 1항 술어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과상태] 술어가 변화의 결과 상태에 대한 서술인 만큼 상태 변화를 겪은 대상이 서술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⁷ [결과상태]와 반대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용] 사태를 확장할 경우, 영향자 개체를 중심으로 사태를 서술하는 2항 술어로 부호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1) [작용] 사태의 범위 확장과 변화 서술

- ㄱ. The builder made the house more modern.
- ㄴ. Mary painted the fence blue.

(31)의 각 술어는 변화와 관련하여 확장된 사태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결과상태] 술어와 비슷하지만, 서술하는 것이 상태가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를 편의상 [작위](作爲, factitive)로 부르기로 하자. [작위] 유형은 한국어 ‘디다’ 문법화 분석과는 관련이 없지만, 3.5절에서 “resultative”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할 때에 필요하므로 여기에서 도입해 둔다.

3.3.3 복합 사태와 ‘지다’ 표지 결합 어휘

지금까지 단순 사태에서 확장된 복합 사태로서 [작용]과 [결과상태]를 살펴보았다. [작용]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어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타동사 및 사동 용법으로 쓰인 양용 동사의 의미 유형을 포착할 수 있다. [결과상태]는 한국어 ‘디다’ 표지 분석에서 언급되는 일이 드물지만, 5장에서 ‘디다’ 표지의 문법화 진입 과정을 설명할 때에 매우

27) 피동태 문장에서 행위주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주가 종종 생략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이 된다. 단순 사태 유형인 [속성], [상태], [동작]과 이들의 사태 구성 요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속성] 사태, ±작인성 개체

[상태] 사태, 시간선, ±작인성 개체

[동작] 사태,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

[(A)결과상태] 사태,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 +작인성 개체

[(P)결과상태] 사태, 변화', 시간선, 비작인성 개체

[(A)작용] 사태,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_{피영향자}, ±작인성 개체_{영향자}

[(P)작용] 사태, 변화, 시간선, -작인성 개체_{피영향자}, ±작인성 개체_{영향자}

1항 술어로 부호화되는 [결과상태]와 [동작]은 모두 변화, 시간선, 개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변화가 갖는 지위가 다르다. [동작]의 변화는 술어가 서술하는 정보이지만, [결과상태]의 변화는 술어에 함의되는 정보이다. 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결과상태]를 구성하는 변화를 변화'로 표시하였다. [결과상태] 술어가 1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상태이므로, 이 술어는 [상태] 술어가 지니는 특징들을 공유한다.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는 주로 종결성 [작용] 술어에 결합한다. 이는 종결성 사태이기만 하면 [작용]과 [변성]을 가리지 않고 결합했던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 표지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 '지다'가 [작용] 술어에 결합하면 피영향자 개체를 주어로 삼는 1항 술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용법의 '지다'가 피동 표지라는 분석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그러나 범언어적으로 피동 범주는 술어가 서술하는 사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작용] 술어를 변형하는 '지다' 표지의 의미를 피동으로 보는 분석은 문제가 있다. '지다' 표지가 결합한 [작용] 술어는 영향자 개체를 직접 논항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다' 표지가 결합하여 형성된 전체 술어의 개체 관련 특성과 변화 관련 특성을 예문을 통해 살펴 보자.

- (32)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작용] 술어 결합과 영향자 개체
- ㄱ. 현서가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다.
 - ㄴ.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졌다.
 - ㄷ. 현서에 의해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졌다.
 - ㄹ. * 현서{에게, 한테}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졌다.
 - ㅁ.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자신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 라”는 다시 풀면 진리다운 자신과 자기에게 찾아진 진리에 의지할지언정...²⁸

- (33) 현대 한국어 ‘-이’ 표지의 [작용] 술어 결합과 영향자 개체
- ㄱ. 경찰이 성금을 훔쳐간 일당을 범행 4시간여만에 붙잡았다.
 - ㄴ.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쳐간 일당이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한국일보, 2019.12.30.》

(32ㄴ~ㄹ)의 비교에서 보이듯, 현대 한국어 ‘지다’로 변형된 술어는 단독으로 영향자 개체에 격을 부여하지 못한다. (32ㄷ)에서 ‘현서’에게 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하다’ 술어이다. 이를 (33ㄴ)에서 ‘-이’ 결합 술어가 단독으로 영향자 개체에 격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하면, ‘지다’ 결합 술어는 영향자 개체가 배제된 사태를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드물게 ‘지다’ 결합 술어가 (32ㅁ)과 같이 단독으로 영향자 개체에 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32ㅁ)의 ‘자기에게 찾아진 진리’라는 표현은 진리의 발견자가 자신이라는 정보와 함께 그 발견이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표현한다. 따라서 ‘지다’ 결합 술어에 의해 격을 부여받은 ‘자기’는 (33ㄴ)의 ‘경찰’과 비교하면 작인성 개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32ㅁ)의 ‘지다’ 표지는 [작용] 술어에 결합하여 영향자 개체의 작인성을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은 피동 범주와도 다르고 (32ㄴ)의

28) 해찬, 2007년 11월 27일, “자명등법등명 자귀의 법귀의”(<http://www.sejonsa.co.kr/법회> > 설법)

영향자 개체 배제 용법과도 다르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 표지의 의미가 확장되는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 준다.

‘지다’ 표지가 (32ㄴ)과 같이 영향자 개체를 배제하는 의미 변형을 가져온다면, 이 배제된 영향자 개체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서술되지는 않으나 존재는 함의되는 경우도 있고,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34)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와 영향자 개체 함의

구경꾼: (사전 설계 없이 가구를 만드는 1인 회사 사장에게) 이번엔 또 뭐 만드시게요?

사장: 또 모르지 뭐, 만들어져야지 알지.²⁹

(34)에서 사장의 대사는 웃음을 유발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사장이 자기가 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서술한다는 아이러니에서 웃음이 발생한다. 이 ‘만들어지다’는 영향자 개체를 배제한 채로 가구가 완성되는 사태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에서 ‘의하다’ 술어로 영향자 개체를 명시하면 비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문장이 되는데, 이는 ‘지다’ 표지의 영향자 배제와 ‘의하다’의 영향자 명시가 서로 충돌함으로써 해당 문장을 발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작용] 술어에 결합한 ‘지다’ 표지가 영향자 개체를 서술에서만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위 문장의 해석에서 드러난다. 가구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사장이므로, ‘만들어지다’는 ‘만들다’에서 상정되는 영향자 개체의 존재를 여전히 함의한다. 가구가 스스로 완성되는 사태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 문장을 피동 구조로 분석하려고 하면 아이러니의 핵심인 행위주 배제와 충돌한다. 피동은 사태의 초점을 변형할 뿐 행위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34)에서 사장의 발화에 ‘나에게,’ ‘나한테,’ ‘우리 회사에서’ 등으로 행위주를 명시하면 비문이 되거나 아이러니를 만드는 데 실패한다. 따라서 (34)의 ‘지다’ 표지가 ‘만들다’ 사태에서 행위주를 배제한 사태를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tvN 《스페인하숙》 2019년 4월 28일 방영분

(35)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와 영향자 개체 삭제

ㄱ. 아이를 키우면서 1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ㄴ. 아이를 키우면서 10년 동안 피우던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다.

(34)의 화자는 자신의 역할을 배제하고 사태를 서술하지만, 해당 사태에 자신이 작인성 개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35)의 화자를 이와 비교해 보자. (35 ㄱ)의 ‘끊다’는 영향자 개체를 포함하는 사태를 서술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다’ 표지로 변형된 (35 ㄴ)의 ‘끊어지다’는 ‘담배를 끊다’ 사태에서 주체의 작인성을 완전히 부정하여 일종의 자연 현상처럼 사태를 서술한다.

이렇듯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는 [작용] 술어에 결합하여 영향자 개체를 서술에서 배제하거나, 사태에서 삭제하거나, 영향자 개체의 작인성을 부정한다. 3.5에서 이러한 ‘지다’ 표지의 의미 변형을 설명하는 문법 범주들을 도입할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 사태를 가리키는 1항 술어의 의미 유형으로 [속성], [상태], [동작]을 도입하고, [동작]을 개체의 작인성에 따라 [행위]와 [변성]으로 나눈 다음, 단순 사태에서 확장된 복합 사태의 유형으로 [작용]과 [결과상태]를 도입하여 각각의 사태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술어 의미 유형을 이용하여 한국어 ‘디다’가 결합할 수 있는 술어의 의미 유형 및 ‘디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전체 술어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부터는 이 술어 의미 유형들 사이의 유사성이 사태가 술어로 부호화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3.4 술어의 다의성과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동일한 사태가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때, 사태 구성 요소의 조합이 다르면 이를 부호화하는 술어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old_A’와 ‘age_V’는 둘 다 노화 사태를 지시하지만 전자는 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노화 사태를 서술하고 후자는 변화가 포함된 노화 사태를 서술한다.

범언어적으로 동일한 사태의 서로 다른 유형이 술어로 부호화될 때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태 구성 요소가 비슷한 유형들은 종종 형태적 관련성을 지닌다. 이때 사태 구성 요소가 비슷하다는 것은 구성 요소 하나를 제외하면 동일한 관계를 말한다. 주로 [속성]과 [상태], [상태]와 [동작], [동작]과 [결과상태], [동작]과 [작용] 등의 쌍이 인접 사태 유형을 이룬다. 인접 사태 유형들은 동형의 술어로 부호화되거나, 한쪽의 술어를 변형하여 다른 쪽의 사태를 부호화하거나,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형태로 부호화된다. 각 부호화 전략의 정의와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형(同形) 부호화 술어 하나가 복수의 의미 유형에 대응함

예: [변성] break, [작용] break

변형(變形) 부호화 특정 의미 유형의 술어를 변형하여 다른 의미 유형임을 나타냄

형태 변형 술어에 다른 형태소 결합

예: [속성]-[상태] red, [변성] redder

구문 변형 술어에 다른 술어 결합

예: [속성]-[상태] yellow, [변성] N turn yellow, [작용] make N yellow

이형(異形) 부호화 의미 유형별로 별도의 어휘가 대응함

예: [속성]-[상태] old, [변성] age

동형 및 형태 변형 전략을 이용하여 부호화되는 사태는 인접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태 유형이 인접할수록 동형으로 부호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³⁰⁾ 예를 들어 [속성]과 [상태]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동형으로 부호화되는 사례를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조합이다.

30) 이는 제약이 아니라 경향이다. 영어의 ‘googleN’ - ‘googlev’처럼 유형이 인접하지 않은 사태가 동형으로 부호화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의 유형들은 언어별로 동형 부호화가 선호되는 조합이 다양하며, 동일한 조합에 대하여 선호되는 부호화 전략이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변성]-[(P) 작용]에 동형 부호화 전략이 사용된 결과물인 양용 동사가 많이 사용된다. 반면에 한국어는 후기 중세까지 그러한 동형 부호화 전략이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 쇠퇴하여 현대 한국어에는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³¹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이 인접 사태 유형들이 동형의 술어로 부호화되는 현상을 살펴본다.

3.4.1 단순 사태의 인접 의미 유형 동형 부호화

정적(static) 어휘부 모형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통사적 성질을 지니면 그들 각각을 별도의 어휘(lexeme) 항목으로 분리한다. 그러나 어휘부를 정적인 목록이 아니라 동적인 생성 체계로 포착한다면, 동일한 사태를 지칭하는 하나의 항목이 사용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 유형을 부여받아 다른 통사적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6) 한국어 ‘굳다’의 [속성] 및 [상태] 해석

- ㄱ. [속성]: (상록수는) 일반적으로 낙엽수보다 잎이 두껍고 굳다. (21세기 세종계획)
- ㄴ. [상태]: 올해부터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은 무엇이든 사양하겠다는 의지가 굳다. (21세기 세종계획)

(36 ㄱ)의 ‘굳다’는 ‘무르다’와 대비되는 잎의 [속성]을 가리키지만, (36 ㄴ)의 ‘굳다’는 의지의 일시적 [상태]를 가리킨다. 선행 맥락에서 ‘굳다’ 상태가 의지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굳다’ 술어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속성] 또는 [상태]를 표현한다.

31) 인접 사태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은 문법학의 전제가 되는 해석 중의성을 발생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5절에서 논의한다.

[속성] 유형의 ‘굳다’와 [상태] 유형의 ‘굳다’가 별도의 어휘로 부호화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여 부호화된 것은 두 사태를 나누는 시간선의 존재가 사태의 내용이 아니라 화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동일한 내용의 사태를 구성 요소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구성 요소 하나 정도의 차이는 굳이 명시적인 형태로 드러내지 않고 맥락에 따른 추정에 맡기는 부호화 전략이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어 ‘굳다’의 동사적 쓰임에서도 드러난다.

(37) 한국어 ‘굳다’의 [변성] 해석

신 회장은 이제는 유분과 수분의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가 굳는 속도가 어느 정도 다른지도 알만큼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다.(21 세기 세종계획)

(37)의 ‘굳다’는 수식하는 대상이 ‘속도’라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변화가 존재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이 술어에서 지시하는 ‘굳다’ 변화는 각각의 비누 제조 사건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이므로, 반드시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즉, [변성] ‘굳-’ 사태는 [상태] ‘굳-’ 사태에서 변화가 더해진 인접 사태 유형이 된다. [변성] ‘굳-’ 사태와 [상태] ‘굳-’ 사태가 모두 ‘굳다’ 형태로 부호화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인접한 사태 유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변성]과 [상태]를 가르는 것은 사태에 변화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며 그 포함 여부는 화자의 인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굳다’는 [속성], [상태], [변성]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 다만 일상 언어 생활에서 한국어 화자는 ‘굳다’가 이러한 다의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데, ‘굳다’가 가리키는 사태의 유형을 해석할 때에 결합한 시상 표지(tense-aspect marker)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8) ‘굳다’ 술어의 시상 표지 결합과 의미 유형 분류

- ㄱ.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는 굳은 것으로 유명하다.

- ㄴ. 그 콘크리트가 한번 굳은 다음에는 망치나 곡괭이로 마구 두들겨도 쉽게 망 가지지 않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된다는 것을 난생 처음 깨달을 수 있었다.(21세기 세종계획)
- ㄷ. 아기가 깊이 잔 것 같은데, 힘이 없고 목이 굳어 있을 경우가 있다.(21세기 세종계획)
- ㄹ. 애벌레는 애당초 부드럽던 뺨이 돌덩이같이 굳어 버려서, 이빨로 물어뜯을 수도 없이 되었을 때는 불행하게도 깎아죽고 만다.(21세기 세종계획)
- ㅁ. 한쪽에서는 가난과 일에 시달려 그 마음마저 병들어 노예근성으로 굳어 가는 인간들이 자라나는 나라(21세기 세종계획)
- ㅂ. 날이 더운 탓에 초콜렛이 느리게 굳고 있다.

(38ㄱ)의 ‘굳다’는 [속성] 사태를, (38ㄴ-ㄹ)의 ‘굳다’는 [상태] 사태를, (38ㅁ-ㅂ)의 ‘굳다’는 [변성] 사태를 서술한다. 그런데 (38ㄴ-ㄹ)의 ‘굳-’ 또한 [변성] 술어이며, [상태]를 서술하는 것은 결합한 시상 표지의 역할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할 경우, 현대 한국어의 모든 ‘굳다’ 사례를 [속성]과 [변성]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 (36ㄴ)과 같은 사례를 [속성] 술어 ‘굳다’가 쓰인 예로 해석하면, [상태] 유형의 ‘굳다’를 설정하지 않아도 변화의 유무에 근거한 동사와 형용사 구분만으로 ‘굳다’의 통사적 분포를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굳다’를 [속성]-[상태] 동형 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임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의 유무뿐만 아니라 시간선의 유무도 술어의 통사적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의 문법 표지 ‘있다’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몇몇 예외 사례들이 있다(박진호 2003:37–38). 이러한 결합이 일어날 때에, 해당 형용사는 그 맥락에서 반드시 [상태] 유형 사태를 서술한다.

(39) 형용사의 사태 유형에 따른 ‘있다’ 표지 결합 양상

- ㄱ.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 ㄴ. 서울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1시에 해제됐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높아 있다.³²
- ㄷ. 산악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 안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 ㄹ. * 산악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 있어 안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39ㄱ, ㄷ)의 ‘높다’는 둘 모두 계측된 숫자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로서 변화가 없는 사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의 높이는 일정 시간 동안만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로 여겨지지만, 땅의 높이는 불변하는 상태로 여겨지므로 전자에는 시간선이 있고 후자에는 시간선이 없다. 이 차이가 술어의 통사적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39ㄴ)과 (39ㄹ)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미세먼지 농도를 서술하는 ‘높다’는 ‘-어 있다’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고도를 서술하는 ‘높다’는 불가능하다.

박진호(2003:51–54)에서는 형용사가 ‘있다’와 결합하는 사례를 연속상(continuous) 용법의 ‘-어 있다’가 결합하여 정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의 술어 분류에서 [속성]은 그 정의상 지속되는 사태이므로 사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지가 또다시 결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박진호(2003)의 분석은 형용사의 [상태] 서술 용법을 포착한 것이며, 연속상 표지 ‘-어 있다’는 품사와 관계없이 시간선을 포함하는 유형의 술어에 결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속성]-[상태]를 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이 [속성]-[상태] 동형 부호화 전략이 선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은 문법화 연구로서 여러 언어의 사례를 다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술어 의미 유형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성]과 [상태]를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여러 형용사들을 [속성]-[상태] 동형 술어의 사례로 분석하고자

32) 해럴드POP, “주말 전국 날씨 정보.. 내일 초여름 더위 ’서울 26도’”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605071744471306056_1

한다.³³

한편으로 ‘굳다’처럼 [상태]와 [변성]이 동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결과상태]를 도입할 때에 보았듯이 종결성 사태인 경우로 한정된다. Nedjalkov(1988:13)은 이러한 의미 유형 중의성을 지닌 동사를 중립(neutral) 동사라고 불렀는데, Lakoff(1966:I-13)의 상태 동사 논의에서 예외로 처리되었던 [(A)상태] 부류의 하위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1류 remain, stay, keep …

2류 sit, stand, huddle, squat …

Lakoff(1966)은 의미 측면에서 상태성을 떠면서도 상태동사와 다른 통사적 성질을 보이는 어휘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외 어휘들을 1류와 2류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Lakoff(1966)에서는 [(P)상태]를 부호화한 어휘를 상태동사 및 상태형용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A)상태]를 부호화한 이들 어휘가 모두 예외로 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Lakoff는 이들 예외 사례들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나, 그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글은 [(A)상태]의 1류와 2류 구분이 변화의 종결성에 있다고 본다. 1류의 ‘remain’ 술어는 행위주가 유지하는 [상태]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2류의 ‘sit’ 술어는 행위주가 ‘앉아 있는’ [상태]가 ‘앉는’ [행위]의 결과라는 정보를 준다. 이 글의 관점에서 1류 동사들은 [(A)상태]만을 부호화하는 술어들이고, 2류 동사들을 [(A)상태]와 [행위] 유형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술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A)상태]-[행위]는 변화의 유무로만 구분되는 유형이므로, 영어의 ‘sit’류 어휘들은 인접 의미 유형이 동형의 어휘로 부호화된 사례가 된다.

33) 이 글의 술어 의미 유형 분류는 품사 단위가 아니라 술어의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어의 형용사 중에는 [속성]만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굳은 관형사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나(김건희 2016) 관형사로 분석되는 술어 등이 그러한 사례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에서 벗어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로 넘긴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사례를 통해 [속성]-[(P)상태], 종결성 [(P)상태]-[변성], 종결성 [(A)상태]-[행위]가 각각 동형으로 부호화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작용] 및 [결과상태]가 관련된 동형 부호화 유형을 살펴본다.

3.4.2 복합 사태의 인접 의미 유형 동형 부호화

앞서 [결과상태]와 나머지 의미 유형들의 사태 구성 요소를 비교하면서, [결과상태]가 종결성 [동작] 및 [상태]와 인접한 의미 유형임을 보았다. [동작] 사태가 발생하여 종료되면 별도의 서술이 없는 한 그 결과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되는 사태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의 결과와 [상태]의 원인은 맥락에서 쉽게 복원되므로, 과거 시제로 사용된 종결성 [동작] 술어 및 서술어로 사용된 [상태] 술어는 [결과상태] 술어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결성 [동작]-[결과상태] 동형 부호화와 [상태]-[결과상태] 동형 부호화가 관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종결성 [동작]-[결과상태] 부호화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40) 한국어 ‘기절하다’의 [변성]-[결과상태] 부호화

- ㄱ. 이날 이분들은 8시 정각에 기절하셨다고 합니다³⁴
- ㄴ. 정체 모를 ‘병’으로 11일 동안 기절했다 깨어난 소년³⁵
- ㄴ' 정체 모를 ‘병’으로 11일 동안 기절해 있다 깨어난 소년

(41) 한국어 ‘기절해 있다’의 [결과상태] 서술(박진호 2003:44,(4))

- ㄱ. 그는 7시 정각에 기절해 있었다.
- ㄴ. 그는 3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다.

34) larme815 (2017년 4월 5일)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https://m.blog.naver.com/larme815/220975682552>
2019.8.30. 접속

35) 디스패치 (2017년 10월 23일) “정체 모를 ‘병’으로 11일 동안 기절했다 깨어난 소년” <https://www.dispatch.co.kr/956081> 2019.8.30. 접속

현대 한국어의 ‘기절하다’ 술어는 [변성] 유형의 ‘기절하다’ 사태를 부호화하며, (40ㄱ)에서 보듯 순간 시점 부사구의 수식을 받으면 ‘기절하다’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서술한다. 이는 (41ㄱ)에서 ‘-어 있다’로 변형된 ‘기절해 있다’가 동종의 수식을 받았을 때에 ‘기절하다’ 상태가 해당 시점에 성립해 있음을 서술하는 것과 대비된다.

‘기절하다’ 술어는 과거 시제 표지와 결합하여 ‘기절했다’의 형태로 [결과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간 부사구의 수식을 받은 (40ㄴ)과 (41ㄴ)은 모두 [상태] 유형의 ‘기절하다’ 사태가 지속된 기간을 서술한다. 이때 (40ㄴ)의 ‘기절했다’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변성] ‘기절하다’ 사태가 발생했다는 서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1일 동안 지속된 ‘기절하다’ 변화의 결과 상태에 대한 서술이기도 하다. 이는 (40ㄴ')이 (40ㄴ)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절했다’ 술어는 (40ㄱ)처럼 [변성] 사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40ㄴ)처럼 [결과상태] 사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40ㄱ)은 [변성] ‘기절하다’ 술어를 변형하여 ‘기절했다’ 형태로 [결과상태]를 부호화한 사례이면서 동시에 ‘기절했다’ 술어가 [변성]-[결과상태]를 동형으로 부호화한 사례이고, (40ㄱ')은 [변성] ‘기절하다’ 술어가 ‘-어 있다’ 변형을 통해 [결과상태]를 부호화한 사례가 된다.³⁶

36) 시제 표지는 술어가 아니라 술어가 형성한 명제에 결합한다. 따라서 ‘기절했다’를 ‘기절하다’와 동등하게 술어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절했다’와 같은 ‘-었’ 결합 술어가 ‘지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 ㄱ. 태희가 지금 기절했어.
- ㄴ. 태희는 지금 기절했어.
- ㄷ. 태희{가/는} 지금 기절해 있어.

(ㄱ)은 기절의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고, (ㄷ)은 기절한 상태가 지금보다 이전에 성립하여 지속 중이라는 것인데, (ㄴ)은 그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기절했다’의 ‘-었’이 ‘태희가 기절하다’라는 변화 사태의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만 하다면, (ㄴ)처럼 ‘지금’의 수식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절했다’를 ‘기절하다’와 동등한 차원의 술어로 다룬다. 다만 이것은 ‘-었’ 표지가 그러한 변형을 일으키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주장일 뿐, 현대 한국어의 ‘-었’ 표지를 [변성] 술어를 [결과상태] 술어로 변형하는 “resultative” 표지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었’의 이러한 용법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에

앞서 살펴본 [변성]-[상태] 동형과 [변성]-[결과상태] 동형 사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앞서 [결과상태] 유형을 도입할 때에 [상태]와 [결과상태]의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는데, [변성]과의 동형 부호화 사례에서 이들을 구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들은 화자가 의도한 상태 서술에 원인이 되는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청자나 독자는 화자의 의도에 직접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할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변형 부호화 전략을 적용하여 이들 유형의 차이를 술어의 형태에 반영하기도 하므로 이들의 구분이 필요하다.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위의 ‘기절하다’ 사태처럼 특정한 유형의 사태를 표현할 때 연관된 사태 술어를 이용한 부호화 전략이 여러 가지로 혼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문법화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적 중의성은 이렇듯 동일한 형태의 술어가 다양한 유형으로 해석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술어가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공시 문법 분석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적의 문법 구조를 추출하는 데에 주력하지만, 문법화 분석은 반대로 혼란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최대한 다양하게 포착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가 거듭하여 일어나는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글에서는 사태 유형의 구성 요소 조합이 가까우면 동형으로 부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작용]과 [변성], [변성]과 [상태], [상태]와 [속성]이 동형으로 부호화될 수 있다면, [속성]-[상태]-[변성]-[작용]의 동형 부호화 사례가 존재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다음은 영어에서 확인되는 사례이다.

(42) 영어 ‘yellow’ 사태의 동형 부호화 범위

- ㄱ. [속성]: McDonald's colors are red and yellow for a reason.³⁷
- ㄴ. [상태]: If the bottom leaves are yellow or flowers are present, the plant is stressed.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37) <https://www.eatthis.com/mcdonalds-colors-red-yellow/>, 2019년 8월 21일 접속

(COCA)

- ㄷ. [변성]: [I]n October 1947 when the leaves began to yellow and redden, he left for France alone. (COCA)
- ㄹ. [작용]: She no longer played the [piano], which she kept closed so the western sun would not further yellow the keys. (COCA)

(42)는 [속성] 술어인 ‘yellow’에 인접 의미 유형 동형 부호화 전략이 거듭 적용되어 동형의 [작용] 술어까지 생겨난 예이다. 이것이 [작용]이 아니라 [속성]에서 시작한 확장임은 각 유형의 ‘yellow’가 말뭉치에서 차지하는 빈도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동형 부호화의 결과물이 술어의 다의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예이다. 그러나 동형 부호화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영어에서 [결과상태] 술어가 [상태]를 거쳐 [속성] 사태까지 부호화하는 예이다.

(43) 영어 ‘engaged’의 [결과상태]-[상태]-[속성] 부호화

- ㄱ. [작용]: [T]he North’s leader Kim Jong-un and U.S. Pres. Donald Trump have engaged in an escalating battle of name-calling and threats.(COCA)
- ㄴ. [결과상태]: Since World War II, our military has been engaged in numerous conflicts. (COCA)
- ㄷ. [상태]-[결과상태]: Our military is engaged in numerous conflicts.
- ㄹ. [속성]: I think Hillary’s been more engaged with that diplomacy than I have.
(COCA)

(43 ㄱ)의 ‘engage’는 2항 술어로만 쓰이는 동사로서 종결성 사태를 가리키는 [작용] 술어이며, 완료 표지는 해당 [작용] 사태가 현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43 ㄴ)의 ‘engaged’는 ‘engage’ 술어가 변형된 형태로서, 계사 ‘be’에 결합하여 2차 세계 대전에 있었던 변화의 결과로 생겨난 상황을 서술한다. 즉, ‘engaged’가 나타내는 것은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생겨난 [결과상태]이다. 이때 완료 표지는 이 ‘engaged’ [결과상태]가 빌화시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43ㄴ)이 [결과상태] 해석을 강하게 지니는 것은 완료 표지의 영향도 있다. (43ㄴ)의 완료를 단순 현재로 바꾼 (43ㄷ)은 [결과상태]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맥락의 지지가 없다면 대개 [상태]로 해석된다. 이는 ‘engaged’에 단순 현재 표지가 결합하면서 완료 표지로 인해 강화되었던 시간의 흐름 정보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결과상태] 유형의 사태에는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 앞에 이미 종료된 사태가 하나 더 있었다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므로, 전체 사태를 표현할 때에 단순 현재보다는 완료 또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43ㄹ)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은 ‘engaged’는 그 [상태]의 연원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며, ‘Hillary’의 현재 관여도를 낳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때문에 (43ㄹ)의 ‘engaged’는 [결과상태]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화자가 ‘Hillary’의 외교 관여도를 자신의 외교 관여도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외교 관여도는 각 개체를 이루는 [속성]으로 해석된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허용하는 정도성은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하는 특질이다(Croft 1991). 따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은 술어가 [속성] 유형으로 해석되는 것은 형용사의 원형적 의미가 속성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ngaged’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 영어 화자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는 문법화 연구를 위한 술어의 의미 유형 분류가 맥락별로, 사례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문법화는 특정한 어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의 어휘에 일어난다. 따라서 문법화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술어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허용하는 문법 구조가 필요하다. 인접 사태 유형 간 동형 부호화 전략은 그러한 중의성을 허용하는 문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술어가 [결과상태]-[상태]-[속성]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종결성 사태로 한정된다. 비종결성 사태를 [결과상태] 또는 [속성]으로 변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어의

‘stay’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44) 영어 ‘stay engaged’의 [(A)상태] 부호화와 정도부사 수식

- ㄱ. [(A)상태] : I've always stayed engaged as a volunteer. (COCA)
- ㄴ. 정도부사 수식 : Even simple PowerPoint presentations will often help these students take better notes and stay more engaged. (COCA)

(44 ㄱ)의 ‘stay engaged’는 화자가 ‘engaged’ [상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해 왔음을 나타내는 [상태] 술어이다. 이 예문에서 완료 표지는 ‘stay’에 결합하여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사건이 발화시와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stay’ 사태의 내용은 작인성 있는 개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stay’ 사태는 물론 그에 선행하는 사태에도 변화가 없다. 따라서 (44 ㄱ)은 발화와 관련된 시구 간 내에서 화자가 언제나 ‘engaged’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낼 뿐, ‘not engaged’ 상태에서 ‘engaged’ 상태로 넘어가는 변화의 존재를 함의하지 않는다.

이 ‘stay’ 사태를 정도부사로 수식하려고 하면 ‘stay’가 아닌 ‘stay’의 내용을 이루는 [상태]를 수식하게 된다. (44 ㄴ)은 강의 슬라이드를 보조 도구로 사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more engaged’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서술한다. ‘더 관여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관여된 상태를 ‘더욱’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stay’ 사태와 관련하여 비교가 성립하는 것은 ‘stay’ 사태가 참인 시구간의 길이, 또는 ‘stay’ 사태가 참인 개체의 수로서, 어느 경우에도 ‘stay’ 사태 자체는 정도부사의 수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비종결성 사태 ‘stay’에 정도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종결성 사태를 나타내는 [결과상태] 술어는 동형 부호화를 통해 [상태]를 부호화 할 수 있고, 그렇게 발생한 [상태] 술어는 다시 [속성]을 부호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동형 부호화가 거듭 일어났다는 것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태]를 지시하는 술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았다면 동형 부호화 전략을 통해 [속성] 술어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결과상태] 술어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았다면

이는 [결과상태]-[상태], [상태]-[속성]의 두 단계 확장을 거쳐 [결과상태]-[상태]-[속성]을 동일한 형태로 부호화하는 술어로 해석된 것이다. [결과상태]-[상태]-[속성]의 동형 부호화 전략은 ‘engage’처럼 대응하는 단일어 [속성] 술어가 없는 사태를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³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작용]-[동작]의 동형 부호화 사례이다. 이 글에서 [작용]은 [동작] 유형 사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체를 추가하여 만들어진 사태이므로, [작용] 술어와 [동작] 술어는 개별언어에서 동일한 사태를 가리키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쌍으로 포착되며 의미론적으로는 사동과 기동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Haspelmath(1987:20–21)에서는 Nedjalkov의 1969년 연구에서 60개 언어를 대상으로 ‘laugh’, ‘boil’, ‘burn’, ‘break’의 네 사태가 사동·기동으로 부호화되는 유형을 살핀 자료를 토대로 사동·기동 짹의 부호화 전략을 7가지로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장 흔한 전략은 기동 술어를 변형하여 사동 술어를 만드는 것인데, 이 글의 관점에서는 [동작] 술어를 변형하여 [작용] 술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전략이 [동작]과 [작용]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표 3.7과 같다.

영어는 ‘laugh’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동형으로 부호화하지만, 한국어는 ‘웃다’-‘웃기다’, ‘끓다’-‘끓이다’, ‘타다’-‘태우다’로 [동작]을 [작용]으로 변형하는 부호화 전략을 주로 활용하되 ‘깨지다’-‘깨다’ 짹에서는 [작용]을 [동작]으로 변형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언제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다만 사태별로 어느 정도 부호화 경향을 읽어낼 수는 있다. [행위]-[(A)작용] 짹에 해당하는 ‘laugh’는 [행위] 술어를 변형하여

38) 한편 이 전략은 ‘dark’처럼 단일어 [속성] 술어로 표현되는 사태에서 원래의 단일어 [속성] 술어와 [결과상태]-[상태]-[속성] 동형 부호화로 생겨난 [속성] 술어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Koontz-Garboden(2010)은 후자에 대응하는 형용사가 단일어 형용사보다 더 복잡한 의미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복잡한 구조의 [결과상태]-[상태]-[속성] 동형 술어가 가리키는 [속성]을 일종의 [확장속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디다’ 문법화와 직접 관련되는 논의는 아니므로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laugh	boil _{intr}	burn _{intr}	break _{intr}	합
	make laugh	boil _{tr}	burn _{tr}	break _{tr}	
기동 → 사동	54	36	19	9	118
양용 동사	—	9	14	19	42
사동 → 기동	—	2	8	22	32
별도 어휘	—	7	14	—	21
공통 어근에서 각각 변형	6	4	2	5	17
모음교체	—	1	3	3	7
기동 → 사동적 결과 구문	—	1	—	2	3
합	60	60	60	60	240

표 3.7: 사동 · 기동 짹의 부호화 유형(Haspelmath 1987:21)

[(A)작용] 술어를 만드는 전략 이외의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에 [변성]-[(P)작용] 짹은 동형 부호화가 잘 일어나는 편이다.

이상으로 인접 의미 유형 간 동형 부호화 전략을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언어 사용자들은 인접한 사태 유형들을 동형의 술어와 맥락의 조합을 통해 부호화함으로써 발화의 경제성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별도의 술어를 통해 부호화하여 사태 유형을 엄밀히 구분함으로써 정보의 차이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그 절충점에 해당하는 전략으로서, 특정한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의 인접 유형을 해당 술어를 변형하여 부호화하는 전략을 살펴본다.

3.5 문법 표지를 이용한 인접 의미 유형 변형 부호화

특정한 사태 유형을 지시하는 술어를 이용하여 인접 사태 유형을 부호화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술어를 그대로 전용하는 동형 부호화 외에 해당 술어에 문법 표지를 더하는 변형 부호화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동 파생이나 반사동 파생, 형용사 파생 동사나 동사 파생 형용사로 연구되었던 현상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 절에서는 변형 부호화 전략을 문법 대범주로 정의하고, 결합가 대범주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결합가 범주가 사실은 술어 의미 유형 변환 범주의 일부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그 하위 범주로서 <결과>, <변성>, <기동>, <반사동> 등을 정의하여, 4장과 5장에서 진행될 ‘디다’ 문법화 분석의 토대로 삼기로 한다.

3.5.1 술어의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

술어를 변형하여 해당 술어가 지시하던 사태의 다른 유형을 부호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의미 유형	영어	한국어
[속성]	A <u>dead</u> body	죽은 시신
[상태]	He was found <u>dead</u> .	그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변성]	Every man <u>dies</u>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작용]	Your smartphone <u>kills</u> workers in China. Love <u>made</u> him <u>die</u> .	위험의 외주화가 또 사람을 죽였다. 결국 피해자를 죽게 한 것은 반복된 신고를 무시한 경찰이다.

표 3.8: 영어와 한국어의 사망 사태 부호화 비교

표 3.8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사망 사태가 부호화되는 양상을 유형별로 나열한 것이다. 한국어는 [상태], [속성], [변성]을 모두 하나의 형태 ‘죽다’로 부호화하고, [작용]을 ‘죽이다’와 ‘죽게 하다’ 등으로 ‘죽다’가 변형된 형태를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영어는 [속성]과 [상태]를 하나의 형태 ‘dead’로 부호화하는데, 이는 [변성] 술어 ‘die’에서 변형된 형태이다. 영어에서 [작용] 유형의 사망 사태가 표현되는 형태가 ‘kill’과 ‘make N die’ 등으로 다양한 것은 한국어와 같지만, 다른 유형의 술어와 관련이 없는 이형 ‘kill’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어의 ‘죽다’-‘죽이다’, 영어의 ‘die’-‘dead’처럼 의존 형태를 결합시켜 형태 일부를 변형한 술어는 종래 형태론(morphology)의 영역에서 다뤄져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변형을 형태 변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국어의 ‘죽다 - 죽게 하다’, 영어의 ‘die - make N die’처럼 독립 형태를 결합시켜 만든 술어는 종래 구(phrase) 또는 구문(construction)으로 분석되어 통사론(syntax) 또는 문법론(grammar)의 영역에서 다뤄져 왔다. 이 단위의 명칭은 문법 이론틀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긴밀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변형을 구문 변형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구문 변형으로 부호화된 [작용]은 형태 변형으로 부호화된 [작용]보다 영향자 개체가 사태를 통제하는 작인성이 더 약하다고 해석된다. 영어의 ‘die’ 사태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5) 영어 ‘die’ 사태의 [작용] 부호화

- ㄱ. The doctor's act of disconnecting Shimp will therefore kill McFall, and kill him painlessly.³⁹
- ㄴ. At end of funeral, he supposed to give Father special poison drink to make him die painless death.⁴⁰

39) *Beyond Roe: Why Abortion Should be Legal—Even if the Fetus is a Person*, 2019, David Boonin

40) *The Codex*, 2011, Douglas Preston

(45)의 각 술어가 부호화한 사태에서 영향자 개체가 사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45ㄱ)이 (45ㄴ)보다 크다. 이는 사동(causative) 범주 연구에서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차이로 연구되고 있다. 즉, 문법적 변형이 가져오는 의미 변화가 동일하면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법 범주로 분석하는 전통이 이미 존재하는 셈이다.

‘죽게 하다’, ‘make N die’와 같은 구문 변형은 ‘죽다’·‘죽이다’와 같은 형태 변형에 비해 영향자 개체가 피영향자 개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사태 구성 요소가 동일하며 [변성] 술어에 표지를 더하여 부호화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변형 부호화 전략으로 동일하게 다룬다. 언어유형론에서 다루는 문법 범주는 언어 형태를 변화시켜 문법적인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변형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⁴¹ 특정한 술어를 변형하여 인접 사태 유형을 나타내는 변형 부호화 전략은 곧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형태 변형에 의한 인접 의미 유형 부호화는 동사에 결합하는 문법 범주 또는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파생법의 영역에서 분석되어 왔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죽다’·‘죽이다’ 변형은 사동(causative) 파생으로 분석된다. 사동은 대개 사태에 개체를 하나 더하는 문법 범주로 정의되며, 사태에서 개체를 하나 삭제하는 반사동(anticausative)과 함께 결합 가(valency)의 하위 범주를 이룬다.

그러나 애초에 사동과 반사동 범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의 관점에서 사동과 반사동 범주는 변형 부호화를 통해 하나의 술어로 [동작]과 [작용]을 부호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에서 제시된 사동·기동의 부호화 유형을 동형·변형·이형의 부호화 전략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전통적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표 3.9에서 형태 변형에 대응하는 사동·기동 표지의 유형을 확인하면 술어의 의미 유

41) 이 글에서 가정하는 문법 범주의 정의는 2.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호화 유형	부호화 전략	전통적 분석	예시
양용 동사	[동작]-[작용] 동형	양용 동사	sink _{intr} - sink _{tr}
기동 → 사동	[동작] → [작용] 형태 변형	사동	‘않다’ - ‘않히다’
사동 → 기동	[작용] → [동작] 형태 변형	반사동	‘깨다’ - ‘깨지다’
공통 어근에서	사태 → [작용], [동작]	사동, 반사동	‘우그러뜨리다’ -
각각 변형	형태 변형		‘우그러지다’
모음교체	[동작] → [작용] 형태 변형	사동	fall - fell
기동 → 사동적	[동작] → [작용] 구문 변형	결과 구문	laugh - make laugh
		결과 구문	
별도 어휘	이형	-	die - kill

표 3.9: 사동 · 기동 부호화 전략의 분류와 전통적 분석 대조

형을 표시하는 형태 변형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한편 [동작] 술어의 구문 변형으로 [작용] 사태를 부호화하는 사동적 결과 구문(causative-instrumental)은 현재 통용되는 ‘결과 구문(resultative)’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서,⁴³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6) 결과 구문과 사동적 결과 구문

- ㄱ.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The metal became flat.)
- ㄴ. He drank himself silly. (He became silly.)
- ㄷ. John made Suzan laugh. (Suzan laughed.)

42) 표에서는 모음교체(ablaut)와 형태소 결합이 제시되었지만, 더 많은 언어를 조사하면 성조 변화나 중첩 등 다양한 형태론적 변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3) 결과 구문은 초기 생성의미론에서 “instrumental”로 불렸던 적이 있다(Dowty 1979:93).

현재의 통사·의미론에서 결과 구문으로 호칭하는 것은 (46ㄱ)처럼 ‘잉여적인’ 두 번째 술어가 실현되어 첫 번째 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이나, 그와 동일한 구조가 자동사와 결합하여 (46ㄴ)처럼 원래의 자동사가 취할 수 없는 구조를 보이는 구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술어와 술어를 결합하여 괄호로 병기된 [동작] 사태에 대응하는 [작용] 사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46ㄷ)과 같은 종류의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이하에서는 사동과 반사동처럼 인접 의미 유형을 부호화하는 문법 범주를 ‘디다’ 문법화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언어유형론에서 결합가 범주의 하위 범주로 논의되는 사동과 반사동을 검토하여 사태 구성 요소 중 개체와 관련된 유형 변화를 나타내는 <사동>, <반사동>, <기동>을 정의한다. 그 과정에서 결합가 범주가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의 변화’를 신호하는 술어 의미 유형 변환 범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Nedjalkov(1988)의 “resultative”와 Haspelmath(1987)의 “fientive”를 검토하여 사태 구성 요소 중 변화와 관련된 유형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 및 <변성>을 정의한다. 다만 이 글에서 정의하는 <결과>와 <변성>은 [(P)작용], [(P)결과상태], [(P)상태] 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결과> 및 <변성> 변형이 [(A)작용] 및 [행위]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어 ‘지다’ 표지의 문법화 초기 단계에 이들 유형이 관련되지 않으므로 논의를 보류해둔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되는 [작용], [상태], [결과상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P’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44) 실제로 이들은 영어의 전통적인 문법 분석에서 ‘작위동사(factitive)’라는 이름 하에 같은 구문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결과>의 유사 명칭들을 다룰 때에 논의한다.

3.5.2 개체의 변화와 <사동>, <반사동>, <기동>

언어유형론의 문법 분석에서 사동은 행위주를 추가하는 변형을 가리키고, 반사동은 행위주를 줄이는 변형을 가리킨다. 이들은 술어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의 갯수를 변화시킨다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한데 묶여 결합가(valency, valence) 대범주로 분류된다. 그러나 술어가 취하는 논항 갯수의 변화를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변화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대범주로 포착할 수 있는 현상이 사동과 반사동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7)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추가와 문법적 변형

- ㄱ. [작용] + 영향자 개체 : 현서가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 태희가 현서를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다.
- ㄴ. [행위] + 영향자 개체 : 태희가 집에 갔다. / 현서가 태희를 집에 가게 했다.
- ㄷ. [변성] + 영향자 개체 : 얼음이 녹았다. / 태희가 얼음을 녹였다.
- ㄹ. [상태] + 영향자 개체 : 작업할 공간이 넓다. / 현서가 작업할 공간을 넓혔다.

(48)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감소와 문법적 변형

- ㄱ. [작용] - 영향자 개체 (배제) : 현서가 가구를 만들었다. / 가구가 만들어졌다.
- ㄴ. [작용] - 영향자 개체 (삭제) : 태희가 고리를 끊었다. / 고리가 저절로 끊어졌다.
- ㄷ. [작용] - 피영향자 개체 (배제) : 현서는 밥을 먹었다. / 현서는 먹었다.
- ㄹ. [행위] - 개체 (배제) : Die Kinder spielen. / Es wird gespielt.

언어유형론에서 논의되는 전형적인 사동은 (47 ㄱ, ㄴ)과 같은 변형이지만, 많은 언어에서 (47 ㄷ, ㄹ)의 변형 또한 사동으로 분석된다. (47 ㄱ, ㄴ)처럼 작인성 개체를 피영향자 개체로 만드는 구문 변형은 대개 변형할 수 있는 술어에 제약이 없지만, (47 ㄷ, ㄹ)과 같은 형태 변형은 결합할 수 있는 술어가 'P' 유형으로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증가를 나타내는 형태 변형은 주로 파생법의 영역에서 분석된다. 그런데 (47 ㄹ)의 '넓다'-‘넓히다’와 같이 [상태]에서 [작용]으로

확장되는 것을 한국어는 사동 범주의 실현으로 분석하며, 영어는 ‘wide’-‘widen’과 같이 동사 파생 접사의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으로 다룬다. 이는 그동안 사동으로 논의되었던 현상들이 사실은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 유형 변환에 의한 새로운 술어의 형성이라는 더 큰 현상의 일부이며, 이 현상을 온전히 포착하려면 이와 관련된 문법 범주들을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를 줄이는 변형도 마찬가지로 반사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어 유형론에서 논의되는 전형적인 반사동은 (48ㄱ, ㄴ)에 대응한다. 그러나 반사동 술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48ㄴ)과 같은 용례가 자주 거론되고, 양용동사의 사동·기동 교체에서 기동 동사의 특징으로 (48ㄱ)과 같은 용례가 자주 거론된다. 따라서 (48ㄴ)을 반사동으로, (48ㄱ)을 기동 동사 파생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언어에나 사동 동사를 변형하여 기동 동사를 만드는 수단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48ㄷ)은 현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끼니가 될 만한 것을 먹었다는 사태를 나타내므로, [작용] 술어에서 피영향자 개체를 배제하여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예문의 술어에 별도의 변형이 없다는 점에서 예측되듯이 문법 범주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고 동사의 의미 연구에서 다뤄지지만, 모든 [작용] 술어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므로 이 또한 일정한 의미 조건을 갖춘 술어에 일어나는 의미 유형 변환의 일종으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48ㄹ)은 한국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형이어서 독일어를 예로 든 것이다. 예로 든 독일어 문장에서 변형 전 문장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태를 가리키지만, 변형 후의 문장은 누군가 뛰어놀고 있다는 사태를 서술한다.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존재는 함의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배제해 버린다는 점에서 (48ㄷ)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형은 비인칭 피동(impersonal passive)으로 불리며 자동사에 일어나는 비정형 피동으로서 태의 영역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형은 자동사 중에서도 비대격(unaccusative) 동사에는 일어나지 않고 비능격(ergative) 동사에만 일어나므로(Perlmutter 1978), 일정한 의미 조건을 갖춘 술어에만 일어나는 의미 유형 변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삼아 언어 변화의 경로를 탐구하는 문법화 연구에서는 (48)의 각

부호화 수단이 모두 다른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언어에서 이들 중 일부가 개체 감소라는 의미와 변형 수단을 공유하더라도, 각각을 다른 문법 범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법적 의미를 최대한 세분하여 기술해야 문법화 진전 과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48)의 각 사례에서 일어나는 사태 유형 변환을 각각 다른 문법 범주로 간주한다. 개체와 관련된 의미 유형 변환 범주에서 한국어 ‘디다’ 문법화 분석에 필요한 범주는 (48ㄱ, ㄴ)이다. 이하에서는 (48ㄱ)을 <기동>으로, (48ㄴ) 을 <반사동>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기동>(起動, inchoative) 이 글에서는 (48ㄱ)처럼 [작용] 술어를 변형하여 [변성] 술어를 만드는 변형을 <기동>으로 정의한다. 범주의 명칭은 [작용] 술어와 [변성] 술어의 동형 부호화 쌍인 자·타 양용동사의 다의성이 사동·기동 교체 현상으로 분석되는 것에서 가져온 것이다. 현대 한국어 ‘지다’의 의미를 <기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로 김윤신(2005)에서 동사에 ‘지다’가 결합한 사례를 모두 기동 동사(inchoative verbs)로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디다’ 표지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 중 변화 사태를 서술하는 것은 모두 [변성]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동 동사의 개념으로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문법적 의미를 세분하고 있으므로 [작용] 술어를 변형하되 피영향자 개체의 함의를 유지하는 변형만을 <기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디다’ 표지의 의미 중 하나로 제안한다.

<반사동>(反使動, anticausative) 이 글에서는 (48ㄴ)처럼 영향자 개체의 존재 및 함의를 삭제한 [변성] 술어를 만드는 변형을 <반사동>으로 정의한다. <기동>과 달리 [작용] 술어의 변형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은 <반사동> 표지가 기동 동사를 변형하는 사례 또는 양용 동사를 변형하는 사례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⁴⁵

45) 기동 동사에서 영향자 개체의 존재 가능성을 삭제하는 것 또한 의미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확장성을 담보하려면 <반사동>이 기동 동사에 결합할 가능성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기동> 술어는 [작용]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태의 일부 범위로서의 [변성] 사태를 서술하지만, <반사동> 술어는 영향자 개체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 [작용]으로 확장될 수 없는 [변성] 사태를 서술한다. 이때문에 <반사동>으로 [작용] 술어를 변형하면 그 변화의 원인이 부재한다는 점을, 특히 누군가의 행위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표현한다. Koontz-Garboden(2010)은 반사동 술어의 부정 양상을 분석하여 반사동의 이러한 특성을 지적하였다.

- (49) 에스파냐어 ‘se rompe(깨지다)’의 부정(Koontz-Garboden 2010:103,(57))

子: El vaso se rompió. (컵이 깨졌어요.)

父: No se rompió sino que lo rompiste tú! (깨진 게 아니라 네가 깐 거지!)

(49)에서 아버지가 부정하는 것은 컵이 깨렸다는 서술이 아니라 컵이 깨진 원인이 없거나 혹은 모른다는 서술이다. ‘se rompe’가 지니는 원인 부재 해석은 ‘romper’로 표현할 수 있는 사태를 굳이 더 복잡한 ‘se rompe’로 표현한 것은 ‘romper’가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리라는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을 토대로 한다. 행위주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변형된 ‘se rompe’가 가리키는 사태는 변화를 일으키는 별도의 개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형되지 않은 ‘romper’ 사태와 구성 요소가 다르다. 즉, 반사동은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를 삭제하는 변형이며, 그 점에서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존재를 함의한 채로 서술에서만 배제하는 <기동>과 차이가 있다.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의미를 <반사동>으로 분석하는 연구로는 남수경(2011b)를 들 수 있다.

- (50)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반사동> 용례(남수경 2011b:179–180, (5))

ㄱ. 양말이 뚫어졌다.

ㄴ. 그는 불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불이 꺼지고 말았다.

ㄷ. 안방에 있는 형광등이 저절로 꺼지네요.

해당 연구에서는 (50)과 같은 사례를 ‘지다’ 표지의 <반사동> 용례로 제시하였다. 이 용례들을 볼 때에는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의미로 <반사동>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문법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문법 체계의 효율적 기술을 고려한다면, (50)의 ‘지다’ 표지를 모두 <기동>으로 분석하고 영향자 개체의 부재는 전후 맥락 또는 ‘저절로’와 같은 부사가 표현한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남수경(2011b)에서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대 한국어 ‘지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지다’ 표지의 의미로 <반사동>을 별도로 인정하였다. 이 글은 언어유형론의 논의를 토대로 삼은 문법화 연구라는 점에서 남수경(2011b)과 분석의 목표를 일부 공유한다. 따라서 이 글의 관점에서는 (50)의 ‘지다’ 표지가 영향자 개체의 부재를 서술하기 위해 맥락 또는 부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치고 그 이상의 변형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반사동> 표지로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이상으로 술어의 의미 유형 변환 범주 중에서 개체의 감소와 관련된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기동>과 <반사동> 범주를 도입하였다. 개체와 관련된 술어 의미 유형 변환은 이미 결합가 범주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이를 문법 범주로 포착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다룰 변화와 관련된 술어 의미 유형 변환은 문법 범주로 포착하기가 까다롭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문법상(grammatical aspect)’, ‘동작상(Aktionsart)’, ‘어휘상(lexical aspect)’의 세 가지 연구 전통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와 관련된 술어 의미 유형 변환이 이들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커다란 과제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형을 가져오는 문법 범주를 정의하고 그 의미 특성을 논의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3.5.3 변화의 결과 확장과 <결과>

변화 요소와 관련된 술어 의미 유형 변화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변화 사태 술어가 그 변화의 결과 사태를 서술하도록 변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 술어가 그 상태의 원인인 변화 사태를 서술하도록 변형되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변화은 개체 관련 변화과 달리 문법론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므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소절에서는 [작용] 또는 [변성] 유형의 변화 사태 술어에 문법 표지를 결합하여 [결과상태] 유형을 나타내도록 변환하는 술어 변형을 <결과>(resultative)로 정의한다.

(51) 영어 ‘close’ 사태의 [결과상태] 부호화

- ㄱ. [변성] 동형 : School was canceled, the city library closed and athletic fields turned into lakes. (COCA)
- ㄴ. [변성] 변형 : [T]he park was closed because of the shutdown. (COCA)

(51 ㄱ)의 “library closed”는 도서관이 폐쇄되는 변화 또는 도서관이 폐쇄된 상태가 과거에 있었다고 해석된다. 후자의 해석일 때 이 ‘close’가 놓인 맥락은 그것이 다른 사태의 결과임을 말해 준다. (51 ㄴ)은 공원이 폐쇄되었음을 나타내며, 역시 뒤따르는 맥락이 그 폐쇄 상태에 선행하는 폐쇄 사건이 있었음을 나타낸다.⁴⁶

중요한 것은 (51)의 두 예에서 ‘close’가 실현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51 ㄱ)을 ‘the library was closed’로 교체하고 (51 ㄴ)을 ‘the park closed’로 교체해도 이 두 예 문이 전달하는 정보는 바뀌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영어의 ‘close’ 사태는 [변성]과 동형으로 [결과상태]를 나타내거나, [변성] 술어를 ‘-ed’ 형태로 변형하여 [결과상태]를 나타낸다는

46) 물론 앞뒤맥락을 모두 제거하면 (51)의 두 예문이 [상태]를 나타내는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지 구분할 수 없고, 과거시제를 제거하면 (51 ㄱ)은 [상태]가 아니라 [변성]으로 해석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 ‘close’ 술어의 [변성] 의미는 ‘close’ 형태가 부호화하는 여러 의미 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맥락 안에서 사용되었을 때에 비로소 ‘close’ 형태의 의미가 고정되므로, 맥락을 제거한 의미 유형 판정은 의미가 없다.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상태]로 변형된 ‘closed’ 술어는 통사적으로 형용사의 특성을 띠게 되어 계사 ‘be’에 후행한다. 이 ‘-ed’ 표지의 결합, 좀 더 정확히는 과거분사형(past participle) 활용에 의한 [결과상태] 변형이 영어의 <결과> 사례가 된다.

(51ㄴ)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결과>는 피동과 표지를 공유한다. 영어의 과거분사형 표지가 지니는 <결과> 용법은 Levin and Rappaport(1986)에서 논의된 피동의 형용사적 측면이나 Beedham(1987)에서 논의된 피동의 상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하에서는 Nedjalkov(1988)의 연구를 토대로 문법적 변형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상태] 술어의 유형론을 살피고 <결과>와 기능 측면에서 혼동될 수 있는 범주들 및 명칭 측면에서 혼동될 수 있는 개념들을 설명하겠다.

3.5.3.1 Nedjalkov(1988)의 결과상태 유형론

Nedjalkov(1988)은 동사를 문법적으로 변형하여 해당 동사가 지시하는 변화를 함의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를 만드는 현상을 20개 언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다.⁴⁷ 이 연구의 1장인 Nedjalkov and Jaxontov(1988)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결과상태 및 상태 범주를 정의하고 인접 범주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해당 범주가 이 글의 <결과>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3.2.1소절에서 [속성]과 [상태]를 나누는 지속 여부를 판정하면서 시간적 경계가 없는 것은 지속성 사태이고 시간적 경계가 하나라도 있는 것은 전이성 사태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과 전이를 시간적 경계를 이용해 나누는 구분은 Nedjalkov(1988:4)의 술어 의미 분류에서 빌려온 것이다. Nedjalkov(1988)은 술어의 의미를 동작(actions), 상태(states), 속성(qualities)으로 나누며 분류 기준은 이 글의 기준과 비슷하다. 그러나 Nedjalkov(1988)의 분류 체계가 결합가와 관계없이 모든 술어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이 글의 술어 의미

47) 원래는 1983년에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어로 출판된 연구이나 이 글에서는 1988년에 Bernard Comrie가 번역하여 출판한 영역판을 참고하였다.

유형 분류는 결합가를 고려하여 술어의 의미 유형을 나누고 ‘디다’ 문법화와 관련이 있는 유형만을 도입한 것이다. 이 글의 의미 유형들이 Nedjalkov(1988)의 의미 유형 체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표 3.10과 같다.

Nedjalkov(1988)의 의미 유형 이 글의 의미 유형	
동작	[동작], [작용]
상태	[상태]
속성	[속성]

표 3.10: [속성],[상태],[동작],[작용]과 Nedjalkov(1988) 술어 의미 분류의 대응

표 3.10을 보면 이 글의 [속성], [작용], [동작], [작용]은 Nedjalkov(1988)의 의미 유형 체계에 포함되며, [상태]와 나머지를 나누는 경계 또한 일치한다. 그러므로 Nedjalkov(1988)에서 상태 유형에 대해 전개한 논의는 이 글의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Nedjalkov(1988:4)는 상태를 행위주가 일으킨 변화에 의해 피행위주가 놓이게 되는 2차 상태(second state)와 행위주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자연 상태(natural state, primary state)로 분류하고, 각각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연 상태 ‘to lie (on the ground)’, ‘to understand’, ‘to be ill’ ...

2차 상태 ‘to be tied up’, ‘to be built’, ‘to be written’ ...

이 분류는 모든 상태는 변화 사태의 결과이며, 원인이 되는 변화 사태는 작인성 여부로 양분된다는 전제를 지닌다. Nedjalkov(1988)에서 상태를 이렇게 양분한 까닭은 자연 상태와 2차 상태가 부호화 전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논의의 관찰에 따르면, 자연 상태가 단일어와 문법적 변형의 양쪽으로 부호화되는 것과 달리 2차 상태는 문법적 변형에 의해 표현된다. Nedjalkov and Jaxontov(1988)에서는 문법적 변형을 주로

탐구하였기에, 2차 상태를 분리해 내기 위해 자연상태와 2차 상태의 구분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태를 이렇게 이분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모두 그 원인 사태를 합의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 Nedjalkov(1988) 또한 그러한 전제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술어의 의미 유형에서 자연 상태와 2차 상태를 구분한 후, 상태를 부호화하는 술어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다음과 같이 원인 사태를 포함하지 않는 “stative”와 원인 사태를 포함하는 “resultative”를 나누었기 때문이다(Nedjalkov 1988:5–7).

lexical stative 단일어로 상태를 표현하는 술어

stative 문법적 표지 결합에 의해 상태를 표현하는 술어

resultative 상태의 원인이 되는 이전 사태를 포함하여 상태를 표현하는 술어

“resultative” 술어의 정의에 변형에 의한 부호화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시를 보면 변형으로 만들어진 술어로 한정되는 것이 분명하다. 해당 논의에서 제시된 “lexical stative”, “stative”, “resultative”의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다.

(52) 러시아어 ‘viset’(걸다)’의 상태 부호화

- ㄱ. Na stene visit kartina
On wall hangs picture
'There hangs a picture on the wall'
- ㄴ. Na stene povešena kartina
On wall hung-PAST-PART-PASS. picture
'A picture is hung on the wall'
- ㄷ. Na vетkax visyat jabloki
On branches hang apples
'There are apples hanging on branches'

(53) 영어 ‘surround’의 상태 부호화

The village is surrounded by woods.

Nedjalkov(1988)에서는 (52ㄱ, ㄷ)을 “lexical stative”, (52ㄴ)을 “resultative”의 예로 들었다. (52ㄱ)의 단일어 술어는 그림이 걸려 있는 상태를 자연상태와 2차 상태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형된 술어인 (52ㄴ)은 2차 상태로만 해석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맥락상 자연상태로만 해석되는 (52ㄷ)의 “visjat” 술어는 (52ㄴ)에 대응하는 “povešeny” 형태로 바꿔 쓸 수 없다. 한편으로 (53)처럼 변형을 거친 술어가 자연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stative”의 예가 된다.

자연상태와 2차 상태가 둘 다 변형에 의해 표현되지만 표지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어윙키어의 사례이다.

(54) 어윙키어에서 자연상태와 2차 상태의 구분(Nedjalkov 1988:27, (56))

ㄱ. uj-
tether_{tr}

(동물을 말뚝에) 매다

ㄴ. uju -ča-
tether -OBJ.STAT.SUFF.

‘tethered’ (stat.) (동물이 말뚝에) 매여 있다

ㄷ. uj -v -čā-
tether -PASS. -PF.PART.

‘tethered’ (obj. res.) (동물이 말뚝에 사람에 의해) 매여 있다

(54ㄴ)과 (54ㄷ)의 대조에서 보이듯 어윙키어에서는 ‘매다’ 사태를 자연상태로 포착할 때와 2차 상태로 포착할 때 다른 표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Nedjalkov(1988)은 “resultative”와 “stative”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에 아주 많은 언어에서 두 범주가 잘 구분되지 않으므로 합쳐서 “resultative”로 칭하되, 그것이 행위주가 일으킨 변화의 결과임이 분명하게 함의된 경우를 “resultative proper”로 분리하는 방법을 택했다(Nedjalkov 1988:7).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Nedjalkov(1988)의 상태 분류와 이 글의 [상태] 분류를

비교하면 표 3.11과 같다.

	원인 사태 함의	원인 사태의 종류	Nedjalkov(1988)
[상태]	-	n/a	자연상태
[결과상태]	+	[행위]	2차 상태
[결과상태]	+	[변성]	?

표 3.11: Nedjalkov(1988)의 상태 분류와 [상태],[결과상태]의 대응

표 3.11을 보면 [행위]가 원인인 [결과상태]는 [(A) 상태]이든 [(P) 상태]이든 관계없이 Nedjalkov(1988)의 2차 상태에 대응한다. 그러나 [변성]이 원인인 [결과상태]에 대응하는 개념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죽다’, ‘녹다’ 등의 [변성] 사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를 원인 사태를 함의하여 나타내는 술어 변형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Nedjalkov(1988:16)에서 제시된 아르메니아어의 예를 보자.

- (55) 아르메니아어 ‘ənk(넘어지다)’ 2차 상태 서술(Nedjalkov 1988:16, (31b))

Na deř ənk-aç e
He still fall-_{RES.PART.} is
'He is still fallen' (subj. res.)

‘넘어지다’ 사태의 주어는 유정물과 무정물을 가리지 않고 작인성이 없다. 따라서 ‘넘어지다’를 뜻하는 술어에 상태 표지가 붙어서 2차 상태로 해석된다면, 이는 [변성] 사태를 원인으로 하는 결과상태 술어가 된다. Nedjalkov(1988)에서는 (55)를 ‘그가 넘어졌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채로 있음’을 나타내는 2차 상태 사태로 해석하였다.

Nedjalkov(1988)의 관찰에서 ‘죽다’나 ‘녹다’ 등을 2차 상태 술어로 변형하는 언어가 드물기는 하지만, (55)의 사례를 볼 때에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는 Nedjalkov(1988)에서 상정한 작인성보다 이 글에서 상정한 작인성이 더 좁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해야 한다.

[변성] 사태를 원인으로 하는 2차 상태의 존재는 Nedjalkov(1988)의 연구를 확대할 뿐, 해당 연구에서 주장한 2차 상태 서술의 일반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결과 상태]와 Nedjalkov(1988)의 2차 상태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결과> 범주를 “resultative”의 일종으로 보기로 한다.⁴⁸

Nedjalkov(1988)에서는 “resultative” 술어와 “stative” 술어가 왜 비슷한지 이유를 탐구하지 않고 주어진 현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태]와 [결과상태]가 인접한 의미 유형으로서 동형으로 부호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한 [변성] 사태를 원인으로 하는 <결과>가 잘 관찰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변성]과 [결과상태]는 인접 사태 유형으로서 동형 부호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성] 술어가 그 [결과상태]를 함께 부호화할 수 있다면 별도의 <결과> 변형이 발달할 동기가 줄어든다.

인접한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이 적용되는 범위는 언어별, 사태별로 모두 다르다. 따라서 [상태]로의 문법적 변형과 [결과상태]로의 문법적 변형은 동일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Nedjalkov(1988)의 “stative”는 이 글의 관점에서 [상태]로의 문법적 변형에 대응하므로, 이를 <상태>로 부르기로 하자.

Nedjalkov(1988)에서 관찰한 상태 서술의 유형론은 <상태>와 <결과>가 언어별로 부호화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결과> 표지가 동형 부호화에 의해 <상태> 표지를 겸하는 경우, 후자쪽의 쓰임이 늘어나면 원인 사태 함의가 약해져서 <상태> 표지로 변화할 수도 있다. 조지아어의 <상태> 표지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Nedjalkov 1988:28).

(56) 조지아어의 <상태> 및 <결과> 표지(Nedjalkov 1988:27, (57))

48) <결과> 범주를 Nedjalkov(1988)의 “resultative”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두는 까닭은 <결과>를 [(P)작용] 및 [변성]을 [결과상태]로 변형하는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디다’ 문법화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 정의한 <결과> 범주와 Nedjalkov(1988)에서 관찰한 “resultative”的 전체적인 비교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ㄱ. a -b-am -s
CAUS. -tie-THEM.SUFF. -3RDP.SG.

‘He ties it’

ㄴ. a -b -i -a
LOC. -tie -STAT. -3RDP.SG.

‘It is tied.’ (stat.)

ㄷ. u -b -i -a
BEN. -tie STAT. -3RDP.SG.

‘He has it tied.’

ㄹ. da -b -m-ul-i -a
PF. -tie- -PF.PART. -3RDP.SG.

‘It is tied.’ (obj. res. expressed by pf. part.)

Nedjalkov(1988:28)은 (56ㄴ, ㄷ)에서 확인되는 <상태> 표지 “-i”는 (56ㄹ)의 <결과> “-m-ul-i”보다 오래된 형태라고 서술하였다. 이 표지는 이전에 <결과> 표지였으나 선행하는 원인 사태 함의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결과>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완료상 표지가 추가로 도입되었을 것이다.⁴⁹⁾ [결과상태]가 [상태]보다 복잡한 사태이므로 더 복잡한 형태로 새로이 부호화된 것이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과> 표지에서 <상태> 표지가 발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태] 유형의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는 어느 언어이든 형용사 또는 동사 단일어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일어를 둔 채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술어를 문법적으로 변형할 동기가 없다. 반대로 [결과상태]는 범언어적으로 볼 때에 단일어로 부호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결과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결과> 표지가 먼저 발달하고, <결과>로 변형된 술어의 의미 유형이 [상태]로 재해석되면서 <상태> 표지로 기능이 바뀌는 것이 좀 더 일어날 법한 수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달한 <상태> 표지로 변형된 술어는 변형되지

49) 이때에 완료상 표지가 선택된 까닭은 잠시 후에 완료와 <결과>를 비교할 때에 논의한다.

않은 [상태] 술어보다 더 복잡한 사태를 부호화한다.

(57) 영어 ‘-ed’의 〈상태〉 부호화

- ㄱ. Given a choice between the two versions of the photo, Jane prefers the darkened one. (=26 ㄱ)
- ㄴ. He has no scars but there is a slightly darkened portion of skin on his light leg ⋯⋯.(Koontz-Garboden 2010:287, (3a))
- ㄷ. ⋯⋯there is a slightly dark portion of skin on his light leg ⋯⋯.

(57)은 [속성]-[상태] 유형의 ‘dark’ 술어가 [변성]-[(P)작용] 유형의 ‘darken’으로 변형되고 ‘darken’이 다시 [상태] 유형의 ‘darkened’로 변형된 사례이다. (57 ㄱ)에서 ‘-ed’는 〈결과〉 표지로 사용되었고, (57 ㄴ)에서는 〈상태〉 표지로 사용되었다. 이 예문에서 ‘darkened’는 피부를 어둡게 하는 선행 사건을 함의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주위의 다른 피부에 비하여 해당 부분이 더 어둡다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에 비해 (57 ㄷ)의 ‘dark’는 피부의 해당 부분이 어둡다는 정보를 표현할 뿐 그 주위 피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함의하지 않는다. 즉, (57 ㄱ)의 ‘darkened’가 시간적인 변화의 결과물인 ‘dark’ 사태를 가리킨다면, (57 ㄴ)의 ‘darkened’는 공간적 변화의 결과물인 ‘dark’ 사태를 가리킨다(Koontz-Garboden 2010).

따라서 변형되지 않은 [상태] 술어 ‘dark’에 비하여 ‘darkened’가 더 복잡한 구조의 사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결과상태]-[상태] 동형에 의해 부호화되는 [상태]는 더 확장된 사태를 가리키며, 따라서 [확장상태] 정도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속성]으로 재해석되면 [확장속성]이 된다.

〈결과〉 표지에서 발달한 〈상태〉 표지가 술어에 결합하여 [상태] 유형의 사태를 가리키는 술어를 만들 때, 이 〈상태〉 술어는 반드시 해당 [상태]를 가리키는 단일어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사태를 지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태〉 표지는 〈결과〉 표지의 재해석을 거쳐서 발달한다고 가정하고, 〈상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결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술어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적 특성: 종결성 관찰된 20개의 언어에서 <결과> 범주로 변형되는 술어는 주로 시간적인 끝이 보장되는 종결성 사태를 가리킨다(Nedjalkov 1988:5). 이는 [작용] 또는 [변성]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상태를 그 원인과 함께 포착하는 [결과상태]의 정의를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끝이 보장되지 않는 ‘sing, look, run, work’ 등의 [행위] 술어나 ‘know’ 등의 [상태] 술어는 <결과>로 변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결과>는 종결성이 있는 사태에 한하여 사태를 복합 사태로 변형하여 부호화하는 범주로서,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사태 구성 요소: 변화 <결과> 변형은 [동작]과 [작용]처럼 변화가 있는 사태를 가리키는 술어에서 주로 일어난다. [속성]이나 [상태] 유형의 술어는 <결과> 변형을 겪는 일이 드물다. 다만 [속성]-[상태], [상태]-[동작]의 동형 부호화 전략 때문에 <결과> 변형 사례가 확인되는 술어가 [속성] 및 [상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술어는 반드시 변화 사태 유형을 표현하는 용법 또한 지닐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Nedjalkov(1988:14)는 자연상태를 나타내는 2항 술어가 <결과> 표지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준-결과상태(quasi-resultative)’로 명명하였다.

(58) 영어 ‘surround’ 자연상태와 <결과> 표지 결합(Nedjalkov 1988:14,(28))

ㄱ. The village is surrounded by mountains.

ㄴ. Mountains surround the village.

(58)에서 변형된 ‘surrounded’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는 변형을 겪지 않은 ‘surround’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와 동일해 보인다. 산의 위치가 변화하는 사태가 선행할 수는 없으므로, ‘surrounded’ 술어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상태]가 아니라 [상태]로 해석된다.

Nedjalkov(1988)은 물리적인 접촉을 나타내는 동사나 ‘surprise’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관찰하였다. (58 ㄱ, ㄴ)이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면,

(58ㄱ)과 같은 변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⁵⁰ 이 현상은 <결과>가 [상태] 술어를 변형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이 글은 (58ㄱ)의 ‘surrounded’를 [결과상태]와 비슷한 의미 유형의 2항 술어로 본다. 이 유형의 사태는 특정한 상태에 놓인 개체에 대해 서술하는 복합 사태라는 점에서 [결과상태]와 비슷하지만, 참여하는 개체의 상태가 포착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한 의미에서 Nedjalkov(1988)의 ‘준-결과상태’라는 명칭은 적절하다. 다만 ‘디다’ 문법화는 준-결과상태 변형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과>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선에서만 살펴보겠다. 먼저, 영어의 ‘surround’ 술어가 유정물 주어를 취하면 [작용]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시작해 보자.

(59) 영어 ‘surround’의 [작용] 및 [결과상태] 부호화

- ㄱ. Soon the enemy completely surrounded the troops.
- ㄴ. Soon the troops were completely surrounded. (COCA)

(59ㄱ)은 [작용] 유형의 ‘surround’ 사태가 2항 술어로 부호화된 것이고 (59ㄴ)은 그 2항 술어가 <결과>로 변형된 것이다. ‘surround’는 표면 접촉 사태로서 ‘hit’류와 마찬가지로 영향입음성이 매우 약하지만 이 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작용] 사태로 분류된다. (59ㄱ)의 [작용] 사태는 [행위]와 [변성] 사태로 분해할 수 있는데, 후자의 사태 구성 요소를 변경하여 [행위]와 [상태]의 조합으로 사태를 포착한다고 가정해 보자.

[행위]+[변성] 시간선, 변화₂, +작인성 개체₂, 변화₁, -작인성 개체₁

[행위]+[상태] 시간선, 변화₂ +작인성 개체₂, -작인성 개체₁

[결과상태] 시간선, 변화₂, -작인성 개체₁

50) <결과> 표지와 피동 표지가 동형인 영어에서는 (59ㄱ)을 피동으로 보는 간단한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을 둘러싸는 산은 행위주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피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고, 또한 이러한 현상이 <결과>와 피동 표지가 다른 언어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59ㄱ)을 술어의 의미 유형이 변환된 사례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작용]에서 사태 구성 요소를 변경하여 [행위]+[상태]로 포착된 복합 사태는 개체₂를 포함한 채로 개체₁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이 된다. 이 점에서 같은 복합 사태를 개체₁에 대한 서술로 좁혀서 포착하는 [결과상태]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작용] 유형의 (59ㄱ)을 [행위]+[상태] 유형으로 변환하면 2항 술어가 될 것이다.

(60) 영어 [작용] ‘surround’ 사태의 [행위]+[상태] 변형과 [결과상태] 변형

ㄱ. Soon the troops were completely surrounded by the enemy.

ㄴ. Soon the troops were completely surrounded. (=59ㄴ)

(60ㄱ)의 [행위]+[상태] 2항 술어 ‘surrounded’는 ‘the troops’가 ‘the enemy’에게 포위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발화기준시까지 그 포위된 상태가 지속된 사태를 부호화한다. 반면에 [결과상태]로 포착된 (60ㄴ)의 1항 술어 ‘surrounded’는 ‘the troops’가 작인성이 있는 개체에게 포위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발화기준시까지 그 포위된 상태가 지속된 사태를 부호화하며, 이 사태에 행위주 ‘the enemy’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사태가 같은 표지로 부호화되는 것은 [행위]+[상태] 유형과 [결과상태] 유형이 작인₂ 하나로 구분되는 인접 의미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⁵¹

〈결과〉 표지가 〈상태〉 표지로 재해석되듯이 [행위]+[상태] 변형 표지가 원인 사태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재해석되면, 앞서 본 ‘darkened’ 사례처럼 더 복잡한 구조의 사태를 부호화하게 된다. 다음의 두 사태를 비교해 보자.

(61) 영어 단순 사태 ‘inside’와 복합 사태 ‘surrounded’의 비교

ㄱ. The troops were inside of the enemy.

51) [행위]+[변성] 유형에서 [행위]+[상태] 유형으로 변형된 술어는 피동과 동일한 통사적 특징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행위]+[상태]로의 변형과 피동이 동일한 범주인 것은 아니다. 피동 변형이 [행위]+[행위]를 포함한 모든 [작용] 술어에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달리, [행위]+[상태]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은 [변성] 사태를 포함하는 [(P)작용] 술어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결과〉 표지가 그러하듯이, [행위]+[상태] 유형으로의 변형 표지는 피동 표지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피동 변형의 특징은 〈결과〉와 피동의 비교에서 자세히 다룬다.

㉡. The troops were surrounded by the enemy.

(61 ㉡)의 ‘surrounded’는 2항 술어로서 군대와 그 적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일한 사태를 표현하는 (61 ㄱ)의 ‘inside’와 비교해 보면, 적의 위치와 군의 위치가 긴밀하게 묶여서 지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arkened’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석해 보면, (61 ㄴ)은 (61 ㄱ)에 비해 적의 위치를 군의 위치에 따라 규정한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구조의 상태를 나타낸다. (58 ㄱ)의 ‘surrounded’는 마을의 사방에 산이 있다는 사태를 마을의 [상태]와 산의 [상태] 사이의 관계로 포착한 술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사태의 더 단순한 상태 서술과 비교하면 그러한 특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62) 영어 ‘inside’와 ‘surrounded’의 자연상태 부호화

ㄱ. The village is inside of mountains.

㉡. The village is surrounded by mountains.

즉, [행위]+[상태] 유형의 2항 술어와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를 이용해 (58 ㄱ)과 (60 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0 ㄱ)의 ‘surrounded’는 [행위]+[상태]를, (58 ㄱ)의 ‘surrounded’는 그로부터 재해석된 복잡한 구조의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글은 2항 술어 ‘surrounded’가 자연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결과상태]의 인접 의미 유형으로서 동형으로 부호화된 [행위]+[상태] 표지가 재해석된 결과라고 본다. [(P) 작용]을 [행위]+[상태] 유형으로 변환하는 것은 <결과> 변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변형된 술어가 사태 서술에서 영향자 개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와 같지 않다. 따라서 <결과>가 [상태] 유형의 술어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일반화는 여전히 성립한다.

3.5.3.2 <결과>와 그 유사 범주들

앞서 Nedjalkov(1988)에서 제시된 <결과> 사례들을 인용할 때에, <결과> 표지의 문법 주석으로 피동 또는 완료가 등장하는 언어가 있었다. 이는 [결과상태] 유형의 특성 때문이

다. 특정한 사태가 [결과상태] 유형으로 포착되면, 해당 사태를 일으키는 개체를 무시한 채 사태를 겪는 개체에 대한 서술로 좁혀진다. 따라서 이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는 1항 술어가 된다는 점에서 피동과 유사하다. 또한 [결과상태] 사태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화에서 후행하는 상태로의 이행을 포함하는데, 이는 시간축 상에서 선행하는 사태가 종료했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료와 유사하다.⁵²

[결과상태]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결과> 범주를 나타내는 표지는 피동이나 완료 등의 표지와 관련이 많다. 따라서 개별어 문법에서 <결과> 범주는 종종 피동이나 완료 등의 이름으로 한데 묶여서 연구된다(Nedjalkov 1988:17–18). 이하에서 <결과>와 가능적으로 유사한 범주인 피동(passive)과 완료(perfect)가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본다.⁵³

피동 피동은 태(voice)의 하위 범주로서 그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가장 좁은 정의를 따라, 명제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채로 행위주와 피행위주의 통사적 실현만을 바꾸는 변형으로 피동을 정의하여 <결과>와 비교하겠다. 이는 피동 범주가 적용될 수 있는 술어는 2항 이상의 술어로 한정되며, 해당 술어의 의미역에 행위주와 피행위주가 존재해야 하고, 변형된 술어의 주어가 피행위주여야 하며, 변형된 이후에도 술어가 행위주에 격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⁵⁴ 이 점에서 비인칭 피동(impersonal passive)이나 상태 피동(statal passive), 형용사적 피동(adjectival passive), 피해 피동(adversative passive)

52) 사태 구성 요소 중 시간선과 변화는 사태에 내적 시간 구조와 상적 특성을 부여한다.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변화 이전과 이후라는 최소한의 시간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선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의미 유형 변환은 변형된 술어의 상적 유형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술어의 의미 유형 논의와 동사의 상적 유형 논의, 그리고 문법상 논의의 접점이 있다.

53) 이외에 반사동 범주 또한 영향자 개체를 술어가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반사동> 범주를 정의하여 다뤘으므로 여기에서의 비교는 생략하겠다.

54) 따라서 행위주를 표지하기 위해 ‘-에 의해’가 추가되는 현대 한국어의 ‘지다’ 표지는 이 글의 관점에서 피동 범주 표지로 분석되지 않는다. ‘의하다’라는 별도의 술어가 격을 할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흔히 “verbal passive”로 불리는 유형의 피동만을 가리킨다.⁵⁵

피동은 [작용] 유형의 술어에 결합하지만 술어의 의미 유형을 바꾸지 않는다. 피동으로 변형된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가 여전히 영향을 주는 개체와 영향을 받는 개체를 모두 포착하기 때문이다. 이는 변형된 술어가 여전히 행위주에 격을 할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피동은 술어가 부호화하는 사태의 내용이 아니라, 화자가 사태를 서술하는 관점을 변형한다. [작용] 사태를 <결과>로 변형하면 화자가 사태의 유형을 [상태]로 바꿔서 포착하되 거기에 원인을 포함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동으로 변형하면 화자는 사태를 여전히 [작용]으로 포착하되 피행위주의 관점에서 사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A)작용] 술어를 이용하여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63) 일본어 ‘aruku(걷다)’의 사역피동(使役被動) 변형

- ㄱ. kodomo-ga aruku
어린이-NOM. 걷PRES.
‘어린이가 걷는다.’
- ㄴ. gunjin-ga kodomo-wo arukasamu
군인-NOM. 어린이-ACC. 걷CAUS.PRES.
‘군인이 어린이를 걷게 한다.’
- ㄷ. kodomo-ga (gunjin-ni) arukasareru
어린이-NOM. (군인-DAT.) 걷CAUS.PASS.PRES.
‘어린이가 (군인에게) 강요를 당해서 걷는다.’

(63 ㄴ)의 ‘arukasamu’는 작인성 있는 개체의 영향으로 [행위] 사태가 일어나는 [(A)작용] 사태를 나타낸다. 그 피동 변형인 (63 ㄷ)의 ‘arukasareru’는 동일한 [(A)작용] 사태를 피행위주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A)작용] 사태에서 피행위주와 직접 관련된 요소는 피행

55) 이들 비정형 피동 중에서 상태 피동이나 형용사적 피동은 <결과>에 대응한다. 비인칭 피동은 <반사동>의, 피해 피동은 <결과>의 변종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로 미룬다.

위주의 행위 및 피행위주에게 가해진 외압의 존재로 한정되므로, 피동으로 변형된 [(A) 작용]은 행위주 없이 1항 술어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피동 술어가 표현하는 사태는 여전히 [(A)작용]이기 때문에, 행위주를 추가 논항으로 실현시킬 수도 있다. 또한 피동으로 변형된 [(A)작용]은 여전히 [행위]와 [행위]의 복합 사태이므로 상태성이 없다.

(63)의 ‘걷다’ 사태는 그 시간적 끝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과>는 어떠한 사태의 종결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걷다’ 사태는 그것이 [작용]으로 변환되더라도 [결과상태]로 확장될 수 없다. 즉, 피동은 행위주와 피행위주가 있는 사태를 가리키는 술어라면 모두 결합하는 데 비해, <결과>는 종결성을 지닌 사태에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결과>는 종결성을 지닌 사태라면 1항 술어에도 결합하는 데 비해, 피동은 최소한 2항 이상의 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다.

2항 술어와 결합했을 때에 결합가를 줄여서 1항 술어를 만드는 것은 피동과 <결과>가 공유하는 특성이지만, 그 이유는 모두 다르다. 피동은 두 개체가 참여하는 [작용] 사태를 서술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 개체 모두에 격을 할당할 수 있다. 피동 변형 술어가 1항 술어가 되는 것은 술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Nedjalkov(1988:17)은 <결과>의 이러한 특성을 결합가의 감소라는 점에서 피동과 대비하여 논의하였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반사동>에 더 가까운 특징이라고 해야 한다.⁵⁶ 다만 [(P)작용] 사태가 행위주 없이 피동으로 서술되면 [변성] 사태를 서술하게 되므로 <결과>의 인접 유형이 된다. 피동과 <결과> 표지가 동형인 언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2항 술어를 1항 술어로 만드는 표지가 있는 언어를 분석할 때에는 해당 표지가 결합한 술어의 의미 특성 및 논항 실현 방식을 관찰하여 그것이 피동 표지인지, 아니면

56) Nedjalkov(1988)에서 “resultative”의 결합가 감소를 반사동과 같이 다루지 않은 것은 준-결과상태를 “resultative”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1항 술어의 의미 유형과 2항 술어의 의미 유형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결과>로 변형된 술어는 그 정의상 행위주를 포함한 서술이 불가능하다. 행위주 실현과 관련하여 반사동과 “resultative”的 공통점을 언급한 연구로 Haspelmath(1987:15)를 들 수 있다.

〈결과〉 표지인지 분석해야 한다. 만약 피동 표지일 경우, 행위주 없이 해당 표지로 변형된 [(P)작용] 술어가 피동과 〈결과〉 중 어느 쪽인지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결과〉 범주가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의 문법에서 피동으로 분석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완료 완료(perfect)는 문법상(grammatical aspect)의 하위 범주로서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가 과거에 발생했지만 여전히 발화의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Comrie 1976; Bybee, Perkins, and Pagliuca 1994; 박진호 2011).⁵⁷ 따라서 ‘어떠한 사태가 먼저 발생하고’ ‘발생한 이후 지속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상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64) 영어 ‘break_{intr}’의 완료와 [상태] 부호화

- ㄱ. [변성]-[결과상태]-[상태]: My front door broke.
- ㄴ. [결과상태]-[상태]: My front door is broken.
- ㄷ. 완료-[결과상태]-[상태]: My front door has been broken.
- ㄹ. 완료: My front door has been broken three times this season. (COCA)

(64)에서 ‘break_{intr}’는 인접 의미 간 동형 부호화 때문에 복수의 의미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형태에 따라 해석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64 ㄴ, ㄷ)의 ‘-en’ 표지는 ‘break’ 사태의 유형을 [상태]로 변환한다. (64 ㄴ)의 ‘be’는 [상태] 술어 ‘broken’을 문장의 술어로 바꾸고, (64 ㄷ)의 ‘have -en’ 표지는 ‘broken’ 사태가 이전에 발생했으며 발화 기준시인 현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이 현재 관련성이 ‘해당 사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64 ㄷ)은 〈결과〉 변형인지 완료 변형인지 구분할 수 없다.

57) Bybee, Perkins, and Pagliuca(1994:54)에서는 이를 완망(perfective)과 구분하기 위해 선행(anterior)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였다. 완료가 지니는 발화 기준시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결과〉와의 차이를 드러내려면 이 명칭을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범주를 “perfect”로 지칭하는 관행이 강하므로 박진호(2011)에 따라 ‘perfective’를 완망으로 옮겨서 구분하고 완료(perfect)라는 명칭을 유지한다.

한편 (64ㄷ)은 ‘broken’ 사태가 어떤 변화의 결과일 것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화자는 새로 이사온 집의 문이 고장나 있었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상태] 사태의 서술로 (64ㄷ)을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have been broken’의 현재 관련성은 (64ㄹ)에서 보듯 해당 사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완료 변형의 핵심적인 기능은 개체의 과거 이력에 사태를 추가하는 것이며, 술어의 의미 유형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변형은 <결과>와 달리 술어의 의미 유형에 따른 결합 제약이 없다.

(64ㄷ)과 같이 [변성] 술어가 완료로 변형되면 의미 특성 면에서 <결과>와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 언어에서 <결과> 표지가 완료 표지와 동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때문이다. [변성] 술어를 변형하여 [결과상태]를 표현하는 표지가 있을 때, 해당 표지의 기능이 완료와 <결과> 중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⁵⁸ 하나는 피동과 마찬가지로 종결성이 없는 술어에 결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작용] 술어에 결합했을 때에 결합가를 1항으로 줄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영어 ‘break_{tr}’의 완료 변형과 <결과> 변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5) 영어 ‘break_{tr}’의 완료와 [결과상태] 부호화

- ㄱ. [(P)작용]: Berowne breaks the oath.
- ㄴ. 완료: Berowne has broken the oath. (COCA)
- ㄷ. [결과상태]-[상태]: The oath is broken.

(65)에서 [(P)작용] 술어의 완료 변형은 여전히 행위주가 주어인 2항 술어를 만들지만, [결과상태] 변형은 피행위주가 주어인 1항 술어를 만든다. 따라서 2항 술어가 변형되었을 때의 양상을 통해 해당 표지가 나타내는 범주가 완료와 <결과> 중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표지가 완료 범주의 표지로 쓰인다면, [변성] 술어가 완료로 변형된 사례와 <결과>로 변형된 사례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58) 술어의 종류에 따라서는 부사의 수식을 통해 완료와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결과>에 적용되는 방법만 언급하였다.

3.5.3.3 <결과>와 그 유사 명칭들

개체의 [상태]가 원인 사태와 결과 사태의 조합으로 포착되는 현상은 언어 사용의 여러 국면에서 확인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언어 현상이 “resultative”의 이름 하에 논의되었는데, 특히 혼동되기 쉬운 것들을 골라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결과 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 현대의 통사·의미론에서 “resultative”는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술어가 형용사를 추가로 취하여 피행위주가 최종적으로 놓이는 상태를 함께 명시하는 현상을 가리켜 주로 사용된다. 이는 흔히 ‘결과 구문’으로 번역되며 한국어에서는 주로 ‘-게 하다’ 구문이 이 명칭 하에 논의되고 있다.

(66) 영어의 결과 구문 ‘V N ADJ.’

- ㄱ. Mary pushed the door open.
- ㄴ. Mary walked her feet sore.

(66)은 ‘push’ 사태와 ‘walk’ 사태에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로서 피행위주가 놓이게 되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지정한다. 이 구문은 현재 “resultative”로 통용되고 있지만, 인도유럽어의 전통적인 문법 분석에서는 작위동사(factitive verb)로 불려 왔다(Dowty 1979:93).⁵⁹

(67) 영어의 작위동사 예시⁶⁰

- ㄱ. I painted it red.
- ㄴ. They made her captain.

59) 이러한 구문을 “Factitive”로 분석하는 사례로 *A grammar of the German language*(1845, Bernhard Becker (of Offenbach))와 같은 19세기 문법서나 *English Grammar, Past and Present*(1922, John Collinson Nesfield)와 같은 20세기 초기의 문법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60) *Oxford Learner's dictionary*(<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factitive” 항목. 2019. 8.

(67ㄱ)은 대상이 최종적으로 놓이는 상태를 형용사로 표현하고, (67ㄴ)은 대상이 최종적으로 소속되는 부류를 명사로 표현한다. 작위동사 논의는 이 두 사례를 모두 동일한 구문으로 다룬다. 추가된 어휘의 품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같은 구문으로 분류된 것은 영어의 형용사가 통사적으로 명사에 가까운 성질을 띠기 때문일 것이다(Stassen 1997). 이 관점에서 작위동사는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를 표현하는 어휘와 별도로 개체가 놓일 결과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를 요구하는 [작위] 유형의 복합 사태 속어로, 결과 구문은 동사를 작위동사로 변환하는 구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¹

작위동사가 부호화하는 [작위] 유형 사태는 [작용] 사태에서 참여하는 개체를 유지한 채로 후행하는 [상태]까지 사태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결과상태]와 다르고, 특정한 [상태]에 놓이는 개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개체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준-결과상태와 다르다. 여기에서 결과상태를 표현하는 어휘가 (67ㄴ)처럼 명사로 실현되면, 이 논항은 다음으로 살펴볼 결과상태 의미역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상태(final state) 의미역, 결과분사(resultative participle) 박철우·김종명(2005)에서는 한국어 용언 사전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용언의 의미역 목록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항의 의미역으로 결과상태를 설정하였다.

- (68) 현대 한국어 용언의 결과상태 논항(박철우·김종명 2005:560,(31))
- ㄱ.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로) 되었다.
 - ㄴ. 그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
 - ㄷ. 우리 팀의 골키퍼가 김병지로 바뀌었다.
 - ㄹ. 우리 업체는 인삼을 당의정으로 가공한다.
 - ㅁ. 그녀는 그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61) [작위] 유형 사태에 대해서는 3.3.2소절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 ㅂ. 선생님은 철수를 사위로 삼으셨다.
- ㅅ. 너는 나를 바보로 아니?
- ㅇ. 나는 이번 주에 처리할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 ㅈ. 그는 감형을 받아 형기가 3년으로 되었다.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가 개체의 자격, 성질, 용도 등의 변화를 나타낼 때, 결과상태 의미역을 받는 논항들은 그 변화의 결과를 명시한다. 비록 동사 또는 형용사 단독 술어가 아니라 명사와 동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통사적 실현 형태를 무시하고 사태의 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68ㄱ, ㄷ, ㅈ)은 [변성] 사태와 유사하고 그 나머지는 [작용] 사태와 유사하다. 또한 결과상태 논항이 지시하는 상태가 [상태]보다는 부류 소속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구분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변성] 또는 [작용] 유형의 단일 술어로 포착될 수 있는 사례도 섞여 있다. (68ㅇ)의 ‘절반으로 줄이다’ 사태가 영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부호화되는 방식을 비교해 보자.

(69) 영어와 한국어의 ‘halve’ 사태 부호화 비교

- ㄱ. Taking oral vitamin D supplements in addition to standard asthma medication could halve the risk of asthma attacks. (COCA)
- ㄴ. 통상적인 치료에 더하여 비타민 디를 경구섭취함으로써 천식 발작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69)의 대조에서 드러나듯, 동일한 사태를 [작용] 술어 하나로 부호화할 수도 있고 결과상태 논항과 동사의 조합으로 부호화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상태 의미역과 동사의 조합이 구문을 이용한 [작용] 또는 [변성] 부호화 전략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상태로의 변화’라는 개념이 단일 술어 또는 단일 술어의 변형으로 표현되는 것과, 술어와 술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은 인지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단지 부호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명사로 된 결과상태

논항을 취하는 동사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술어를 추가로 취하는 작위동사 또는 결과 구문은 모두 변화 사태를 구문으로 부호화하는 전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 사태의 부호화 수단으로 구문과 단일어 중 어느 쪽이 선호되는가는 언어별로 다르며 한 언어에 두 전략 모두가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70) 영어 ‘yellow’의 변화 사태 부호화

- ㄱ. [변성] 단일어 : [T]he leaves began to yellow and redden … (=42 ㄷ)
- ㄴ. [변성] 구문 : Leaves on a DED-infected tree first turn yellow. (COCA)
- ㄷ. [작용] 단일어 : …the [piano], which she kept closed so the western sun would not further yellow the keys … (=42 ㄹ)
- ㄹ. [작용] 구문 : I just hate how the sun turn my curtains yellow.⁶²

(70)에서 [변성]과 [작용]의 ‘yellow’ 사태는 각각 단일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구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70 ㅁ)은 ‘the sun turn my curtains’가 정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 구문과 달라 보이지만, 동종의 사태를 나타내는 아래의 결과 구문과 비교하면 사태를 부호화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영어 ‘bleach’의 결과 구문

The first time I cried was the episode in which Laura bleaches her hair blonde.
(COCA)

명사로 부호화된 별도의 결과상태 어휘가 결과상태 의미역으로 분석되듯이, 형용사로 부호화된 별도의 결과상태 어휘는 결과분사로 분석된다.

(72) 영어의 결과 구문과 결과분사

- ㄱ. 작위동사 : John made the metal flat.

62) *Weeping Willows Dance*, 2001, Gloria Mallette

ㄴ. 결과 구문: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ㄷ. 결과분사1: The metal was made flat.

ㄹ. 결과분사2: The metal was hammered flat.

구문에 의한 변화 사태 부호화는 주로 (72ㄴ)의 결과 구문을 중심으로 연구되기는 하지만, Embick(2004)는 (72ㄹ)과 같은 사례의 ‘flat’ 술어를 결과 분사의 명칭 하에 (72ㄴ)의 ‘flat’과 동일한 술어로 연구하였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 분사는 변화 사태를 구문에 의해 부호화할 때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술어로서, 결과상태 의미역과 같은 위계의 개념이 된다. 이들은 변화를 나타내는 다른 술어와 어울려서 확장된 [작용] 또는 [결과상태] 사태를 부호화하므로, 의미 구조에 변화가 포함된 술어는 결과 분사로 쓰일 수 없다. Embick(2004:357)은 결과 분사의 이러한 특성을 ‘build’ 등의 창조동사를 이용해 드러내었다.

(73) 영어 ‘build’의 [결과상태] 구문 부호화(Embick 2004:357,(6))

ㄱ. This door was built open.

ㄴ. * This door was built opened.

‘build’와 같은 창조 동사의 대상은 변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open’ 변화의 결과로 열려 있음을 가리키는 <결과> ‘opened’는 결과분사가 사용될 자리에 출현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변화를 겪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결과>와 결과상태 의미역 논항, 결과분사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는 특정한 술어가 [결과상태]를 나타내도록 변형하는 범주로서, 그 수단으로는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이 있다. 결과상태 의미역 논항과 결과분사는 변화 사태가 후행하는 상태 사태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것을 부호화하는 구문 변형의 요소로서, [작용] 또는 [동작] 술어와 결합하여 그 변화의 결과로서 발생할 상태를 부호화한다. 결과상태 의미역 논항이나 결과분사가 [동작] 술어 또는 [작용] 술어의 <결과> 변형과 결합하면

이는 해당 [동작] 또는 [작용] 사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를 더 자세히 서술하는 <결과>의 구문 변형 전략이 된다. 이들 요소가 관여하는 구문 변형 부호화 전략은 전통적으로 작위동사와 결과 구문 등으로 불려 왔다. [결과상태] 사태가 술어의 형태 변형과 결과상태 의미역 논항, 그리고 결과분사 중 무엇으로 부호화될지는 언어별, 사태별로 모두 다를 수 있으며, 한 언어 내에 여러 전략이 공존하기도 한다.

결과상(resultative aspect) 박진호(2003)에서는 한국어의 ‘있다’의 의미를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해석하고, ‘있다’가 나타내는 범주 중에 결과상(resultative aspect)과 정태상(stative aspect)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문법 분석에서 <결과> 개념을 처음으로 포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박진호(2003)의 결과상 및 정태상의 정의는 이 글의 <결과> 및 <상태>의 정의와 동일하다. 다음은 해당 논의에서 지적된 결과상 표지 ‘있다’가 다른 술어에 결합하여 [결과상태]를 서술하는 용례이다.

(74) 현대 한국어 ‘있다’의 [결과상태] 서술(박진호 2003)

- ㄱ. [(A)결과상태] 그는 서울을 떠나 있다.
- ㄴ. [(A)결과상태] 철수는 흰 셔츠를 입고 있다.
- ㄷ. [(P)결과상태] 이상한 글씨가 종이 위에 써 있다.

이렇듯 박진호(2003)의 결과상과 이 글의 <결과>는 같은 범주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다르게 옮기는가? 결과상이라는 명칭이 이 범주의 상위 범주를 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결과>의 상위 범주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지만, 최소한 완료, 완망, 진행 등이 속하는 문법상보다는 어근에 더 관련성이 깊은 범주로서 결합가와 비슷하다고 본다. Bybee(1985)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상은 결합가 다음으로 어근 관련성이 높은 범주이기는 하지만, 이는 상 범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와 같은 범주와 문법상 범주가 상의 이름 하에 섞여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문법 대범주로서의 상을 Comrie(1976)에 따라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을 부호화하는 범주로 정의한다면, 이 범주는 정의상 어떤 술어에든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의 소유자가 발화자이기 때문이다. 발화자는 어떤 사태이든 발화 목적에 따라 사태의 시작과 끝을 포착하거나 포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법상은 시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술어에 적용되며, 이는 문법상을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러시아어의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 완망상(perfective) 변형과 비 완망상(imperfective) 변형을 허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박진호(2003:43)에서 거의 모든 동사에 결합할 수 있는 영어의 완료상 표지에 비해 ‘-아/어 있다’는 한계 동사에만 결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완료상 표지가 아니라고 분석한 것은 완료상이 문법상의 하위 범주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의에서 분포가 제약되는 <결과>를 상의 일종으로 분류해 온 까닭은, 통용되는 문법 대범주 중에서는 그나마 상 범주가 나타내는 의미가 <결과>에 가장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비인도유럽어에서 많이 관찰되는 상 범주는 인도유럽어에 흔한 시제 범주에 비해 아직도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사태가 술어로 부호화될 때에 사태가 시간축 상에서 위치하는 위치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내적 시간 구조는 포함된다는 점이 상 범주의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한다.⁶³

사태의 의미 특성에서 내적 시간 구조와 관련이 깊은 것은 변화의 여부이다.⁶⁴ 변화가

63) 술어가 표현하는 내적 시간 구조와 상 범주에 의해 표현되는 내적 시간 구조를 모두 포함한 상 범주의 연구 사에 대해서는 Binnick(1991)을 참고하기 바란다.

64) 문법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은 사태의 시간과 끝을 제외하고 사태를 서술함으로써 사태에 지속성을 부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의 진행상 표지 ‘-ing’으로 변형된 술어가 명사 수식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외에도 반복상 역시 지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술어가 표현하는 사태를 [속성]을 제외하면 모두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겠다.

있는 사태는 필연적으로 변화의 시작과 그 이전, 혹은 변화의 끝과 그 이후라는 시간의 흐름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태 구성 요소 중 변화를 포착하는 관점을 바꾸는 <결과>는 사태의 내적 시간 구조에 영향을 준다. <결과> 표지가 완료나 완망 표지로 발달한다는 Bybee, Perkins, and Pagliuca(1994)의 범언어적 관찰은 <결과>가 부호화하는 것이 변화의 끝과 그 이후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이 글은 술어로 부호화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이 두 종류이며, <결과>류의 범주와 문법상 범주가 각각 다른 시간선(timeline)에서 사태의 시간적 구조를 변형한다는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사태 안에서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사태 밖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발화자의 시간이다. 이 가설에서 <결과>는 사태 안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개체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변화의 끝과 그 이후를 부호화하고, 완료는 사태 밖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발화자의 관점에서 인식되는 사태의 끝과 그 이후를 부호화한다.

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상의 이름 하에 논의되는 여러 현상들이 시제 범주와 대비되는 상과 어휘상과 대비되는 상으로 나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법적 변형에 의해 표지되는 상은 문법상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고, 어휘상은 단일어의 의미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어서 두 분야의 논의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결과>를 결합가와 같은 성질의 범주로 볼 때 관련된 현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므로, 문법상을 연상시키는 ‘결과상’ 용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3.5.4 상태의 원인 확장과 <변성>

지금까지 [변성] 및 [작용] 유형의 술어를 [결과상태] 유형의 복합 사태 술어로 변형하는 <결과> 범주를 도입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소절에서는 [속성] 또는 [상태] 술어를 [변성] 술어로 변환하는 변형을 <변성>(fientive)으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겠다.

“fientive”라는 명칭은 Haspelmath(1987)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해당 논의에서는 형용사를 문법적으로 변형하여 ‘X가 Y하게 되다(X becomes Y)’를 뜻하게 하는 문법 범주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해당 논의에서 범주의 정의에 ‘형용사’가 포함된 것은 범언어적으로 [속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일 것이다(Croft 1991).

남수경(2011b)에서는 이 “fientive”를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 번역어로 “상태 변화”를 사용하였다. 형용사가 동사처럼 행동하는 한국어에서는 [상태]가 형용사의 주된 의미 유형이므로 그에 끌린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3.3절에서 [변성]과 [(P)작용] 술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상태 변화’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와 혼동되지 않는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ientive’에 대응하는 한국어 용어로 <변성>을 사용하기로 한다.

<변성> 범주는 [속성] 술어를 변형하면 개체가 해당 속성을 취득하는 변화를 서술하고, [상태] 술어를 변형하면 개체의 상태가 해당 상태로 전환되는 변화를 서술한다. [변성] 사태의 정의는 작인성이 없는 개체가 변화를 겪는 것으로서, 그 변화 결과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중립이기 때문이다.

(75) 한국어 ‘커지다’의 [변성] 사태 부호화

- ㄱ. 속성 획득: 다리뼈가 잘 자라야 키도 커진다. (물결 21)
- ㄴ. 상태 변화: 표시하며 읽자 /‘핵심문장에 밑줄’ 집중력 커진다 (물결 21)

(75)의 한국어 사례에서 ‘지다’ 표지로 변형되기 전의 ‘크다’는 ‘키’에 대한 서술일 때에 [속성] 사태를, ‘집중력’에 대한 서술일 때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변형된 (75 ㄱ)의 ‘커지다’는 키의 소유자가 ‘키가 크다’라는 속성을 획득하는 사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75 ㄴ)의 ‘커지다’는 집중력의 소유자가 ‘집중력이 큰’ 상태에 진입하는 사태를 나타낸다. 사람의 키는 커지면 다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커지다’ 변화의 결과가 [속성]으로 해석되지만, 집중력은 커졌다가도 다시 줄어드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태]로 해석된다.

<변성>이 실현하는 의미 유형 변환은 형용사 파생 동사(deadjectival verbs) 논의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사태를 부호화하는 어휘부 구성 요소 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휘를

파생하는 것과 구문을 형성하는 것이 모두 술어의 의미 유형 변환을 부호화하는 방법의 층위에서 묶일 수 있다. 따라서 <변성>은 형용사 파생 동사 논의와 달리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 된다. 이하에서는 <변성>과 관련된 의미 유형 변환이 그간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고, <변성>과 혼동되기 쉬운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겠다.

3.5.4.1 [속성]-[상태] 술어의 [변성] 부호화

앞에서 영어의 ‘yellow’ 사태 술어가 동형으로 [속성]-[상태]-[변성]-[(P)작용] 사태를 부호화하는 데 비해, ‘red’ 사태 술어는 ‘red’ 형태로 [속성]-[상태]를, ‘red’를 변형한 ‘redder’ 형태로 [변성]-[작용] 사태를 부호화하는 것을 보았다. [상태]와 [변성]은 인접 의미 유형이기 때문에 동형으로 부호화될 수도 있고, 변형에 의해 부호화될 수도 있다. 또한 한 언어 안에서 여러 가지 부호화 방식이 공존할 수 있다.

(76) 일본어 ‘atataka(따뜻하다)’ 사태의 [상태]-[변성] 부호화

- ㄱ. kappu-wo nigiru te-ga atataka-i
컵-ACC. 주-PART 손-NOM 따뜻하-PRES.
‘컵을 쥔 손이 따뜻하다.’
- ㄴ. kappu-wo nigiru te-ga atataka-ku naru.
컵-ACC. 주-PART 손-NOM 따뜻하-CONV 되-PRES.
‘컵을 쥔 손이 따뜻해진다.’
- ㄷ. kappu-wo nigiru te-ga atatamaru.
컵-ACC. 주-PART 손-NOM 따뜻해지-PRES.
‘컵을 쥔 손이 따뜻해진다.’

(77) 영어 ‘red’ 사태의 [상태]-[변성] 부호화

- ㄱ. Her face is red from holding in her breath.⁶⁵

65) *A Figure of the Rain: There Is Nothing Inside of Him*, 2011, Clay T. Hensley

└. Her face turned red from the pressure.⁶⁶

ㄷ. [H]er face reddened from anguish.⁶⁷

(76 ㄱ)은 ‘atataka’ 사태 술어의 형태 변형을 통해 [상태] 술어를 나타내는 예이고, (76 ㄴ, ㄷ)은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을 통해 [변성] 술어를 나타내는 예이다. 변형되기 전의 ‘atataka’ 형태는 일본어에서 형용동사로 분석되며 통사적 성질은 명사와 비슷하다. 이 글의 관점에서는 [속성] 술어라고 할 수 있다.

(77)은 [속성]-[상태] 동형 술어가 구문 변형 또는 형태 변형을 통해 [변성]을 부호화하는 예이다. [속성] 및 [상태] 술어의 대표적인 품사는 형용사이므로, 이들을 변형하여 [변성] 사태를 나타내는 부호화 전략은 형용사 파생 동사로 논의되어 왔다. 형용사에서 파생되는 동사는 (76 ㄷ) 및 (77 ㄷ)과 같은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도 존재하는데, 이는 [속성]-[상태]를 [작용]으로 바꾸는 변형이 된다. 이 변형 역시 구문 변형과 형태 변형 모두를 찾아볼 수 있다.

(78) 일본어 ‘atataka(따뜻하다)’ 사태의 [작용] 부호화

ㄱ. kappu-wo nigiru te-wo atataka-ku suru.
컵-ACC. 주-PART. 손-ACC. 따뜻하-CONV. 하-PRES.
‘컵을 쥔 손을 데운다.’

ㄴ. kappu-wo nigiru te-wo atatameru.
컵-ACC. 주-PART. 손-ACC. 데우-PRES.
‘컵을 쥔 손을 데운다.’

(79) 영어 ‘red’ 사태의 [작용] 부호화

ㄱ. Shame turned her face red. (COCA)

ㄴ. Water reddened his eyes, but no tears fell. (COCA)

66) *Silent Mysteries*, 2008, Leanne Smith

67) *Second Sunrise*, 2003, Robert Wernli

(78–79)은 [속성]-[상태] 술어가 구문 변형 또는 형태 변형을 거쳐 [작용] 술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태]에서 [작용]으로의 변환은 사태 구성 요소로 변화와 개체를 모두 추가하는 것이므로 동형으로 부호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 유형의 변형은 ‘디다’의 문법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변성>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범주로 도입하지 않고 그러한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는 선에서 멈추기로 한다.

3.5.4.2 <변성>과 그 유사 범주들

<변성>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유형은 [변성]이므로 [결과상태] 및 [작용]과 인접한 유형의 사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인접 의미 유형으로 변환하는 범주들과 <변성>을 비교해 둔다. 또한 문법상의 하위 범주인 기동상(inchoative aspect)이 <변성>과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도 논의해 둔다.

<결과> <변성>이 [상태]에서 [변성]으로의 변형을 부호화한다면, <결과>는 [변성]에서 [결과상태]로의 변형을 부호화한다. 따라서 두 범주는 각각 [동작]과 [상태]로 서로 다른 유형의 사태를 포착하지만, 둘 모두 결합한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 구성 요소 중 변화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태] → <변성> → [변성] 변화 추가

[변성] → <결과> → [상태] 변화 → 변화'

이는 <변성>과 <결과>가 사동과 반사동처럼 짹을 이루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사동과 반사동 범주가 가져오는 변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작용] → 반사동 → [변성] 개체 삭제

[변성] → 사동 → [작용] 개체 추가

<결과>가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 사태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변화를 함의하는 복합 사태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반사동은 단순히 개체가 하나인 [변성]이 아니라

개체가 하나로 한정되는 [변성]을 부호화한다. 이는 〈결과〉 및 반사동으로 변형된 술어는 변형되지 않은 술어보다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리라는 언어의 도상성(iconicity)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반사동은 단순히 개체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에 참가하는 개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결과〉가 변화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된 변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결과〉와 〈변성〉이 사동-반사동처럼 대칭 관계에 있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단일 어로 된 [변성]-[작용] 술어가 종종 동형으로 부호화되는 것과 달리 사동, 반사동 변형에 의해 만들어지는 [변성]-[작용] 술어들은 동형인 경우가 드물다. 그 대신에 사동과 반사동을 나타내는 표지가 동형인 경우를 찾을 수 있다.

(80) 한국어 사동·반사동 동형 표지 '-이-'

- ㄱ. 사동: 물이 끓다. → 물을 끓이다.
- ㄴ. 반사동: 물과 기름을 섞다 → 물과 기름이 섞이다.

Jeong(2018)에서는 한국어 '-이-'를 사동 표지와 반사동 표지로 각각 설정하는 대신, 하나의 '-이-'가 술어에 결합하여 해당 술어가 가리키는 전형적 사태의 변형을 가리킨다는 통합적 의미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사동과 반사동이 술어를 변형하는 방식에서 대칭을 이루는 범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과〉와 〈변성〉 또한 대칭 관계를 이루는 범주로서 이러한 방식의 부호화가 성립할 가능성성이 있다.

사동, 작위동사, 결과 구문 한국어의 사동접사 '-이-'는 형용사에 결합하여 종종 타동사를 파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그러하다.

(81) 한국어 형용사 파생 타동사 '넓히다'

- ㄱ. 직원들은 회의실을 좁혀서 사장실을 넓히는 안에 반대하였다.
- ㄴ. 사장실은 이미 충분히 넓다.

(81ㄱ)의 ‘넓히다’는 [속성]-[상태] 술어 ‘넓다’에 사동 표지 ‘-이-’의 이형태 ‘-히-’가 결합하여 타동사를 파생한 것이다. 한국어의 ‘넓다’는 [변성]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으므로,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사태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동을 이 글의 관점처럼 사태에 영향자 개체를 추가하는 변형으로 이해한다면, 사태에 변화와 영향자 개체를 둘 다 추가하는 (81ㄱ)의 ‘-히-’는 사동 표지가 아니라 사태에 변화 및 영향자 개체를 부여하는 형태 변형 표지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 표지는 앞서 본 작위동사 또는 결과 구문과 동일한 유형으로 술어의 의미 유형을 변환하지만 부호화 수단이 구문이 아니라 형태 변형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렇듯 [속성]-[상태] 술어를 변화 사태 술어로 변형하는 방법은 추가하는 구성 요소 및 부호화 수단의 조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는데, 영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82) [속성]-[상태] ‘flat’ 술어의 변화 사태 부호화

- ㄱ. [속성]-[상태] 단일어 : The metal was flat.
- ㄴ. <변성>: The metal flattened.
- ㄷ. <변성>-[작용] 동형 : John flattened the metal.
- ㄹ. 작위동사: John made the metal flat.
- ㅁ. 결과 구문: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82ㄴ)의 <변성> 변형은 ‘flat’ 사태에 변화를 더한다. (82ㄷ)의 ‘flatten’은 <변성> 술어의 동형 부호화를 통해 ‘flatten’ 사태에 영향자 개체를 더하며, (82ㄹ, ㅁ)의 구문 변형은 ‘flat’ 사태를 선행하는 [작용] 사태를 더한 복합 사태로 확장한다. (82ㄴ, ㄹ, ㅁ)은 형태 변형과 구문 변형으로 부호화 수단의 차이가 있지만 [속성]-[상태]를 [작용]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82ㄹ, ㅁ)은 후자가 전자보다 서술되는 사태의 폭이 넓기는 하지만 구문 변형을 통해 [작용]을 후행하는 [상태]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표지 결합을 통해서 사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체를 더한다는 점은 ‘밝히다’와 ‘끓이다’의 확실한 공통점이므로 한국어 공시 문법을 기술할 때에 이를 사동 범주로 정

의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언어의 사례를 시야에 넣고 의미 변화를 분석하려면, 어느 의미 요소가 어떻게 부호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성을 바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변성〉을 [속성]-[상태] 1항 술어를 [변성] 1항 술어로 바꾸는 범주로 좁게 정의하며, 그와 비슷한 의미 변환을 가져오는 형태 변형 및 구문 변형을 그와 다른 범주로 분리해 둔다.

기동상(inchoative aspect) 발화자가 서술하는 사태들 중에서 시간축 상 점이 아닌 구간을 차지하는 사태는 항상 시작과 중간과 끝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발화자는 사태를 전체로 포착하거나, 혹은 사태의 부분만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이때 포착하는 부분은 시작, 중간, 끝 중 어느 것이든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화자가 사태를 포착하는 방식을 단일 술어의 형태 변형으로 부호화하는 전략이 바로 문법상 범주이며, 기동상은 그 중에서 사태의 시작 단계를 부호화하는 범주를 말한다.

기동상은 특히 영어에서 형태 표지가 발달하지 않은 범주이기 때문에, 영어를 중심으로 이뤄진 논의에서는 이 범주에 대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 글의 [변성] 술어에 해당하는 ‘기동 동사(inchoative verbs)’가 [작용] 술어에 해당하는 ‘사동 동사(causative verbs)’의 짹으로서 더 많이 언급되고 연구되는 편이다. 그런데 [변성]은 변화가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의 시작을 포함하며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시작됨’의 함의를 반드시 지니게 된다. 이때문에 ‘기동 동사’의 의미가 ‘기동상’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We have a living suffix denoting the inchoative aspect in *to redden*, *to sicken*.

But this suffix is also used in other functions so that the inchoative function is clear from the context only, or from the meaning of the verb, not from its form.”(Kruisinga 1924:91)

“English has lexical pairs that differ only by inchoative aspect, such as *know* vs. *realize*, and also pairs that differ only by completive aspect, such as *do* vs.

complete.”(Bybee 1985:15)

Kruisinga(1924)에서는 <변성> 술어 ‘redder’의 의미를 기동상으로 분석하지만, 이때 기동상의 의미를 부호화하는 것은 ‘-en’이 아니라 ‘redder’ 술어 자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 ‘기동상’은 우리의 <변성>과 다르지 않다. Bybee(1985)는 [상태] ‘know’의 인접 의미 유형을 이형으로 부호화하는 [변성] ‘realize’의 존재를 “상은 동사 어근의 내용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범주이기 때문에 인칭 등과 달리 동사의 의미 일부로 어휘화될 수도 있다” 는 근거로 제시했지만, 동사의 의미 일부로 부호화되는 사태의 진행과 화자가 주목하는 사태의 진행이 반드시 동일한 개념일까? 이 글은, <결과>와 완료상이 그러하듯이, 이들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83) 영어 ‘realize’의 기동상 구문과 완료상 구문

- ㄱ. [T]hat was the moment when I began realizing that I had to talk about it. (COCA)
- ㄴ. He has realized that he’s alone.

(83)의 ‘realize’는 주어의 [상태]가 ‘non-know’에서 ‘know’로 전이되는 변화 사태를 부호화한다. 이 ‘realize’ 변화 사태가 위치하는 시간선은 주어가 경험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태의 시작을 포착하는 관점은 주어의 것이다. 반면 (83 ㄱ)의 ‘begin -ing’ 구문이 부호화하는 것은 ‘I realize somthing’ 사태의 시작이다. 이 사태가 위치하는 시간선은 발화자가 경험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태의 시작을 포착하는 관점도 발화자의 것이다. 이렇듯 [변성]이 포착하는 사태의 진행과 상 범주가 포착하는 사태의 진행이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83 ㄴ)처럼 동사의 의미 일부인 이른바 ‘기동상’과 영어의 문법상 범주인 완료상이 동시에 출현하는 일이 가능하다.

보조동사 ‘have’에 비해 본동사로서의 특성이 뚜렷한 ‘begin’은 기동상 표지로 분석되는 일이 드물지만, 술어를 구문으로 변형하여 사태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begin -ing’ 구문은 분명 기동상을 부호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종의 구문인 ‘fall -ing’ 구문에 대한 Kruisinga(1924)의 분석을 빌려서 확인해 보자.

“To fall is sometimes used to express the inchoative aspect. To keep with a verbal in -ing is used as an auxiliary of the iterative aspect. One night during this last illness that had brought him home he fell thinking of Zimbabwe and the lost cities of Africa. / He kept changing his plans.”(Kruisinga 1924:91)

기동상 표지가 미발달한 영어에서는 이렇듯 별도의 동사를 빌어와 구문으로 기동상의 의미를 부호화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이를 술어의 변형을 이용해 표현한다.

(84) 러시아어 기동상 표지 ‘za-’

- ㄱ. plákat'_{IMPF} ‘울다’ – zaplákat'_{PF} ‘울기 시작하다’
- ㄴ. govorít'_{IMPF} ‘말하다’ – zagovorít'_{PF} ‘말하기 시작하다’
- ㄷ. tverdét'_{IMPF} ‘굳어지다_{intr}’ – zatverdét'_{PF} ‘굳어지다’

러시아어에서 (84 ㄱ, ㄴ)의 접두사 ‘za-’는 비완망상 술어에 결합하여 술어가 부호화하는 관점을 완망상으로 바꾸며 특히 사태의 시작을 나타낸다(Senn 1949). Janda and Lyashevskaya(2013)에서는 (84 ㄷ)과 같은 사례에서 접두사 ‘za-’가 어떤 고정된 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관찰하였는데, 이는 ‘za-’ 표지가 나타내는 기동성이 완망상의 일종으로서 사태를 전체로서 포착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합의라고 할 것이다. 그 점에서 ‘za-’ 표지가 나타내는 기동상은 <변성>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⁶⁸

그러나 <변성>이 [속성]-[상태] 술어에 결합하는 범주인 데 비해, ‘za-’ 표지는 (84)에서 드러나듯이 그보다 결합 제약이 느슨하다. 따라서 사태에 변화를 부여하는 <변성> 부호화 수단이 발화자가 서술하는 사태의 시작을 부호화하는 기동상 수단으로 발달하는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 글의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연구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변성>과 기동상을 별도의 범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기로 한다.

68) 러시아어 ‘za-’ 접두사의 자세한 분석으로는 Janda(1986)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4장 한국어 ‘디다’의 역사적 변화

이 장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부터 19세기 말까지 한국어 역사 자료를 대상으로 ‘디다’ 및 그 후대형 ‘지다’(이하 ‘디다’로 약칭)의 분포를 고찰하여 분포별로 ‘디다’ 형태의 의미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역사 자료에 나타나는 ‘디다’ 형태는 하향이동 동사 또는 상태 변화와 관련된 문법 표지의 두 종류로 나뉘며, 문법 표지 ‘디다’는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 또는 상태 술어에 결합하여 변화와 관련된 술어 의미 유형 변환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장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한국어 문법 표지 ‘지다’의 기원으로 지적되어 온 ‘지다[生]’와 ‘디다[落]’의 단독 용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단독으로 사용되는 ‘지다[生]’가 후기 중세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시기의 ‘디다[落]’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고빈도 어휘였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문법화에 진입하는 어휘는 고빈도로 사용되고 폭넓은 의미 확장을 겪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 문법 표지로 사용된 ‘디다’ 형태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떠받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동사, 형용사, ‘-을’계 어근 순서로 이를 각 술어에 ‘디다’ 표지가 결합했을 때에 어떠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논의한다. 동사에 결합한 문법 표지 ‘디다’는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하고, 이를 <결과>, <기동>, <반사동> 의미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형용사 및 ‘-을’계 어근에 결합한 결합한 문법 표지 ‘디다’를 16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하고, 이를 <변성> 의미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5장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서,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술어를 초출 시기별로 나열하여 ‘디다’ 분포 환경이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해 두기로 한다.

4.1 ‘디다’와 ‘지다’의 구분

2.1.1절에서 정리하였듯이, 현대 한국어의 ‘지다’ 표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디다[落]’ 설과 ‘지다[生]’ 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디다’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걸쳐 일어난 ‘ㄷ’ 구개음화를 겪어 모두 ‘지다’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디다’와 ‘지다’가 확실히 구분되는 자료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뿐이다.

‘지다’ 설을 주장한 함희진(2008)에서는 ‘지다’ 표지의 문법화 시기를 후기 중세 말 또는 근대 초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아직 ㄷ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다’가 동사 또는 형용사에 ‘지다’ 표지의 꼴로 후행하는 사례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지다’ 기원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법화의 첫 단계는 어휘가 특정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세모돌(1995)에서 고찰하였듯이, 후기 중세의 ‘지다’는 동사 또는 형용사에 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디다’와 ‘지다’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이 절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의 ‘지다’ 형태 동사들을 검토해 둔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지다’의 형태를 지닌 동사는 ‘지다[負]’, ‘지다[敗]’, ‘지다[肥]’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외에 혼동되는 형태로 ‘지^이다[倚]’가 있다. 각각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후기 중세 한국어 ‘지다[負]’의 용례

- ㄱ. 모미 양네 므거운 것 지고(身常負重^고)《법화경언해 2:165》
- ㄴ. 城郭 밧 뉘 지비 城郭을 겠는 받고(郭外誰家負郭田)《두시언해 23:25》
- ㄷ. 쪽 長常 므거본 거슬 지여《석보상절 9:15》

(2) 후기 중세 한국어 ‘지다[敗]’의 용례

- ㄱ. 中原과 되왜 서르 이그락 지락 허니(漢虜互勝負)《두시언해 5:33-34》
- ㄴ. 오늘 비 오니 정히 바둑 두미 료토다 우리 혼 판 두워 지니 이그니 나기 호드

엇더호뇨(…賭輸贏如何)《번역박통사 상:22》

(3) 후기 중세 한국어 ‘지다[肥]’의 용례

- ㄱ. 진 羊의 기름과 고기(肥羊脂肉)《구급방언해 상:51》
- ㄴ. 물도 밤 여를 몯 어드면 지디 몯호느니라(馬不得夜草不肥)《번역박통사 상:22》

(4) 후기 중세 한국어 ‘지이다[倚]’ 동사의 용례

- ㄱ. 지이이다: 机는 안자 지이이는 거시라《석보상절 11:34》
- ㄴ. 지이다: 님금 金華省애 지이이니라(倚君金華省)《두시언해 24:41》
- ㄷ. 지여다: 쪘 지여디 아니호도다(亦不倚)《남명집언해 24:41》
- ㄹ. ‘-어’ 활용형: 几案으로 지여 드러내요리라(以几案憑挈而出之)《월인석보 12:24》

(1–3)의 각 ‘지다’는 동음이의 관계의 동사들이고, (4)의 ‘지이이다’는 형태가 다르지만 ‘-어’ 활용형에서 ‘지다’ 동사들과 혼동될 수 있는 동사이다.¹⁾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와의 관련성이 거론되는 것은 (3)의 ‘지다[肥]’이다. 이 동사는 (3)과 같이 단독으로 ‘살이 오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나 그보다는 명사에 후행하는 사례가 더 많다.

(5) 후기 중세 한국어 ‘지다[肥]’와 명사에 후행하는 용법

- ㄱ. 키 적도 크도 아니호고 솔히 지도 여위도 아니호니라《월인석보 1:26》
- ㄴ. 사루미 모미 비록 길오 크며 속지고(人身雖長大肥)《佛說彌勒大成佛經》《월인석보 23:44》
- ㄷ. 네 이제 머리 셰며 낫 삶쥬물 슬누니(汝今自傷髮白面皺)《능엄경언해 2:9》
- ㄹ. 胚는 기름진 고기라《능엄경언해 6:99》
- ㅁ. 내 그루물 고늘지게 흐는 대를 뒷노니(我有陰江竹)《두시언해 6:45》

1) 김태곤(2002:437)에서 ‘지다’를 ‘負’와 ‘倚’의 두 가지 뜻을 지닌 동사로 분석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ㅂ. 冠과 씩 빼지거든(冠帶垢)《소학언해 2:7》

(5ㄱ)에서는 ‘사람이 키가 크다’, ‘사람이 살이 찌다’와 같은 방식으로 ‘살’과 ‘지다’가 사용되었다. (5ㄴ)은 같은 내용을 ‘옳’과 ‘지다’의 합성어 ‘옳지다’로 표현한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값이 싸다’·‘값싸다’와 같은 구성이다.

한편 (5ㄷ-ㅂ)의 ‘지다’는 주어가 선행 명사가 지시하는 속성을 지니거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본동사 ‘지다[肥]’와 구분하여 ‘지다[生]’로 표기하기로 하자. ‘지다[生]’는 선행하는 명사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예가 드물다. ‘지다[肥]’와 ‘지다[生]’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신은수(2013)에서는 ‘기름지다’ 등의 ‘-지다’를 파생접사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며, 본동사로 쓰이는 ‘지다[肥]’가 ‘살이 오르다’의 의미만 지니는 것으로 볼 때, ‘옳지다’를 경로로 삼아 문법화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의 후기 중세 자료에서 ‘-지다’는 52회 확인되는데, 그 중 ‘옳지다’ 용례가 35회를 차지한다. 신은수(2013:26) 역시 ‘옳지다’가 본동사 ‘지다[肥]’에 비해 빈도가 높고 의미가 다양하다고 관찰하였는데, 이는 ‘옳지다’가 문법화의 경로였으리라는 이 글의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살이 오르다’를 표현하던 ‘지다’가 ‘옳지다’의 일부로 분석되면서 ‘[속성]을 지니다’를 뜻하는 파생 접사로 발달했다고 하면, 자료에서 관찰되는 ‘-지다’가 명사 또는 어근에 직접 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술어의 의미 유형을 나누는 토대가 되었던 Croft(1991)에서는 [속성]과 [객체]가 정도성으로만 구분된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속성]과 [객체]는 인접 의미 유형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글의 관점에서는 파생접사 ‘-지다’를 [객체] 술어를 변형하여 [속성] 사태를 부호화하는 표지로 분석할 수 있다.

신은수(2013:63–64)는 ‘-지다’ 류 어휘의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지다’ 결합으로 파생된 [속성] 어휘가 [상태] 유형을 동형으로 부호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굳다’의 사례에서 보았듯

[속성]-[상태]-[변성] 사태의 동형 부호화 전략이 종종 사용되는 언어인데, [속성]-[상태] 술어는 주로 형용사로, [상태]-[변성] 술어는 주로 동사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다’ 류 어휘가 [상태] 유형으로 해석될 때 이를 동사로 분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사태를 [속성]이 아닌 [상태]로 포착한다는 것은 시간선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시간선은 사태의 시작을 함의한다. 신은수(2013:28)에서 ‘지다[肥]’가 형용사일 때에는 ‘살이 많다’, 동사일 때에는 ‘살이 많아지다’로 해석한 것은 [속성]-[상태]를 구분하는 시간선의 함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문에 파생접사 ‘-지다[生]’는 ‘[속성]이 생기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현대 한국어에서 ‘주름이 지다, 흉이 지다’ 등으로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본동사 ‘지다[生]’를 ‘지다[肥]’가 문법화된 파생접사 ‘-지다[生]’가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를 겪어 발달한 것이라고 본다.²

‘-지다[生]’가 파생접사라면, ‘-아/어’ 어미를 매개로 동사나 형용사에 후행하는 분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지다’ 표지의 기원으로서 ‘디다’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사에 ‘-아/어’ 어미를 매개로 후행하는 ‘디다’ 사례를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다수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16세기 자료에서 ‘업서디다’와 ‘우그러디다’ 등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의 선대형으로 보이는 ‘디다’ 형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가 문법화를 겪어서 ‘디다’ 표지가 된 것이라면, 본동사 ‘디다’ 또한 고빈도 어휘로서 구체적 의미부터 추상적 의미까지 폭넓게 의미 확장을 겪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화된 의미가 나타나는 의미 탈색은

2) 명사와 파생 접사 ‘지다[生]’의 구성이 주부와 술부로 분리되는 사례를 후기 근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로에 찬물노 가로를 풀어 솟히 쓸는 물에 드러부으되 망울 아니 지게 고로 쳐어 《술만드는 법
‘청명쥬’》

문법화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본동사 ‘디다’의 다의 양상을 확인해 본다.

4.2 단독으로 사용된 ‘디다’

이 절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디다’가 단독으로 실현된 사례들을 살펴 본동사 ‘디다’의 의미를 확정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말샘』에 등재된 다섯 가지의 옛말 ‘디다’가 모두 서로 의미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 외에도 ‘디다’에 다양한 의미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디다’의 기본 의미를 살피고, 그 기본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은유적 확장과 인과연쇄적 확장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고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에 ‘-아/어’를 매개로 직접 후행하는 ‘디다’가 모두 본동사라는 근거로 제시되는 ‘디다’의 소멸 의미를 살피고, 이 의미의 ‘디다’가 ‘스라디다’ 등의 합성 동사를 형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겠다.³

항목	품사	풀이
디다 ⁰⁰⁶	자동사	(해/달이) 지다, (꽃이) 지다
디다 ⁰⁰⁷	자동사	떨어지다
디다 ⁰⁰⁸	자동사	넘어지다, 거꾸러지다
디다 ⁰¹⁰	타동사	떨어뜨리다, 내리다, 뿌리다, 없애다
디다 ⁰¹¹	타동사	주조하다
디다 ⁰¹²	형용사	값이 싸다

표 4.1: 『우리말샘』의 ‘디다’ 어휘 목록

『우리말샘』에 수록된 ‘디다’ 동사 중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표 4.1

3) 이 절의 논의는 2017년 여름에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듬어 확대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신은수 선생님과 발표장에서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과 같다. 《우리말샘》은 이들 중에서 ‘디다⁰⁰⁶’, ‘디다⁰⁰⁷’, ‘디다⁰⁰⁸’만을 다의어 관계로 둑고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이들 각각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의 용례

- ㄱ. 디다⁰⁰⁶ : 나리 쳐므러 히 디거늘 《월인석보 8:93》
- ㄴ. 디다⁰⁰⁷ : 雙鵠이 흔 사래 디니 《용비어천가 23장》
- ㄷ. 디다⁰⁰⁸ : 내 것 무 주거 짜해 디옛다가 오라거사 씨요니 《월인석보 10:24》
- ㄹ. 디다⁰¹⁰ : 어분 아기를 조쳐 디오 《월인석보 10:24》
- ㅁ. 디다⁰¹¹ : 凶흔 兵 잠개로 農器를 디오 《두시언해 3:4》
- ㅂ. 디다⁰¹² : 빗 갑슨 쓰던가 디던가 《번역노절대 상:9》

이 절에서는 후기 중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들 ‘디다’의 다양한 의미가 한 어휘에서 확장된 다의인지, 아니면 우연한 동음이의가 섞여 있는지 가려내고자 한다. 어휘의 의미는 물론 품사 또한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6)의 모든 의미가 다의 관계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디다⁰⁰⁶’에서 ‘디다⁰⁰⁸’까지의 ‘디다’가 다의 관계라면, 무엇이 중심이며 어떻게 확장하였는가?
- ‘디다⁰⁰⁷’과 ‘디다⁰¹⁰’의 관계는 무엇인가?
- ‘디다⁰⁰⁷’은 유사한 뜻의 ‘느리다’, ‘듣다’, ‘빙다’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 ‘디다⁰¹¹’과 ‘디다⁰¹²’는 위의 ‘디다’들과 우연히 형태가 같은 것인가?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후기 중세 자료에서 본동사 ‘디다’가 단독으로 쓰인 용례들을 살펴 ‘디다’의 어휘 의미 목록을 작성하겠다.

4.2.1 ‘디다’의 기본 의미

후기 중세 한국어와 한어(漢語)의 대응을 보여주는 사전과 주석에서 본동사 ‘디다’ 단독으로 풀이되는 한어 단어는 ‘落’이다. ‘落’은 한어에서도 ‘(물체가) 떨어지다, (나뭇잎이) 지다, (해가) 지다’ 등 다양한 뜻을 지니는데, 사전에서 대개 ‘(나뭇잎이) 지다’로 풀이된다.⁴⁾ 이 중에서 ‘(나뭇잎이) 지다’와 ‘(물체가) 떨어지다’는 ‘듣다’로도 표현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전에서 ‘落’을 풀이할 때에 ‘듣다’가 아니라 ‘디다’를 사용하였으니, ‘디다’가 생산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증유합》에서는 ‘落’을 ‘디다’가 아니라 ‘떠러디다’로 풀이하였다. 이는 ‘떠러디다’가 16세기에 ‘디다’와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더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이다. 이 ‘떠러디다’는 현대 한국어 ‘떨어지다’의 선대형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후기 중세 이전에 중력에 순응하는 하향이동 사건 및 식물이 시드는 사건을 가리키던 ‘듣다’를 후기 중세 시기에 ‘디다’가 대체하고, 이를 다시 ‘떠러디다’가 대체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디다’에 비해 ‘듣다’의 생산성이 낮았다는 것은 이 동사로 풀이된 한어 단어가 없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메타 자료에서 확인되는 ‘듣다’의 흔적은 ‘뜯듣다’가 유일하다. 《천자문 광주판》(1575년)에서는 ‘彫(시들다)’, 《훈몽자회》에서는 ‘霧(떨어지다, 시들다)’, 《백련초해》에서는 ‘滴(물방울이 떨어지다)’을 ‘뜯듣다’로 풀었다. 이 중에서 ‘彫’와 ‘霧’을 다른 자료에서 ‘떠러디다’로 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6세기에 ‘듣다’의 의미가 ‘滴’으로 좁아지고 하향이동 사건 및 잎이 시드는 사건은 ‘디다’ 및 ‘떠러디다’가 대체하여 가리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훈몽자회》에서 ‘漲’을 ‘한믈디다’로 풀었는데, ‘한믈’은 큰물을 뜻한다. 《훈몽자회》는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자료이므로, 이 ‘디다’는 ‘지다’의 과도교정형이 아니라 ‘디다’가 적힌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어에서 관용구로 남아 있는 ‘큰물이 지다’의 선대형이 ‘한믈디다’이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수가 지다’, ‘사태가

4) ‘落’의 뜻풀이를 《설문해자》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이 뜻풀이에서 ‘霧’은 ‘시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凡艸曰霧, 木曰落(풀은 ‘霧’이라 하고 나무는 ‘落’이라 한다)

지다’ 등에 쓰이는 ‘지다’의 기원형도 ‘디다’일 가능성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전과 주석에서 나타나는 후기 중세 한국어 ‘디다’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는 하향이동 사건과 나뭇잎이 시드는 사건이다. 그런데 동사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가 두 가지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둘을 동음이의어로 분석하거나, 두 의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디다’가 ‘한믈디다’처럼 큰 비를 주어로 삼으면 비가 많이 내린 결과로서 물이 넘치는 상황까지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한믈디다’와 같은 방식으로 ‘디다’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면, ‘디다’가 나뭇잎이 시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 또한 하향이동 사건에서 확장된 의미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뭇잎이 시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나무에서 떨어져 하향이동을 한 사건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다’의 기본 의미는 하향이동 사건이며, 이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기술할 수 있다.

4.2.1.1 ‘디다’의 이동 논항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자동사 ‘디다’는 주어로 실현된 대상의 하향이동을, 타동사 ‘디다’는 목적어로 실현된 대상의 하향이동을 나타낸다. ‘디다’ 사건에서 이동을 겪는 논항의 의미역이 행위주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논항이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유정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디다’는 유정물의 의지에 거스르거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디다’가 가리키는 사건에서 이동을 겪는 논항은 주체성(agency)이 전혀 없다.

(7) 사물의 하향이동

- ㄱ. 밤소이 누네 디여 가식 드리(栗殼落眼刺入)《구급방언해 하:42》
- ㄴ. 부들 디여 글 스니 뿐 빠 놀라는 듯고(筆落驚風雨)《두시언해 16:5》

(8) 유정물의 하향이동

- ㄱ. 디는 그려기 누로물 일흔 듯 흐도다(落鴈失飛騰)《두시언해 20:21》
 - ㄴ. 弹子는 쇠로기 곤흔 새를 디낫다(彈落似鴟禽)《두시언해 3:14》
- (9) 눈물의 하향이동
- ㄱ. 눈므로 끌었는 酒盃를 조차 디고(淚逐勸盃落)《두시언해 23:52a》
 - ㄴ. 弟子 너덧 사르미 드러와 눈므로 다 디낫다(弟子四五人 入來淚俱落)《두시언해 9:1b》

‘디다’의 대상은 사물과 유정물을 가리지 않고 중력에 순응하여 공중을 통과하여 바닥으로 낙하하며, 이동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눈물은 엄밀히는 표면을 타고 흐르는 것이지만, 중력에 순응하여 하향이동을 한다는 점, 그리고 행위주는 원인 사태를 일으킬 뿐 그 이후의 이동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물 또는 유정물의 ‘디다’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이 의미로 쓰인 자동사 ‘디다’는 ‘디다⁰⁰⁷’에, 타동사 ‘디다’는 ‘디다⁰¹⁰’에 해당한다.⁵ 이 의미의 자동사 ‘디다’는 근대 한국어 시기를 거치며 사라졌고, 타동사 ‘디다’는 사동접사 ‘-오/우-’가 결합한 ‘디오다/디우다’에 의해 대치되었으나 이 역시 현대 한국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디다⁰⁰⁷’은 대상의 이동을 가리키고, ‘디다⁰¹⁰’은 행위주가 대상을 이동시키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는 ‘디다⁰⁰⁷’과 ‘디다⁰¹⁰’이 기동 동사와 사동 동사의 쌍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기문(1972)에서는 기동 동사인 평성 ‘디다’에 거성(去聲, high tone)의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상성(上聲, rising tone)의 사동 동사 ‘디다’를 파생한다고 보았다. 자동사 ‘디다’와

5) 현대 한국어에는 타동사 ‘디다’가 남아 있지 않지만, 평북 방언에서 이 ‘디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우리말샘』에 수록된 평북 방언 ‘디다⁰⁰⁴’의 풀이이다.

디다⁰⁰⁴ ‘붓다⁰⁰³⁻⁰⁰⁶’의 방언 [평북]

붓다⁰⁰³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붓다⁰⁰⁴ 모종을 내기 위하여 씨앗을 많이 뿌리다.

타동사 ‘디다’는 어근의 형태가 동일해 보이지만, 어미 ‘고’가 결합한 활용형에서 타동사 ‘디다’는 ‘디오’로 실현되고, ‘디다’는 ‘디고’로 실현된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는 /k/ 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동사에 결합할 때에 /l/ 혹은 /j/에 후행하면 /k/ 음소가 탈락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i/ 음소 뒤에서는 /k/ 음소가 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동사 ‘디다’의 어근이 /j/ 음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디다’ 동사와 ‘-고’ 어미의 결합

ㄱ. /ti/ : 祥瑞 옛 구루미 누리며 甘露 | 디고 곳비 오며 《월인석보 4:43》

ㄴ. /tiy/ : 네 楚ㅅ 사르미 빅 타 가다가 갈 디오 《금강경삼가해 4:27-28》

자동사로 쓰인 ‘디다’ 뒤에서는 ‘-고’의 /k/ 음소가 탈락하지 않으나 타동사로 쓰인 ‘디다’ 뒤에서는 탈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자세히 살피면, ‘디다’에 문법형태소 ‘-오/우’가 결합할 때에도 자동사와 타동사의 실현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11) ‘디다’ 동사와 선어말어미 ‘-오/우’의 결합

ㄱ. /ti/ : ㄉ리 춘 모새 듀미오(月落寒潭) 《금강경삼가해 2:54》

ㄴ. /tiy/ : 中書堂애 내 봉 디요물 보더라(觀我落筆中書堂) 《두시언해 25:52》

자동사 ‘디다’와 ‘-우’의 결합형은 ‘듀’로 실현되지만, 타동사 ‘디다’와 ‘-오’의 결합형은 ‘디요’로 실현된다. 그렇다면 전자는 /ti.u/로, 후자는 /tij.jo/ 또는 /ti.jo/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j/ 음소로 끝나는 동사 어간에 ‘-오/우’가 후행했을 때에 ‘-오/우’가 ‘-요/유’로 표기되는 현상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널리 관찰된다.⁶⁾

그러므로 타동사 ‘디다’는 자동사 ‘디다’와 달리 어간이 /j/로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 자동사 ‘디다’와 타동사 ‘디다’는 기동과 사동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j/는 기동 동사 ‘디다’

6) 예를 들어 ‘갈히다’와 ‘오/우’의 결합형은 ‘갈히요’로 적히고, ‘뭐다’와 ‘오/우’의 결합형은 ‘뭐유’로 적힌다. /j/는 대개 어간과 ‘오/우’ 양쪽에 표기되지만, 어느 한쪽에만 표기되는 예도 있다. ‘후다’에 사동 접사 /j/가 결합한 ‘降伏후요물’(능엄경언해 6:103)과 ‘降伏히요물’(능엄경언해 1:46)이 그러한 예이다.

/ti.ta/'에서 사동 동사 ‘디다 /tij.ta/’를 파생하는 사동 접사이다. 중세 한국어의 사동접사 ‘-이’가 모음 뒤에서 /j/로 실현되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사동 접사 ‘-이’의 이형태 /j/

모든 衆生 9로 큰 브레 빠요매(令諸衆生 大水所漂)《능엄경언해 6:25》

(12)의 ‘빠다’는 ‘쁘다’의 사동 파생형이다. ‘빠다’와 ‘오/우’의 결합형이 ‘빠요’인 것을 보아 모음 뒤에서 사동 접사 ‘-이’가 /j/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다⁰⁰⁷’과 ‘디다⁰¹⁰’의 형태음운적 차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아/어	-오/우-	관형사형	-오/우 명사형	-거든	-고
디다 ⁰⁰⁷	디여, 데	둔	듐	디거든	디고
디다 ⁰¹⁰	디여	디윤/디운	디윰/디음	디어든	디오

표 4.2: ‘디다⁰⁰⁷’과 ‘디다⁰¹⁰’의 어미 활용형 비교

‘디다’가 /k/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음소가 생략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되므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디다⁰⁰⁷’은 축약형이 관찰되는 데에 비해 ‘디다⁰¹⁰’은 축약형이 관찰되지 않는다. 모음 /i/와 어미 /ə/가 바로 이어지는 ‘디다⁰⁰⁷’은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모음을 축약하거나(‘데’) /j/를 삽입하는 변형(‘디여’)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사이에 /j/ 음소가 개재하는 ‘디다⁰¹⁰’은 모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축약이 일어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디다⁰⁰⁷’은 사물과 유정물뿐만 아니라 해, 달, 별 등 천체의 하향이동과 샘물, 강물, 비, 눈, 서리 등 물의 하향이동 사태를 서술한다. 전자는 ‘디다⁰⁰⁶’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사전에서 언급되지 않는 용법이다. 자연 현상과 관련된 ‘디다⁰¹⁰’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13) 천체의 하향이동

ㄱ. 親Hon 버디 히 디는 나조히 도라가누다 (親朋日暮廻)《두시언해 3:29a》

- ㄴ. 별와 銀河는 새뱃 되흐로 디낫다 (星河落曉山) 《두시언해 11:50a》
 - ㄷ. 헤 돋고 드리 디낫다 (日生月落 亨訥다) 《금강경삼가해 4:45a, 1482》
- (14) 물의 하향이동
- ㄱ. 王이 드르시고 깃거 亨시며 忽然히 늦므를 비 디듯 흘리거시늘 (王聞卽大喜
反而墮漏如雨 《安樂國太子經》) 《월인석보 8:92b》
 - ㄴ. 벼듯고지 눈 디듯 亨야 (楊花雪落) 《두시언해 11:18b》
 - ㄷ. 집 외춤 를 디는 뒷 흙 (屋靄⁷中泥) 《구급간이방 6:75a》
 - ㄹ. 드리 평흔 몰애예 비취여시니 녀름 바미 서리 딘 듯 亨도다 (月照平沙夏夜霜)
《백련초해 29, 1576》

천체나 비, 눈 등의 하향이동을 묘사하는 ‘디다’는 엄밀히는 ‘디다⁰⁰⁷’과 같다. ‘해가 지다, 달이 지다’를 뜻하는 ‘디다’가 ‘디다⁰⁰⁶’으로 분리된 것은 해와 달의 하향이동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해석이 덧붙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천체의 하향이동이어도 현대 한국어에서 ‘별이 지다’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하향이동으로 포착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별이 시간의 흐름 표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3ㄴ)에서 확인되듯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별의 하향이동 또한 시간의 흐름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디다’의 기본 의미는 ‘디다⁰⁰⁶’이 아니라 ‘디다⁰⁰⁷’이며, 전자는 후자에서 확장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2.1.2 ‘느리다’, ‘듣다’, ‘쁘다’와 ‘디다’의 비교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하향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디다’ 뿐만이 아니다. ‘느리다’와 ‘듣다’도 하향이동 사건을 가리켜 쓰인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드물게 쓰이지만 ‘(물이) 빠지다/줄어들다’를 가리키는 ‘쁘다’라는 동사가 있어서, ‘落’에 대응하여 언해되

7) 靄 '낙수물, 물이 흐르다'

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이 나타내는 하향이동과 ‘디다’가 나타내는 하향이동을 비교하면 ‘디다’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사전과 주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듣다’와 ‘디다’의 의미 영역이 많이 겹치는 정황이 있으므로 더욱 비교가 필요하다.

‘누리다’와 ‘디다’ 사전에서 ‘누리다’가 뜻풀이로 사용되는 한어 단어는 ‘恒’ 뿐이지만, 언해문에서의 대응 양상을 보면 ‘落’이 ‘누리다’로 번역되기도 한다.⁸⁾ ‘누리다’와 ‘디다’를 비교하면, 후자에서 이동하는 것이 항상 대상인 데 비해 전자에서는 행위주로 포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음은 행위주의 하향이동을 나타낸 ‘누리다’의 예이다.

(15) 행위주의 하향이동과 ‘누리다’

- ㄱ. 부 …兜率로서 누리사 胎예 드르사 胎예 나샤 《월인석보 14:61a》
- ㄴ. 王이 싸해 누려 업데여 절하고 供養하고 《석보상절 24:35b-36a》
- ㄷ. 주린 가마괴 눈 누려 머구를 貪하 누다(飢烏下食貪) 《두시언해 11:41》

(15)에서는 ‘누리다’ 사건 뒤에 업드려 절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진다. 따라서 ‘누리다’의 주체인 왕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다’가 유정물을 주어로 취하는 (8)과 (15)를 비교해 보면, 두 동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정물이 이동의 주체가 되었을 때에 ‘디다’는 대상의 이동을 표현하지만, ‘누리다’는 행위주의 이동을 표현한다. 다만 ‘누리다’와 ‘디다’의 의미 영역이 항상 나뉘는 것은 아니다. ‘누리다’는 ‘디다’보다 좀 더 넓은 의미 영역을 갖는 일반적인 하향이동 동사로서, 비와 눈이 내리는 사건이나 사물의 하향이동 사건 등도 가리킬 수 있었다.

(16) 사물의 하향이동과 ‘누리다’

- ㄱ. 그 낙시 제 누려 벼서디거늘 《구급방언해 상:48a》

8) ‘누리다’가 단독으로 ‘落’에 대응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누려가다’로 번역된 예를 찾을 수 있다.

姑蘇臺에 바로 고식 누려가는다(姑蘇落海邊) 《두시언해 23:17》

ㄴ. 다시 머기면 골문 피 느려 료후리라 《구급방언해 상:86a》

(17) 자연현상과 ‘느리다’

ㄱ. 비 느려 萬物을 저지니 아니하니(雨降不濡物) 《두시언해 10:19》

ㄴ. 혼 겨술 臘雪이 드리여 느려(一冬臘雪垂垂下) 《금강경삼가해 4:37》

한편 지향이동 동사는 다른 이동 동사와 결합하여 방향을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래쪽’을 지정하는 동사는 거의 언제나 ‘디다’가 아니라 ‘느리다’이다. ‘디다’가 방향을 나타내어 쓰인 것은 ‘디여 가다’와 ‘디여 놓다’의 단 두 유형에 불과하다.⁹⁾

그에 비해 ‘느리다’는 ‘느려 오다’, ‘느려 가다’, ‘느려 나다’, ‘느려 티다’, ‘나려 앉다’, ‘느려 보내다’, ‘느려 디다’, ‘느려 떠러디다’ 등¹⁰⁾ 다양한 동사와 함께 방향을 한정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느리다’는 반의어로 ‘오르다’의 짹이 있지만, ‘디다’의 반의어는 확인되지 않는다.¹¹⁾ 다음은 ‘느리다’와 ‘오르다’가 반의어 짹을 이룬 예이다.

(18) 반의어 짹으로서의 ‘느리다’와 ‘오르다’

ㄱ. 金像이 象 우희 오르락느리락 亨翫 《월인석보 21:203》

ㄴ. 뭇 가온듸 뻐 오르며 뻐 느리느니 는 《번역박통사 상:70》

9) ‘디다’가 이동의 방향을 지정하는 ‘디여 가다’는 4.2.3 소절에서 ‘디여 가다’ 용례를 해석하며 자세히 살핀다.

‘디여 놓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깃 醬은 자바다가 디여 논느다(甕醬落提携) 《두시언해 22:20》

10) ‘느리다’가 ‘디다’나 ‘떠러디다’에 결합하여 방향을 명시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는 다른 연구로 미룬다.

11) 사건의 구조만으로 보면 ‘쁘다’가 대응쌍이 될 수 있을 듯 하지만, ‘쁘다’는 ‘좁다’와 반의어 쌍을 이룬다.

數 업순 존자리는 그즈기 오르느리거늘 혼 雙人 蝶들고 相對하야 조모락 빠락 乎느다(無數蜻蜓
齊上下 一雙鶴鶴對沈浮) 《두시언해 7:2》

이상을 종합하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디다’는 ‘누리다’ 사건의 부분 집합을 가리키는 동사였다고 할 수 있다. ‘누리다’의 특수한 사례로서 ‘디다’가 지녔던 사물의 하향이동의 미는 근대 한국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매우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낙마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19) 후기 중세 한국어의 낙마 사건

- ㄱ. 매 마자 傷하며 물 타 디며 술위에 빠디여 …피 모다 안해 다와텨 죽누닐 고
토디(治打撲損傷落馬墜車 …畜血內壅欲死)《구급방언해 하:32b》
- ㄴ. 洪武 壬申 三月에 太祖 | 물 타아 디엣거시늘(洪武壬申三月 太祖墮馬)《삼
강 행실도 충신도:33》

(20) 근대 한국어의 낙마 사건

- ㄱ. 김씨의 남지니 물 타 디여 죽거늘(金氏豐山人適李樞樞墮馬道斃)《동국신속
삼강열녀도 6면》
- ㄴ. 죄 범드터 물게 뼈러디니 위경이 조의 누려딤을 보고 정히 구코져 허더니
《무목왕경통녹 8:37》

(19)에서 낙마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은 《구급방언해》와 《삼강행실도》에서만 확인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낙마 사건이 일관적으로 ‘말 타 디다’로 읊겨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근대 한국어 자료 중에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서만 ‘물 타 디다’ 유형이 확인되고 다른 모든 자료에서는 ‘물게 뼈러디다’ 또는 ‘물게 누려디다’ 유형만 확인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¹²

‘디다’의 의미가 축소된 동기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비나 눈처럼 이동의 기점과 착점이 강조되지 않는 하향이동 사건에서는 더 의미가 넓고 따라서 더 빈도

12) 말에서 의도적으로 내려 서는 사건의 경우, 후기 중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근대 자료에서는 모두 일관적으로 ‘물게 누리다’로 표현되었다.

가 높을 ‘느리다’와 중복되는 까닭에 밀려났을 수 있다. 후기 중세에 비와 눈의 하향이동은 ‘느리다’로도 서술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한국어의 ‘내리다’로 이어졌다 점, 그리고 항상 ‘디다’로만 표현되었던 천체의 하향이동은 현대 한국어에 ‘지다’로 남았다는 점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이동의 기점과 착점이 강조되는 하향이동 사건에서는, 15 세기에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던 ‘삐디다’ 및 ‘삐리디다’가 ‘디다’를 밀어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레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구급방언해》 내에서 ‘삐디다’와 ‘디다’로 섞여서 서술된다는 점이 이 추측을 뒷받침한다.

‘듣다’와 ‘디다’ 현대 한국어에서 ‘듣다’는 빗방울, 낙숫물 등을 주어로 취하며 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저빈도 어휘이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듣다’는 현대 한국어보다 더 다양한 논항의 하향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며, ‘디다’와 비슷한 점이 많다. ‘듣다’에 대해서는 신은수(2001)에서 함께 출현하는 논항의 종류부터 사전의 기술까지 시대별로 의미 변화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신은수(2001)의 관찰을 중심으로 ‘듣다’를 ‘디다’와 비교하기로 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듣다’는 눈물, 꽃, 잎, 머리, 금, 진주, 보배 등 다양한 사물의 하향이동을 나타내어 쓰였다. 같은 시기의 ‘디다’가 유정물을 주어로 취하는 것과 달리, 무정물을 주어로 취한 경우만 확인된다. 그러므로 ‘듣다’는 확실하게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21) 후기 중세 한국어의 ‘듣다’의 이동 논항(신은수 2001:55, (1))

- ㄱ. 머므러셔 봇바미 춤 쳐 늦모리 듣거늘 고돌파 머므노라(留連春夜舞淚落強徘徊)《두시언해 15:48a》
- ㄴ. 누늘 비빔면 虛空애 고지 어즈레이 듣고(捏目空花亂墜)《금강경삼가해 2:60b-61a》
- ㄷ. 門과 굴형엔 丹楓人 니피 듣놋다(門巷落丹楓)《두시언해 3:41a》

- ㄹ. 드른 이사 글 衆人의게 미추를 해 하고(遺穗及衆多)《두시언해 7:37b》
- ㅁ. 夜叉와 鳩槃茶의 머릿바기 뜰해 듣고(閱叉厭鬼頭皆墮地)《월인석보 4:5b》
- ㅂ. 樂羊子 | 길 녀가다가 金 혼 무저글 어더 와 거지를 주어늘 날오듸 …흐물
며 드른 것 주어 헝뎌글 더러비리여(羊子嘗行路 得金一餅 還以與妾 妾曰
…况捨拾求利 以汙其行乎)4)《삼강행실도(런던대본)烈8》
- ㅅ. 그 후에 한 사르미 鮑多尊者 說法臺 저괴 眞珠 | 듣더라 듣고(後日無央數
人聞優波鮑多說法 雨真珠珍寶《阿育王傳 第5卷》)《월인석보 4:19a》
- ㅇ. 虛空애셔 비 오듸 고론 種種 보비 듣고 울에 번게 하니(於虛空中雨種種寶
雷電振地《賢愚經卷第十》)《석보상절 6:32a》

(21)의 논항 분포만 보면 ‘듣다’의 뜻은 ‘디다’와 완전히 동일해 보인다. 그러나 (21 ㄴ-ㄹ, ㅅ-ㅇ)에 제시된 예를 보면 ‘듣다’가 가리키는 사건에 ‘작은 물체가 여럿 낙하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물론 (21 ㅁ-ㅂ)과 같이 물체 하나가 낙하하는 사건을 가리켜 사용된 용례가 있으므로, ‘듣다’의 의미를 그와 같이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기 중세 시기에 ‘듣다’의 전형적인 의미가 ‘작은 물체 여럿의 하향이동’ 이었음을 분명하다.

자동사 ‘디다’가 ‘-이’ 접사와 결합하여 ‘디다⁰¹⁰’의 형태로 행위주가 있는 하향이동 사건을 나타내듯이, ‘듣다’ 또한 ‘-이’ 접사와 결합한 타동사형 ‘들이다’가 확인된다. 한편 ‘듣다’가 작은 물체 여럿의 하향이동을 가리킬 때에 별도의 어휘인 ‘빙다’가 타동 짹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있다.

(22) ‘듣다’ 술어의 사동 짹 ‘들이다’

代公이 이를 디려서 決斷호를 壯히 너겨 두루 거려서 높으를 벗기 들유라(壯
公臨事斷 顧步涕橫落)《두시언해 3:25a》

(23) ‘듣다’와 ‘빙다’

ㄱ. 그 삐 諸天이 曼陀羅花와 …摩訶曼殊沙花를 비혀 供養하 습고 (時諸天子雨

曼陀羅花 …摩訶曼殊沙花《佛說觀佛三昧海經卷第七》)《월인석보 7:36-37》

ㄴ. 하늘 曼陀羅花 | 듣거든 그 땃 衆生이 양네 아웃매 各各 衣祿으로 한 고분
고줄 다마 他方 十萬億 佛을 供養하 습고(雨天曼陀羅華 盛衆妙華 供養他方
十萬億佛)《아미타경언해 9면》

‘듣다’의 어간은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까닭에, 사동형이 ‘-이-’ 파생으로 실현되면 ‘드리다’[垂]의 어간, ‘듣다’[聞] 및 ‘듣다’[入]의 사동형, ‘듣다’[舉]의 피동형과 형태가 같아진다.¹³⁾ 이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에 ‘듣다’의 사동형이 널리 사용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닌데, 위 단어들의 대부분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기 중세 자료에서 확인되는 ‘들이다’ 및 ‘드리다’의 용례는 위 형태들이 대부분이고 ‘듣다’의 사동 짹 ‘들이다’의 예는 극히 적다. 다만 사동형 ‘들이다’가 한때 쓰였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로서, ‘듣다’가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하여 합성 동사를 이룬 ‘뜯듣다’의 사동형 ‘뜯들이다’를 확인할 수 있다.

눈물이나 물체의 하향과 달리, 비나 눈의 하향이동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듣다’는 대응하는 사동 짹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불교 문헌에서는 신력으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이 종종 묘사된다. 그러한 묘사에서 (23ㄱ)과 같이 ‘듣다’ 사건의 사동 짹을 나타내는 서술을 찾을 수 있다. (23)의 사건은 (21ㅅ-ㅇ)과 같은 맥락에서 종종 서술되는데,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여 꽃이나 보물을 사방에 뿌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때에 사용되는 타동사는 항상 ‘빙다’이다.¹⁴⁾

하향이동 동사로서의 ‘듣다’는 후기 중세 이후 점점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13) ‘-우-’ 파생일 때에는 ‘뚫다’의 사동형과 형태가 겹친다.

14) 한편 ‘빙다’는 자·타 양용 용법이 있으므로 자동사 ‘빙다’와 자동사 ‘듣다’의 의미 관계 역시 살펴볼 만하다.

그러나 이는 ‘디다’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로 미룬다. 다음은 ‘빙다’의 타동사 용법과 자동사 용법의 예이다.

ㄱ. 이제 世尊이 큰 法을 날리시며 큰 法雨를 비호시며《월인석보 11:40》

ㄴ. 보비엣 蓮へ 고지 비호며 百千萬億 種種액 풍翳 흐더니《석보상절 20:52》

신은수(2001:59–61)의 관찰에 따르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듣다’의 논항이 주로 액체로 실현되고 소리의 청각화와 관련되는 양상이 특히 눈에 띈다.

(24) 근대 한국어 시기 ‘듣다’와 소리의 청각화(신은수 2001:60, (5))

- ㄱ. 굴근 비 듣는 소리 丈夫의 心事 | 로다 《악학습령, 443》
- ㄴ. 葛巾의 술 듣는 소리 細雨聲인가 乎 노라 《악학습령, 683》
- ㄷ. 梧桐에 듣는 빗발 無心이 듯건마는 《악학습령, 222》
- ㄹ. 아희 업순 깁흔 골에 밤은 뚝뚝 절노 듯고 《악학습령, 429》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듣다’는 후기 중세 시점에 이미 ‘복수의 작은 물체의 하향이동’으로 의미 영역이 좁아지기 시작하였고, 근대 한국어에서 그러한 의미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쁘다’와 ‘디다’ 후기 중세 자료에서 ‘쁘다’는 ‘(물이) 빠지다/줄어들다’를 뜻한다. 현대 한국어에는 ‘빼져 나오다’의 ‘빼-’로 남아 있다.¹⁵⁾ 이 동사는 ‘듣다’보다도 더 빈도가 낮은데, 이 사건이 서술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동사 자체가 생산성을 잃어서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은 이 글에서 참조한 후기 중세 자료에서 ‘쁘다’가 사용된 모든 예이다.

(25) 후기 중세 자료에 나타난 ‘쁘다’ 예

- ㄱ. 妃子 | 날□□□□□□□다가 므리 씩어든 겉나□□□(妃語太子 且當住此須水滅乃渡 《太子須大拏經 第1卷》) 《월인석보 20:73》
- ㄴ. 이 아초민 乎 마 半만 므리 썬요드(茲最已半落)¹⁶⁾ 《두시언해 13:20》

15) 《표준국어대사전》은 ‘물이 빠지다’의 의미로 ‘뻬다’를 등재하고 있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무엇이) 속에서 걸 또는 밖으로 밀려나오다’의 의미로 ‘뻬어지다’ 및 그 축약형 ‘뻬지다’를 등재하고 있다.

16) 이 구절에서 ‘무리 썬요드’에 대응하는 한어 단어는 ‘落’뿐이지만 이에 대한 주석으로 ‘半步曰跬 | 라 跬步疏’는 무리 기펴 가디 몯흘시라’는 설명이 있어 ‘落’의 주어가 물임을 알 수 있다.

- ㄷ. 므른 魚龍へ 바미 씌오(水落魚龍夜)《두시언해 13:36》
- ㄹ. 므리 씌니 둑 모히 [나]놋다(湍減石稜生)《두시언해 14:23》
- ㅁ. 읊뉘누리의 씌유물 비르수 기들위(試待盤渦歌)《두시언해 20:51》
- ㅂ. 그^을 므리 씌어늘 고래 도라가^듯 흐놋다(湖落回鯨魚)《두시언해 22:45》

(25 ㄱ, ㄹ)에서 사용된 ‘씌다’의 예를 보면 ‘씌다’는 물이 다 빠져서 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을 가리켜 사용된 듯하다. (25 ㄴ)에서 ‘반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씌다’ 사건의 정도를 수정한 것도 이 추측을 뒷받침한다.

후기 중세 이후로 ‘씌다’는 ‘빠디다’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는 《몽어유해》와 《역어유해》에서 단어 뜻풀이로 한 번씩 등장하나, 실제로 사용된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기 중세 자료에서 발견되는 예는 한 건뿐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이 사건을 ‘빠디다’의 후대형인 ‘빠지다’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빠디다’가 ‘씌다’와 같은 사건을 가리켜 쓰인 예이다.

(26) ‘씌다’ 사태를 가리켜 쓰인 ‘빠디다’

尾閭는 바를 물 빠디는 싸히라《능엄경언해 9:34》¹⁷

‘디다’가 ‘씌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예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물이 빠지는 것이 하향이동이라기보다는 수평 이동에 가깝게 포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빠디다’가 ‘씌다’를 대체한 것은 가득 차 있던 물이 이동하면서 차 있던 곳을 비운다는 점에서 이동 사건의 방식이 ‘빠다’가 가리키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빠디다’는 ‘씌다’와 달리 바닥이 드러난다는 함의를 지니지는 않았다.

17) 여기에서 尾閭은 미려혈(尾閭穴)을 가리킨다. 미려혈은 바다 속에 있어서 바닷물이 빠진다고 전해지는 구멍이다.(疏云 尾閭瀉海水之所也 在碧海之東 其處有石濶四萬里 百川之下 尾而爲閭族 故曰尾閭《楞嚴經集註 第9卷》)

4.2.2 ‘디다’의 확장된 의미

고빈도 단어들은 대개 은유적 확장을 겪는다.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종류의 사건을 가리키던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적당히 같은 종류로 분류되는 사건을 가리키게 될 때가 많아서, 의미 추상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후기 중세 시기의 ‘디다’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사물이나 유정물의 낙하 사건 외에 빛이나 그림자가 땅에 드리우는 것을 ‘디다’로 표현하는 등의 의미 확장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으로 ‘디다’가 ‘넘어지다’나 ‘시들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빈번히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 추상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의 양상이다. 이 방향으로 확장된 ‘디다’가 가리키는 사건들은 대개 대상의 낙하 사건과 일종의 인과 연쇄(causal chain) 관계에 놓이는 전형적 사건들이다. 이를 ‘디다’의 부속 사건 확장으로 명명하고, 은유적 확장과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하자.

4.2.2.1 부속 사건 확장

앞서 우리는 ‘디다’의 기본 의미가 하향이동 사태를 가리키는 ‘디다⁰⁰⁷’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디다’의 또 다른 의미로, ‘쓰러지다’가 있다. 이를 우연히 형태가 같은 동음이의 어로 처리하기에는, 사람이 쓰러지면 세로로 서 있던 것이 가로로 눕게 된다는 점에서 수직적 위치가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사람이 수레에서 떨어지면, 가장 전형적인 결과는 땅에 나뒹구는 것이다. 따라서 ‘쓰러지다’의 의미는 ‘디다’가 하향이동의 결과 사건까지 지시하게 되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 현대 한국어로 이어진 ‘(잎이) 디다’는 어떠한가? 이는 ‘시들다’로 해석이 되는데, 하향이동이 추상적으로 확장되었다기보다는 하향이동의 원인, 또는 그 수반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즉, 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가 그 이동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함께 지시하는 유형의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깊이 탐구한 논의로서 Talmy(1985)에서 시작된 이동 동사의 어휘화 유형 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논의에서는 이동 사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 및 그에 수반되는

부속 사건이 어휘로 표현되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이 글의 관점에서는 범언어적으로 이동과 이동에 수반되는 부속 사건들이 하나의 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는 관찰이 중요하다. Talmy(2000)에서 제시한 영어의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7) 단일 동사로 표현된 이동과 그 부속 사건의 조합(Talmy 2000:42–49)

ㄱ. 전조: Glass splintered onto the carpet.

(유리가 깨져서 카펫 위로 흩어졌다.)

ㄴ. 원인: Our tent blew down into the gully from a gust of wind.

(우리 텐트가 돌풍 때문에 도랑으로 날려들어갔다.)

ㄷ. 동시발생: She wore a green dress to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 녹색 옷을 입고 갔다.)

ㄹ. 동시발생결과: The rocket splashed into the water.

(로켓이 물에 빠지며 물보라를 튀겼다.)

ㅁ. 후속(결과/목적 포함): I'll stop down at your office.

(내가 너네 사무실에 들를게.)

(27)의 각 사례에서 영어와 한국어 번역을 대조해 보면, 영어에서 하나의 동사로 표현되는 이동과 부속 사건이 한국어에서는 두 개의 동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동과 그 후속 사건의 조합이라면 한국어에서도 하나의 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 (27 ㅁ)은 화자가 청자의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사건과 그에 직접 후행하는 사무실에 머무르는 사건을 ‘들르다’ 동사로 표현한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동사의 의미가 부속 사건까지 지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이 인간의 언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디다’의 용법을 살펴보면, 일종의 인과연쇄적 확장이라고 명명할 만한 부속 사건 확장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디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후속하는 사건들을 ‘디다’가 가리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과’는 엄밀한 의미는 아니고, 소박한 물리학(*naïve physics*) 수준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인과를 말한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게 마련이고 사람이 떨어지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마련이라는 등이다. 어떤 대상이 ‘디다’ 사건을 겪으면 그에 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칭하는 편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확장에는 이동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디다’ 사건에서 이동하는 대상은 이동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경로는 허공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중단되지 않는다. 최소한 당대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다음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8) ‘디다’ 사건과 이동의 중단 가능성

갈흘 자바 제 그 머리 벼히듯 흐니 머리 디디 아니호 時節엔 곧 能히 벼힌 뿐
업고 머리 흐다가 흐마 디면 누외야 能히 벼힐 사름 업스니라(如把刀劍 自斷
其頭 頭未落時 卽無能斷之義 頭若已落 復無能斷之人)《원각경언해 하 1-2:31》

‘디다’가 가리키는 이동 사건은 이동하는 대상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의 동력에 따르기 때문에 도중에 멈출 수 없다.¹⁸ (28)을 해석하면 칼을 잡아 스스로 머리를 베는데, 머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베지 않은 것이요, 머리가 이미 떨어졌다면 이미 벤 것이므로 다시 벨 수 없다는 말이다. ‘디다’ 사건의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은 인과 연쇄로 연결된 한 덩어리여서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비유이다.

이렇게 사건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중단되거나 이동의 내용이 변화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디다’가 지시하는 하향이동은 사건의 내용을 예측하기 쉽다. 따라서 행위주의 이동도 지시하는 ‘누 리다’와 달리 연관된 부속 사건들을 포함하여 재해석되기 쉬웠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디다’가 하향이동의 부속 사건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확장한 사례들을 부속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8) 이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떨어지다’ 사건이 장애물의 개입으로 중단되는 것을 서술하려면 ‘걸리다’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중첩 수반 사건 : ‘시들다’, ‘유산되다’ 대상이 나뭇잎이나 꽃일 때 그것의 하향이동을 나타내는 ‘디다’는 그에 수반되는 사건인 ‘시듦’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을이 되어 식물이 시들면, 식물의 잎이나 꽃이 떨어진다. 말하자면 시드는 사건은 떨어지는 사건과 중첩되어 있는 수반 사건이다.¹⁹ 따라서 하향이동 사건이 일어나면 자연히 시드는 사건의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29) ‘시들다’로 확장된 ‘디다’

- ㄱ. 치운 城에 아츰 뉘 열우니 뗏고래 디는 니피 블겟도다(寒城朝煙淡 山谷落葉赤)《두시언해 7:26》
- ㄴ. 고지 프며 고지 뉘매 니르리(花開花落히)《금강경삼가해 2:6》
- ㄷ. 기픈 짜해 寂靜이 이셔 … ㅋ술 뉘물 보아 眞道애 드누니(靜處幽居호야 … 韶秋霧而入眞道호 누니)《선종영가집언해 하:44》

(29 ㄱ)의 ‘디다’는 나뭇잎의 하향이동인지 나뭇잎의 시듦인지 모호하지만, (29 ㄴ)에서 는 분명히 ‘시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용법은 더 나아가 (29 ㄷ)과 같이 잎이나 꽃 등의 논항 없이도 가을이 되어 식물이 시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30) ‘식물이 시들다’로 확장된 ‘디다’의 또 다른 예

프른 소남기 치워도 디디 아니하며 프른 바릇므리 어위오 더욱 물고 듯도다(青松
寒不落 碧海闊逾澄)《두시언해 20:21》

한편 이와 비슷한 확장이 ‘듣다’에서도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용례가 있다.

(31) ‘시들다’ 일반으로 확장된 ‘듣다’

누르러 듣거늘 뗏 남글 놀라 아හ리를 블러 北녁 부르물 묻노라 (黃落驚山樹 呼兒
問朔風[言不聞風聲이오 唯見落葉이라])《두시언해 3:54》

19) Talmy(2000)의 분류로는 동시발생결과(concurrent result)에 해당한다.

(31)의 ‘듣다’는 ‘누르러 듣거늘’이라는 표현만 보면 뜻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 구절에 ‘唯見落葉’이라는 주석이 있어 ‘시들다’의 용법임을 확신할 수 있다.

앞서 4.2.1 소절에서 ‘디다’의 기본 의미를 추출하면서, ‘디다⁰⁰⁶’이 천체를 대상으로 취한 ‘디다⁰⁰⁷’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해석이 붙으면서 확장된 용법이라고 보았다. 이 역시 부속 사건 확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들다’로 확장된 ‘디다’가 식물이 시드는 현상 일반을 가리키도록 확장되는 것처럼 ‘(해가) 지다’로 확장된 ‘디다’ 역시 날이 저무는 현상 일반을 가리키도록 확장된 예를 18세기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32) 근대 한국어 ‘디다⁰⁰⁶’의 부속 사건 확장

西山의 날이 디니 雪意가 豪放흔다 《관수재유고 41면, 喜雪》

(32)에서는 해가 지는 것을 가리키는 ‘디다’가 ‘밤이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주어인 ‘날’을 해로 해석하는 견해가 나올 수 있으나, 후기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자료에서 ‘날’은 해를 뜻하여 쓰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놓이는 부속 사건을 ‘디다’가 표현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정물인 태아에 대해서도 ‘시들다’와 같은 종류의 의미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태아를 대상으로 취하여 유산 또는 낙태 사건을 가리키는 ‘디다’는 1579년 문헌인 《경민편》에 처음 등장하고 16세기 말 문헌인 《장수경》과 1608년 문헌인 《언해태산집요》에 주로 등장한다.

(33) 유산을 가리키는 ‘디다’

ㄱ. 아기 디게 旱며 늘 旱로 사루 물 양케 旱니면 《경민편 10b》

ㄴ. 퇴 양 旱야 즈시글 죽게 旱니 주근 즈시기 디니 사루미 얼그리 다 그갓데이다
《장수경 7면》

ㄷ. 혹 방수를 범 旱면 다 旱야곰 피 旱르고 퇴 디느니 《언해태산집요 17면》

(34) 낙태를 가리키는 ‘디다’

- ㄱ. 네 쪼모딘 모수 물 머거 독훈 야글 먹고 즈시글 디니 《장수경 11면》
- ㄴ. 즈식 비여 석 둘마니 반드시 디우드 약을 먹디 아니커늘 늘근 암탉 솔믄 물에
… 죽 수어 머기니 톡 편안코 그장 료흐니라 《언해태산집요 33면》

(33 ㄱ)은 ‘디게 하다’의 꼴로 사용되었고 대상인 ‘아기’에 조사가 생략되어서 ‘디다’의 품사가 분명하지 않으나, (33 ㄴ)과 (34 ㄱ)을 통해 유산을 가리키는 ‘디다’와 낙태를 가리키는 사동 파생 ‘디다’가 모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디다’는 이후의 다른 문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으나, (34 ㄴ)에서 낙태를 가리키는 사동 파생 ‘디다’가 《언해태산집요》에서 ‘디우다’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ㄴ)은 습관성 유산을 치유하는 방문으로서, 자식을 논항으로 공유하는 ‘비다’와 ‘디우다’가 연속되어 있어서 ‘디우다’가 타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낙태를 가리키는 사동 파생 ‘디다’가 ‘디우다’로 대치된 것으로 보아 이 ‘디다’는 ‘디다⁰⁰⁶’과 달리 ‘디다’의 의미장에서 분리되지 않고 ‘디다’의 다른 용법과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디다’가 근대 한국어 시기에 사라질 때 이 ‘디다’도 함께 사라졌는데, ‘디다’를 대체한 ‘뼈러디다’의 후대형 ‘떨어지다’도 ‘떨어지다⁰²³’으로 ‘유산되다’를 뜻하는 용법이 있다. 잎이나 꽃의 하향이동이 시듦을 수반하는 것처럼, 태아의 하향이동은 곧 유산을 수반하는 것이다.

후속 결과 사건 : ‘쌓이다’, ‘불어나다’, ‘쓰러지다’ 앞서 본 ‘시들다’ 계열의 확장은 ‘디다’가 가리키는 하향이동이 그와 중첩되어 진행되는 수반 사건을 가리키도록 확장된 것이다. ‘디다’의 확장된 의미 중에는 동시 진행뿐만 아니라 그에 직접 후속하는 결과 사건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다.²⁰ 이는 ‘쌓이다 · 불어나다’ 계열과 ‘쓰러지다’ 계열로 나뉘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쌓이다 · 불어나다’ 계열의 확장은 ‘디다’가 취한 대상이 고체인 경우와 액체인 경우로

20) Talmy(2000)의 분류로는 후속(subsequence)에 해당한다.

나뉜다.

(35) 고체의 하향이동과 ‘쌓이다’

ㄱ. 宮殿엣 프른 微微히 서리Detroit는 佩玉을 바랫거늘 香爐액 닌 細細흔 딘 遊絲 |

머므렛도다(宮草微微承委珮 爐煙細細駐遊絲)《두시언해 6:6》

ㄴ. 길헤 니펫는 고준 직직후고 버텅에 서리дин 버드른 부르매 부치놋다(側塞被

徑花 飄飄委墀柳)《두시언해 9:21》

(35)에 제시된 ‘서리디다’는 그동안 해석에 논란이 많았던 용례이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작은 물체가 떨어져 쌓이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자 한다.²¹ (35 ㄱ)에서 패옥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가리키는 것은 해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패옥의 상태를 묘사하는 ‘서리디다’를 작은 물체가 쌓여 있는 모양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의 해석과 부합한다. (35 ㄴ)은 벼들을 ‘서리딘’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벼드나무를 수식할 수 있는 ‘서리디다’의 뜻을 찾아 해석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벼들’을 벼드나무 잎으로 보고 ‘서리디다’를 ‘쌓이다’로 해석하면 가을에 낙엽이 건물 아래 쌓여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정경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은 시 전체가 그리는 정경과 부합한다.

이 해석 근거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용례 모두에서 ‘서리디다’에 대응하는 ‘委’는 ‘시들다’의 뜻도 있지만 ‘쌓이다’의 뜻이 있다. 한편 (35 ㄴ)에서 ‘벼들’은 ‘바람에 부치’고 있는데, ‘바람에 부치다’에 대응하는 표현이 ‘飄飄’이다. 이는 그리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천자문에서 ‘陳根委翳 落葉飄飄’(죽은 뿌리가 말라 시들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린다)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서리딘 벼들’이 존재하는 ‘벼텅’은 막연하게 ‘밑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 시의 다른 판본 중에는 ‘벼텅’의 원문인 ‘墀’를 ‘階’로 수록한 것이 있어 ‘벼텅’이 건물의 밑부분임을 알 수 있다.²² 한편 《두시언해 3:3》에서

21) ‘서리디다’는 (35)가 용례의 전부여서 ‘서리_{NOM} 디다’인지 ‘서리_N-디다’인지 불분명하다.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물디다’를 감안하면, 15세기에 이미 ‘서리_N-디다’였을 가능성도 있다.

22) 唐代詩人行吟地圖:李白, 杜甫, 韓愈[<http://cls.lib.ntu.edu.tw/TWSLDH/>] 作者:杜甫 / 詩題:大雲寺

‘사호맷 디새는 丹墀에 디낫다(戰瓦落丹墀)’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기와가 있는 곳은 건물이므로 이 역시 ‘墀’가 건물의 아랫부분을 가리켜 쓰인 사례이다.

(36) 액체의 하향이동과 ‘불어나다’

ㄱ. 어버이 블드려 두려오더니 마초아 집 앓 내해 믈디엿더니 梁氏 문득 뛰여들

어늘(父母扶以歸適家前川水方漲梁遽投入)《속삼강행실도 열녀도:18》

ㄴ. 漲 한물딜 탕《훈몽자회》

(36)은 비가 내린 결과 물이 불어나는 사건을 ‘디다’가 가리키는 사례이다. 이 의미의 ‘지다’는 현대 한국어에도 ‘큰물이 지다, 우수물이 지다, 칠석물이 지다’ 등으로 남아 있다. ‘홍수가 지다’, ‘사태가 지다’도 역시 이 ‘디다’의 후계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모두 비나 흙이 쏟아져 내린 결과로서 생겨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한편 ‘불어나다’를 의미하는 ‘디다’는 빗물이 하천에 유입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하천이 아니라 땅에 고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 직접적인 용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후보로 ‘피 디다’의 예를 들 수 있다.

(37) 액체의 하향이동과 ‘고이다’

노픈 디셔 누려디거나 나모 돌해 지줄여 혼골 으티 양후야 피 안흐로 디여 얼의여

알푸거든(從高墜下及木石所壓一切傷損血瘀痛)《구급간이방 1:78》

‘멍이 들다, 어혈이 생기다’를 뜻하는 ‘피_N지다’는 주로 ‘지다[生]’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하지만 (37)에서 보듯,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인 15세기 문헌에서 ‘어혈이 생기다’의 맥락에서 사용된 ‘피 디다’의 용례가 확인된다. 피는 피부의 안으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이 ‘디다’는 하향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가 뭉치는 것을 가리켜 ‘얼의다’가 별도로 쓰였으므로, ‘디다’가 가리키는 것은 그 이전의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

贊公房, 四首之四] (2017년 6월 28일 접속)

렇다면 액체가 하향이동한 결과로서 바닥에 고이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액체가 고인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디다’가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이 절의 시작에서 ‘주조하다’를 뜻하는 ‘디다⁰¹¹’이 과연 자동사 ‘디다’와 무관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관하여, 15세기에 주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생각해 보자. 이 시기의 주조 과정은 쇠를 녹여 쇠물을 만들고, 이것을 틀에 부어서 식혀서 모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동사 ‘디다’에서 파생된 사동사 ‘디다⁰¹⁰’의 평북 방언 반사형 ‘디다⁰⁰⁴’는 ‘액체나 고체를 봇다’를 뜻한다. 쇠물을 봇는 사건과 금속 기구가 주조되는 사건이 인과 연쇄를 이루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선후행하면서 하나의 공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소박한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인과관계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다⁰¹¹’ 역시 ‘불어나다’ 류와 마찬가지로 액체를 논항으로 취한 ‘디다⁰¹⁰’에서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디다’가 ‘쓰러지다’로 확장된 사례들을 보기로 하자. 유정물이 ‘디다’가 나타내는 하향이동을 겪으면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유정물을 대상으로 취한 ‘디다’ 용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이 ‘쓰러지는’ 사건을 가리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젖바디다’, ‘갓그라디다’, ‘그울어디다’ 등으로 쓰러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지만, ‘디다’ 단독으로도 쓰러지는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38) 유정물의 하향이동과 ‘쓰러지다’

- ㄱ. 五百 도즈기 저마다 혼 살음 마자 즉자히 다 짜해 디여(時五百人, 人被一箭, 而瘡苦痛難可堪忍, 卽皆墮地《大方便佛報恩經 卷第五》)《월인석보 10:29》
- ㄴ. 전 무리 현 버늘 딘들 三十年 天子 | 어시니 모딘 쇠를 일우리잇가(爰有蹇馬雖則屢蹶 三十年皇 悍謀何濟)《용비어천가 5:11》

‘디다’는 원래 낙하의 결과 발생한 쓰러짐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러나 ‘고이다’ 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사건이 탈색되고 결과상태로서의 쓰러짐만을 가리키게 되는 확장이

일어난 듯하다. 유사한 확장 사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39) 원인 사건 탈색과 결과상태의 확장

ㄱ. 구조물이 무너짐²³

디는 듯한 집 지손 된 雲雨 | 드렛고 거춘 階砌엔 草茅 | 너추렷도다 (落構
垂雲雨 荒階蔓草茅)《두시언해 14:9》

ㄴ. 세로인 것이 가로로 누움

아기 그르 디여 몯 나하 커든 쇠똥을 어의 뵐예 부르면 즉재 올히 나흐 리라
(橫生牛屎[쇠똥]塗母腹上即便順生)《구급간이방 7:40》

(39 ㄱ)처럼 건물을 대상으로 취한 ‘디다’는 ‘믈허디다’ 등에 밀려 후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39 ㄴ)에서 아기가 옆으로 누운 것을 가리켜 쓰인 ‘디다’는 ‘가로지다’의 형태로 근대 한국어 시기에 종종 확인된다.

4.2.2.2 은유적 확장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디다’가 대상으로 취하는 논항은 구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정물과 천체, 비나 눈 등보다 적기는 하나, 빛이나 그림자, 평판이나 가격 등도 ‘디다’의 논항으로 실현된 것이 확인된다. 이들 논항이 ‘디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태를 처소에 투사하고 변화를 이동에 투사하는 은유가 작용한 결과이다(Taub 1996). 또한 ‘디다’가 가리키는 이동 사건이 상태 변화 사건으로 추상화되면서, 추상적인 질의 저하나 양의 감소처럼 대상 논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속성에 변화가 생기는 사건을 표현하기도 한다.

23) 이 시는 “陪諸公上白帝城樓宴越公堂之作”이라고 하여 “越公楊素之堂也 | 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此堂存古制 城上俯江郊 / 落構垂雲雨 荒階蔓草茅 / 柱穿蜂溜蜜 檻缺燕添巢 / 坐接春盃氣 心傷蠶藁梢.” 폐허가 된 저택의 풍경을 읊고 있는 것으로 모아 “落構”가 무너진 건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빛, 그림자, 소리 햇빛과 달빛이 땅에 비치거나, 사물의 그림자나 달 그림자 등이 수면에 드리우는 것을 ‘디다’로 표현한 용례가 확인된다.

(40) 빛과 그림자를 대상으로 취한 ‘디다’

- ㄱ. 애 軒檻애 도로 비취는 헛비치 디옛누니 노픈 華嶽이 色도다(前軒頽反照
巖絕華嶽赤)《두시언해 7:24-25》
- ㄴ. 디눈 둑비치 집 물리 그득하니(落月滿屋梁)《두시언해 11:52》
- ㄷ. 므리 조하니 樓ㅅ 그르메 바르 냇고(水靜樓陰直)《두시언해 3:25》
- ㄹ. 네 五百 나비 가다가 즘계 아랫 우므레 둑 그르메 디옛거늘 보고 내요려 ㅎ야
《남명집언해 27면》

빛이나 그림자는 이동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므로, (40)에서 ‘디다’가 가리키는 실제 사건은 어떤 장소가 밝거나 어두운 상태이다. 그러나 사람은 연속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명암의 변화를 밝음이나 어두움의 이동으로 인지하기도 한다. 즉, (40)에서 ‘디다’로 표현된 것은 명암의 변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41) 소리를 대상으로 취한 ‘디다’

두려운 소리 단 고대 구루미 흐러 다오 누니(圓音落處雲散盡)《금강경삼가해 1:16》

소리 역시 15세기적 인식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다. 그러나 떨어진 장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소리가 도달하는 것으로 은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 다시 한 발 더 나아가면, 말로 표현된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말이 이동하는 것으로 바꿔 인식할 수 있다. (41)에서 구름이 흩어져 없어지게 만든 원인으로서 제시된 ‘둥근 소리’(圓音)은 부처님의 말씀을 뜻한다. 즉, (41)에서 논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 닿은 곳마다 인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들이 흩어진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평판과 가격 지금까지 본 빛, 그림자, 소리의 사례는 ‘디다’ 사건에서 위치 변화를 겪는 대상이 추상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디다’ 용례에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동 자체가 추상적으로 확장되어 상태 변화 사건을 가리키는 예가 있다.

(42) 평판과 가격을 대상으로 취한 ‘디다’

- ㄱ. 家門へ 소리를 싸해 디요물 즐기리아(家聲肯墮地)《두시언해 8:57》
- ㄴ. 빛 갑순 쓰던가 디던가 (布價高低麼)《번역노절대 상:9》

(42 ㄱ)에서 타동사 ‘디다’의 대상으로 실현된 ‘가문의 소리’란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가리키며, ‘디다’는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를 사건을 ‘내려가다’ 또는 ‘추락하다’로 표현할 수 있듯이, 상태가 나빠지는 변화는 하향이동에 투사될 수 있다. (42 ㄴ)에서 ‘디다’가 가리키는 것은 값이 낮아지는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현대 한국어에서 ‘내려가다’ 또는 ‘추락하다’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지향적 은유(指向的隱喻, orientational metaphors)의 사례이며, 여기에는 ‘나쁨은 아래, 좋음은 위’, ‘적음은 아래, 많음은 위’라는 문화적 도식이 작용하고 있다(Lakoff and Johnson 1980:14–21). 따라서 《우리말샘》에 별도의 어휘로 등재된 형용사 ‘디다⁰¹²’는 ‘디다’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자 또는 내용의 누락 자료에서는 ‘디다’의 대상으로 ‘글자’가 실현되어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예도 확인된다. 실제로 글자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지향적 은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로 사용된 ‘디다’는 주로 불경 언해의 주석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잘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43) 글자를 대상으로 취한 ‘디다’

- ㄱ. 쪼 어루 翻譯과 傳へ야 수미 딜 쑤니언명 뽀디 반드기 이쇼미 맛당하니(亦可翻譯傳寫脫漏 義必合有)《원각경언해 하1-1:28》
- ㄴ. 住 | 네히오 異 둘하니 …經에 異스 字 업수믄 시혹 딘 디 시혹 略흔 디 뽀든 반드기 ㅋ초 잇누니라(住四異二 …經無異字者 或脫或略 義必具有)《원각경언해 하3-2:52》

- ㄷ. 念 업슨 智로 聾 機를 應호 시니 半과 滿과 偏과 圓과 명맛 說이어시뇨 명맛
 說이 置간도 흔 字 | 言誼에 듀미 업스시니라 (以無念智로 應群機호 시니
 半滿偏圓이 多少說이어시뇨 多少說이 曾無一字 | 落言誼이시니라)《금강경
 삼가해 2:40》
- ㄹ. 하〃 망극〃 후디 붓 자바 쓰로라 허니 경신니 업서 조도 그루사야 디마 말도
 추셔 업소이 추셔이 보소《안민학애도문》

(43 ㄱ)에서 제시된 문장은 “(경전에서) 번역과 전하여 쓰는 것이 빠졌을지라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주석은 ‘열 가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아귀가 된다’는 경문에 베풀어진 것인데, 본래 이는 三惡報에 관한 내용이다. 열 가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축생으로 나거나 아귀가 된다고 해야 하는데, 축생으로 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주석자는 이것이 글자 수를 맞추어 문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라 빠졌을 뿐이며, 빠졌다 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뒤따르는 문장에서 화엄경의 十不善業道 관련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43 ㄴ)에서 ‘디다’의 대상은 ‘異’라는 글자인데, 어쩌면 (실수로) 빠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생략되었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것으로 읽으라는 주석이다. (43 ㄷ)은 여러 가지 말씀에 단 한 자도 설명이 빠진 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3 ㄹ)은 편지글의 형식을 띤 애도문으로서 황망하여 글씨를 잘못 썼거나 빠지기도 하고 내용도 순서가 없으니 살펴서 보라는 내용이다.

(43)에서 내용의 탈락을 가리켜 사용된 ‘디다’는 모두 텍스트 작성자가 의도하지 않은 텍스트 누락을 가리킨다. (43 ㄴ)에서 ‘略호다’와 ‘디다’를 나누어 쓴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빠지다’, ‘탈락하다’, ‘누락되다’ 등으로 표현되므로, 텍스트의 비의도적 부재가 하향이동의 은유로 나타나는 데에는 인지적인 토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의 감소와 질의 상대적 저하 지향적 은유를 통한 의미 확장이 계속 진행되면, 종국에는 ‘디다’가 이동이 아닌 상태 변화를 가리키게 된다. ‘디다’가 뜻하는 이동 방향은 아래쪽이

므로, 문화적 도식에서 아래로 은유되는 상태로의 변화가 ‘디다’로 지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평판과 가격의 사례에서 대상이 상태 변화를 겪는 것을 보았는데, 대상 전체가 아니라 대상의 일부 속성이 변화를 겪는 예도 확인된다. 이 역시 전체 맥락을 잘 살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44) 양의 감소를 가리키는 ‘디다’

- ㄱ. 文殊 | 부텨썩 솔봉샤되 …迦葉佛へ 小珠函이 오직 기뢰 三寸 三分이라
흘더시니 / 僧伽梨 흔 오솔 다마도 몬 바뚫가 식브니/ 엇데 흐물며迦葉佛へ
三藏敎迹 一切 經典을 다무리있고 / …世尊이 …송가라고函에 觸흐시니
큰 城門 여듯 흘더니 / 大衆이 一切 한 이를 보수 봉니 / 珠塔과 絹衣와 金銀
樓觀이 그 數 | 十萬이오 諸三藏을 담고 쪼 天樂이 상네 供養하며 / 臺へ
노피 四十里오 塔 노피 열 由旬이로되 / 그러나函이 더으며 듀미 업서 本來へ
三寸이러니(…然函無增減 依本三寸《法苑珠林 卷第三十五 法服篇 違損部 第六
感應緣》)《월인석보 25:46》
- ㄴ. 長常 몰애 물어뎌 藥欄 흘야부료물 苦로이 너겨 쪼 그로맷 軒檻을 조차 부름
부는 뜰을 디여 흘료라(常苦沙崩損藥欄 也從江檻落風湍 [言向時에 常恐沙
岸이 崩頽하야 將損藥欄故로 從江檻之外而設隄防하야 減落風湍也 | 라])
《두시언해 21:5》

(44 ㄱ)에서 길게 인용한 예문은 문수보살이 부처에게 가섭불의 함에 대해서 질문하자, 부처가 함의 신통함을 실제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함의 신통함이란 함 속에 온갖 것이 들어 있되 함의 크기는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 ‘늘다’와 ‘줄다’가 ‘더으다’와 ‘디다’로 표현되었다. (44 ㄴ)은 특히 흥미로운 사례로서, 양의 감소를 나타내는 사동사 ‘디다⁰¹⁰’을 확인할 수 있다. ‘디여 흘료라’에 대응하는 시의 원문은 ‘落’ 한 단어인데, 굳이 ‘디다’와 ‘흘리다’를 병렬하여 언해하였다. 덧붙은 주석에서 제방을 쌓아 颶湍을 ‘減하고 落하였다’고 해설한 것을 보면, 언해자는 주석의 내용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減’과 ‘落’을 각각 살려서 번역하되, ‘減’의 번역어로 ‘디다’를 썼기 때문에 ‘落’을 번역하는 데에 굳이 ‘흘리다’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45) 질의 상대적 저하를 나타내는 ‘디다’

- ㄱ. 널오티 부텨고 디디 아니ᄒ며 凡에 더으디 아니ᄒ며 世間애 나디 아니ᄒ며
三界에 屬디 아니ᄒ니(謂不劣於佛不勝於凡不出世間不屬三界)《원각경언해
하2-1:40》
- ㄴ. 차와 蔗漿을 잇는 양조로 가죠니 구운 그르시 玉으로 맹그론 缸애셔 디디
아니토다(茗飲蔗漿携所有 瓷甕無謝玉爲缸)《두시언해 15:32b》
- ㄷ. 무숨 곤호미 骨肉 아수매 디디 아니ᄒ니 미양 말숨호매 나를 文章앳 伯이라
許호몰 봐더라(同心不減骨肉親 每語見許文章伯)《두시언해 25:31b》

어떤 개체의 속성이 다른 것과 비교하여 뒤처짐을 가리키는 ‘디다’도 확인된다. (45 ㄱ)에서 ‘劣’과 ‘디다’가 대응하는 것을 보아 이 해석을 확신할 수 있다. (45 ㄱ)은 부처보다 못하지 않고 범인보다 낫지 않다는 내용이고, (45 ㄴ)은 흙으로 구은 그릇이 옥으로 만든 항아리보다 못하지 않다는 내용이며, (45 ㄷ)은 하나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 피를 나눈 육친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의미로 쓰인 ‘디다’는 언제나 비교할 대상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비교 대상 논항은 여격이나 탈격, 처격 표지와 함께 실현된다. 격표지 양상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하향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디다’에서 기점 논항이 실현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의미로 쓰인 ‘디다’에서 비교 대상은 품질을 비교할 기준점과 척도를 도입한다고 할 수 있다. ‘디다’가 대상으로 취한 논항은 이 척도 상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한편 이 의미의 ‘디다’가 다시 확장을 겪은 사례가 두 가지 있어서 흥미롭다. 첫 번째 사례는 16세기의 《소학언해》에서 발견된다.

(46) 겸손함을 나타내는 ‘디다’

- ㄱ. 번뇌 속이에는 그 서르 디를 게을이 아니코자 ھ는디라 (朋友之際에 欲其相下不倦)《소학언해 5:77》
- ㄴ. 버티 속이에 서르 사양 ھ를 게을이 마오져 ھ요모로(朋友之際에 欲其相下不倦)《번역소학 7:45-46》

(46 ㄱ)에서 ‘디다’는 겸손히 처신하는 것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허리를 낮추는 것으로 은유되었거나, 스스로가 상대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겸손함으로 해석된 것일 수 있다. 여기에서 ‘디다’가 ‘겸손하다’를 뜻하여 쓰인 것은 (46 ㄴ)에서 보건대 분명하다. 《번역소학》에서 ‘사양하다’로 옮긴 것을 《소학언해》에서 굳이 ‘디다’로 바꾸어 옮긴 것은 직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듯하다. 《소학언해》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소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戊寅년 칙애 사름이 수이 알과다 ھ야 字 뿐 뱃괴 註옛 말을 아오로 드려 사
거시모로 번거코 용잡흔 곧이 이심을 免티 몯흔니 이제는 지만흔 말을 업시
ھ야 불이고 혼골으티 大文을 의거 ھ야 字를 조차셔 사교 ھ니 사겨 통티 몯흔
곧이 잇거든 가루 주 내여 사기니라 《소학언해 1:1》

《번역소학》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느라 주석에 있어야 할 말을 본문에 넣어서 내용이 번거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축자번역을 하고, 축자번역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주석을 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46)에서 ‘下’를 굳이 ‘디다’로 옮긴 것은 그 축자번역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 외에는 이 의미로 쓰인 예가 확인되지 않아, 얼마나 널리 사용되는 의미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례는 ‘(시험에) 떨어지다’의 뜻으로 사용된 ‘디다’로서,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발견된다.

- (47) ‘(시험에) 떨어지다’를 나타내는 ‘디다’
- ㄱ. 과거를 진 후의 치힐 ھ야 도라갈 길히 업는지라 《을병연행록 8:2a》

ㄴ. 과거는 혹 가망 수 이실가 고되고되여습더니 지오니 절통절통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48번, 여강 이씨, 1848》

『을병연행록』은 필사된 시기가 불분명하나, 원본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믿는다면 (47ㄱ)은 18세기 후반의 사례가 된다(소재영 1984:10–12). 앞서 우리는 질의 상대적 저하를 나타내는 ‘디다’에서 비교 대상이 기준점을 도입하는 것을 보았다. ‘과거’ 자체는 기준점이 아니지만 응시자가 초점을 맞추는 곳은 과거 시험의 합격선이므로, 응시자가 ‘디다’의 서술을 받으면 ‘합격선보다 못하다’는 해석이 나올 것이다.

4.2.3 ‘디다’의 소멸 의미

2.1.1 소절에서 살폈듯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에 ‘-아/어’ 어미를 매개로 후행하는 ‘디다’에 어휘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 ‘디다’ 결합 술어를 두 개의 본동사로 이루어진 합성동사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함희진 2008). 이때에 합성 동사를 형성하는 ‘디다’의 의미에는 하향이동과 소멸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디다’에 소멸의 의미를 인정하는 태도는 사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 절의 시작에서 본 《우리말샘》의 ‘디다⁰¹⁰’ 항목에는 ‘없애다’의 뜻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후기 중세 자료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디다’ 용례를 살펴보면, ‘디다’ 동사가 ‘없어지다’ 또는 ‘없애다’의 해석을 받는 것은 대상이 이동했을 때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결과일 때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디다’의 소멸 의미는 하향이동의 수반 사건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수반 사건을 지시하도록 확장된 의미는 확장된 맥락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본 ‘주조하다’의 뜻으로 쓰인 ‘디다⁰¹¹’이나, ‘불어나다’의 뜻으로 쓰인 ‘믈디다’, ‘쌓이다’의 뜻으로 쓰인 ‘서리디다’를 떠올려 보자. ‘디다⁰¹¹’은 항상 쇳물을 부어 무언가를 만드는 사건만 가리켜 쓰였고, ‘믈디다’나 ‘서리디다’는 이동을 겪는 대상과 이동의 결과를 가리

키는 ‘디다’의 조합으로 명사-동사 합성동사를 구성하여 후대까지 이어졌다.²⁴

만약 ‘디다’가 소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몇 가지 맥락으로 국한된다면, 후기 중세 자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디다’ 결합 솔어 중에서 ‘디다’가 소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류되었던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멸 사건을 가리키는 ‘디다’ 용례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소멸의 의미가 확장되어 나오는 맥락을 분석해 본다.

4.2.3.1 ‘비듬 디다’, ‘뼈 디오다’

《우리말샘》과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타동사 ‘디다’에 ‘지게 하다, 떨어뜨리다, 내리다, 뿌리다, 없애다’의 뜻이 있다고 풀이하면서 몇 가지 용례를 제시하였다. 풀이 하나 하나에 대응하도록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용례들 가운데 ‘없애다’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48) 제거를 뜻하는 ‘(비듬) 디다’

빈 춤비소로 뼈 고장 빗겨 비드를 디요를 조히 ھ라(用那密的篦子好生篦着 將風屑去的爽利着) 《번역박통사 상:44, 1517》

(48)에서 ‘디다’로 번역된 동사는 ‘去’이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가다’를 뜻하지만 타동사로서 ‘제거하다’의 뜻으로도 사용되므로, ‘디다’가 ‘없애다’를 뜻한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에 비듬이 없어지는 사건은 그것을 아래로 빗어 내리는 행위에 따르는 결과이다. 대상이 하향이동을 겪으면 그것의 차점은 ‘없다가 있는’ 상태가 되지만, 기점은 ‘있다가 없는’ 상태가 된다. ‘디다’의 의미가 인과 연쇄적으로 확장되어 결과를 가리킬 때에는 대개 차점의 상태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대상 논항으로 실현된 비듬의 특성상 사람의 관심이 기점의 상태에 놓이는 까닭에 ‘디다’의 의미가 기점의 상태를 가리키도록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유정물이 쓰러지는 사건을 가리키던 ‘디다’에서 ‘눕다’, ‘무너지다’ 등으로 대상 논항 및 결과상태가 다시 확장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2차적으로 확장된 의미는 1차적 확장에 비해 확인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

- (49) 현대 한국어 ‘지우다’와 근대 한국어 ‘디다’

嫌洗 물에 타 옷에 빼 디오는 돌 《역어유해 상:47》

함희진(2008:411)에서는 각주에서 현대 한국어의 ‘지우다’가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의 후대형이라고 지적하였다. 용례를 들지는 않았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우다’의 기원으로 삼은 ‘디오다’를 의식한 듯하다. (49)에 제시된 ‘빼 디오다’는 사전에서 제시한 ‘디오다’의 근거 용례이다. ‘비듬 디다’의 사례를 고려하면, ‘지우다’의 기원을 ‘디다’에서 찾는 것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17세기 자료인 《역어유해》를 근거로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가 ‘지우다’의 뜻을 지녔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비듬 디다’는 하향이동 사건인 데 비해, ‘빼 디다’는 때가 물리적으로 하향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태 변화 사건이다. 후기 중세 자료에서 이 의미로 사용된 ‘디다’의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듬 디다’를 근거로 이 의미의 ‘디다’가 후기 중세에도 쓰였으리라고 추정하기에는, 이동 사건이 상태 변화 사건으로 추상화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저어된다. 한편 근대 한국어 자료 중에서 19세기 초반 자료인 《규합총서》에서 ‘(때·얼룩을) 지우다’의 뜻으로 사용된 ‘디다’가 다수 관찰된다. 따라서 ‘(시험에) 떨어지다’를 가리키는 ‘디다’와 마찬가지로 근대 한국어 시기에 생겨난 의미라고 해 두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4.2.3.2 ‘디여 가다’

한편 신은수(2016)은 ‘디다’가 소멸을 뜻하여 쓰인 예로서 ‘生’과 ‘滅’에 대한 주석에서 사용된 ‘디여 가다’를 제시하였다.

- (50) 소멸을 뜻하는 ‘디다’의 용례 후보 ‘디여 가다’(신은수 2016:237, (4ㄴ))

새로 새로 니로물 널오더 生이오 念과 念쾌 디여 가물 널오더 滅이라(新新而起
曰生이오 念念落謝曰滅) 《선종영가집언해 상:69》

이 사례는 ‘灭’을 풀이하는 데에 ‘디다’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되는

지점은 ‘滅’에 대응하는 것이 ‘디다’가 아니라 ‘念과 念이 디여 가다’라는 점이다. 여기서 ‘念과 念이 디여 감’으로 옮겨진 “落謝”는 說一切有部라는 소승불교의 한 분파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그들은 제법은 항상 존재하되 우리는 그것들을 현재에만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제법이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스치면서 잠깐 인식된 후 과거로 한없이 낙하하여 유정물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노민정 2012). 이 주장의 내용 중 제법이 과거로 한없이 낙하하는 것을 가리켜 落謝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용례의 ‘디여 가다’가 본동사 ‘디다’와 본동사 ‘가다’로 이루어진 술어이며, ‘디다’가 단독으로 ‘滅’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여기에 사용된 ‘가다’가 보조동사일 수도 있다. 둘째, 인식 밖으로의 한없는 이동은 개념적으로 소멸과 다름이 없다. 앞서 ‘디다’가 지향적 은유를 통해서 양이 감소하는 사건을 가리키도록 의미가 확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디다’의 의미가 확장되어 소멸을 가리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앞서 ‘비듬 디다’의 사례에서, 기점에 주목하는 해석을 통해 ‘디다’가 ‘없애다’를 뜻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없어지다’를 뜻하는 ‘디다’도 있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제시하면 (50)의 ‘디다’는 소멸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와 별개로 ‘(해가) 지다’를 지시하는 맥락에서 한정적으로 ‘디다’가 ‘없어짐’을 나타내는 사례는 확인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50)에 사용된 ‘가다’를 본동사로 분석하는 이유는 ‘落謝’를 언해한 ‘디여 가다’가 ‘디여 간’의 꼴로 과거 시제와 결합하여 쓰인 예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51) 과거 시제로 사용된 ‘디여 가다’

文殊 | 니루샤티 法을 안햇 드트리라 니루 누니라 ھ시니 곧 過去옛 諸法의 그리메
像이 이라 쪼 일후미 디여 간 듣그리라(文殊云法稱爲內塵 卽過去諸法影像是也
亦名落謝塵)《능엄경 언해 3:16》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 동사 ‘가다’는 동작의 진행 또는 상태 변화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 표지이다.²⁵ 그러므로 (51)의 ‘디여 가다’에 나타난 ‘가다’가 보조 동사라면, ‘디여 가다’ 전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변화 사건을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한국어 문법에서 ‘-ㄴ’ 관형절은 상태성이 없는 용언과 결합하여 주절 시점보다 이전의 과거를 가리키며, 과거 시제로 실현된 술어에는 비완망상(imperfective) ‘-더-’와 완망상(perfective) ‘-Ø-’의 대립이 있다(최동주 2015:101,110–122). 그러므로 (51)의 ‘가다’를 보조 동사의 결합으로 해석하면, 하나의 술어에 진행상과 완망상 표지가 동시에 결합하는 매우 드문 사례를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 분석하기보다는 ‘落謝’를 언해한 ‘디여 가다’를 ‘디다’와 본동사 ‘가다’로 이루어진 술어로 분석하는 편이 더 설명이 간략하다.

후기 중세 자료에서 ‘落謝’를 번역한 ‘디여 가다’와 마찬가지로 ‘디다’가 진행 방향을 지정하고 후행하는 ‘가다’가 이동을 나타내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 함께 제시해 둔다.

(52) 본동사 연쇄로 분석되는 ‘디여 가다’

馬祖 | 石葦^드려 니르샤^티 네 이에 이서 므듯 일 흐^는다 / 對答^하수오^티 쇼 머기
노이다 / 祖 | 니르샤^티 엇데 머기^는다 / 솔오^티 훈 디위 프레 디여 가거든 고흘 자
바 긋어 도르혀노이다 흐니 (馬祖問石葦 汝在此何務 答曰牧牛 又問牛作麼生牧
答曰一回入草去 驚鼻拽將來《牧牛圖頌, 1:序》) 《남명집언해 58면》

이 이야기는 소의 벼룩을 들이기 위해 혹시 풀밭에 들어가면 바로 끌어낸다는 내용이다. ‘가다’에 선행하는 ‘디다’가 방향을 지정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디여 가다’의 ‘디다’가 ‘盡’에 대응하여 쓰이고 ‘가다’가 보조동사로 쓰인 사례가 《두시언해》에서 확인된다.

(53) ‘落盡’을 언해한 ‘디다’와 ‘디여 가다’

25) 보조동사 ‘가다’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은 손세모돌(1994:195)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조동사 ‘가다’가 상태 변화의 진행을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구급방언해 하:45』

- ㄱ. 노픈 하늘햇 히 디거늘 幽人이 히여곰 돌아보내디 아니흐 누다(落盡高天日
幽人未遣回)《두시언해 14:30》
- ㄴ. 물고 그로매 白日이 디여 가거늘 쏘 고온 사루물 자바 빗난 비예 오르노라
(清江白日落欲盡 復携美人登綵舟)《두시언해 15:44》

(53 ㄱ)에서는 “落盡”이 ‘디다’로 번역되었고, (53 ㄴ)에서는 “落欲盡”이 ‘디여 가다’로 번역되었다. 《두시언해》에서 동사에 선행한 ‘欲’은 ‘-하고자 하다’(의도), ‘-할 듯하다’(추정), ‘-리라’(의지)처럼 양태 범주로 번역되거나, ‘-어 가다’(진행)처럼 상 범주로 번역된다. (53 ㄴ)의 “落欲盡”을 해석하는 데에 참고가 될만한 ‘欲 + 동사’의 번역 양상을 《두시언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4) ‘주어 + 欲 + 罷’ 문형의 ‘-어 가다’ 번역 사례
프른 보미 다아 가거늘 셀리 本鄉으로 도라가누 니(青春欲盡急還鄉)《두시언해 17:21》
- (55) ‘(주어) + 자동사 + 欲 + 자동사’ 문형의 번역 사례
속절업시 詩書를 卷秩후야서 깃거 미칠 狂호라(漫卷詩書喜欲狂)《두시언해 3:24a》

《두시언해》에서 동사로 사용된 ‘罷’은 ‘다오다’, ‘없다’, ‘못다’로 번역된다. 따라서 (54)를 참조하여 “白日落欲盡”을 해석하면 ‘해가 져서 사라져 간다’고 할 수 있고, (55)를 참조하면 ‘해가 져서 사라질 듯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해석에서는 모두 ‘디다’와 ‘사라지다’가 연속되므로, “落欲盡”은 번역될 때에 ‘落盡’ + ‘欲’의 순서로 읽힌다. (53 ㄱ)에서 ‘落盡’이 ‘디다’로 번역된 것을 고려하면, (53 ㄴ)에서도 ‘落盡’은 ‘디다’로, ‘欲’은 ‘-어 가다’로 번역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53)에서 제시된 두 용례는 ‘디다’가 ‘(해가) 져서 사라지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태양의 본질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이며 땅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태양의 소실은

하향이동 사건에 소박한 인과 연쇄로 연결되어 있는 결과상태이다. 이것을 ‘디다’ 사건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착점이 아니라 기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포착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디다’의 수반 사건 확장 사례들이 모두 착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향이 반대이지만, 수반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다면 ‘디다’ 사건에서 기점의 상태를 주목함으로써 ‘디다’의 의미가 ‘없애다/없어지다’의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은, ‘비듬 디다’ 및 ‘띠 디오다’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논항과 공기했을 때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확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미 확장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2.3.3 동사 후행 ‘디다’의 합성동사 분석 비판

지금까지 ‘디다’ 동사가 소멸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적되었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모든 사례에서 소멸 사건을 가리키는 ‘디다’ 동사는 하향이동의 함의를 수반하여, 소멸이 하향이동의 목적이거나, 하향이동의 결과처럼 인식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렇다면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동사에 ‘-아/어’ 어미를 매개하여 후행하는 ‘디다’가 ‘소멸’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가장 자세한 논의를 펴고 있는 함희진(2008)을 보기로 하자.

(56) 함희진(2008)에서 제시된 ‘디다’의 소멸 용례

峻이 부름 부로물 因 亨 야 블 딜어늘 臺省 諸營이 다 소라디니라(峻因風縱火 燒臺省諸營皆盡)《삼강행실도 충신도:11a》

(56)의 ‘소라디나’를 함희진(2008:413)은 “살라져 없어지다”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한어 원문 “燒 … 盡”에서 ‘디다’가 ‘盡’을 언해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용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57) 후기 중세 ‘디다’ 형태와 소멸을 뜻하는 한어의 대응 양상

- ㄱ. 消滅은 스러디여 업슬씨라《월인석보 10:86a》
 - ㄴ. 火界增上力이 나면 비와 구름돼 스라디여 업슬씨오(爾時火界增上力生 即於其時雨雲燒滅《起世經 卷第八》)《월인석보 10:85b》
 - ㄷ. 녀나문怨讐들토 다 를어디여 업스니(諸餘怨敵皆悉摧滅《妙法蓮華經 卷第六》)《석보상절 20:29a》
- (58) 후기 중세 ‘슬다’와 ‘스러디다’의 비교(함희진 2008:414)
- ㄱ. 그 못므를 다 마시니 그 모시 다 스러디거늘《석보상절 6:31》
 - ㄴ. 萬里에 뿐 구루미 스러 흐러 업거늘《남명집언해 하:62》

(57)은 ‘消’에 ‘스러디다’가, ‘燒’에 ‘스라디다’가, ‘摧’에 ‘를어디다’가 대응하고 ‘滅’에 ‘없다’가 대응하는 언해 양상을 보여준다. ‘디다’가 단독으로 소멸의 뜻을 지닌다면, 그리고 그것이 본동사로서 생산적인 뜻이었다면, (57)과 같은 언해 양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함희진(2008:414)는 (58)과 같은 사례를 “‘디다’가 유사한 의미 자질을 가진 동사와 합성하여 보다 구체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57)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함희진 2008에서 소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주장된 동사 후행 ‘디다’의 사례들이다.

- (59) 소멸을 뜻하는 ‘디다’로 주장된 동사 후행 ‘디다’ 목록(함희진 2008:416, (18 ㄴ))
- 노가디다, 니즈러디다, 묻허디다, 스라디다, 이저디다, 쇠여디다, 우그러디다 등
- ‘니즈러디다’는 ‘이저디다’의 후대형이므로 하나로 묶어서 논의할 수 있다.²⁶ ‘묻허디다’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를어디다’로 나타나므로 ‘를어디다’로 수정하여 논의하

26) 원래의 목록에는 ‘믈러디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언가의 오류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믈러디다’는 대개 “退墮”와 대응하고 불교적 맥락에서 깨달음이 후퇴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후퇴를 뜻하는 ‘므르다’와 하향이동을 뜻하는 ‘디다’로 이루어진 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로 하자. ‘물어디다’와 ‘스라디다’는 이미 소멸의 의미를 의심케 하는 용례를 보았으므로, ‘노가디다’, ‘이저디다’, ‘식여디다’, ‘우그러디다’에 대해서만 용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60) 후기 중세 ‘노가디다’, ‘이저디다’, ‘식여디다’, ‘우그러디다’ 예

ㄱ. 헹혀 금이어나 은이어나 숨껴 뷔 안해 잇거든 다 이 약으로 머그면 노가디여
나리라《구급간이방 6:17》

ㄱ' 날굽 헉 도두면 뵐히여 돌히여 다 노가디여(七並現山石皆融《釋迦如來行蹟
頌》)《월인석보 1:48》

ㄴ. 제 허므를 제 보디 몯ᄒ야 戒에 이저디여 선ᄃ이 이시며 허므를 간슈ᄒ야 앗기
더니(不自見其過 於戒有缺漏 護惜其瑕疵)《법화경언해 1:195》

ㄷ. 節鉄을 맛디며 壇場 수실 빤들 듣습노니 물어딘 綱紀와 식여디눈 그므를 다
다스료물 期望ᄒ노라(授鉄築壇聞意旨 頽綱漏綱期彌綸)《두시언해 19:21》

ㄹ. 나는 하 쉬이 우그러뎌 늘거져 괴시니 간ᄃ이 업고 경시ᄂ 일코 이시니《순천김
씨묘 출토 한글편지 15번》

(60 ㄱ)은 금속을 삼켰을 때 수은을 먹으면 금속이 물러져서 변과 함께 나온다는 방
문이다. ‘노가디다’ 사건이 소멸을 포함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노가디다’를 ‘녹아서
없어지다’로 해석하는 근거는 대개 (60 ㄱ')의 용례인데, 대응하는 원문 ‘融’인 것을 보아
없어지는 변화보다는 단단한 것이 그 형체를 잃는 변화를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 ㄴ, ㄷ)은 ‘이저디다’와 ‘식여디다’의 전형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용례이다. 맥락상
‘이저디다’는 등글게 완전해야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켜 쓰이고, ‘식
여디다’는 대상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야 할 것에 구멍이 나서 대상이 흘러나오게
되는 사건을 가리켜 쓰였다.

‘우그러디다’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60 ㄹ)이 유일한 예인데, 화자가 자신의
늙은 상태를 묘사하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디다’가 소멸을 뜻할 수 없음은 분명하거나와

이것의 전형적인 해석은 대상의 모양이 변화하는 사건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근대 자료에서 ‘우그러디다’의 양성어간 쌍인 ‘오고라디다’로 불에 탄 털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묘사한 예이다.

(61) 근대 ‘오고라디다’의 예

털이 불에 트이면 오고라디느니라 《증수무원록언해 43》

앞서 ‘없애다·없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 단독 ‘디다’ 사례들은, 모두 대상이 하향이동을 겪음으로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부재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다’에 일반적인 소멸의 의미를 인정하여 ‘스라디다’, ‘물어디다’, ‘흐야디다’ 등을 소멸을 의미하는 본동사 ‘디다’의 합성으로 분석한다면, 왜 그러한 의미의 ‘디다’가 단독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쓰러지다’를 의미하는 ‘디다’는 단독으로도 활발히 쓰였고 ‘업더디다’, ‘갓그라디다’, ‘그우러디다’ 등으로 더 구체적인 의미로 합성되어서도 활발히 쓰였다. 그러므로 ‘소멸’의 용법만 단독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문법화된 ‘디다’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간명하다.

(62) 후기 중세 문법화된 ‘디다’의 예

ㄱ. 헌 어르러지 모매 페디여 어르눅고 부람거든(白癩風徧身斑點瘙痒) 《구급간이방 6:84》

ㄴ. 비는 기우러더 셀리 가느니(舟楫欹斜疾) 《두시언해 13:25》

ㄷ. 交代수이예 머글 것 데툭과 고옛 거시 반드시 비로소 니를 저고셔 차 넘어디게 흐며(而交代之際 食儲帑藏 必盈溢於始至) 《소학언해 6:113-114》

(62)는 각각 ‘펴지다’, ‘기울어지다’, ‘넘치다’로 해석된다. 이들 용례에서 ‘디다’를 본동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회가 필요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이 글에서는 (60-62)가 모두 ‘디다’의 문법화와 관련된 어형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절부터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동사와 형용사에 후행하는 ‘디다’ 사례를 술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디다’가 문법 표지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4.3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동사에 ‘디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의 의미는 처소 변화 유형과 상태 변화 유형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소 변화 유형은 하향이동 사태 또는 쓰러짐 사태를 가리킨다. ‘뼈리디다’, ‘업더디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전자는 대상의 좌표가 변화하고 후자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후자는 하향이동을 가리키는 ‘디다’가 확장한 의미이고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뒤에 볼 상태 변화 유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을 묶어서 다루기로 하자.²⁷

이들 중에는 ‘믈러 디다’, ‘슬하 디다’, ‘것므로주거 디다’처럼 ‘디다’ 사전이 선행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과 통사의미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뼈디다’, ‘뼈디다’, ‘젖바디다’와 같이 마치 합성동사처럼 하나의 단위로 선행 동사와 강하게 결합한 것들도 있다. 이 유형에서 선행 동사는 ‘디다’가 표현하는 사태의 원인 또는 시간축상 직접 선행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상태 변화 유형은 동사에 ‘디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가 선행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유형의 ‘디다’ 사례에서 선행하는 동사는 [변성] 또는 [작용] 술어로 한정된다. ‘것거디다’와 ‘겄다’, ‘들워디다’와 ‘훑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선행 동사와 ‘디다’가 결합한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를 선행 동사가 단독으로 가리키는 용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것거디다’처럼 ‘디다’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례들도 있지만, ‘스라

27) 논의에 따라서는 처소 변화를 상태 변화에 포함시켜 다루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처소 변화를 제외하고 대상의 존재 여부 또는 속성에 일어나는 변화로 한정하여 상태 변화를 다룬다.

디다’, ‘페디다’처럼 본동사 ‘디다’의 의미를 아예 찾을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처소 변화 유형과 달리 모든 용례에서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며 둘 사이에 다른 어휘가 실현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4.3.1 처소 변화 유형의 본동사 ‘디다’

이 소절에서는 하향이동 유형과 쓰러짐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서 ‘디다’가 본동사로 해석된다는 것을 살펴보겠다.

표 4.3은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하향이동 사건으로 해석되는 동사 후행 ‘디다’ 사례의 목록이다.²⁸ 후기 중세 자료는 한어 원문을 번역한 언해문이 많으므로 대응하는 한어를 찾을 수 있으면 병기하였다. 이 글에서 사용한 한국어 자료 안에서 다른 동사에 결합하여 하향이동 사건을 가리키는 ‘디다’는 후기 중세에서부터 용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대 이후에 새로이 출현한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느리다	降	느려디다	墮	후기 중세
늘다	飛	느라디다	飛	
돌다	廻	도라디다	復	
므르다 ⁰⁰⁴ , 므른다	退	믈러디다	退墮	
떨다, 떨다	拂	뼈러디다, 뼈러디다	零	
뛰다, 뛰다	躍	뛰여디다	逆落	

(계속)

표 4.3: 처소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하향이동

28) 선행 동사 중 동음 이의어가 《우리말샘》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면 사전의 항목 번호를 위첨자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쁘다’처럼 동음이의어가 사전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첨자로 독자적인 번호를 부여하였다. 왼쪽 상단의 † 표시는 문증되지 않은 어형임을 나타낸다.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쁘다 ₁	齊	뼰디다 ₁	墮	
쁘다 ₂	剖	뼈디다 ₂ , 꺼디다 ₂	溺	
스미다	泯	스미여디다	滲漏	
손다	寫	소다디다	傾覆	
솟다, 솔다	涌	소사디다	迸落	
식다, 식다	漏	식여디다	泯	
짜다	選	짜디다, 바디다	溺	
옳다	轉	올마디다	—	
츠다	羅	처디다	滴	
흐르다	流	흘러디다	流落	

표 4.3: 처소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하향이동

표 4.3에서 확인되는 선행 동사들은 ‘디다’가 가리키는 하향이동에 시간적으로 직접 선행하는 사태를 가리키거나, 그 원인이 되는 사태를 가리키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순서대로 예를 들어 보자.

‘믈러디다’의 ‘므로다⁰⁰⁴’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믈러디다’는 후기 중세 자료에서 불경언해에서 깨달음과 관련된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며 깨달음이 후퇴하여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지는 사태를 의미한다. 대응하는 한어 원문이 언제나 ‘退墮’로 나타나기 때문에 ‘디다’가 본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3) ‘므로다⁰⁰⁴’와 ‘믈러디다’

- ㄱ. 退는 므로 써라 《월인석보 11:21》
- ㄴ. 阿鞞致는 예셔 닐오매 므로 아니흘씨니 地上菩薩을 ㄱ르치시니라 《법화

경언해 2:156》

ㄷ. 몬져 求^하다가 몬 어두믄 네 教化^하야시늘 後에 도로 물러 둑^을 가줄비니라
(先求不得 譬昔曾教化 後還退墮也)《법화경언해 2:187》

ㄹ. 하늘햇 사름도 쏘 定^을 닷^을 길식 물러 뼈^딜 제면 識^을 끊^겨리 반^드기 니^느 니라
《남명집언해 62면》

(참고) 종인이 그 화살을 노코 던져 병자개로 터 주긴대 주군 거시 답싸힌 거시 뵐
그^트니 도적이 잠깐 물러녔더니 (宗仁捨其弓箭 以短兵格殺 死者堆積如山
賊小退)《동국신속삼강행실도 신속충신도:40, 1617년》

(63 ㄱ)에서 보듯 ‘므로다⁰⁰⁴’는 있던 자리에서 뒤로 이동하는 수평적 위치 변화 사태를 가리킨다. ‘므로다⁰⁰⁴’는 기본적으로 행위주의 이동 사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상의 이동을 가리키는 ‘디다’ 사태와 연속되기 어렵다. 그러나 (63 ㄴ, ㄷ)에서처럼 깨달음의 후퇴를 가리키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이동의 주체가 행위주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디다’ 사태와 ‘므로다’ 사태가 연속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므로다⁰⁰⁴’가 지시하는 사태는 ‘디다’에 선행하는 사태 혹은 ‘디다’의 원인이 된다. ‘므로다⁰⁰⁴’가 깨달음의 차원에서의 추상적 이동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연속하는 ‘디다’ 역시 깨달음의 차원에서의 하향이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3 ㄹ)은 같은 맥락에서 ‘디다’ 대신에 ‘뼈디다’가 사용된 예이다.

이를 (63)에 참고로 제시된 17세기의 ‘물러디다’와 비교해 보자. 이 사례에서 ‘물러디다’는 ‘退’ 한 단어에 대응하며 도적이 물러난 사태를 가리킨다. ‘잠깐’이라는 부사가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물러디다’는 도적의 의지에 따른 이동이므로 비대격 동사인 본동사 ‘디다’의 용례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63 참고)의 ‘디다’가 문법 표지인 데 비해 (63 ㄴ–ㄷ)의 ‘디다’는 하향이동 동사이며, 이때에 선행 동사는 ‘디다’ 사태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연속된 사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앞서 4.2.2.1 소절에서 본동사 ‘디다’가 하향이동에 수반되는 사건까지를 확장하여 가리킬 수 있음을 보았다. ‘물러 디다’는 하향이동과 그 수반

사태가 각각 별개의 동사로 부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와 ‘디다’의 결합이 하향이동과 그에 직접 선행하는 사태를 가리키는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다음은 ‘돌다’와 ‘도라디다’의 예이다.

(64) ‘돌다’와 ‘도라디다’

- ㄱ. 須達이 禮를 몰라 훈 번도 아니 도라늘 《월인천강지곡 상:55》
- ㄴ. 불이 도라 디고 촌 부름 불어늘 모딘 龍이 怒를 그치니 《월인천강지곡 상:37》
- ㄷ. 北斗星 도라 지고 둘은 맛쳐 아니 젖다 《가곡원류 65면, 1876년》

(참고) 즉시 굼무 막은 긴 남모 쫓출 훈번을 틀면 남기 도라지미 굼기 열녀 《을병 연행록 3:8, 1830년 이후 필사》

(64 ㄱ)의 ‘돌다’는 회전을, (64 ㄴ, ㄷ)은 회전 사태에 직접 후행하는 하향이동 사태를 가리킨다. (64 ㄴ)은 용이 일으킨 불이 도리어 용 자신을 덮치는 상황이며, (64 ㄷ)은 북 두성이 ‘돌아서’ 진다는 것으로 대구를 이루는 ‘달이 미쳐 지지 않았다’를 통해 ‘디다’의 후대형 ‘지다’가 본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이것도 (64)의 참고로 제시된 19 세기의 ‘도라지다’와 비교해 보자. 이 사례에서 ‘도라지다’는 구멍을 막은 나무가 회전을 마친 사태를 가리키며 나무의 하향이동 사태로 해석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향이동에 수반되는 원인 사태를 부호화한 ‘디다’ 결합 술어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65) ‘식다’, ‘식다’, ‘식여디다’

- ㄱ. 道器 암그디 아니 헤면 道果 | 모침내 식리라 《능엄경언해 6:106》
- ㄴ. 식음 업손 묘법을 비호면(學無漏之妙法) 《초발심자경문 41면》
- ㄷ. 바획 굼과 ㅋ마나 므리 식여디놋다(嵌竇潛洩瀨) 《두시언해 13:17》

(65 ㄱ)의 ‘식다’는 액체가 막혀 있어야 할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건을 가리킨다. (65 ㄴ)의 ‘식다’가 한어와 대응하는 양상을 볼 때 ‘식다’와 ‘식다’는 같은 동사이며 양성어간-

음성어간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65ㄷ)의 ‘식여디다’는 액체가 새어나와 흘러내리는 사건을 가리키므로, 선행 동사 ‘식다’는 ‘식다’의 음성어간인 것이 분명하다.²⁹ ‘식다’ 사태가 일어나면 액체는 반드시 중력에 따라 하향이동을 하게 되므로, ‘식여디다’는 원인 사태와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이동 사태를 각각 동사를 써서 부호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향이동의 방식을 부호화한 ‘디다’ 결합 술어의 사례를 살펴보자.

(66) ‘흐르다’와 ‘흘러 디다’

- ㄱ. 流는 물 흐를 써라 《법화경언해 1:16》
- ㄴ. 劍閣 へ 三 千 里 예 흘러 뎌 가시니라(流落劍三千) 《두시언해 20:15》
- ㄷ. 妥했 시미 滄江애 흘러 디누 니(山泉落滄江) 《두시언해 16:66》
- ㄹ. 臺上애 모다 안자 몸애 물이 나듸 花間애 흘러 짜히 아니 저즈니 《월인석보 7:21》

‘흐르다’는 액체의 수평 이동을 가리킨다. (66ㄴ)은 ‘流’과 ‘落’을 각각 옮기면서 ‘흘러 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66ㄷ)은 ‘落’이라는 한 단어를 언해하면서 ‘흐르다’를 더하여 ‘흘러 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흐르다’가 액체가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디다’ 하향이동과 밀접히 연결된 사태임을 의미한다. 이는 (66ㄹ)의 ‘흐르다’가 ‘디다’ 없이도 액체의 하향이동을 함의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액체의 하향이동은 ‘흐르다’, ‘디다’, ‘흘러 디다’의 세 방식으로 부호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액체를 대상으로 취한

29)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단독으로 쓰인 ‘식다/식다’가 거의 양성어간으로 확인되는 데 비해, ‘디다’ 결합 술어에 선행하는 ‘식다/식다’는 언제나 음성어간으로 관찰된다.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도 ‘식여디다’는 ‘쇠여지다’, ‘식여지다’ 등의 형태로 확인되지만, ‘식야디다’ 계통의 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 ‘식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에 ‘식야디다’ 형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는 ‘식여디다’가 후기 중세 이전부터 강하게 결합된 표현으로서 이미 ‘식다/식다’에서 분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흐르다’와 ‘디다’가 인과관계로 엮이는 사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표 4.3의 선행 동사와 ‘디다’는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향이동과 그에 수반되는 사태를 부호화한다.

다음으로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중에서 쓰러짐 사건을 가리키는 것들의 목록을 확인해 보자.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쓰러짐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목록은 표 4.4와 같다.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갓골다, 갓골다, 것굴다	倒	갓그라디다, 것구리디다	倒	후기 중세
것므로죽다	悶絕	것므로주거디다	悶絕贊	
그울다, 구을다, 구울다	轉	그우러디다, 구러디다	倒	
옳다, 슔다	-	술하디다	-	
업듣다	踣	업더디다, 업더러디다	顛	
† 젓부-	-	젓바디다, 젓바디다, 젓빠디다	沛	
넘다	-	넘어디다 ₂ , 너머지다	-	근대

표 4.4: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2: 쓰러짐

제시된 ‘갓그라디다’,³⁰ ‘그우러디다’, ‘업더디다’, ‘젓바디다’ 등은 모두 대상의 쓰러짐 사건을 가리키지만, 그 균형을 잃는 원인 또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표 4.4에 있는 선행 동사와 ‘디다’ 결합 술어는 쓰러짐 사태 및 그에 수반되는 사태를 부호화한다고 할 수 있다. ‘것므로주거디다’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67) ‘것므로죽다’와 ‘것므로주거디다’

ㄱ. 슬흐며 두리여 싸해 것므로주거 《월인석보 10:24》

30) ‘갓그라디다’는 선행 동사의 양성어간에 ‘-아/어’ 어미가 결합한 ‘갓그라디다’와 음성어간에 결합한 ‘것구리디다’ 외에 부사형 ‘갓고로디다’도 관찰된다.

- ㄴ. 다시곰 것므로주거 두서 나를 허오사 끓고새 있다니 《월인석보 10:24》
 - ㄷ. 물 건나가 것므로주거 디였다니 《월인석보 10:24》
- 憂悲恐怖 憶絕躰地 …尋復憶絕 舉身投骨 如是憂苦 經留數日 …即到岸上
憶絕躰地 《大方便佛報恩經 卷第五》
- ㄹ. 沙彌 것므로주겠다가 씨어늘 《월인석보 23:60》
 - ㅁ. 樹神이 婆羅門이 머리를 티니 것므로주거 짜해 갓고로디거늘 《월인석보 10:24》
 - ㅂ. 羅ト이 …어의 일을 아라 업더디여 것므로주그니 《월인석보 23:66》

(67ㄱ-ㄷ)은 《佛報恩經》에 수록된 우파라반나(Uppalavanna)의 출가 이야기가 《월인석보》에 반영된 부분으로서, ‘것므로죽다’와 ‘디다’가 연속으로 이어진 사태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한어 원문에서는 ‘憶絕躰地’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짜해 것므로죽다’로, 두 번째는 ‘것므로주거디다’로 번역되었다. (67ㄴ)에서 ‘躰地’가 없는 ‘憶絕’이 ‘것므로죽다’로 옮겨지는 것이나, ‘것므로죽다’와 관련된 현대 한국어 ‘까무리치다’를 고려하면 ‘것므로죽다’ 자체는 ‘기절하다’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서 있는 유정물이 기절하면 바닥에 쓰러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것므로죽다’는 (67ㄱ)과 같이 기절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쓰러짐 사태까지 부호화할 수 있다.

다만 ‘것므로죽다’는 어디까지나 기절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이며 쓰러짐은 수반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것므로죽다’에 ‘-어 있다’가 결합하면 (67ㄹ)에서 보듯 기절 상태의 지속을 서술하게 된다.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절로 인한 쓰러짐 사태의 지속이라면 쓰러짐을 나타내는 술어에 ‘-어 있다’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67ㄷ)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이때 ‘것므로죽다’ 사태의 결과인 쓰러짐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는 (67ㅁ-ㅂ)에서 보듯 ‘디다’ 뿐만이 아니라 ‘업더디다’나 ‘갓고로디다’도 가능하다.

이렇듯 쓰러짐을 나타내는 ‘디다’ 결합 술어는 선행 동사와 ‘디다’가 쓰러짐 및 그 수반 사건을 각각 부호화한다. 앞서 본동사 ‘디다’의 의미가 원인 사태인 하향이동에서 결과

사태인 쓰러짐으로 확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디다’ 쓰러짐 사태의 원인 사태를 지시하는 선행 동사는 단독으로 쓰러짐 사태까지 부호화할 수도 있고 ‘디다’와 함께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각각 부호화할 수도 있다.

4.3.2 상태 변화 유형의 문법 표지 ‘디다’

이 소절에서는 ‘디다’ 결합 술어를 하향이동 또는 쓰러짐 사태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다룬다. 이들은 선행 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와 ‘디다’ 결합 술어로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 내에서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에 선행하는 동사는 78종이 확인되어 쳐소 변화 유형의 22종에 비해 더 다양하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이전의 한국어를 통틀어 ‘디다’에 선행하는 동사를 분석할 때에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 자·타 양용동사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분류는 분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류는 모든 자동사 혹은 모든 타동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문법 표지 ‘디다’의 분포를 결정하는 조건이 선행하는 동사의 통사적 성질이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에서 선행 동사 78종을 동사가 지시하는 사태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이 유형에서 ‘디다’에 선행하는 동사는 모두 [변성] 혹은 [작용] 유형 사태를 부호화한다. 이들은 다시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영향입음성(affectedness) 정도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변화를 가리키는 유형(43종), 회복 가능한 변화를 가리키는 유형(28종), 그리고 변화의 결과로 개체의 상태나 속성이 바뀌는 대신에 개체의 이력이 달라지는 불특정한 변화 유형(7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 목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겄다	折	것거디다	折	후기 중세
긋다, 굿다	斷	그쳐디다, 그텨디다	斷	
골다	磨	고라디다	磨	
녹다	泮	노가디다	消	
늙다	-	늘거디다	-	
뚫다, 뚫다, 둠다	穿	들워디다	穿	
므르다 ₁	爛	물어디다, 물허디다	爛	
미다	-	미여디다	裂	
刑事责任	割	버허디다	斷	
† 베-	-	베여디다	鮮	
쁘다 ₁ , 쓰다 ₁	滅	쁘디다 ₁ , 써디다 ₁	滅	
† 빤-, 쌈-	決	빠디다, 짜디다	綻	
쁘리다	析	쁘려디다	裂	
쁘이다	析	쁘야디다, 씩여디다	裂	
쁘다	裂	婢디다, 뼈디다	拆	
석다	朽	서거디다	壞爛	
슬다	消	스러디다	消	
수꽃다	通	수모차디다	貫穿	
슬다	燒	소라디다	燒	
부수다, 브쓰다	碎	붓아디다, 부수아디다, 붓어디다,	碎	
부수다		붓어디다, 브셔디다, 붓아디다,		

(계속)

표 4.5: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회복 불가능한 변화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부사디다				
빼다	劈	빼야디다	—	
빼다	貫	빼여디다	—	
즈르다	徑	즐어디다	夭	
죽다, 죽다	—	죽어디다, 죽어지다, 죽어지다	—	
트다	焚燒	타디다	熑爛	
프다, 퓨다, 피다	開	펴디다	—	
풀다	調	프러디다, 풀어디다	釋	
헐다	破	허러디다	破	
† 히-, † 해-	—	히야디다, 히여디다, 히여디다 하야디다, 해여디다, 허여디다	壞	
해다	披	해여디다, 허여디다	潰	
근대				
눅다	寬	눅어지다	—	근대
되다	—	되야지다	—	
므로다	—	물나디다	—	
뭉괴다	爛	뭉괴여디다, 뭉괴여지다	—	
† 블 ₁ -	—	블어디다	突	
† 블 ₂ -	—	브러디다, 브러지다 부러디다, 부러지다	傷折	
줄다	—	주러지다, 줄어디다	—	
부풀다	—	브프러지다, 부푸러지다	—	
(계속)				

표 4.5: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회복 불가능한 변화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세다 ⁰⁰¹	-	세여지다	-	
† 웃-	-	으쳐디다, 웃쳐지다	-	
틀다	-	트러디다, 트러지다	-	
† 훌기-	-	훌기여디다	-	
좇다 ⁰⁰²	-	조자지다	19세기	
퉁기다	-	퉁기여지다	-	

표 4.5: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1: 회복 불가능한 변화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가르다	分	갈아디다	分散	후기 중세
글희다, 글히다	解	글희여디다, 글히야디다	解	
기울다	傾	기우러디다	傾	
넘다	溢	넘어디다	盈溢	
눕다	臥	누어디다	-	
드위다, 두위다, 두의다	翻	두위여디다	-	
드위티다, 두위티다	翻	드위터디다	-	
† 발-	-	발아디다	-	
버물다	繞	버므러디다	嬰	
벗다	脫	버서디다	脫	
쓸다	掃	쁘러디다	靡	

(계속)

표 4.6: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2: 회복 가능한 변화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설다	布	anax이다	風靡	
끼다,끼다	-	껴디다,끼여지다	-	
잊다	虧	이저디다	虧	
펴다	布	펴디다	布	
프다 ⁰⁰¹	披	퍼디다	開敷	
† 헤프-	-	헤퍼디다	蕩	
흩다,흩다,흩다,흩다	散	흐터디다,흐러디다	散	
† 늘-	-	느러디다,늘어디다, 느러지다,늘어지다	-	근대
섞다	-	섞거디다	-	
얽다	-	얼거지다	-	
업티다,업치다	-	업쳐디다	-	
휘다	-	휘여지다	-	
므로다,므로다	退	물러디다	退	
벌다	-	버러지다	-	
† 옥-	-	우거지다	-	
돌다	-	도라지다	-	19세기
벼을다	-	벙그러지다	-	

표 4.6: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2: 회복 가능한 변화

표 4.5에서 제시된 회복 불가능한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는 대상의 [속성] 또는 대상이 지니는 [객체]로서의 지위 변화를 서술한다. 표 4.6에 제시된 회복 가능한 유형의 ‘디다’

선행 동사	한어	'디다' 결합 술어	한어	초출 시기
낮히다	-	니쳐디다	-	후기 중세
어끄다	乖	어끄여디다	乖	
† 헐빤-	-	헐빤다디다	-	
모즈라다	-	모즈라지다	-	근대
어울다, 아올다	合	어우러디다, 어우러지다, 어오러지다, 아올나지다	-	
져물다, 점글다	-	져무러지다	-	
춰흐다	-	춰흐야디다, 쥐흐야지다	-	
당만흐다	-	당만흐여지다	-	19세기
화합흐다	-	화합흐여지다	-	

표 4.7: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 3: 불특정한 변화

결합 술어는 대상의 [상태] 변화를 서술한다. 표 4.7에 제시된 불특정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는 선행 동사가 서술하는 사태가 대상에 확실히 일어남을 서술하며 그런 의미에서 완료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들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는 후기 중세부터 많은 사례가 확인되며 하향이 동 유형과 달리 근대 이후의 자료에서도 새로운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선행하는 동사의 통사 부류로는 자·타 양용동사 및 타동사와 자동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선행 동사의 통사 부류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디다' 표지가 결합한 전체 술어의 의미 특성을 살피고,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의 의미로 <결과>, <기동>, <반사동>을 제시하겠다.

4.3.2.1 타동사 결합 ‘디다’ 표지

이 소절에서는 ‘드위여디다’와 ‘드위텨디다’의 사례를 통해 ‘디다’ 표지에 결합하는 타동사의 의미 특성 및 타동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여 변형된 술어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68) ‘드위다’와 ‘드위여디다’

- ㄱ. 모물 드위여 하늘 흘 向 하야 율워러 구루메 소니(翻身向天仰射雲)《두시언해 11:16》
- ㄴ. 항문 두위여딘 병(脫工)《구급간이방 1:목록4》
- ㄷ. 눈이 붉고 눈시울기 뒤어딘 이(目赤反睫者)《마경초집언해 상:9》

(69) ‘드위티다’와 ‘드위텨디다’

- ㄱ. 늘근 괴 남기 올오되 흔 적 티드라 늘근 짜죄 不足 흘식 몸 드위텨 짜해 디누니《남명집언해 2면》
- ㄴ. 黑繩은 거문 노하니 뭇 처서의 더본 블로 모물 스라 셜벙 드위텨디게 흐고 더본 쇠노흐로 시울 티고 더본 뜯귀와 톱과로 바히누니라《월인석보 1:29》

‘드위다’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도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가 드물고 근대 자료에서는 단독 사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사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된 모든 예가 타동사 용법이며, ‘힐후다’, ‘혀다’, ‘티다’ 등이 직접 결합하여 타동사로 사용된 것이 용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타동사로서의 특성이 매우 강한 술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독 형태 ‘드위다’와 ‘티다’가 직접 합성한 ‘드위티다’는 (68 ㄱ)과 (69 ㄱ)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티다’는 타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³¹

31) ‘-티다’ 접사에 대해서는 이현희(1997)의 강세접미사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드위다’와 ‘드위티다’는 주체가 무엇을 뒤집는 사태를 서술하므로, 종결성 [작용] 술어에 해당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타동사는 모두 종결성 [작용] 사태를 부호화하며, 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디다’ 표지가 가장 자주 결합하는 술어 유형이기도 하다.

종결성 [작용] 술어에 결합한 ‘디다’ 표지는 대상을 주어로 하는 1항 술어를 형성한다. 이 변형된 1항 술어는 (68ㄴ, ㄷ)과 (69ㄴ)의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변형되기 전의 [작용] 술어가 지시하던 사태에서 대상이 겪는 상태의 변화를 부호화한다. 그런데 ‘디다’ 표지로 변형된 술어가 나타내는 것은 변화의 결과인가, 변화 그 자체인가? 역사 자료에서 확인된 1항 술어가 [변성]과 [결과상태] 중에서 어느 유형을 부호화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변성]이라면 이 사례의 ‘디다’는 <기동> 표지가 되고, [결과상태]라면 <결과> 표지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1절에서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 결합 술어는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와 변화로 해석되는 경우가 모두 확인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 시기의 ‘디다’ 표지가 <기동> 표지와 <결과> 표지를 겸하였다고 보면, 그러한 두 가지 용례가 모두 확인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기동>으로 변형된 술어는 [변성]을 부호화하고 <결과>로 변형된 술어는 [결과상태]를 부호화하니, 어느 한 술어가 동형 부호화를 통해 다른 쪽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된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가 <기동> 표지이면서 동시에 <결과> 표지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³²⁾

한편으로 (68ㄴ, ㄷ)처럼 [작용] 술어를 변형하여 행위주가 존재할 수 없는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를 형성하는 ‘디다’는 <반사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동> 술어와 <반사동> 술어는 모두 [변성] 사태를 부호화하며, 영향자 개체를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는 특성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변형을 나타내는 표지가 동형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2) 5장에서 ‘디다’의 문법화는 <결과> 표지에서 시작하여 <기동> 표지로 진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을 종결성 [작용] 술어가 아니라 타동사로 분석하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술어들의 의미적 공통점을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타 양용동사나 자동사에도 후행하기 때문에, ‘디다’ 표지의 분포를 선행 술어의 품사를 토대로 기술하면 오히려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디다’의 분포 환경을 타동사로 기술하고 이 ‘디다’를 피동 표지로 분석하는 논의가 다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에서는 (68ㄴ, ㄷ)과 같은 사례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피동으로 분석하려면 피동 범주의 정의를 행위주 없이 자연발생하는 사태까지도 포함하도록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피동의 정의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반사동과 피동의 경계를 흐린다는 점에서 이론적 부담이 크다. 술어가 변형되기 전에는 목적어로 실현되는 논항이 변형 후에는 주어로 실현되는 것이 피동 범주의 특징이기는 하나, 그러한 특성을 지닌 문법적 변형을 모두 피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피동이라는 개념을 무용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종래 타동사로 기술되었던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을 타동사 대신에 종결성 [작용] 술어로 기술하고, 종결성 [작용] 술어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의 의미를 <결과>, <기동>, <반사동>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자·타 양용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와 자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자.

4.3.2.2 자·타 양용동사 결합 ‘디다’ 표지

여기에서는 ‘겼다’와 ‘슬다’의 사례를 들어 자·타 양용동사에 후행하는 ‘디다’ 표지의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겼다’는 현대 한국어 ‘꺾다’의 선대형으로서,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 빈번히 출현하며 자동사 용법과 타동사 용법을 모두 찾을 수 있다.

(70) ‘겼다’와 ‘겼거디다’

- ㄱ. 王 그 쑤메 집 보히 것거늘 씻드라 너교디 《석보상절 24:6》
- ㄴ. 夫人이 올흔소누로 가질 자부샤 곳 것고려 흥신대 《월인석보 2:36》
- ㄷ. 그 아시 … 뼈더 바리 것거디고 낫치 히여디여 피 흐르거늘 《번역소학 9:66》
- ㄹ. 그 아이 … 뼈러더 발이 것고 낫치 히야더 피 흘으거늘 《소학언해 6:61》

其妹繼之自投折足破面流血

(70)에서 드러나듯 ‘겼다’는 곧게 뺀은 단단한 고체가 힘을 받아 접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70ㄷ, ㄹ)에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가 동일한 원문 ‘折足’을 ‘것거디다’와 ‘겼다’로 옮긴 것을 통해 ‘것거디다’와 자동사 ‘겼다’가 대체 가능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디다’를 피동 표지로 분석하는 논의에서는 이 ‘겼다’가 타동사로 사용되었고 ‘디다’는 ‘겼다’ 사태를 대상의 관점에서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게 된다. 실제로 후기 중세 한국어의 ‘겼다’는 타동사로 사용된 용례가 많고 ‘-이’ 접사가 결합했을 때 자동사로 해석되는 편이다. 이 점에서 ‘것거디다’를 타동사에 피동 표지가 결합한 형태로 보는 분석은 일리가 있다.³³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바로 뒤에 살필 ‘녹다’ 등의 자동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를 설명할 때 불리하다. 이 ‘디다’를 <결과> 표지로 분석하면, ‘것거디다’는 [변성]-[작용]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겼다’에 ‘디다’가 결합하여 ‘겼다’ 사태의 결과로 발생한 [결과상태]를 가리키는 술어가 된다. 이를 통해 [작용] 술어에 결합한 ‘디다’ 표지와 [작용]-[변형] 동형 술어에 결합한 ‘디다’ 표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타 양용동사에 결합한 ‘디다’ 표지가 <기동>이나 <반사동>을 나타내는 사례도 확인된다. 다음은 ‘슬다[消]’와 ‘스러디다’의 예이다.

(71) ‘슬다[消]’와 ‘스러디다’

33) 후기 중세 한국어 ‘겼다’에 ‘-이’ 접사가 결합하여 자동사로 사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氣中^한 證^은 해^해 豪貴^한 사^르미 이를 因^하야 격^발하^며 것기^여 怨怒^하야(氣中證候者多生於驕貴之人因事激挫忿怒) 《구급방언해 상:12》

- ㄱ. 수물 스로문 곧 니 스러 힌 거시 이로미오(銷息卽銷烟成白也)《능엄경언해 5:58》
- ㄴ. 어미 조식 빼여 혼 두리면 회티 풀쓰黠 이슬그티 아춤 잇고 나죄 업스니 새배
모닷다가 나진 스러디누 니라(…午時消散去)《부모은중경 4면》
- ㄷ. 두야며주저깃 불휘를 그누리 그라 성양 줄두드려 뿐 즙에 무라 부르면 절로
스러디리니 고 시작할 제 즉재 끄라《구급간이방 7:77》

후기 중세 한국어의 ‘슬다’는 (71 ㄱ)에서 드러나듯 [작용]과 [변성]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자·타 양용동사이다. (71 ㄴ)에서 ‘-누-’ 표지가 결합한 것을 통해 ‘스러디다’가 변화 사태를 서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ㄷ)에서는 ‘절로’의 수식을 통해 ‘스러디다’가 원인 없이 발생하는 변화 사태를 서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71 ㄴ, ㄷ)은 자·타 양용동사에 결합한 ‘디다’ 표지가 각각 <기동>과 <반사동> 변형을 나타낸 예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70 ㄷ)은 ‘겼다’ 변화를 함의하는 [결과상태]를 ‘디다’ 표지를 이용하여 변형 부호화로 나타낸 것이고, (70 ㄹ)은 [작용]-[변성] ‘겼다’ 술어를 이용하여 동형 부호화로 나타낸 것이다. 동형 부호화와 변형 부호화가 모두 허용되면 별도의 표지가 있는 변형 부호화가 상태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는 임여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학언해》에서 ‘디다’ 표지를 생략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구를 이루는 ‘히여디다/히야디다’가 ‘히다’로 수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기에 이미 ‘히다’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자·타 양용동사를 종결성 [작용]-[변성] 동형 술어로 기술하고, 이에 결합한 ‘디다’ 표지의 의미를 [작용] 술어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와 동일하게 <결과>, <기동>, <반사동>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디다’ 표지가 자동사에 결합하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4.3.2.3 자동사 결합 ‘디다’ 표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디다’ 형태에 선행하는 자동사는 대상을 주어로 삼는 것과 행위주를 주어로 삼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의 ‘디다’ 결합 술어는 선행 동사와 동일한 의미처럼 해석되고 후자의 ‘디다’ 결합 술어는 선행 동사가 지시하는 사태와 하향이동 사태의 연속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행위주가 주어인 자동사가 ‘디다’에 선행하는 사례이다.

(72) 행위주 주어 자동사 ‘가다’, ‘투다⁰⁰²’와 ‘디다’

- ㄱ. 다보진 나미 불휘 업순 줄 아니언마룬 漂蕩호야 노픈 부르물 쪽누니 하늘히
치운 제 萬 里예 가 디여 다시 밑 페기예 도라가디 몰호 누 니라(蓬生非無根漂
蕩隨高風 天寒落萬里 不復歸本叢)《두시언해 6:53》
- ㄴ. 물 타 디거나 술위예 디여 傷호야 피 솟고며 비 브르닐 고툐드(治墮馬落車傷
損血湧腹滿)《구급방언해 하:34》

(72 ㄱ)은 쪽이 바람에 날려 멀리 가서 떨어지는 정경을 서술한 것이다. 한어 원문은 ‘落’ 한 단어이지만, 본동사 ‘디다’는 수평 이동을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의역하여 ‘디다’에 직접 선행하는 수평 이동 ‘가다’를 추가하여 번역한 것이다. (72 ㄴ)은 말에서 떨어지는 사태를 서술한 것이다. 근대 한국어에서 동일한 사태를 서술할 때에 ‘투다’를 생략하고 ‘누 려디다’만 사용하는 것과 달리,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말을 탄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서술된다.

(72)과 같은 사례에서 ‘디다’는 모두 본동사로 해석되는데, 이동을 겪는 논항이 선행 동사가 서술하는 사태에서는 행위주이지만 ‘디다’가 서술하는 사태에서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상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수반되는 관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떠리디다’나 ‘갓그라디다’처럼 하나의 사태로 인지되지 않고 시간적으로 접해있는 두 개의 사태로 인지되며, 각각의 사태가 별도의 술어로 부호화된다.

반면에 대상을 주어로 삼는 자동사는 ‘디다’ 표지와 결합했을 때에 합쳐서 하나의 사태를 서술한다. ‘므르다’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73) 자동사 ‘므르다’와 ‘물어디다’

- ㄱ. 그 보비 물어 보드라방(其寶柔軟《佛說觀無量壽佛經》)《월인석보 8:13》
- ㄴ. 모든 世間액 卵化濕胎 | 히의 세며 물우물 조차(則諸世間 卵化濕胎 隨力強弱)
《능엄경언해 4:29》
- ㄷ. 구리길과 쇠牀애 등이 누르며 애 물어(銅柱鐵牀 煙背爛腸)《선종영가집언해 상:34》
- ㄹ. 燭애 다티면 能히 떠듀미 ㄷ외며 물우미 ㄷ외며(衝觸則能爲綻爲爛)《능엄경언해 8:101》
- ㅁ. 氣運이 더위 痘 ㅎ야 腸胃 | 므르노그니(氣喝腸胃融)《두시언해 12:43》
- ㅂ. 쓱 狼牙草ㅅ 출기와 닦과를 므르디허 브티라(又方取狼牙草莖葉爛搗傅之)《구급방언해 상:83》
- ㅅ. 무루와 보콰 셔와 긴꽤 뿌뿌기 소리 나 震動 ㅎ야 빠야디여 물어 것거 떠러디
며 담과 부름괘 물어디거늘(棟梁椽柱 爆聲震裂 催折墮落 墻壁崩倒)《법화경언해 2:124》
- ㅇ. 무루 보히 블 브터 물어듀문 네 활기 疾苦를 가줄비시고《법화경언해 2:125-126》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므르다’는 타동사 용법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상을 주어로 취하는 술어이다.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지 않으나, 사용된 사례를 보면 (73 ㄱ-ㄷ)처럼 [속성]-[상태] 동형 술어와 병치되거나, [상태]-[변성] 동형 술어와 병치되거나,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와 병치된다. 또한 (73 ㄴ, ㄷ)처럼 자동사나 타동사 어근에 직접 선행하여 해당 동사가 지시하는 변화의 결과상태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를 통해 ‘므르다’가 최소한 [상태] 유형의 사태를 서술하며 [속성]-[상태] 또는 [상태]-[변

성]을 부호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3-2)은 《법화경언해》의 경문 인해에 사용된 ‘물어 것거 떠려디다’를 주석에서 ‘물어디다’로 요약하여 풀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물어디다’가 ‘므로다’와 대체 가능한 표현이거나, 혹은 ‘므로다’에 연속되는 결과 사태까지를 통틀어 지시할 수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디다’를 피동 표지로 다루는 분석은 타동사로 사용된 예가 없는 ‘므로다’에 ‘디다’가 결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불리하다. ‘디다’를 본동사로 해석하기에는 이 맥락에 어울리는 본동사 ‘디다’의 용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피동의 정의를 넓히기에는 피동 범주의 정의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결과>로 분석하면 [상태]-[변성] 동형 술어인 ‘므로다’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여 [결과상태] 유형의 사태를 서술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상태]-[변형] 동형 술어는 모두 종결성 변화를 부호화하므로, ‘므로다’는 <결과> 표지의 분포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것 거디다’ 사례와 마찬가지로 ‘므로다’는 동형 부호화를 통해 [상태]를 서술할 수 있으므로, 변화를 함의하는 [상태]를 서술하는 ‘물어디다’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 술어 ‘물어디다’는 변화를 함의하는 [결과상태] 유형의 술어이므로 그 의미에 언제나 ‘므로다’ 변화 사태가 포함된다. 이는 의미 해석만으로는 [상태]-[변성] 술어인 ‘므로다’와 <결과> ‘물어디다’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자동사에 후행하는 ‘디다’를 <결과>로 보는 분석은 ‘디다’ 표지의 의미가 상태 변화라는 분석과 유사한 내용을 주장하게 되지만, ‘디다’ 표지가 기여하는 의미와 그것이 해석되는 양상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자동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는 모두 [결과상태] 유형으로 해석되는가? 다음과 같은 용례를 보면 ‘물어디다’가 변화 사태를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74) ‘물어디다’와 변화 사태 서술

ㄱ. 물어디는 빙애는 平床을 지를 듯 ھ도다(崩崖欲壓床) 《두시언해 16:44》

ㄴ. 뵈햇 중이 헌 옷 넓고 넉 무루와 보히 물어데쇼몰 나루누다(山僖衣藍縷 告訴
棟梁摧)《두시언해 9:28》

ㄷ. 두둑엣 즘게 물어디고져 호미며 쳐근 므렛 고기어늘《남명집언해 30면》

(74 ㄱ)의 ‘-느-’ 표지는 ‘물어디다’가 변화 사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74 ㄴ)의 ‘-어 있다’를 <결과> 표지로 분석한다면 ‘물어디다’를 [변성] 술어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74 ㄷ)의 ‘-고져 ㅎ다’는 변화가 발생할 조짐으로 해석되므로 이 역시 ‘물어디다’가 변화 사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과> 이외에 ‘디다’의 의미로 제시해 온 <기동>은 그 정의상 [작용] 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74)의 ‘물어디다’를 <기동> 술어로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반사동> 술어를 정의할 때에 행위주를 삭제하는 변형이라는 점에서 [변성] 술어에도 결합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므로, ‘물어디다’를 <반사동> 술어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예이다.

(75) ‘물어디다’의 <반사동> 용례

이런드로 절로 물어디여 ㅎ야디리라《능엄경언해 9:45》

이처럼 자동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가 변화 사태를 서술하는 사례를 <반사동>을 이용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디다’ 표지로 변형된 자동사가 행위주가 삭제된 [변성]이 아니라 그저 배제된 [변성] 사태를 서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디다’ 표지로 자동사를 변형하여 <반사동> 술어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술어는 곧 동형 부호화를 통해 <기동> 술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성] 유형인 술어에 <기동> 표지를 결합시킬 이유가 있는가?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자동사는 종결성 [변성] 술어로 한정되는데, 그 중에는 ‘므르다’와 같이 [상태]-[변성] 동형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동> 표지를 결합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변성] 술어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종결성 [변성] 술어를 변형하여

다시 [변성]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를 형성하는 ‘디다’는 술어의 의미 유형 중의 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 <기동> 표지가 된다.

이상으로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에 결합하는 문법 표지 ‘디다’를 <결과>, <기동>, <반사동>의 술어 의미 유형 변환 범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채택하면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을 자동사와 타동사 대신에 종결성 [작용] 및 [변성] 술어라는 의미 유형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는 선행하는 동사의 품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타 양용 동사가 있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기에 편리하며, 피동 분석보다 이론적 부담이 적고,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변성]-[작용] 유형 술어에 결합했을 때 수행하는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상태 변화 분석보다 동기가 분명하다. 또한 [변성]-[상태]의 동형 부호화 전략이 후기 중세부터 현대까지 한국어에서 자주 관찰된다는 점에서 선행 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것과 ‘디다’ 결합 술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보이는 현상도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 ‘디다’ 표지의 역사적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이 다음 절부터 다를 형용사 및 ‘-을’계 어근으로 확대되는 것이지만, 종결성 [작용] 및 [변성] 술어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포 환경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5, 표 4.6, 표 4.7에서 나열한 각 술어는 모두 종결성 변화 사태를 나타내지만, 변화 사태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상의 영향입음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표 4.5에 나열된 술어들은 대상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향을 받는 사태를 지시하며, 15세기부터 사례가 확인되고 근대 이후에 초출하는 사례가 드물다. 반면에 표 4.6과 표 4.7에 나열된 술어들은 대상이 겪은 변화를 취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나, 혹은 변화의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술어들은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도 확인되지만 회복 불가능한 유형의 술어들에 비해 종류가 적고, 근대 이후에도 초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 ‘디다’ 표지의 문법적 의미가 15세기부터 꾸준히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디다’ 동사가 문법화에 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생겨난 문법 표지 ‘디다’의 분포 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5장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디다’의 문법화 진입 및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4.4 형용사에 결합하는 ‘디다’

통시적 관점에서 형용사에 결합하는 한국어 ‘디다’ 표지와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디다’ 표지가 결합하는 형용사의 종류가 ‘깊다’, ‘멀다’ 등과 같은 고유어 단일어에서 ‘약하다’, ‘긋하다’ 등의 ‘-하다’ 류 합성어로 확장된 시기이다. 이정택(2001)에서 ‘디다’ 표지가 19세기 말부터 ‘-하다’ 류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이 관찰되며 그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이정택(2001) 이후에 새로이 접근 가능해진 한글 편지와 음식 조리서 등의 필사본 자료에서 ‘-하다’ 류 형용사가 ‘디다’ 표지와 결합한 18세기 사례 및 ‘(동사) 듯하다’, ‘(명사)만 하다’와 같은 보조형용사가 결합한 17세기 사례를 찾아 소개한다.

다른 하나는 현대 이전의 한국어에 있었던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 소실과 ‘디다’ 문법화의 관계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형용사는 단독으로 동사처럼 사용될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어의 형용사에는 그러한 용법이 남아 있지 않다. 현대 한국어에 남아 있는 자동사·형용사 동형 술어들은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술어로 다뤄진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적 용법이 확인되나 현대 한국어에 동형의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술어로 ‘멀다’, ‘푸르다’, ‘가깝다’ 등을 들 수 있다.

동사적으로 사용된 형용사의 의미가 ‘지다’ 표지가 결합한 구문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이 변화의 시점을 18세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이영경 2003). 형용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 사례가 17세기 자료에는 드물다가 18세기 자료에서부터 빈번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관찰한 ‘디다’ 표지의 분포에 따르면, ‘디다’ 표지가 형용사에 결합하게 되는 문법화는 이미 17세기에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세기부터 ‘지다’ 표지에 결합하는 형용사의 종류와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19세기 자료에서도 여전히 동사로 사용된 ‘푸르다’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의 소실에 ‘지다’ 표지의 문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속도와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4.1 형용사 하위부류별 ‘디다’의 분포

이정택(2001)에서는 19세기 말의 『독립신문』 등의 자료에서 ‘-hood’ 류 형용사가 ‘지다’ 표지에 결합한 사례가 다수 관찰되는 데 비해 그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이는 ‘지다’ 표지의 문법화가 진전되면서 분포가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연구자의 노력을 통해 한국어 역사 자료에 필사본 한글 자료가 더해졌는데, 이들 중 근대 초기의 자료에서 ‘이러^후여지다’와 같이 ‘-hood’ 류 형용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 및 ‘(명사)만^후여지다’와 같이 보조 형용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자료에서 ‘디다’ 표지와 결합한 사례가 확인되는 형용사의 목록은 표 4.8, 표 4.9, 표 4.10과 같다.

선행 형용사	한어/ 관련 어휘	‘디다’ 결합 술어	한어/ 관련 어휘	초출 시기
쁘다 ⁰⁰⁵	爭	뻐디다	爭	후기 중세
없다	無	업서디다	滅	
춥다, 침다	춥다	치워디다, 치워지다	추워지다	
검다	검다 ⁰⁰²	검어디다, 검어지다	검어지다 ⁰⁰¹	근대 (계속)

표 4.8: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단일어 형용사 결합

선행 형용사	한어/ 관련 어휘	'디다' 결합 술어	한어/ 관련 어휘	초출 시기
그르다	그르다 ⁰⁰¹⁻⁰⁰³	글러디다, 글너지다	-	
길다	길다 ⁰⁰²⁻⁰⁰³	기러지다	길어지다 ⁰⁰¹	
깁다	깊다 ^{001,003}	깁퍼지다, 깁허디다	깊어지다 ^{001,003}	
늦다	늦다 ⁰⁰²⁻⁰⁰³	느저지다	늦어지다 ⁰⁰¹	
낫다	낫다 ⁰⁰¹	느자디다, 느자지다	-	
다르다	다르다	달나지다	달라지다	
덥다	덥다	더워디다	더워지다	
멀다	멀다	머러지다, 멀어지다	멀어지다	
맑다	맑다	맑아디다, 맑아지다	맑아지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드러워디다, 보도라와지다, 부들어워지다, 부드러워지다, 보드러지다	부드러워지다	
붉다	붉다	붉어디다, 붉어지다	붉어지다	
밝다	밝다	밝아지다, 밝아지다	밝아지다	
사오납다	사납다	사오나와지다	사나워지다	
어둡다	어둡다	어두어디다	어두워지다	
엷다	엷다	옅워지다	엷어지다	
적다	적다	적어지다	적어지다	

(계속)

표 4.8: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단일어 형용사 결합

선행 형용사	한어/ 관련 어휘	'디다' 결합 술어	한어/ 관련 어휘	초출 시기
좁다	좁다	조바지다	좁아지다	
† 거슬다	거스르다	거스러지다, 거슬어지다, 거사려지다	거스러지다	19세기 이후
더럽다	더럽다	더럽워지다	더러워지다	
무르다	무르다 ⁰⁰⁶	물너지다	물러지다	
묽다	묽다	물거지다	묽어지다	
바르다	바르다 ⁰⁰⁶	발나지다	발라지다	
쓰다	쓰다	呻지다, 써지다	써지다	
옅다	옅다 ⁰⁰³	여터지다	옅어지다	
옅다	옅다 ⁰⁰⁴	여터지다	옅어지다	
† 조질-	-	조사지러지다, 조즈러지다, 자시러지다	자지러지다 ⁰⁰⁷	
죽다	작다	조사지다	작아지다	

표 4.8: '디다' 결합 술어 속성변화 유형: 단일어 형용사 결합

선행 형용사	관련 어휘	'디다' 결합 술어	관련 어휘	초출 시기
이러 ^ㅎ 다	이렇다	이러 ^ㅎ 여지다	-	근대 (계속)

표 4.9: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ㅎ다'형 형용사 결합

선행 형용사	관련 어휘	'디다' 결합 술어	관련 어휘	초출 시기
†클클 ^흐 다	클클하다 ⁰⁰³	클클 ^흐 여이다	–	
강강 ^흐 다	강강하다 ^{001,005}	강강 ^흐 여지다	–	19세기
(명사) 곤 ^흐 다, 고 ^흐 다	같다	갓타여지다	같아지다	
깻꼿 ^흐 다	깻꼿하다	깻꼿 ^흐 여지다	깻꼿해지다	
당덕 ^흐 다	장대하다	당덕 ^흐 여지다	–	
돛다, 뜻 ^흐 다	좋다	뜻화지다	좋아지다	
많다, 만 ^흐 다	많다	만하지다, 만 ^흐 지다	많아지다	
망극 ^흐 다	망극하다	망극 ^흐 야지다	–	
못 ^흐 다	못하다	못히지다	–	
반반 ^흐 다	반반하다 ⁰⁰¹	반반 ^흐 여지다, 반반하야지다	–	
약 ^흐 다	약하다	약 ^흐 야지다	–	
어줄 ^흐 다	어질하다	어줄 ^흐 야디다	–	
연 ^흐 다	연하다	연 ^흐 야지다	–	
정결 ^흐 다	정결하다	정결 ^흐 여지다	–	
천연 ^흐 다	천연하다 ⁰⁰³	천연 ^흐 여지다, 천년 ^흐 여지다	–	
평순 ^흐 다	평순하다 ⁰⁰¹	평순 ^흐 여지다	–	
표표하다	표표하다	표표하여지다	–	
허여 ^흐 다	허옇다	허여 ^흐 야디다	허예지다	
흔잡 ^흐 다	흔잡하다	흔잡 ^흐 여지다,	–	

(계속)

표 4.9: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흐다'형 형용사 결합

선행 형용사	관련 어휘	‘디다’ 결합 술어	관련 어휘	초출 시기
훤혁 희다	훤혁하다	훤혁 희야지다	훤혁 희야디다	-

표 4.9: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희다’형 형용사 결합

선행 형용사	‘디다’ 결합 술어	초출 시기
(명사)만 희다	(명사)만 희여지다	근대
빈 듯 희다	빈 듯 희여디다	

표 4.10: ‘디다’ 결합 술어 상태/속성변화 유형: 보조형용사 결합

16세기 말에서 18세기에 걸쳐 고유어 및 ‘-희다’류 형용사는 물론이고 보조형용사까지도 ‘디다’ 표지의 결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다’ 표지가 형용사에 후행하는 것은 후기 중세 말기에 일어난 2차 문법화의 결과이고, 고유어 단일어에서 시작되어 ‘-희다’류 합성어와 보조형용사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사에서도 고유어 단일어와 ‘디다’ 표지의 결합 사례가 먼저 확인되고 ‘-희다’류 동사와 결합한 사례는 18세기에 처음 확인된다. 그러므로 문법화한 ‘디다’ 표지의 결합 환경이 고유어 단일어에서 복합어로 확대된 것은 근대 초기에 일어난 변화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희다’류 형용사와 ‘지다’ 표지 결합 사례가 관찰되는 양이 19세기 말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다’ 표지의 생산성 확대보다는 ‘-희다’류 형용사의 생산성 확대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형용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를 종류별로 검토해 둔다.

고유어 단일어 형용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가장 이른 사례는 《번역소학》(1518년)에서 사용된 ‘업서디다’가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번역노걸대》(1517년)에서 사용된

‘뼈다’와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사용된 ‘치워디다’를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76) ‘쁘다⁰⁰⁵’와 ‘디다’ 표지의 결합

- ㄱ. 우리 일록 후에 흔 어의계셔 난 동성 형뎨와 므스거시 쁘리오(咱從今已後爭
甚麼一母所生親弟兄)《번역박통사 상:72》
- ㄴ. [고객] 이 등엣 뵈는 너브니 뒤타 커니와 이 여러 뵈는 너므 좁다(似這等布寬
時好 這幾箇布忒窄)
- [상인] 조본들 별히 므스거시 뼈디료 쪼 흔가지로 풀 거시라(窄時偏爭甚麼
也一般賣了)《번역노걸대 하:62》

(77) ‘없다’와 ‘디다’ 표지의 결합

- ㄱ. 除滅은 더러 부려 업게 훌 씨라《월인석보 10:70》
- ㄴ. 주근 사르미 얼구리 서거 업서디고 정시니 흐러디여(殊不知死者 形旣朽滅
神已飄散)《번역소학 7:22》

(78) ‘칩니다’와 ‘디다’ 표지의 결합

나리 치워디니 엇디호거뇨《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 149번, 신천 강씨, 1550–
1952년》

‘업서디다’와 ‘치워디다’의 분석은 어려울 것이 없으므로 ‘뼈다’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76 ㄱ)은 ‘차이나다’를 뜻하는 한어 ‘爭’을 ‘쁘다’로 번역한 것이다. (76 ㄱ)은 이 ‘쁘다’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로서 '(베의 폭이) 좁다 한들 딱히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넓은 것과) 마찬가지 가격으로 팔겠다'로 해석된다. ‘뒤치지다’ 또는 ‘부족하다’를 뜻하는 동사 ‘뼈다’의 용례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응하는 한어가 ‘爭’이기 때문에 형용사 ‘쁘다⁰⁰⁵’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이 형용사 ‘쁘다⁰⁰⁵’는 ‘간격이 벌어지다’를 의미하는 ‘쁘다’에서 확장된 의미로 생각된다.

다. ‘쁘다’ 형태로 자주 확인되는 동사로는 부력 또는 양력의 작용을 나타내는 ‘쁘다⁰⁰¹’과 대상의 일부를 들어올리는 ‘쁘다⁰⁰³’, 그리고 눈을 뜨는 ‘쁘다⁰⁰⁴’가 있는데, 이 중 ‘쁘다⁰⁰¹’에 간격이 벌어지는 사태를 나타내는 ‘쁘다’의 예문이 섞여 있다.

두 ‘쁘다’ 사이에 다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부력과 양력의 작용을 나타내는 ‘쁘다’가 한어 ‘漂’ 또는 ‘浮’에 대응하는 것에 비해 간격의 발생을 나타내는 ‘쁘다’는 한어 ‘離’ 또는 ‘去’에 대응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설령 다의 관계라 하더라도 의미가 분화하여 서로 다른 동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쁘다[離]’를 분리해 냄으로써 하향이동을 나타내는 ‘떠디다’의 선행 동사를 기술할 수 있다. ‘떠디다’에서 ‘디다’의 하향이동에 선행하는 사태는 부력 또는 양력의 작용이라기보다는 고정되었던 개체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79) 간격이 벌어짐을 나타내는 ‘쁘다’

- ㄱ. 셜흔네차힌 든니싫 저그 짜해 쁘샤דים 밟바답 그미 짜해 반두기 바키시며 《월인석보 2:57》
- ㄴ. 두 소느로 오슬 자바 옷 기슭기 짜해 혼 자만 쁘게 ھ며 (兩手摶衣去齊尺)
《번역소학 3:27》
- ㄷ. 고 아래 입시울 우희 오목흔 디와 두 발 엄지가락톱 안 넉 گ수로 혼 염곳닙
너비만 빠워(於人中穴及兩脚大母趾內離甲一韭葉許) 《구급간이방 1:77》
- ㄹ. 不得转载 므르드라 埋伏勢를 ھ고 쏘 혼 거름 물러 埋伏 되고(退一步作埋伏勢 又退一步 為埋伏) 《무예제보 19면》
- ㅁ. 암뒤 복병을 내되 서를 쁘기늘 스므나믄 거름만 ھ고(前後伏相去數十步)
《연병지남 5면, 1612년》

(79 ㄱ, ㄴ)은 ‘쁘다⁰⁰¹’의 예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양력의 작용을 나타내는 ‘쁘다’ 사태에서 땅이 지닐 수 있는 역할은 기점 정도인데, ‘-애/에’ 조사를 취한 ‘쁘다⁰⁰¹’의 논

향이 털격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에 대상이 ‘쁘다’ 사태의 결과로 위치하는 지점을 나타내는 처격 논항으로 해석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80) ‘쁘다⁰⁰¹’의 처격 논항

- ㄱ. 衆生들히 큰 므레 빠여도 므리 能히 좁디 몯게 ھ며 《월인석보 19:10》
- ㄴ. 生死中에 샹네 빛며 떠душ를 넙논들(於生死中 常被漂溺) 《능엄경언해 2:31》
- ㄷ. ("'", 비춘 뒤 밧기 뻗고(春色浮山外) 《두시언해 9:36》

(80)에서 조사 ‘-에’가 결합한 논항들은 ‘쁘다’ 이동의 결과 대상이 위치하는 착점을 지시 한다. 반면에 ‘쁘다[離]’는 조사 ‘-에’가 결합한 논항이 대상의 기점을 나타내고(79 ㄱ, ㄴ), 조사 ‘-로’가 결합한 논항이 대상의 착점을 나타낸다(79 ㄷ). 따라서 ‘쁘다⁰⁰¹’에서 ‘간격이 벌어짐’을 서술하는 ‘쁘다[離]’를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79 ㄷ, ㄹ)의 ‘빠다’와 ‘쁘다’는 ‘쁘다[離]’의 ‘-이’ 파생 사동사 및 단독 용례로서 ‘거리를 벌리다’로 해석된다.

의미 추상화를 통해 공간적 거리축을 속성의 정도성(gradability) 축으로 투사하면 간격의 차이가 곧 속성의 차이가 된다. 이는 해당 속성으로 정의되는 개체들이 동일성을 잃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사 ‘쁘다[離]’가 형용사 ‘쁘다⁰⁰⁵’로 추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를 앞서 동사 ‘디다⁰⁰⁷’과 형용사 ‘디다⁰¹²’에서 보았거니와, 동사 ‘뼈다다’에서도 같은 종류의 의미 추상화를 확인할 수 있다.

(81) ‘뼈다다’의 추상적 의미 확장

- ㄱ. 清楓嶺에 다드라 기픈 뒷고를 디러 …确崖에 뼈디여 주그니라(青楓嶺下臨絕壑 …自投崖下而死) 《삼강행실도 열녀도:21》
- ㄴ. 자내 지를 어마님 맛디시고 부러 뼈디여 여슷 里를 가시니(所持之物 寄母先行 故落後行 經六里許) 《釋迦如來行蹟頌》 《석보상절 3:37》
- ㄷ. 기피 가라 두더 이런 심구를 甚히 네 이우제 뼈다디 아니후 노라(深耕種數畝未甚後四隣) 《두시언해 16:70》

- ㄹ. 그 은을 글월호 나래 흠뻑 주를 추게 旱고 뽀로 뼈디기 업게 홀디니(其銀立契之曰一並交足 外沒欠少)《번역노절대 하:16-17》
- ㅁ. 높즈시 빼고 뼈디기 말라 낫가이 빼면 근드거 가느니라(高些箇射休小了低射時竄到了)《번역노절대 하:37》

(81ㄱ)은 ‘쁘다[離]’와 ‘디다’가 결합하여 ‘碥崖’를 기점으로 하는 하향이동 사태를 나타낸다. 절벽에 고정된 것이 아닌 대상에 ‘뼈디다’를 썼다는 점에서 ‘뼈디다’가 ‘쁘다[離]’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미 영역을 구축할 만큼 오랫동안 고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81ㄴ)은 ‘뼈디다’가 ‘뒤처지다’로 해석되는 용례로서 수직 이동이 수평 이동으로 추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81ㄷ)은 ‘뼈디다’가 ‘남보다 못하다’로 해석되는 용례이며, 수평 이동이 다시 공간적 거리축에서 속성의 정도축으로 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81ㄹ, ㅁ)은 ‘뼈디다’가 ‘부족하다’로 해석되는 용례로서, (81ㄹ)은 은의 양의 부족을, (81ㅁ)은 화살을 쏠 때 높이의 부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의미 추상화가 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적 차이를 나타내는 방향으로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사태의 내용을 볼 때 중세 한국어에서 (81ㄱ-ㄴ)은 동사로 분류되겠지만 (81ㄹ-ㅁ)은 형용사로 분류될 것이다.

이상으로 《번역노절대》에 등장하는 ‘뼈디다[爭]’가 형용사와 ‘디다’ 표지의 결합 사례로 분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旱다’ 류 형용사 및 보조형용사에 결합한 ‘디다’ 표지의 예를 확인해 보자.

(82) ‘-旱다’ 류 형용사와 ‘디다’ 표지의 결합

- ㄱ. 이제 마치 혼가지로 이러旱여지오니 이런 일이 어듸 잇소오리잇가《진성 이씨 이동표가 한글편지 21번, 이명익, 1671년》
- ㄴ. 푸러 주신 지 닷챈 만의 실흘 드니 낫던 삭도 만히 슬고 장초 반추 자바 클클旱여디며 그날부터 역증과 비알푸기도 긁치고 밥을 초자 전쳐 머그며《월성이씨 한글편지 1번, 월성 이씨, 1716년》

(83) 보조형용사와 ‘디다’ 표지의 결합

- ㄱ. 무론 그뢰도 죠호니 져로 념호여 저으면 뚫으알만 흐여지거든 지버 내면 데
곳 지디여시면 지그러디느니 《음식디미방, 11면(강정법 맛질방문), 1670년 전후》
- ㄴ. 나는 계유 이시나 네 어마님이 훌터 나가니 섭섭 굿브기 훈두 물이 아녀 가
지가지 하 묘움이 아므라타 업소며 집은 다 빈듯 흐여디고 아හ들하고 집안하
호젖흐며 디속은 뎁티 못흐니 언수는 모루고 다시 보기를 뎁티 못흐니 조연이
심식 사오납오나 《은진 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9-104번, 안동김씨, 1700년》

(82–83)의 네 사례는 모두 경상도 출신 화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82 ㄱ)은 17세기 후반에 경북 예천 출신의 반초당 이명익이 형수인 순천김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로서 역병으로 일가친척 모두가 곤란한 상황임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흐여지오니”는 ‘이렇게 되니’로 해석되며 형용사 ‘이러하다’에 문법형태소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가 된다. 한국어의 ‘ㄷ’ 구개음화 확산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파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ㄷ’ 구개음화 사례가 서남방언권 자료에서는 16세기부터 관찰되고 중앙언권 자료에서는 18세기부터 발견된다(곽충구 2001). 따라서 17세기의 동남방언 화자인 이명익이 문법 표지 ‘디다’를 ‘지다’의 형태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83 ㄱ)은 정부인 안동 장씨로 알려진 경북 안동 출신의 장계향이 작성한 조리서에 나오는 지시 사항으로서 강정을 만들 때에 가루를 넣고 계속 젓가락으로 젓다가 뭉쳐서 크기가 달걀만큼 커지면 꺼내라는 내용이다. 연이어 ‘지그러디느니(찌그러지니)’라는 ‘-으러디다’ 형의 어휘도 사용하고 있어 장계향의 방언에 ‘디다’ 표지의 2차 문법화가 확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전반의 자료인 《진주하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가 발견되지 않는다. 16세기 말의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에 ‘치워디다’나 ‘우그러디다’가 확인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일이다. ‘우그러디다’의 ‘디다’ 표지의 의미는 뒤의 4.5절에서 다루겠지만 형용사에 후행하는 ‘디다’ 표지와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주하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사용된 문법화된 ‘디다’ 표지의

예이다.

(84) 《진주하씨묘 출토 한글편지》의 문법 표지 ‘디다’

- ㄱ. 명념이 는 업쳐져 미 샹 후여 있다 호니 엇디 업쳐딘고 《142번, 광주》
- ㄴ. 심은 알하도 비엣 거슨 프러던 듯 후여 있느 《168번, 광주》

(84ㄴ)의 ‘업쳐지다/업쳐디다’는 쓰러짐 사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업더디다’와의 관련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8세기의 여러 자료에서 ‘엎다’에 ‘-티’가 결합한 ‘업티다’와 그 구개음화형 ‘업치다’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용] 유형의 상태 변화 술어 ‘업치다’에 <결과> ‘디다’ 표지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84ㄱ)의 ‘프러디다’를 볼 때 ‘디다’ 표지의 1차 문법화된 쓰임이 광주의 언어에 반영되어 있음을 분명하다.

이를 우연한 공백으로 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이유가 있는 부재라면 ‘디다’ 문법화가 중앙에서 시작되어 동남부로 서서히 확산했다는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후기 중세에서 근대 사이에 일어난 ‘△’의 소멸이 북부에서 동남부로 확산된 사례가 있으므로(이승재 2004:247), 중앙에서 동남부까지 언어 개신이 서서히 전파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가설을 좀 더 탐구해 보자.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디다’ 표지를 사용한 신천강씨(1519?–1585)는 경북 선산 출신으로 김훈과 혼인하여 한양으로 이주하였다(서신혜 2015). 경북 선산은 지금의 구미시에 속한다. 《진주하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대부분의 편지를 작성한 광주(1569–1617)는 경북 현풍 출신으로 현풍은 지금의 대구광역시에 속한다³⁴.

신천강씨의 편지들은 모두 한양에 거주한 이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중앙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구미 일대의 방언을 반영할 것이다. 반면 광주는 현풍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며 한양에 체류한 것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방문한 정도이므로, 그의 편지에 적힌 언어는 당시에 대구 인근에서 사용된 방언일 것이다.

3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풍곽씨 광주 언간’ 항목

앞서 우리는 16세기 전반의 중앙어 자료인 《번역소학》 및 《번역노길대》에서 형용사에 ‘디다’ 표지가 결합한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천강씨의 편지들을 통해 ‘디다’ 표지의 2차 문법화가 16세기 말에 중앙어에 굳게 자리잡았거나 혹은 동남방언권 중북부까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82ㄱ)과 (83ㄱ)을 통해 ‘디다’ 표지의 2차 문법화가 17세기 후반에 동남방언권 북부까지 도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명익은 1649년에 급제한 이후 한양에서 관직을 수행하다가 1677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으므로³⁵ 20년 이상 한양에 머무르며 중앙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장계향은 경북에서 벗어나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순수한 동남방언 화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곽주의 편지들은 ‘디다’ 2차 문법화의 확산이 17세기 전반기에 동남방언권 남부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디다’ 표지의 2차 문법화에 영향을 받은 장계향과 이명익의 출신지는 안동과 예천으로 혼풍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용사에 결합한 ‘디다’ 표지의 분포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형용사의 개념은 주로 《우리말샘》에 기술된 품사 정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는 형용사가 동사처럼 활용하는 자·형 양용술어 현상이 있으므로, [속성]-[상태] 술어인 형용사가 [변성] 사태를 동형으로 부호화하여 동사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 현상이 형용사에 결합한 ‘디다’ 표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논의하겠다.

4.4.2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과 ‘디다’ 변형 전략의 경쟁

현대 이전의 한국어 형용사에는 단독으로 [변성] 사태를 부호화하는 용법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형용사에 결합한 것으로 분석되는 ‘디다’의 기능은 현대

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명익(李溟翼)’ 항목

한국어의 [변성] 유형 자동사 또는 [속성]-[상태] 유형 형용사에 결합하는 ‘지다’ 표지의 기능과 동일하게 분석되며, 직관을 제공할 화자가 없는 이상 그보다 더 좁히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변성〉 ‘디다’ 표지의 발달을 추적하려면 형용사가 [변성] 사태를 부호화할 수 없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좁혀야 한다.

현대 한국어의 형용사는 [속성]과 [상태]의 정적 사태를 부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다’와 같은 일부 형용사에 한하여 [변성] 사태를 부호화하는 동형의 자동사가 설정될 뿐이다. 그러나 후기 중세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그 때의 해석은 ‘지다’ 표지가 결합한 경우와 비슷하다.

(85) 한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영경 2003:276–277,(2))

- ㄱ. 피리 부로매 셈 머리 도로 검느니 《두시언해 19:22》
- ㄴ. 편안하고 펴 부리면 날로 게으른다 흐는 말을… 《소학언해 5:87》
- ㄷ. 疑心스 흐리유미 절로 맑느니 《금강경삼가해 1:종경序 3》

(85)의 각 사례에서 밑줄 그은 형용사는 현대 한국어로는 ‘검어지다’, ‘게을러지다’, ‘맑아지다’를 의미한다. 이영경(2003)은 한국어 역사 자료를 살폈을 때 18세기부터 ‘지다’ 표지에 결합한 형용사 사례가 빈번히 관찰되기 시작하는 것을 들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18세기를 전후하여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후기 중세 한국어에 [속성], [상태], [변성] 사태를 단일어 술어로 부호화하는 두 개의 전략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형 1 [속성]-[상태] → [변성], 동형 부호화

유형 2 [변성]-[상태] → [속성], 동형 부호화

1번 유형의 전략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으로서, 3.4절에서 살펴본 영어의 ‘yellow’와 같은 전략이다. 2번 유형은 현대 한국어에도 남아 있는 ‘굳다’ 유형에 해당하며, 내적 종결성이 있는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 형용사들이 1번과 2번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어휘별로 사용되는 양상

을 살펴 확인할 수 있다. (85ㄱ)의 ‘검다’는 대개 명사 수식으로 사용되므로 [속성]-[상태] 술어로 [변성] 사태를 부호화한 사례가 된다.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은 [변성]의 동형 부호화에 해당하고, 형용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은 [변성]의 변형 부호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형 부호화 전략이 새로이 발생하여 전파되면서 기존의 동형 부호화 전략이 쇠퇴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 글은 ‘지다’ 표지의 발달과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 소실이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이영경(2003)의 추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쇠퇴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앞 소절에서 분포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지다’ 표지의 결합 환경이 형용사로 확대되는 변화는 17세기에 이미 완결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어에서는 17세기부터 형용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여 [변성] 사태를 부호화하는 전략이 활발히 쓰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 생존하여 한양에 거주했던 빙허각 이씨가 저술한 《규합총서》에서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86) 19세기 중앙어의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 사례

- ㄱ. 옥식 법: 남 드린 쟁희 드리면 眾연이 과히 푸르기 쉬오니 몬져 물의 빽 즙을 잠간 바타 섯거 드리고 여러 번 어름 물에 헤워 부츠라 《규합총서 24면, 1869년》
- ㄴ. 든물을 데여 연지를 적적 빼서 촉촉 깁고 약튼 거슬 보아 므음듸로 드린 후 오미즈 국을 쳐 셋와야 칙 진 거시 업고 죠흐니라 《규합총서 26면》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작용] 사태의 결과는 [변성], [결과상태], [상태]-[속성] 중 어느 것으로도 서술될 수 있으며 그 중 무엇이 선택될지는 발화 양식의 문제이다.³⁶

36) 이는 문법적 제약보다는 [작용]이 불러오는 사태를 화자가 무엇으로 포착하여 서술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 한국어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태희: 왜 내 책상은 항상 지저분하지?

현서: ㄱ. 쓴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면 책상이 깨끗하지 않을까?

그러나 위 사례의 ‘푸르다’는 ‘-기 쉽다’와 결합하였고, ‘깊다’와 ‘얕다’는 ‘추추’의 수식을 받고 있어 변화 사태 술어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도 형용사가 [변성] 술어로 사용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

(87) 18세기 말 – 19세기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 의심 사례

- ㄱ. 靑傷 다쳐 프르다《몽어유해 보:24, 1790년》
- ㄴ. 조조 귀신의게 마자 맛는 곳마다 푸르고 부릇트니 슈월이 못 헤여 죽으니라
(鬼屢打之打處青鱉月餘而死)《태상감응편도설 5:18, 1852년》
- ㄷ. 닙고 모 업순 목과를 당단후박을 마치고 치 갈즉반듯 헤게 빠흐라 하늘 뵈면
프룬다 ㅎ 누 니《윤씨음식법 ‘목과정과’, 1854년》

(87ㄷ)의 사례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여러 음식조리서에서 모과정과를 만들 때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색깔이 좋지 않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푸르다’가 색상 변화를 가리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쇠퇴하는 변화는 여러 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화가 완료된 시기는 18세기보다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역사 자료에서 어떤 특성이 소실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도 그것이 자료의 공백으로 인한 부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특정한 용법의 발생과 달리 소멸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쇠퇴하는 단서로 형용사로 구성된 술어의 빈도 변화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김건희(2015:103–106)에서는 중세 한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과 관련된 특성으로 강한 서술성을 지적하면서, 현대 한국어에서 품사를 구분할 때에 관형사형과 서술형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예를 들어, ‘여하하다’는 관형형으로 사용될

ㄴ. 쓴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면 책상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때에는 형용사로 분석되고 서술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동사로 분석된다. 특히 관형사형·부사형으로 제한된 활용을 보이는 동사는 형용사로서의 의미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동사의 예로 ‘주되다(주된)’, ‘해묵다(해묵은)’, ‘현행하다(현행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김건희 2016:144, 각주 20).

또한 이영경(2007)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형용사가 동사적으로 사용된 것을 드러내는 단서 중 하나인 시상형태소 ‘-느-’의 결합이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앞에서 주로 확인되고 관형사형 어미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형용사가 동사적으로 사용되었을 확률은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로 활용된 서술형에서 가장 높고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형에서 낮다고 할 수 있다.

[속성]과 [상태]를 구분하는 요소가 시간선임을 고려하면, 한국어에서 술어로 사용된 형용사는 다양한 시상 어미와 결합하기 때문에 [상태] 유형을 부호화할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술어로 사용된 형용사 사례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대의 발화 구성 전략에서 형용사로 [상태] 사태를 부호화하는 유형이 선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해당 시기의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사용되었을 시기의 하한선을 밝힐 수 있다.

역사 자료에서 형용사 사례별로 동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느-’ 어미 등의 도움 없이는 어렵지만, 관형형과 서술형으로 사용된 형용사의 빈도를 세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김미경(2014)에서 필사본 한글 음식 조리서 자료를³⁷ 대상으로 형용사의 출현 환경별 빈도 변화를 관찰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겠다.³⁸

형용사와 상태 변화라는 주제에 관련하여 조리서의 장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

37) 해당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 조리서의 용어 색인 DB》 및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개한 《반찬 등속》, 디지털 한글 박물관에서 공개한 《조선요리제법(1921)》, 《조선요리제법(1943)》, 《사계의 조선요리(1935)》를 입력한 자료로 조리서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38) 자료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한계가 있으나, 자동 형태소 분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국어 역사 자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토대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약 5백만 어절)와 김미경(2014)에서 구성한 음식 조리서 말뭉치(약 16만 어절)에서 문법 표지로 사용된 ‘디다’ 표지의 출현 양상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교화서, 종교서, 기술서, 문학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조리’로 분류하겠다.

형용사/의태어 결합 ‘디다’					동사 결합 ‘디다’							
	16C	17C	18C	19C	20C		15C	16C	17C	18C	19C	20C
일반	0.16	0.11	0.09	0.02	0.01		0.73	0.77	0.86	0.87	0.63	0.75
조리	–	0.26	0.61	0.48	0.07		–	–	0.89	1.08	0.89	0.98

표 4.11: 문법 표지 ‘지다’ 표지의 장르별 출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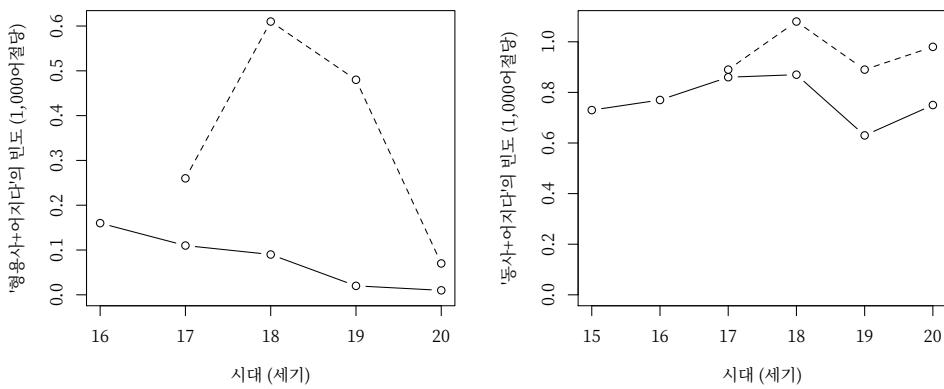


그림 4.1: 문법 표지 ‘지다’ 표지의 장르별 출현 양상

그래프의 점선은 조리서에서의 출현 양상을, 실선은 일반 장르에서의 출현 양상을 나타낸다.³⁹ 1,000어절 당 출현 건수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모두 절대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39) 그래프 작성과 빈도 해석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조리서에서 형용사와 결합한 ‘디다’ 표지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 따라서 형용사를 이용한 [변성] 또는 [결과상태] 부호화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일반 장르보다 조리서 장르에서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음식 조리서에는 작업 공정을 거치면서 재료의 속성이 변화한 결과를 서술하는 문장이 많은데, 이 중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가 ‘지다’ 표지 결합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88) 《규합총서》에서 형용사의 [결과상태] 부호화 유형

- ㄱ. 달하면 그 마시 심히 죠흔니라 《6면》
- ㄴ. 양독이 더러오면 장 마시 글너지느니 《5면》
- ㄷ. 녹물을 과히 투면 빗치 부희고 쪽쪽하고 조리기를 과이 허면 빗치 검으니라 《18면》
- ㄹ. 빙반물을 너흐면 누르고 붉어지니 《26면》

(88 ㄱ, ㄷ)과 (88 ㄴ, ㄹ)을 대조하면 작업의 결과 대상의 맛과 색이 변화하는 상태를 ‘지다’ 표지 결합형과 형용사 단독형 양쪽으로 서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어 화자의 관점에서는 형용사 단독 구문이 [변성]이 아니라 [상태]를 부호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19세기 화자의 직관도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88)은 이 시기의 형용사 단독 구문이 최소한 [결과상태]-[상태]를 부호화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글에서 도입한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의 조건을 생각하면, [속성] 술어는 [상태] 동형 부호화를 거치지 않은 채로 [변성]을 부호화할 수 없다. 따라서 [결과상태]-[상태]를 부호화하는 형용사 단독 술어가 줄어든다는 것은 [변성]을 부호화하는 형용사가 사용될 기회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술어로 사용된 형용사와 다른 환경에서 사용된 형용사를 비교하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음식 조리서에서 명사 수식으로 사용된 형용사는 대개 재료·도구가 처음에 갖춰야 할 [속성]-[상태]를 서술한다.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89) 형용사 단독 구문의 출현 환경별 해석

- ㄱ. 명사: 眾 박이에 펴 노코 혼 김이 누거든 간슈을 조금씩 쳐서 연하고 단단히기
는 짐작허라 《규합총서 20면》
- ㄴ. 명사 수식: 난만이 닉어 무르고져 ھ는 거순 후란 ھ기 쉬오니 둔둔한 싱감
으로 ھ라 《규합총서(동경대본) '준시 민드는 법'》
- ㄷ. 술어 수식: 썰기울 슈단보단 잘게 써으려 단단히 말려 넌 《규합총서 16면》
- ㄹ. 술어: 십여 일이나 찬찬이 말뇌여 돌가치 단단히거든 《규합총서 5면》

(89 ㄱ, ㄴ)에서 명사형 및 명사 수식으로 사용된 형용사 ‘단단하다’는 [속성]-[상태]로 해석되며 [결과상태]-[변성]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89 ㄷ, ㄹ)에서 술어 수식 및 술어로 사용된 ‘단단하다’는 ‘말리다’의 결과 사태를 서술하며 따라서 [결과상태]-[변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형용사의 각 사례별로 결과상태 서술과 시작 상태 서술을 나누어 헤아리면 분류 작업의 규모가 너무 커지므로, 거칠게나마 결합한 어미를 기준으로 형용사의 출현 빈도 변화를 세어보기로 하자. 다음은 형용사에 결합한 어미에 따라 출현 환경을 분류한 것이다.

명사 -ㅁ, -기, (-고, -도, -지)

명사 수식 -ㄴ, -ㄹ, (-고, -도, -지)

술어 수식 -이, -게, (-고, -도, -지)

술어 -ㄴ가, -ㄴ다, -ㄴ데, -ㄹ만치, -ㄹ만큼, -ㄹ수록, -ㄴ즉, -ㄹ즉, -ㄹ지니, -ㄴ지라,
-거나, -거니와, -거든, -고자, -나, -나니, -나니라, -니, -니까, -니라, -다, -더니, -
더라, -도록, -되, -든지, -라고, -려면, -리라, -매, -며, -면, -수록, -야, -어, -어도, -
어서, -여이다, (-고, -도, -지)

‘-고’와 ‘-도’는 연결어미에 속하나, 형용사와 결합하면 그 형용사와 뒤에 오는 용언을

대등하게 접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출현 환경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와 ‘-도’의 뒤에 오는 용언에 결합한 어미를 보고 어느 환경에서 쓰였는지 구분하였다. ‘-지’는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 등의 구문에서 사용되는 어미인데, 이 역시 뒤에 오는 보조형용사와 결합하는 어미를 보고 환경을 구분하였다. ‘-고’의 경우만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90) ‘-고’와 결합한 형용사의 출현 환경 분류

- ㄱ. 명사 수식: 슬디고 묵은 암탉을 정히 뒤여 《규합총서 동경대본, ‘칠향계’》
- ㄴ. 명사: 무조 흐고 단명 흐물 흐는 재어든 《온주법, ‘오가피주’》
- ㄷ. 술어 수식: 강경은 길직길직 흐고 빈소과는 동골게 뿔며 《술 만드는 법, 산자법》
- ㄹ. 술어: 쥐가 소곰을 먹으면 몸이 가비 읍고 파두를 먹으면 술찌 느니라 《규합총서 영남대본, 벽서법》

환경별로 출현하는 형용사의 빈도를 세기 위하여,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 조리서의 용어 색인 DB》의 품사별 검색에서 제공되는 형용사 사례와, AntConc의⁴⁰ 역방향 정렬 기능으로 만든 어미별 어절 목록에서 수동으로 분리해 낸 형용사 사례를 교차 확인하였다.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의 쇠퇴를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대 한국어에서 동형의 자동사가 사용되는 형용사는 제외하였다.

형용사의 출현 환경별 빈도 변화를 시기별로 검토한 결과 17–19세기의 근대 자료와 20세기 초반 자료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므로, 두 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⁴¹ 근대 자료와 20세기 초반 자료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1,000 단어당 출현 건수로 정규화하고 팔호 안에 실제 출현 건수를 병기하였다.

40) Laurence(2014) <https://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41) 해당 연구에서는 세기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도 제시하였으나, 근대 시기의 조리서들 중에서 연대 추정이 바뀐 자료들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근대와 20세기 초반의 두 시기로만 나눠서 비교하겠다.

	명사	명사 수식	술어 수식	술어	전체
17–19C	1.09 (117)	21.49 (2,316)	32.66 (3,521)	24.47 (2,638)	79.71 (8,592)
20C 초반	0.29 (17)	21.6 (1,277)	33.59 (1,986)	7.83 (463)	63.3 (3,743)

표 4.12: 조리서 내 출현 환경별 형용사 빈도 변화

명사형, 명사 수식, 술어 수식 환경에서 거의 출현 빈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술어로 사용되는 빈도만이 줄어든 통시적 변화를 볼 수 있다. 자료의 크기가 작아서 유의미한 변화인지 자료의 편중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는 [결과상태]를 부호화하는 형용사 단독형, 동사 단독형, ‘지다’ 표지 결합형의 세 선택지 가운데 형용사 단독형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자료와 20세기 초반 자료에서 같은 음식의 조리법을 서술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91) 17세기와 20세기 초반 ‘계젓’ 조리법 서술 양식 비교

- ㄱ. 소곰을 …물에 녀허 달혀 최오고 …그 소곰물을 미지근 흘거든 게 즈물게 부어…《음식디미방, 1670년 전후》
- ㄴ. 간장을 게가 잠길만큼 펄펄 끓여서 다시 식혀 붓고《조선요리제법, 1943년》

(91)에서 근대에는 ‘최오다(차게 하다)’, ‘미지근’ 흘다’로 형용사로 서술되었던 상태 변화가 ‘식히다’라는 타동사로 서술되었다. 즉, [결과상태] 부호화 전략이 동사 중심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형용사가 동사적인 용법을 확실하게 잃은 시점은 19세기 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19세기 말까지 존재했다면, [변성] 사태의 부호화 전략으로서 <변성> ‘지다’ 표지와 형용사 단독 구문이 그때까지 경쟁하였다는 말이 된다. 문법화가 상당히 진전된 용법으로 보이는 ‘이러 흘여지다’나 ‘닭으알만 흘여지다’와 같은 용법이 17세기부터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자료 내에서 형용사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의

빈도가 꾸준히 낮게 관찰되는 것은, ‘디다’ 표지의 문법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 있다.

4.5 ‘-을/을’ 파생 어근에 결합하는 ‘디다’

현대 한국어에서 ‘우그러지다’와 같은 ‘-으러지다’ 형 어휘들은 보조동사 ‘지다’ 표지 논의에 잘 언급되지 않는다. 이를 형태를 동사 또는 형용사와 ‘지다’ 표지의 결합으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우그러지다’에 선행하는 ‘우글다’처럼 술어가 분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지러지다’에 선행하는 “*이질다”처럼 문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법 체계를 기술할 때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므로, 이 ‘지다’ 표지는 주로 조어법 분야에서 합성동사 어근 또는 파생접사로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공시 문법 기술의 관점에서 벗어나 형태와 의미의 관련성만 보면, 이 ‘지다’ 표지는 결합한 ‘-을’ 계 어간이 대상의 [속성] 또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형용사에 결합한 ‘지다’ 표지와 유사하다. 이는 ‘우그러지다’의 선행 어간 ‘우글-’이 ‘우글쭈글하다’와 같이 중첩된 후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형용사 어간과 다른 점은 이 어간에서 동사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92) 한국어 ‘윽다/옥다’와 ‘오글다’

- ㄱ. 그 뼈엣 가식[뼈 부리던 곳에 반드시 가식 잇느니라] 안흐로 윽어시면[밧게셔 텇는 고로 안흐로 향홈이라] 《증수무원록언해 51면, 1796년》
- ㄴ. 그 양흔에 솔과 갓머리 옥아 속으로 向향후약고 《증수무원록언해 33면》
- ㄷ. 두 손과 발이[이 발은 다리를 나른 말이라] 다 오고라 주리혔느니 《증수무원 록언해 48면》

위의 사례를 통해 ‘윽다/옥다’가 ‘우글다/오글다’로 파생되고 다시 ‘우그러지다/오고라 지다’를 구성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을/을’ 접사로 파생된 어근은 ‘지다’ 표지와

‘뜨리다’ 표지 앞에서 자주 확인되며 그 외에도 넓은 분포를 지니고 있다. 표 4.13은 ‘부스러지다’의 예를 들어 ‘-을’ 접사와 관련된 어휘들을 정리한 것이다.

선대형	선행 어근	-어지다	중첩	-악/억	-악/억]-이
브스다	부수다	부스러지다	부슬부슬	부스력	부스러기
부수다	보수다	보스라지다	보슬보슬	보스락	보스라기
	바수다	바스러지다	바슬바슬	바스력	-
		바스라지다		바스락	바스라기
		버스러지다	버슬버슬	버스력	-

표 4.13: ‘부수다/브스다’ 후대형과 ‘-을/을’ 접사 파생

표 4.13에 수록된 어휘는 모두 ‘부수다’ 사태와 관련이 있다. 이외에도 ‘부스럼’ 등의 파생어가 있고, ‘부슬부슬하다’나 ‘부스력부스력하다’와 같은 ‘-하다’ 계 파생어, ‘부스력 거리다’와 ‘부스력대다’ 등의 파생어가 있다.

표 4.13을 보면, ‘부수다’ 계통의 동사 어근에 ‘-을/을’ 접사가 결합하여 ‘부슬-’ 계통의 어근이 생성된 후 중첩, 파생, ‘-아/어’ 어미 활용 등의 다양한 형태론적 변형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스러지다’에 사용된 ‘지다’ 표지의 기능을 분석하려면 ‘지다’ 표지뿐만 아니라 ‘부수다’에 결합한 ‘-을/을’ 접사의 기능 또한 논의해야 한다.

이현희(1987)은 후기 중세 한국어의 ‘둔겁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어휘로 ‘두드러지다’를 들어 ‘둔 + 을 + 어지다’로 분석하고, 이승재(1992)에서는 방언형 ‘자빠라지다’를 ‘잦 + 부 + 을 + 아지다’로 분석하였다. 이 두 논의에서는 ‘-을/을’이 매우 생산적인 접사이지만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함희진(2007)은 이현희(1987)을 인용하여 ‘우그러뜨리다’ 류의 어간을 ‘-을/을’ 접사로 파생된 자동사 어간으로 분석하였다. 신중진은 신중진(2008)부터 신중진(2015)까지 이어진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을/을’ 접사가 현대 한국어의 각종 명사, 부사, 동사에 화석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을/을’ 접사의

분포 환경 및 ‘-을/을’ 접사 포함 어휘들의 의미 자질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을/을’ 접사가 결합하는 술어의 의미를 어떻게 변형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 ‘-을/을’ 접사가 술어에 결합하여 해당 술어가 지시하는 사태의 유형을 [속성]으로 변형하는 표지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을/을’ 접사를 분석하면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에서 ‘치워디다’와 ‘우그러디다’가 동시에 관찰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을/을’ 파생 어근이 [속성] 유형을 부호화한다면 여기에 결합한 ‘디다’는 <변성> 표지가 된다. ‘디다’ 표지의 2차 문법화로 인해 <변성> 용법이 생겨나면서 한국어의 [속성] 술어 중 ‘-을/을’계 파생 어간에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을/을’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속성] 술어의 특성을 논의한 후, 이를 이용해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으러지다’ 형 어휘를 살펴보기로 한다.

4.5.1 ‘-을/을’ 접사의 술어 내 분포와 기능

이현희(1987)과 신중진(2012)에서 ‘-을/을’ 접사의 존재와 분포 등이 확인되었지만, 전자의 지적은 다소 간략하고, 후자의 지적은 명사, 동사, 부사의 모든 품사를 아우르고 있어 너무 넓다. 이 글에서 ‘-을/을’ 접사를 다루는 목적은 ‘-으러지다’ 형 분석이므로, 술어를 중심으로 ‘-을/을’ 접사를 다시 추출하고 그 기능을 논의하겠다.

4.5.1.1 ‘-을/을’ 접사의 추출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는 ‘-을/을’로 끝나면서 그 선행 형태를 별도로 분석해 내기 어려운 어근들이 표 4.13과 같은 파생 패러다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붓그립다’의 어근 ‘붓글-’과 관련된 ‘붓그리다’, ‘붓그레’, ‘붓그려 handleChange’ 등의 파생어가 자료에서 확인되며, 그 후대형으로 ‘부끄럽다’, ‘바끄럽다’, ‘비꾸럽다’ 등의 모음 변화 형태가 확인되는 등이다.

이 ‘붓글-’ 유형의 어근은 ‘-을/을’에 선행하는 어근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미 유형과 파생 양상이 ‘부슬-’ 어근 유형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므로 ‘-을/을’ 접사의 존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붓글-’ 유형 어근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후기 중세 한국어부터 근대 한국어까지 확인되는 ‘머흘-’ 어근의 예이다.

(93) 한국어 ‘멍-’ 어근의 파생어: ‘-을’ 계

- ㄱ. 象술위는 머흘면 몯 가느니 《월인천강지곡 상:43》
- ㄴ. 머흘며 및 및 흐며 추며 더운 여러 相 《능엄경언해 2:113》
- ㄷ. 자내 부모는 …머흐리 나완논가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 20번》
- ㄹ. 머흐리곰 완논가 《순천김씨묘 출토 한글편지 52번》
- ㅁ. 블 혀 비취여 보면 머흘머흘흐야 니러나는 주리 잇고 《언해두창집요 하:44-45》
- ㅂ. 엄의 빗복줄기 우희 머흐러운 거슬 《언해태산집요 47면》
- ㅅ. 님 계신 뒤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흡도 머흘시고 《남원고사 2:44》
- ㅇ. 머흘(‘자갈’의 방언(제주)) 《우리말샘》
- ㅈ. 머흐럭밧, 머흔밧, 머흘왓(‘자갈땅’의 방언(제주)) 《우리말샘》
- ㅊ. 머흐레기(돌이 박하고 자갈이 많은 밭(제주)) 《우리말샘》

(94) 한국어 ‘멍-’ 어근의 파생어: 격음화, ‘-을’ 계

- ㄱ. 늙고 머트러온 藤 손그락 그트니를 뻐셔 《무예제보 16면, 16세기》
- ㄴ. 부헝이 放氣 巽 殊常흔 옹도라지 넓죽길뚝 엇틀머틀 뛰몽수러 흐거라 말고
《가곡원류 98면, 1876년》
- ㄷ. 즘싱으로 흐여곰 온 몸이 머틀머틀흐며 《마경초집언해 상:85, 17세기》

(참고) 머틀머틀흐다 Etre couvert d'aspérités. Etre à demi coagulé; contenir des caillots, des grumeaux.(거칠거칠하게 덮여 있다, 반쯤 응고되다; 유통불통하다, 오돌토돌하다) 《한불자전, 19세기》

(95) 한국어 ‘떻-’ 어근의 파생어: ‘-웃’ 계

ㄱ. 머흐머흐시 무더미 서르 當하 얯도다(纍纍塚相當)《두시언해 25:7, 15세기》

ㄴ. 거풀와 머흐머흐흔 것 앗고 디허 붓으니와《구급간이방 2:1, 15세기》

‘머흘다’는 《우리말샘》에 ‘험하고 사납다’를 뜻하는 형용사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분류 체계에서는 [속성]-[상태] 술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95)와 비교하면 ‘머흘-’ 어근의 구조를 ‘떻-’과 ‘-을’의 결합으로 분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떻-’ 어근은 ‘-을/을’ 접사와 결합하여 표 4.13의 ‘부수다/브스다’와 같은 파생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붉다’의 파생 패러다임을 확인해 보자.

(96) 한국어 ‘붉다’의 ‘-을’ 파생어와 ‘-웃’ 파생어

ㄱ. 불그레, 불그레하다

ㄴ. 불긋하다, 불긋불긋, 불긋불긋하다, 울긋불긋, 울긋불긋하다

ㄷ. 불그스레,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름, 불그스름하다

(96)을 통해 [속성]-[상태] 술어 ‘붉다’가 ‘-을’ 접사와 결합하거나 ‘-웃’ 접사와 결합하여 (93)과 유사한 파생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웃’ 접사가 결합한 ‘불긋-’에 다시 ‘-을’이 결합하여 ‘불그슬-’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웃’과 ‘-을’은 서로 다른 접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형태 구조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불콰하다’의 어근도 (94)처럼 ‘짙-’에서 격음화를 거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긋’을 ‘[짙]웃’로 분석할 수 있다면, ‘머흘-’도 ‘[짙]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양상의 파생 패러다임을 보이는 여러 ‘-을’계 술어들을 ‘-을’ 파생어로 묶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는 주로 ‘-을’ 형태가 화석으로 남아 있지만, 후기 중세 한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성모음형 ‘-을’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접사를 ‘-을/을’로 표기하고, 이하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겠다.

4.5.1.2 ‘-을/을’ 접사의 [(D)속성] 부호화

‘떻-’ 어근과 파생된 ‘머흘-’ 어근의 의미 유형은 무엇인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속성]-[상태] 동형 부호화 전략이 활발하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판정하기 어렵다. 분포를 확인하면, ‘-을’ 파생 어근이 ‘-하다’ 결합을 허용하고 중첩형 단독으로 부사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 ‘떻-’, ‘붉-’ 등의 선행어근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중첩과 ‘-하다’의 결합에 관하여는 (97)과 같은 반례가 있다.

(97) 한국어 ‘빛-’ 어근의 파생어

- ㄱ. 쟁근 비예 길히 빛그럽디 아니 하니 《두시언해 12:29》
- ㄴ. 띄꾸리 《동의보감 탕액편 4면》
- ㄷ. 빛미준 것 업계 하야 브레 물오고 《구급방언해 하:84-85》
- ㄹ. 빛빛호 둑 슨 그리 銀鉤 | 니셋도다 《두시언해 3:65》

‘빛-’ 어근은 ‘-을’ 접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중첩되기도 하고 중첩형이 ‘-하다’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을’에 선행하는 어근이 단독 혹은 중첩형 단독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예는 한국어 역사 자료 내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을’ 접사가 술어의 의미 유형을 [속성]으로 변형한다고 가정하고, ‘滴-’과 ‘붉-’ 등 선행하는 어근은 [상태]를 부호화하는 술어라고 가정해 보자. 부사는 명사와 성질이 비슷한데, [속성]은 범언어적으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로 부호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tassen 1997). 이와 관련하여 (93 o)에서 ‘머흘’이 단독으로 명사로 사용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을’은 [상태] 술어를 [속성] 술어로 변형하는 표지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속성]은 사태의 고유한 내용과 개체만으로 이루어진 정적 사태이다. 문제는 ‘-을’로 변형된 [속성] 술어는 정적 사태가 아니라 개체가 그러한 사태를 겪거나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97)의 ‘.Contracts.’이 그러하다. (93ㄱ, ㄷ, ㄹ)의 ‘마흔-’ 또한 대상의 성질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불그레’의 ‘불글-’은 대상이 붉다고 판단될 잠재적 가능성을 부호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잠재성을 나타내는 사태의 유형을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가? ‘디다’ 표지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어서 3장에서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변화를 포함하는 동적 사태로서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D)속성]으로, 종래의 정적 사태 유형을 [(S)속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작] 유형 술어가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그러한 변화를 겪을 잠재성을 지니는 사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ing’, 한국어에서는 ‘-는’을 들 수 있다.

(98) 변화 사태 술어의 [(D)속성] 변형

ㄱ. Raclette is a mild melting cheese from the French and Swiss Alps(COCA)

ㄱ' The pungent aroma of melting cheese rose from the hot raclette(COCA)

ㄴ. 물에 녹는 {물티슈, 종이, 비닐, 메모리}

ㄴ' 물에 녹는 메모리를 실제로 보니 매우 신기했다.

ㄴ'' 메모리가 물에 녹는 것을 실제로 보니 매우 신기했다.

(98 ㄱ)의 영어 ‘melting’은 치즈가 잘 녹는 성질을 가리키는 데 비해, (98 ㄱ')의 ‘melting’은 치즈가 녹는 사태가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낸다. 즉, 영어의 ‘-ing’ 표지가 다양한 문법 범주 표지로 기능하는 가운데 [변성] 사태를 [(D)속성]으로 변형하는 범주의 표지 또한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 ㄴ)의 한국어 ‘녹는’도 대상의 성질과 진행 중인 사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다만 ‘-는’ 표지의 해석은 영어의 ‘-ing’ 표지와 달리 통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98 ㄴ)의 명사 수식 ‘녹는’은 진행 중인 사태와 잘 녹는 성질 둘 다를 가리킬 수 있지만 후자의 해석이 선호된다. 이는 (98 ㄴ')처럼 맥락에서 진행 중인 사태 해석을 유도하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어에서 진행 중인 사태를 나타내는 ‘녹는’은 (98ㄴ”)처럼 술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98)에서 명사 수식형으로 변형된 술어들은 사태의 고유한 내용과 개체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서술한다. 즉, [(D)속성] 술어는 [결과상태]가 그러하듯 변화를 서술하는 대신에 변화를 함의한다. 그렇다면 이 [(D)속성]은 [결과상태]와 어떻게 다른가?

[결과상태] 변화', 개체, ±작인, 시간선

[(D)속성] 변화', 개체, ±작인

[(D)속성]에는 시간선, 즉 내적 시간구조가 없다. 시작과 끝이라는 내적 시간 흐름을 지니는 변화가 어떻게 [속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가? 변화의 반복을 상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개별적인 변화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변화의 반복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지속 사태로 포착될 수 있다.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에 변화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개체가 그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성질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지닌다는 의미이다.

[(D)속성]의 사태 구성 요소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으로 [(D)속성]의 동형부호화 양상을 살필 수 있도록 다른 술어 의미 유형과도 사태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자.

[(D)속성] 변화', 개체, ±작인

[(S)속성] 개체, ±작인

[상태] 시간선, 개체, ±작인

[동작] 시간선, 변화, 개체, ±작인

동형의 술어로 부호화되려면 인접 의미 유형이어야 한다는 이 글의 가설에 따르면, [(D)속성] 술어는 [결과상태] 또는 [(S)속성]을 직접 동형으로 부호화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상태]를 거쳐 [변성]을, [(S)속성]을 거쳐 [상태]를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이는 [(D)속성] 술어가 동사나 형용사처럼 행동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흔들-’ 계 어근의 사례를 살펴보자.

(99) 한국어 ‘흔들-’ 어근과 ‘흔ㄷ-’ 어근의 추출

ㄱ. 순시 괴를 겨리 흔드거둔 《연병지남 8면》

ㄴ. 큰 괴와 순시괴를 급피 흔드러둔 《연병지남 27면》

(100) 한국어 ‘흔ㄷ-’ 어근과 ‘근ㄷ-’ 어근의 관계

ㄱ. 놈즈시 뽀고 뼈디게 말라 낫가이 뽀면 근드거 가누니라(高些箇射休小了低射時竄到了) 《번역노걸대 하:37, 1517년》

ㄴ. 낫게 뽀면 살이 흔덕여 가누니라 《몽어노걸대 7:3, 1741년》

ㄷ. 살 가는 거시 낫고 흔더기 누니라 《청어노걸대 7:3, 1765년》

ㄹ. 낫게 뽀면 근득여 가누니라 《중간노걸대언해 하:35, 1795년》

‘흔들-’ 어근은 한 점이 고정된 물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 가볍게 움직이되 고정된 지점에서 분리되지는 않는 사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대상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잠재성을 부호화하는 [(D)속성] 술어라고 할 수 있다. (99)를 보면 같은 뜻으로 ‘흔들-’ 외에도 ‘흔득-’ 어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희(1987)에서 동사 또는 형용사에 결합하여 의태어 어간을 형성하는 ‘-으/으’ 접사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흔득-’을 ‘흔ㄷ-’과 ‘-으’으로 나눌 수 있고, 앞서 ‘-을/을’ 접사를 추출한 것을 토대로 ‘흔들-’을 ‘흔ㄷ-’과 ‘-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흔ㄷ-’ 어근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100)에서 동일한 한어 원문이 한국어에서 번역되는 양상을 보면, ‘흔ㄷ-’ 어근의 자음교체형으로 ‘근ㄷ-’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ㄷ-’ 어근은 ‘흔ㄷ-’ 어근처럼 한 점에 고정된 물체의 움직임 사태와 관련이 있으며, 모음교체형 ‘건ㄷ-’ 형태와 연결된다.

1차	2차	흔ㄷ-	건ㄷ-	근ㄷ-
-윽	-	흔득흔득, 흔덕, 흔덕흔덕	건덕건덕	근덕근덕
-하다		흔득흔득하다, 흔덕하다, 흔덕흔덕하다	건덕하다, 건덕건덕하다	근덕근덕하다
-이		흔드기다, 흔덕이다	건득이다	근드기다
-거리다		흔덕거리다	건덕거리다	근덕거리다
-대다		흔덕대다	건덕대다	근덕대다
-악/억		흔드적, 흔드적흔드적, 흔드적흔드적하다, 흔드적거리다, 흔드적대다	-	근드적근드적, 근드적근드적하다, 근드적거리다, 근드적대다
-을	-	흔들, 흔들흔들 흔들다	건들건들 건들다	근들근들
-하다		흔들흔들하다	건들건들하다	근들근들하다
-이		흔들리다 _{pass.}	건드리다 _{caus.}	-
-거리다		흔들거리다, 흔들흔들거리다	건들거리다 건들거리다	근들거리다 근들거리다
-대다		흔들대다, 흔들흔들대다	건들대다	근들대다
-악/억	-		건드력건드력, 건드력건드력하다,	근드력거리다

(계속)

표 4.14: 《우리말샘》 등재 ‘흔ㄷ-/건ㄷ-/근ㄷ-’ 어근 파생 패러다임

1차	2차	흔ㄷ-	건ㄷ-	근ㄷ-
			건드려거리다, 건드려대다	
-양/엉	흔드렁, 흔드렁흔드렁, 흔드렁건드렁, 흔드렁하다, 흔드렁흔드렁하다, 흔드렁거리다, 흔드렁대다		건드렁건드렁, 건드렁거리다	근드렁근드렁, 근드렁하다, 근드렁근드렁하다, 근드렁거리다, 근드렁대다

표 4.14: 《우리말샘》 등재 ‘흔ㄷ-/건ㄷ-/근ㄷ-’ 어근 파생 패러다임

표 4.14의 모든 어휘는 한쪽만 고정된 물체가 가볍게 밀려 움직이는 사태와 관련이 있다.⁴² 지금까지 검토한 ‘-을/을’ 계 어휘들과 유사한 파생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보면 ‘-을/을’ 계 파생 어근으로서 [(D)속성]을 부호화한다고 할 수 있다.

[(D)속성] 술어는 대상이 사태를 겪을 잠재성이 있다는 사태를 서술하며 한국어의 의태어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 (100 ㄱ)은 ‘-으’ 접사로 파생된 [(D)속성] 술어 ‘근득-’이 단독으로 [상태] 또는 [변성]을 부호화한 사례가 될 것이다.⁴³

42) ‘건ㄷ-’ 어근과 관련하여 바람이 부는 양상을 나타내는 ‘건둣-’ 어근이 있으나, ‘흔들-’ 어근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다루지 않는다. 또한 ‘건ㄷ-’의 모음교체형으로 ‘간득대다’, ‘간드락대다’, ‘간들막대다’, ‘간들대다’ 등도 확인되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43) 다만 여기에서 ‘흔들다’와 ‘건들다’의 의미 유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D)속성] 어근 ‘흔들-’과 ‘건들-’이 직접 술어를 이룬 것인데, 이들은 타동사이므로 [작용] 술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속성] 술어가 [결과상태]-[변성]을 거쳐서 [작용]을 동형으로 부호화한 사례인 것일까?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흔들다’ 용례가 일관적으로 타동사로만 확인된다는 문제가

[(D)속성] 유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을/을' 계 파생 어근을 분석해 보자. 앞서 [상태] 술어 '붉다'에 '-을/을' 접사가 결합하여 '불글-' 어근을 파생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불그레하다'는 대상이 붉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붉어질 수도 있거나 혹은 맥락에 따라 붉다고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불글-'이 대상이 '붉다' 사태를 겪을 잠재성을 지닌다는 [(D)속성] 사태를 부호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는 [변성] 술어가 '-을/을' 접사에 의해 [(D)속성] 술어로 변형되는 사례를 확인해 보자. 다음은 '녹다'의 예이다.

(101) 현대 한국어 '녹-' 어근과 '-을/을' 파생어

- ㄱ. 노글노글, 노글노글하다, 노글노글히, 노글거리다, 노그름하다, 노그름히
- ㄴ. 노그라들다, 노그라지다, 노그라떨어지다

(101 ㄱ)의 파생어들은 대상의 무른 성질을 서술한다. 이를 '녹기 쉬운 성질'의 서술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101 ㄴ)의 파생어들은 사람이 지쳐서 축 늘어지는 사태를 서술하지만, '노그라지다'의 경우 서남방언 일부에 '흐물흐물하게 되다'의 뜻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단단해야 할 물체가 흐물흐물하게 되는 사태를 가리키는 '노그라지다'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지쳐서 늘어지는 사태를 가리키도록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노글-'은 '녹기 쉬운 성질'이라는 [(D)속성] 사태를, '지다' 표지는 대상이 [(D)속성]을 획득하는 사태를 부호화한다.

'-을/을'로 파생된 [(D)속성] 술어는 한국어에서 상징어, 의태어, 준상태명사(이현희 1987)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어휘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받은 인상의 종류와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 모음교체 혹은 자음교체로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우그러지다'의 '우글-' 어근은 '이글-', '쭈글-', '찌글-' 등의 교체 형태를 함께 지닐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 어휘

있다. 이를 설명하는 방법은 [작용] '흔들-'이 '-을/을' 파생 어근과의 유사성 때문에 [(D)속성]처럼 해석되어 파생 패러다임에 참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연구로 미룬다.

들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있다.

(102) 한국어 ‘우그러디다/오고라디다’의 자음·모음교체형

- ㄱ. 병들어 두 다리가 옹그라져 《전설인과곡·지경영험전 14면, 1796년》
- ㄴ. 데곳 지디여시면 지그러디느니 《음식디미방 11면, 1670년 전후》
- ㄷ. 역질이 닷세 되민 검꼬 չ구러지를 근심 հայ 《조군영적지 45면, 1881년》
- ㄹ. 즈근 몸이 총구라져 바위 틈에 드러갈 제 《토괴전 16면, 1903년》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관찰되는 ‘-어 디다’ 형 술어와 ‘-으러지다’ 형 술어의 공존 혹은 교체 현상을 검토하고, ‘부서지다’의 사례를 들어 ‘-을/을’ 접사를 중심으로 한 파생과 역형성의 사례를 논의하겠다.

4.5.2 ‘-을/을’ 결합 ‘디다’ 표지의 발달

후기 중세 한국어의 ‘잇다[缺/虧]’는 모양이 완전하지 않게 변하는 사태를 가리키는 [변성] 술어로서,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디다’ 표지와 함께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의 자료에서는 단독형 ‘잇다’는 물론 ‘이저디다’ 형태도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103) 한국어 ‘잇다[缺/虧]’의 출현 하한

- ㄱ. 희도 낫지 계면 山河로 도라 지고
둘도 보름 後 | 면 혼고부터 이져온다 《악학습령 53면, 1713년》
- ㄴ. 부드러움으로 뻐 흐예야 거의 그 이저딥을 보전 հարի니 《어제내훈 3:34, 1737년》
- ㄷ. 절의는 이저부리디 못할 거시니 《형세언 3:5, 17세기 추정》

(103)은 ‘잇다[缺/虧]’가 단독형, ‘디다’ 결합형, ‘부리다’ 결합형의 형태로 자료에서 각각 확인된 가장 늦은 사례이다. 18세기 이후의 자료에 나타나는 ‘잇다’는 모두 ‘잇다⁰⁰¹’에

해당한다. ‘이즈러디다’가 ‘잇다[缺/虧]’와 ‘이저디다’를 대체하는 형세를 17세기 문헌인 《마경초집언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4) 《마경초집언해》의 ‘이저디다’와 ‘이즈러디다’의 혼용

- ㄱ. 피 곳튼 씀이 온 몸애 나면 목숨이 반듯시 이저디느니라 《121면》
- ㄴ. 다리 절고 허리를 쓰으면 신馗 여즈러딤이라(跋跨拖腰腎水虧) 《36면》

‘이저디다’와 ‘이즈러디다’가 혼용되고 있다면 이 둘이 거의 동의어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상태]로 변형된 ‘이저디다’와 [변성]으로 변형된 ‘이즈러디다’가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에 의해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 디다’ 형 술어와 ‘-으러디다’ 형 술어가 공존하는 사례를 더 보면 다음과 같다.

(105) ‘-어 디다’ 형 술어와 ‘-으러디다’ 형 술어의 공존

- ㄱ. 恩義 임의 어괴여디면 무숨 기림이 니루리오 《여사서언해 1:23, 1736년》
- ㄱ' ㅎ를며 범 사롭가 동정과 운위 하늘 리예 어그러짐은 곳 성찰치 못흡이니 《어제자성편언해 1면, 1746년》
- ㄴ. 두 손이 或 쥐엿거나 或 훗터덮고 《증수무원록언해 85면》
- ㄴ' 耳後 髮際 ㅌ 누르고 頭髻 헛트러덮고 《증수무원록언해 85면》
- ㄷ. 등의 짜가 ㅊㅊ 곱아지고 《보감 2:127, 1907–1908》
- ㄷ' 그 몸이 굽으러지고 《보감 2:2, 1907–1908》
- ㄹ. 무루면 뭉그여지니 물뇌여 지으라 《윤씨음식법 ‘도랏경과’, 1854년》
- ㄹ' 산사을 씨 발누 뭉그러지지 안니케 중탕하여 《술 빚는 법 ‘산스편’, 19세기 추정》
- ㅁ. 골리 오오로 눅어뎌 추혀 들면 실 ㅋ치 느룬 ㅎ여 《음식디미방 ‘식면법 맛질방문’》
- ㅁ' 튀각이 누구러져셔 지르를 흐르나니라 《조선요리제법 44면, 1921년》
- ㅂ. 뒤쪽뒤가지 뒤버스러지게 머리를 싱으로 다 쑥하고 《남원고사 3:10, 1864년》

ㅂ' 볼닦아도 뚜러지고 턱 아리도 벼셔지며 『남원고사 5:31, 1864년』

(105)의 각 사례들은 동일한 술어가 ‘디다’ 표지와 직접 결합하거나 ‘-을/을’ 접사 파생을 거쳐 ‘디다’ 표지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은 인접 의미 유형 동형 부호화 전략에 의해 같은 사태를 가리킬 수 있지만, 형태소 구성과 중심 의미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맥락으로 의미가 분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5 ㄴ')의 ‘흐트러디다’는 ‘흐터디다’와 달리 머리카락 묘사에 주로 쓰인다.

4.5.3 ‘-을/을’ 파생 어근과 역형성

앞서 우리는 ‘우그러지다’가 ‘이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쭈그러지다’ 등의 자음·모음교체형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교체형 어근들은 술어 ‘윽다/윽다’에서 직접 파생된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어근이므로, ‘-을/을’ 접사를 경유한 파생 패러다임에서만 주로 확인된다.

그런데 교체형 어근이 역형성(back formation)을 거쳐 ‘-을/을’ 접사 없이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문에 기원을 알 수 없는 어근이 근대 시기에 갑자기 출현하여 ‘디다’ 결합 술어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표 4.5의 ‘으처디다’가 그러한 예이다. ‘으처디다’는 1796년의 『증수무원록언해』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어근 ‘[†] 웃-’은 단독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내용상 회복 불가능한 변화를 가리키는 술어임이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술어들이 ‘-을/을’ 파생 어근에서 역형성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 한다. ‘으처디다’는 ‘부스러지다’의 ‘부슬-’ 어간에서 발달한 자음교체형 ‘으출-’에서 역형 성된 ‘웃-’ 어근으로 구성된 술어가 ‘디다’ 표지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부수다’와 ‘브스다’처럼 양성모음 어근과 음성모음 어근의 짹이 있는 어휘들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그러한 짹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부수다’와 방언형 ‘보수다’가 그러한 예이다. 이들을 ‘-을/을’ 접사와 결합하여 ‘부스러지다’와 ‘보스라지다’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표 4.13의 ‘버스러지다’와 ‘바스라지다’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ㅡ’ 모음이 ‘ㅏ’ 모음으로, ‘ㅓ’ 모음이 ‘ㅏ’ 모음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한국어 역사 자료의 도처에 있으므로 그러한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바슬거리다’, ‘바실거리다’, ‘바삭’, ‘바사삭’, ‘벼석’, ‘벼서석’ 등의 형태를 추가로 고려하면, 모음교체에 의한 어근 형성도 이들 어휘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부슬-’ 어근의 모음교체형이 있다면, 자음교체형도 있을까? 가능성의 높은 후보는 자료와 사전에서 확인되는 ‘으스러지다’ 계통의 어휘들이다. ‘브즐우즐’, ‘우질부질’, ‘아득바득’과 같은 중첩 어근의 존재를 생각하면 한국어 의태어의 자음교체 유형으로 ‘ㅂ~ㅇ’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어 역사 자료와 《우리말샘》에서 확인되는 어형들을 이용하여 ‘부슬-’ 계통의 자음교체형 어근의 파생 패러다임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붓-	웃-	옻-	유-	윽-
-을] 어지다	부스러지다	으스러지다	으츠러지다	으끄러지다	으그러지다
-어지다	부서지다	으서지다	으처지다	-	-
-	부수다	-	-	으끄다	-
-이]	부시다	-	-	으괴다, 으끼다	-
-에/애	부세다	-	-	으깨다	-

표 4.15: ‘부슬-’계 어근 파생 패러다임

《우리말샘》에는 또 다른 격음화 형태 ‘으크러지다’도 수록되어 있지만 지면의 한계로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4.15에서 ‘부시다’는 ‘부수다’의 비규범 표기로 설명되어 있지만, 역사 자료에서 관찰되는 ‘뭉괴다’-‘뭉그러지다’, ‘엉괴다’-‘엉그러지다’, ‘어괴다’-‘어그러지다’ 등의 사례를 볼 때 ‘부스러지다’의 어근 ‘붓-’에 ‘-이’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으그리지다’를 《한불자전》에서 확인하면 ‘우글-’ 계통의 어휘로 보이지만, 《우리말샘》에서 확인하면 ‘부슬-’ 계통 사태와 ‘우글-’ 계통 사태의 양쪽에 관련된 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윽-’과 ‘붓-’이 모두 대상의 물성이 완전함을 잃도록 변형되는 사태이므로 변화의 잠재성을 서술하는 [(D)속성]으로 부호화되면서 의미가 합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6) ‘으글-’ 어근의 《한불자전》풀이

- ㄱ. 으그렷드리다 Fausser, courber, faire se racornir(망치다, 구부리다, 오그라뜨리다)
- ㄴ. 으그러지다 Pencher, être penché, se fausser, se bosseler, se racornir(구부러지다, 비뚤어지다, 망가지다, 찌그러지다, 오그라지다)

(107) ‘으글-’ 어근의 《우리말샘》풀이

- ㄱ. 으그려-지다 「001」「굳은 물건이 눌려서 부스러지다.
- ㄴ. 으그려-뜨리다 「001」「동사」【…을】물건의 거죽을 찌그러지게 하다.
- ㄷ. 으그려-뜨리다 「002」「동사」【…을】사개를 맞추어 만든 물건을 뭉그러지게 하다.

‘윽괴다’는 《한불자전》에 실려 있는데, ‘유-’ 어근에 ‘-이’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불자전》의 풀이를 살펴보면 현대 한국어의 ‘으그리지다⁰⁰¹’ 및 ‘으깨다’ 관련 어형임이 분명하다.

(108) ‘윽괴다’ 및 ‘으깨다’의 풀이 비교

- ㄱ. 익괴다 Écraser (un remède), piler, réduire en poudre(빻다(藥),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 《한불자전 33면》
- ㄴ. 으깨다 「001」「동사」【…을】굳은 물건이나 덩이로 된 물건을 눌러 부스러뜨리다. 《우리말샘》

‘부세다’는 《우리말샘》에 실려 있으며 ‘부수다’에 대응하는 중부방언(충남) 및 서남방언(전북)형이다. ‘부세다’와 ‘으깨다’에 결합하는 ‘-에/애’의 정체가 불분명해 보이지만, 동

사를 파생하는 접사의 역할을 하는 ‘-에/애’ 형태를 역사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방언형을 통해서 보건대 ‘-이’ 접사가 수의적 음운 변화를 겪은 형태로 생각된다.

(109) ‘-에/애’ 접사를 이용한 동사 파생 사례

- ㄱ. 암나비을 놀닌게 탁탁 건데인 후에 오줌을 쓰거든《잠상증요 16면, 1886년》
- ㄴ. 尊者의 가 밥 받잖고 따해 업데여 禮數^흐고 쑤리 합장^흐야《석보상절 24:34》

(110) 《우리말샘》방언 자료에 나타나는 ‘-이’ 와 ‘-에/애’ 형태의 대응

- ㄱ. 가세다「001」「동사」「방언」「가시다’의 방언(경북, 전남, 중국 흑룡강성).
니가 먼 그륵은 니 손으로 가세래이.
- ㄴ. 가새다「001」「동사」「방언」「가시다’의 방언(경북).
- ㄷ. 가레다「001」「동사」「방언」「가리다’의 방언(경상).
이것저것 가레다가는 아무것도 모 한다.
- ㄹ. 가래다「004」「동사」「방언」「가리다’의 방언(강원).

(109 ㄱ)은 ‘건 ㄷ.’ 어근에 ‘-에’가 결합한 구조로서 ‘건드리다’와 의미가 같다. 만약 이를 토대로 [작용] 술어 파생 접사 ‘-에’를 설정할 수 있다면, ‘으깨다’는 ‘유-’ 어근에 양성모음 짹 ‘-애’가 결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110)의 각종 방언형에서 ‘-이’ 형태에 대응하는 ‘-에/애’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슬-’ 계통 어근에서 어떻게 ‘으끌-’ 형태가 나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슬-’에서 ‘ㅂ’이 탈락하여 ‘으슬-’이 형성되고, ‘으슬-’이 격음화한 ‘으周恩-’이 형성된다. ‘미끄러지다’의 북한 지역 방언형 ‘미츠러지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으周恩-’을 매개로 하여 ‘으끌-’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으끌-’의 경음화된 형태라고 인식하면, ‘부슬-’에서 ‘으글-’까지 일련의 자음교체형들이 생겨난다.

이 ‘웃-’, ‘옻-’, ‘유-’ 어근은 ‘ㅂ’ 수다/브스다’에서 직접 발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에서

	윽-	익-	찌-	쭉-	쪽-
-을 어지다	우그러지다	이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쭈그러지다	쪼그라지다
	옹그러지다	일그러지다	찡그러지다	-	쏭구라지다
-을 이다	우그리다	-	찌그리다	쭈그리다	쪼그리다
	옹그리다	일그리다	찡그리다	쫑그리다	쫑그리다
-	윽다	-	-	-	-
-이	육이다	-	-	-	-
	옹괴다	-	찡괴다	-	-

표 4.16: ‘우글-’ 계 어근 파생 패러다임

‘ㅊ, ㅋ, ㄱ’까지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을’ 접사 파생어근에서 역형성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윽괴다’ 및 ‘으깨다’는 ‘부슬-’의 자음교체형 ‘으끌-’에서 역형성된 가상의 어근 ‘유-’에서 파생된 것이다.

‘-을/을’ 파생 어근의 자음교체형은 음절두음(onset)의 교체뿐만 아니라 음절 내 자음의 삽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말샘》에서 ‘으깨다’를 뜻풀이로 포함하는 방언형을 찾아 보면 ‘능깨다’, ‘능께다’, ‘닝끼다’ 등으로 다양한 음절 내 자음 삽입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다’ 표지 형에 자음이 삽입된 형태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다른 어근에서 확인해 보자. 표 4.16은 역사 자료와 《우리말샘》에서 확인된 어형으로 구성한 ‘우글-’ 계 모음·자음교체형 어근의 파생 패러다임이다.

표 4.16의 ‘옹그리다’와 ‘옹괴다’는 ‘우글-’ 어근의 자음교체형으로 ‘옹글-’이 발달하여 다시 ‘옹ㄱ-’ 어근이 역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년즈러지다’가 어떻게 생겨 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111) 한국어 ‘너즈러지다’와 ‘년즈러지다’ 사례

ㄱ. 九萬里 長空에 너즈러지고 남는 수랑 《가곡원류 135면, 1876년》

ㄴ. 九萬里 長空의 넌지리지고 남는 思郎 《악학습령 92면, 1713년》

(112) 《우리말샘》의 ‘Neill’ 어근 관련 풀이

- ㄱ. 너줄-너줄 「001」「부사」어떤 물건이 여기저기 길게 늘어서 있거나, 이야기를 조금씩 길게 풀어 나가는 모양.
- ㄴ. 너줄-하다 「002」「형용사」「방언」「어지럽다’의 방언(평안).
- ㄷ. 너즈러-지다 「001」「동사」【…에】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흩어지다.
- ㄹ. 너즈러-지다 「002」「형용사」여기저기 흩어진 모습이 너저분하다.

이러한 ‘-을/을’ 파생과 그로 인한 파생 패러다임은 언제부터 한국어에 있었던 것인가? 15세기 자료의 ‘뭣그럽다’를 고려하면 후기 중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 표 4.16의 ‘찡그리다’는 16세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13) 후기 중세 한국어의 ‘찡그리다’ 사례

이 다 하늘히 올히 아니 너겨 한어버스도 떠성애셔 필연 니마 빙그오 뒤 돋디 아 니虎리라 《정속언해 10면, 1518년》

그러므로 후기 중세 이전부터 ‘-을/을’ 접사 파생으로 이루어진 [(D)속성] 술어가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후기 중세 한국어 말기에 <변성> ‘디다’ 표지가 발달하면서 ‘-으러지다’ 형 어휘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주장을 토대로 ‘-을/을’ 파생 어간에 결합하는 문법 표지 ‘디다’ 사례를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찾아 관련된 어형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근	관련 어휘	‘으러디다’	관련 어휘	초출 시기
둘-, 돋-	돈다(후기 중세)	도드라디다,	두드러지다 ⁰⁰¹	후기 중세 (계속)

표 4.17: ‘디다’ 결합 술어 속성변화 유형: ‘-을/을’ 파생 어근 후행

어근	관련 어휘	'으러디다'	관련 어휘	초출 시기
육-, 옥-	육다, 옥다(근대)	도돌라디다, 두드러지다	우그러지다, 오고라디다, 오구러지다, 옹그라지다	우그러지다 ⁰⁰¹ 후기 중세
뭣-	뭣그럽다(후기 중세)	의스그러지다, 밋그러지다	미끄러지다 ⁰⁰¹	근대
못-	무지다(후기 중세)	무조러디다, 모조라지다	무지러지다 ⁰⁰¹ , 모지라지다 ⁰⁰¹	근대
움-, 옴-	우묵핥다, 오목핥다(후기 중세)	우무러지다	우므러지다 ⁰⁰²	근대
억-	어그彘다, 어괴다(후기 중세)	어그러지다	어그러지다 ⁰⁰¹	근대
잇-	잇다(후기 중세)	여즈러지다, 이즈러지다, 이즐어지다, 이지러지다, 이즈러지다, 니즈러지다	이지러지다 ⁰⁰¹	근대
찌-	찌글찌글	지그러디다	찌그러지다	근대
(계속)				

표 4.17: '디다' 결합 술어 속성변화 유형: '-을/을' 파생 어근 후행

어근	관련 어휘	‘으러디다’	관련 어휘	초출 시기
굽-, 곱-	굽다, 곱다(후기 중세)	구부러지다, 꼬부라지다	구부러지다 ⁰⁰¹	19세기 이후
넋-	너줄너줄 ⁰⁰²	너즈러지다, 년지러지다	너즈러지다 ⁰⁰¹	19세기 이후
벗-	벗다, 뱃다(후기 중세)	뒤버스러지다	버스러지다 ⁰⁰²	19세기 이후
빗ㄱ-	빗다(후기 중세)	빗구러지다	비꾸러지다 ⁰⁰¹	19세기 이후
뭉ㄱ-	뭉고다(근대)	뭉그러지다, 뭉구러지다	뭉그러지다 ⁰⁰¹	19세기 이후
산ㄷ-	산들산들 ⁰⁰³	산드러지다	산드러지다 ⁰⁰²	19세기 이후
솟-	솟다(후기 중세)	소소라지다	소스라지다 ⁰⁰¹	19세기 이후
엉ㄱ-	엉괴다(근대)	엉그러지다	–	19세기 이후
웃-, 웃-	으쳐디다(근대)	으스러지다	으스러지다 ⁰⁰¹ , 으츠러지다 ⁰⁰¹	19세기 이후
옳-, 옳-	옳다(후기 중세)	옴초라지다	옴츠러지다	19세기 이후
쭉-	쭈글쭈글,	쮸구러지다,	쭈그러지다,	19세기 이후
쪽-	쪼글쪼글(현대)	쫑구라지다	쪼그라지다	

표 4.17: ‘디다’ 결합 술어 속성변화 유형: ‘-을/을’ 파생 어근 후행

이상으로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디다’ 형태의 분포와 분포별 의미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향이동을 가리키는 본동사 ‘디다’와, 술어의 의미 유형을 변환하는 문법 표지 ‘디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 표지 ‘디다’는 종결성 [작용] 또는

[변성] 술어에 결합하여 [결과상태] 술어를 형성하는 <결과> 기능과 [변성] 술어를 형성하는 <기동>, <반사동>의 기능을 지녔으며, [상태] 술어에 결합하여 해당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종결성 [변성] 술어를 형성하는 <변성>의 기능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 때문에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법표지 ‘디다’ 각각의 사례에서 <결과>와 <기동>, <기동>과 <반사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접 의미 유형을 동형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디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술어뿐만 아니라 ‘디다’가 결합하는 술어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상태]-[변성] 동형 술어에 결합한 ‘디다’는 <변성>과 <결과> 사이에서 구분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디다’ 표지가 변형하는 <결과>, <기동>, <반사동>, <변성> 술어들은 서로 인접하는 사태 유형을 부호화한다. 이를 ‘디다’ 표지가 최초에 지녔던 문법적 의미 하나가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을 매개로 하여 다른 의미로 확장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의미 간의 확장 순서와 ‘디다’ 동사의 문법화 진입 환경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디다’ 문법화의 경로를 제안하겠다.

제5장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디다’ 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5세기 문헌이다. 그런데 4.3절에서 이 시기에 이미 종결성 [작용] 및 [변성] 술어를 변형하는 문법 표지 ‘디다’가 활발히 사용되었던 양상을 확인하였다. 4.2절에서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본동사 ‘디다’의 폭넓은 의미 확장 양상 및 ‘뼈러디다’가 ‘디다’를 대체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디다’의 의미 확장은 15세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며 ‘디다’의 주된 용법이 하향이동 동사에서 문법 표지로 옮겨가는 변화가 15세기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디다’의 문법화 진입은 최소한 15세기 이전에 일어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다’의 문법화 진입 환경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동사가 문법화를 겪을 때에 분포가 고정되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뼈러디다’ 등 고빈도로 나타나는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 동사가 ‘디다’의 문법화 진입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다’의 문법화 진입 시나리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관찰되는 문법 표지 ‘디다’가 문법화 초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듣다’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디다’의 하향이동 의미와 상태 변화의 관련성을 지향이동 동사와 비행위성 동사의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디다’의 문법화 진입 시나리오를 처소 변화 유형 ‘디다’의 구문 의미 평준화라는 개념을 통해 제안하고, 문법 표지 ‘디다’의 첫 번째 의미를 <결과>로 보아야 함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 <결과> 의미가 <기동>과 <반사동>을 거쳐 <변성>으로 확장되는 메커니즘으로 동형 부호화 전략을 제시하고, 현대 한국어의 비전형적 ‘지다’ 표지 용례를 들어 ‘디다’ 문법화의 진행 방향을 고찰하겠다.

5.1 15세기 ‘디다’의 문법화 진행 단계

4.2.1.2소절에서 후기 중세 한국어에는 ‘디다’에 의해 대체된 하향이동 동사 ‘듣다’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았다. ‘듣다’는 중력에서 순응하는 대상의 하향이동을 가리키므로, 지시하는 사태의 특성이 ‘디다’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 ‘듣다’ 역시 문법화를 겪었던 흔적을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후기 중세 한국어 ‘듣다’의 문법화 흔적

- ㄱ. 블로듸 돌 불고 집 앓피 녀르미 덥고 이온 나못 가지예 고지 헤드렛도다《唱出明月堂前九夏煩蒸枯木枝頭千花爛熳》《십현답요해 31면》
- ㄴ. 그르맷 돌히 빠디고 프른 심남기 것듣놋다(江石缺裂青楓摧)《두시언해 12:23》
- ㄷ. 굿드루미 이실씨니라(有間斷故)《월인석보 11:50》
- ㄹ. 이읊 나래 남지늬 모미 괴흐며 헤물어 삐 글희드렛거늘《월인석보 10:24》
- ㅁ. 堂閣이 늘가 담과 뿐래 므로드르며 긴 불휘 석고 보하며 물리 기울어늘자《월인석보 12:21》
- ㅂ. 나올 닷쇄에 그 힝역이 …쁘듣고 보힌 젓벗 곧고 즈최오 갈커든 십일미목향산 달한 므레 칠미육두구원을 습셔 누리우라《창진방촬요 25면》

(1)은 동사 어간에 직접 후행하는 ‘듣다’ 사례를 동사별로 하나씩 제시한 것이다. 이 ‘듣다’는 하향이동 사태를 나타내지 않으며, ‘듣다’가 결합한 전체 술어는 ‘듣다’에 선행하는 동사가 지시하는 상태 변화 사태를 대상을 주어로 삼아 서술한다. (1)에 사용된 대부분의 ‘듣다’ 변형 술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디다’ 변형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문법 표지 ‘듣다’는 문법 표지 ‘디다’와 마찬가지로 자동사, 타동사, 자·타 양용동사를 가리지 않고 종결성 [작용] 및 [변성] 술어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듣다’ 표지는 ‘디다’ 표지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결합하는 술어를 변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태를 서술하는 ‘듣다’와 ‘디다’의 사례이다.

(2) 문법 표지 ‘듣다’와 ‘디다’의 술어 변형 방식 비교

目連이 쪼 가다가 흔 갈즈게 地獄을 보니 南閻浮提옛 衆生이 갈즈겟 그테 이셔
소누로 갈즈게를 자부니 무득무득마다 글희듣거든 발로 痞山을 드퇴니 즈다 무득
다 글희여디거늘 《월인석보 23:79》

(2)에서 ‘글희여디다’와 ‘글희듣다’는 ‘글희다’ 사태를 손과 발을 주어로 삼아 손발이
마디마디 잘리는 사태를 서술한다. ‘디다’ 표지가 선행 술어의 ‘-아/어’ 어미 활용형에 결
합하는 데 비해, ‘듣다’ 표지는 선행 술어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는 술어와 술어가 연결될 때에 문법 표지 ‘듣다’와 같이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합성법이 있다(허웅 1975:116–129). 이는 현대 한국어에 ‘오르내리다’, ‘보살피
다’, ‘검붉다’ 등의 합성어로 흔적이 남아 있다. 다음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사용되던
술어 어간 직접 합성의 예이다.

(3) 후기 중세 한국어의 술어 어간 직접 합성 예(허웅 1975)

- ㄱ. 그듸 이제 죽살 짜해 가누니(君今死生地) 《두시언해 8:67》
- ㄴ. 조티 아닌 거시 흘러 넘띠여 구더기 잇논 짜히라(不淨流溢 蟲蛆住處) 《선종영
가집언해 상:35》
- ㄴ' 瓶의 물이 띠며 다돈 이피 열어늘 《월인석보 7:6》
- ㄷ. 불근 果實은 가지예 므르니거 하도다(朱果爛枝繁) 《두시언해 15:13》

위와 같은 어간 직접 합성법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확인되나 그 이후 쇠퇴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역사에서 15세기 전반 이전에 ‘-아/어’ 어미에 의한 술어 연결이 어간
직접 합성을 대체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5세기 전후로 한국어사에서
일어난 변화들 가운데 ‘디다’와 관련된 것을 순서대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사 ‘디다’의 동사 ‘듣다’ 대체
- ‘-아/어’ 어미의 어간 직접 합성법 대체

- 문법 표지 ‘디다’의 문법 표지 ‘듣다’ 대체
- 동사 ‘뼈리디다’의 동사 ‘디다’ 대체
- 문법 표지 ‘디다’의 <변성> 의미 출현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문법 표지 ‘디다’가 술어 어간에 직접 합성되는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¹⁾ 그러므로 ‘디다’의 문법화가 ‘-아/어’ 어미가 동사 어간 직접 합성법을 대체하기 시작한 이후에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 어간 직접 합성법을 따르는 문법 표지 ‘듣다’가 16세기까지도 어느 정도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 쇠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디다’의 문법화 진입 시기는 15세기에서 그리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아/어’ 어미를 매개로 동사에 결합하는 ‘디다’ 사례를 살펴보면 ‘디다’ 동사의 문법화 진입 환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디다’가 본동사와 문법 표지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해당 환경에 출현하는 술어가 고빈도이면서 다양해야 한다.

첫 번째의 중의성 조건은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이해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야 언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의 빈도 조건은 빈도 효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가정하고 있는 발생적 어휘부 모형에서 문법 표지는 언어 사용자가 경험한 자극들 간의 부분적 중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문법 표지로서 독립된 표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다’가 결합한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디다’가 결합한 다양한 형태들이 고빈도일 필요가 있다. ‘디다’가 결합한 특정한 형태가 고빈도로 사용되면 이는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표상을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Bybee 2007b).

이 글에서는 그러한 환경으로 ‘뼈리디다’와 ‘업더디다’ 류의 쳐소 변화 유형 ‘디다’를

1) 본동사 ‘디다’가 술어 어간에 직접 합성되는 사례는 확인된다.

丈夫는 쪼이 드리딘 거문 紗로 흔 帛頭 | 며 …뵈로 角帶를 뺄디니 《가례언해 9:23》

주목한다. ‘떠러디다’ 류의 하향 이동 술어는 ‘떠러디다’, ‘떠디다’, ‘뼈디다’, ‘쳐디다’ 등의 다양한 고빈도 술어와 ‘디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업더디다’ 류의 쓰러짐 사태 술어 또한 ‘업더디다’, ‘업더러디다’, ‘갓그라디다’, ‘갓고로디다’, ‘잿바디다’ 등의 다양한 고빈도 술어와 ‘디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 ‘디다’가 나타내는 하향이동과 상태 변화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이러한 ‘디다’ 결합 술어가 어떻게 의미적 중의성을 지닐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2 ‘디다’ 문법화의 유형 분류

이 글의 핵심 주장은 하향이동 동사 ‘디다’가 종결성 상태 변화 술어의 의미 유형을 [결과상태]로 변형하는 <결과> 표지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하향이동 동사가 어떻게 그러한 의미로 재분석될 수 있는가? 이 절에서는 지향이동 동사가 상태 변화와 관련된 문법 표지로 발달하는 변화와, 비행위성 자동사가 피동 표지로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상태 변화 관련 경로를 들어 ‘디다’와 상태 변화의 의미적 관련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5.2.1 지향이동과 상태 변화

지향이동(directed motion)이란 어떤 것이 움직임으로써 처소에 변화가 생길 때에 그 움직임의 방향이 지정된 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가다’가 가리키는 이동은 화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고, ‘오다’가 가리키는 이동은 화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다. 지향이동 동사는 대개 ‘가다’와 ‘오다’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나다’와 ‘들다’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황국정(2015)에서는 15세기 한국어의 이동 동사를 연구하면서 단일어 23개와 ‘-아/어’ 계 합성동사 41개, 어간합성동사 3개의 예를 검토했는데, 모두 자동사일뿐더러 ‘-아/어’ 계 합성동사의 대부분이 ‘오다’와 ‘가다’, 그리고 ‘나다’가 합성된 것이었다. 특히 지향이동 동사로서 ‘떠러디다’를 들면서도, 동일한 의미의 ‘디다’는 지향이동 동사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황국정(2015)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어사 연구에서 ‘디다’를 지향이동 동사로 다루지 않는다.² 만약 ‘가다, 오다, 나다, 들다’와 같은 유형만을 지향이동 동사로 다룬다면, 이동 사건을 행위주(agent)가 처소 변화를 겪는 사건으로 좁게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황국정(2015)에서는 대상(theme)이 처소 변화를 겪는 ‘떠러디다’를 지향이동 동사로 분류하였다. ‘떠러디다’에서 처소 변화를 겪는 것은 행위주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떠러디다’를 지향이동 동사에서 배제하거나, ‘디다’를 지향이동 동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법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향이동 동사를 연구하려면, ‘오다’, ‘가다’뿐만 아니라 ‘디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지향이동 동사를 정의해야 한다. 남승호(2000)에서 제안한 이동 동사의 정의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용하다.

- 의미 기준을 이용한 이동 동사의 정의 및 하위 분류(남승호 2000:233)

정의 어떤 동사가 쓰인 문장이 그 동사의 논항 가운데 하나가 위치를 바꾸었음을
함의할 때 그 동사를 이동 동사라 한다.

행위주-이동 동사 그 동사의 행위주 논항이 이동함을 함의할 때.

대상-이동 동사 그 동사의 대상 논항이 이동함을 함의할 때.

- 이동 사건의 참여자(남승호 2000:241)

이동 논항 행위주, 대상

이동 궤도 논항 착점(goal), 기점(source), 방향(direction), 경로(path)³

이 정의는 동사의 의미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 안에 이동이

2) ‘디다’를 지향이동 동사로 다룬 사례로 Rhee(1997)과 박민정(2005)를 들 수 있다.

3) 남승호(2000)에서는 이동 궤도 논항을 ‘위치(location)와 관련된 논항’으로 불렀고, 남승호(2003)에서는 ‘경로 논항’으로 불렀다. 그러나 전자는 고정된 지점을 연상시키는 텃에 방향과 경로를 포함하는 상위 분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후자는 경로 논항의 종류로 다시 경로(path)가 제시되기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지언어학의 이동 동사 논의에서 궤도(trajectory)라는 용어를 빌려 왔다.

포함되면 모두 이동 동사로 분류한다. 이는 역사언어학의 관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 문법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어휘가 특정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통사적 기준을 사용해서 이동 동사를 정의하기도 한다(홍재성 1982). 그러나 역사언어학에서 자료를 다룰 때에는 관찰할 수 있는 어휘의 분포가 제한되므로, 통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통사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의미 기준을 이용하여 이동 동사를 정의하면 동사가 서술하는 내용을 토대로 삼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유익하다. 또한 이 정의는 이동 동사를 자동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버리다’, ‘두다’, ‘넣다’처럼 대상의 이동을 가리키는 타동사가 빈번히 문법화를 겪는 것을 지향이동 동사의 문법화로 다룰 수 있도록 해 준다.

‘디다’를 지향이동 동사로 분류하면, 현대 한국어의 문법 표지 ‘지다’가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에 답할 수 있다. 이 주장은 하향이동을 뜻하는 ‘디다’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지다’의 의미가 어떻게 연관되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향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상태 변화에 관련된 문법 표지로 발달하는 사례를 많은 언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가다’가 <변성> 표지로 쓰인 사례이다.

(4) 15세기 한국어 ‘가다’의 <변성> 표지 용법

- ㄱ. 너븐 싸히 뵈야호로 니서 기러 가놋다(廣地方連延)《초간 두시언해 6:36》
- ㄴ. 나문 더위 쪘 ھ마 업서 가놋다(餘熱亦已未)《초간 두시언해 10:24》
- ㄷ. ھ마 기장 콩이 노파 가물 깃노라(已喜黍豆高)《초간 두시언해 12:11》

(5) 20세기 초 한국어 ‘가다’의 <변성> 표지 용법(김선영 2016:172)

- ㄱ. 죽는 군수는 점점 더 만하 가며《독립신문 1896년》
- ㄴ. 시험을 밖을수록 새로워 가느도다《던로력령 1:86》

ㄷ. 춘분 절기 후에는 디구가 점점 남으로 가서 날이 길어 가고 일그가 온화하여
《신학월보 5:142》

(4-5)의 각 용례에서 ‘가다’는 [상태]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아/어’ 활용형에 결합하여 대상이 해당 [속성]을 취득하거나 해당 [상태]로 전이되는 변화 사태를 서술한다. 이 중 (4)와 같은 후기 중세 한국어 사례들은 형용사가 동사로 전용되어 변화 사태를 서술하고 ‘가다’는 상 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이 글은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형용사에 결합한 ‘지다’를 <변성> 표지로 분석할 수 있다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가다’ 또한 <변성> 표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형용사에 ‘가다’가 결합하는 사례에서 상태 변화의 의미를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아니라 ‘가다’에서 찾는 김선영(2016)의 견해를 지지한다.

앞서 4.4.2소절에서 형용사가 서술하는 [상태] 또는 [속성]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략으로 [속성]-[상태]-[변성] 동형 전략과 <변성> 표지를 이용한 변형 전략이 경쟁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4-5)의 사례를 통해 <변성> 표지의 후보로 ‘디다’뿐만 아니라 ‘가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문법화 경로를 밟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표지들이 해당 기능 영역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는 언어 변화에서 흔히 확인된다. <변성> 표지 ‘디다’와 ‘가다’ 또한 그러한 경쟁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다’, ‘오다’, ‘디다’ 등의 지향이동은 특정한 기점에서 특정한 착점으로의 이동을 서술한다. 이를 추상적 차원으로 투영하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상태로의 이동이 된다. 이동 동사마다 기점, 착점, 경로 등 이동 궤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른 문법화 경로를 걷지만, 그 과정에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단계를 모두 거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밖에서 ‘디다’와 같은 하향이동 동사가 상태 변화 관련 표지로 문법화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 당장 3장에서 영어의 ‘fall -ing’ 구문이 기동상 표지로 분석되었던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해당 분석에서 기동상은 변화 사태 술어에 결합하여 해당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므로, 이는 대상의 하향이동을 가리키는 술어가 변화와 관련된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 ‘디다’가 상태 변화와 관련된 문법 표지로 발달하는 것은 지향이동 동사가 일반적으로 겪는 문법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5.2.2 비행위성 자동사와 상태 변화

‘디다’가 서술하는 지향이동에서 이동을 겪는 대상은 행위주성이 없어서 자신의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동의 원인 사건이 성립하면 반드시 착점까지 도달한다. 또한 이동의 원인 사건을 일으킨 행위주의 영향력은 원인 사건에서 종료되며 대상의 이동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는 낙하를 뜻하는 ‘디다’뿐만 아니라 쓰러짐 사태를 서술하는 ‘디다’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하향이동 동사 ‘디다’가 지니는 문법적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사건 참여자는 하나이다.
- 사건 참여자는 행위주성이 없다.
- 대상이 겪는 변화 사태가 발생한다.
- 대상이 겪는 변화의 결과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한국어 ‘디다’를 Haspelmath(1990)에서 제안된 비행위성(inactive, non-agentive) 자동사 유형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논의에서 비행위성 자동사는 범언어적으로 피동 표지로 발달하는 어휘들 중 일부의 공통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문법 표지 ‘디다’가 오랫동안 피동 범주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다’의 문법화는 비행위성 자동사가 피동 표지로 발달해 가는 문법화 유형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Haspelmath(1990)에서는 ‘fall’, ‘be’, ‘become’ 등을 비행위성 자동사의 예로 들고,⁴⁾ ‘fall’ 술어에서 피동 표지가 발달하는 유형으로 한국어의 ‘ji > -ji’, 타밀(Tamil) 어의 ‘paṭu > paṭ’, 통가(Tonga) 어의 ‘gua > -igu’ 사례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Heine and Kuteva(2002)에

4) Haspelmath(1990:38–39)에서는 이외에도 에콰도르 케추아(Ecuadorian Quechua) 어에서 ‘go’에 해당하는

서도 지적하였듯이, ‘fall’ 유형의 하향이동 동사가 어떠한 의미 변화를 거쳐 이러한 문법화 경로를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내용이 적다.

그러나 문법화의 일방향성을 고려할 때, ‘디다’와 비슷한 유형의 동사들이 문법화를 거칠 때 어떠한 경로를 밟는지 확인하는 것은 ‘디다’ 문법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Haspelmath(1990:38-40, 54)의 요약에 따라 비행위성 자동사가 피동 표지로 문법화하는 경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nactive auxiliary (+passive participle) > (resultative) > passive > \emptyset (ergative)

위 경로에서 “inactive auxiliary (+passive participle)”과 “resultative”는 해당 문법 표지의 형태론적 지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의에서 “passive participle”은 그 의미 특성을 보면 “resultative participle”로 바꾸어 불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 표지의 기능 측면에서만 보면 이 둘을 ‘resultative’로 합칠 수 있다. Haspelmath(1990)에서 사용된 문법 범주들의 정의는 Haspelmath(1987)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해당 논의의 “resultative”는 Nedjalkov(1988)의 “resultative”와 호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 경로의 ‘resultative’는 이 글의 <결과> 범주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에 적용하면, 15세기의 <결과> 표지 ‘디다’는 비행위성 자동사 ‘디다’가 문법화에 진입한 첫 단계가 된다. 그렇다면 16세기의 ‘디다’가 나타내는 <변성> 의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Haspelmath(1990:55)에서는 비행위성 자동사가 “resultative”를 거쳐 피동으로 문법화하는 경로에 “fientive” 단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변성> ‘디다’가 바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어휘가 피동 표지로 문법화한 사례를 비행위성 자동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왜 ‘go’가 비행위성 자동사로 분류되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논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5) 또한 Haspelmath(1990:55)에서는 피동 표지로의 문법화 경로에 “potential passive”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현대 한국어 ‘지다’의 가능 용법을 고려

피동의 문법화 경로에 “fientive” 단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은 Haspelmath(1987)의 논의를 토대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Haspelmath(1987)은 반사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문법 범주들을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로서, 범언어적으로 두 범주가 표지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범주들이 인접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두 문법 범주가 표지를 공유한다면, 해당 범주들이 해당 표지의 문법화 경로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Haspelmath(1987)에서 제안된 범주 간 인접 관계 중에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resultative – passive – potential passive – anticausative
- resultative – anticausative – fientive – inceptive
- resultative – anticausative – inceptive

Haspelmath의 두 논의는 각각 반사동과 피동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법화 경로가 해당 범주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을 <결과> 표지로 옮기면, Haspelmath(1990)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문법화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법화 경로 및 문법 범주 간 인접 관계를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결과>에 관련된 문법화 경로에는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가 존재한다.⁶

하면 최소한 비행위성 자동사가 피동 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에 “potential passive”로의 분기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과>에 관련된 문법화 경로를 구성하는 범주는 이 다섯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수경(2011b)은 현대 한국어 문법 표지 ‘지다’가 위 목록의 ‘passive, potential passive, anticausative, fientive’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행위주가 의지 없이 해당 사태를 일으키는 무의도(unintentional) 의미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즉, “potential passive” 외에도 양태 관련 범주가 이 경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Nedjalkov(1988)에서는 “resultative”와 표지를 자주 공유하는 범주로 “anticausative”와 “passive” 외에도 “perfect”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상 범주가 <결과> 표지의 문법화 경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Haspelmath(1987)에서 “resultative”와 “inceptive” 간의 관련이 지적된 것이나, 영어의 ‘fall -ing’ 구문이 기동상으로 분석된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한국어의 ‘지다’ 분석에서 기동상이 중요한 주제어가 된 것은 이렇듯 <결과> 범주와 상 범주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anticausative
- fientive
- passive
- potential passive
- resultative

〈결과〉 표지의 문법화 경로를 구성하는 범주는 위의 다섯 가지 외에도 더 있을 것이지만, 한국어 ‘디다’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범주는 “anticausative”, “fientive”, “resultative”이다. 이 글에서 정의한 범주로는 각각 〈기동〉 및 〈반사동〉, 〈변성〉, 〈결과〉에 해당한다. 현대 한국어의 ‘지다’조차 아직 피동 표지로의 발달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 ‘지다’는 단독으로 행위주에 격을 할당하지 못하고 ‘의하다’를 매개로 삼는다. 그러므로 ‘에 의해’ 형태가 더 축약되지 않는 한, ‘디다’의 문법화는 아직 〈기동〉과 피동 사이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지금까지 ‘디다’가 나타내는 하향이동 의미와 상태 변화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하향이동에서 문법적 의미가 해석되어 나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향이동에서 〈결과〉로 재해석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 〈기동〉과 〈반사동〉을 거쳐 〈변성〉으로 재해석되는 과정도 분석이 필요하다. 문법 표지가 새로운 기능을 얻는 것은 대개 빈도 증가에 의한 문법화의 진행으로 설명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그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의미적 중의성의 발생 과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의미적 중의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접 사태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을 들고 ‘디다’로 변형된 술어들이 인접 사태 유형을 부호화하는 동형 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다음 절부터 ‘디다’

7) 이 주장은 현대 한국어 공시 분석에서 ‘지다’를 피동 표지로 분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2장에서 강조했듯이, 이 글은 모든 언어의 사례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문법 기술의 효율성을 포기하고 각 문법 범주를 매우 좁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 문법화 과정을 진입 단계와 진행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5.3 ‘디다’의 문법화 진입

이 절에서는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뼈리디다’ 류와 ‘업더디다’ 류의 처소 변화 유형 ‘디다’를 문법화 진입 환경으로 지적하고, 이 문법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구문 의미 평준화를 제안한다. 구문 의미 평준화는 형태론에서 논의되는 활용형 패러다임 평준화를 구문의 의미 층위에 적용한 것으로서, 발생적 어휘부 모형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경험한 언어 자극의 부분 중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독자적인 의미 표상을 갖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는 선행 술어가 나타내는 원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낙하 혹은 쓰러짐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명시한다. ‘디다’가 나타내는 처소 변화는 원인 사건이 종료되는 순간 발생하고 반드시 그 결과 상태까지 도달하므로, 언제나 [결과상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4.2.2.1소절에서 이동 동사는 이동에 부수되는 결과 사태도 함께 부호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디다’가 쓰러짐 사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부속 사건 확장이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에 선행하는 술어에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유형의 ‘디다’는 변화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잉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결과 사태 강조 용법이 <결과> 범주로 발달하고, <결과> 의미가 다시 <기동> 등으로 확장된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 구문 의미 평준화의 개념과 ‘디다’의 결과 사태 강조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5.3.1 구문 의미 평준화

앞서 2.2절에서 문법화는 구문 단위로 일어나며, 이 구문은 최소한 언어 처리 층위에는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단어, 구, 절 등의 경계가 문법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언어 사용자들은 종종 이를 단위의 경계를 넘는 형태소의 연속을 하나의 단위로 인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연어(collocations)와 숙어(idioms)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단위이다.

이 구문 단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글에서는 구문이 언어 사용자들이 처리하는 형태소 연속체의 빈도에 기반하여 형성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가정은 Kuhl(2000)에서 요약된 통계와 확률 기반 언어 학습 모형에 기반한다. 이 모형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실험들 중에는 연속된 발화에서 아기들이 음소 간 전이 확률을 이용하여 음절 및 단어 경계를 나눈다는 발견도 있다(Kuhl 2000:11852–11853).

통계와 확률 기반 언어 학습 모형에서는 아기들의 이러한 능력을 인간의 인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는 성인의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어 사용자는 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언어 자극을 빈도 기반으로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⁸ 단어 경계를 넘는 구문이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 처리 층위이다.

‘떠러디다’, ‘떠디다’, ‘믈러디다’, ‘도라디다’, ‘누려디다’ 등 동사에 ‘디다’가 ‘-아/어’ 어미를 매개로 후행하는 사례들을 처리할 때마다, ‘[[]어] 디다’로 이루어진 단위를 처리하는 경험이 반복된다. 모든 인지 과정이 그러하듯,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동화가 일어나 자주 반복되는 형태소 연쇄가 하나의 단위로 재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 디다’의 연쇄에서 ‘[]어디다’의 구문이 발달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어] 디다’ 연쇄 처리가 반복됨으로써 자동화되는 것은 형태 구조만이 아니다. 이 연쇄에서 반복되고 있는 ‘디다’의 해석 또한 여러 사례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상화될

8) 기계를 이용한 자연 언어 처리의 토큰화보다 인간의 토큰화 정확성이 높은 것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의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 처리 방식을 기계의 비유를 통해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지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 모형은 항상 당대의 가장 발전된 기계의 처리 방식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이 글 역시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것이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 언어 사용자는 형태, 단어, 구문의 의미를 적당히 추상화하여 기억하며 자신이 접한 표현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규정하는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6) 현대 한국어 속어 ‘지르다’의 의미 추상화

- ㄱ. 평소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40% 할인행사에 과감하게 질렀(?)습니다.⁹
- ㄴ. 면세점도 미친 세일기간이라 정신차리고 필요한? 것만 질렀음¹⁰
- ㄷ. 아리따움 모디네일 1+1과 네일소품 50% 할인을 맞아 오늘 저도 소소하게 질렀습니닭ㅋㅋ 저거 다 합한 가격이 3만원이었어용ㅋㅋ¹¹
- ㄹ. 중소기업한테는 ‘갑’노릇하던 통신사들, ‘슈퍼갑’ 애플의 아이폰6 팔아보겠
다고 한도를 넘는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말 그대로 ‘질렀습니다.¹²

현대 한국어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속어 ‘지르다’는 (6 ㄱ)과 같이 ‘필요성이 없는 비싼 것을 사다’를 뜻한다(이경수 2009). 이 단어는 2004년에 신조어로 포착되었는데,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세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6 ㄴ)처럼 단순히 ‘비싼 것을 사다’를 의미하거나, (6 ㄷ)처럼 ‘필요 없는 것을 사다’를 의미하거나, (6 ㄹ)처럼 ‘곤란함을 무시하고’ 강행하다’로 쓰이는 등이다.

첫번째와 두번째가 ‘지르다’가 원래 지녔던 의미의 일부로 좁혀진 것이라면, 세 번째는

9)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5.12.31] “[오마이소비자] 짹짜이 색상에 왼쪽만 2개 운동화…할인 상품이라서?”
(2019년 11월 10일 접속)

10) oliveia [2015.7.16] 네이버 블로그 <https://oliveia.blog.me/220422009370> (2019년 11월 10일 접속)

11) sol_2love [2018.4.1]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l_2love/221242626940 (2019년 11월 10일 접속)

12) 연합뉴스TV [2014.12.7] “[한주간 기업기상도] ‘한 주 쾌청’ 기업 VS ‘내내 흐림’ 기업” (2019년 11월 10일 접속)

심리적 저항감을 넘어서 행동에 옮긴다는 측면을 부각하여 ‘지르다’가 사용되는 맥락을 넓힌 것이다.¹³⁾ 이러한 확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르다’의 원래 의미를 구성하는 ‘비싸다’와 ‘필요없다’의 판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르다’의 논항으로 실현되는 품목이 다양해질수록 각각의 ‘지르다’ 사례의 공통점은 줄어든다. 그로 인하여 ‘지르다’ 술어가 부호화하는 사태가 점점 추상화하면서, ‘지르다’가 사용될 수 있는 맥락도 점점 넓어진다. 그 확장의 결과가 (6ㄴ-ㄹ)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단어의 의미 차원에서 일어난 평준화(leveling)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에서 논의되는 패러다임 평준화(paradigm leveling)는 특정한 단어의 기저형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때, 같은 패러다임에 속하는 다른 단어들과 동일한 기저형으로 수렴하는 변화를 말한다(엄상혁 2018). 단어의 활용 패러다임 또는 파생 패러다임을 단어의 사용 맥락으로, 단어의 기저형을 단어의 의미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사용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의미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하는 의미 추상화가 형태론의 패러다임 평준화와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 평준화가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에서 발생함으로써 ‘디다’의 문법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본동사 ‘디다’는 결합하는 선행 동사에 따라 다양한 사태를 부호화할 수 있다. ‘흐르다’에 결합하면 물이 표면을 타고 이동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사태를, ‘갓골다’에 결합하면 사람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지는 사태를 서술한다. 이렇게 다양한 ‘디다’ 동사가 다양한 술어에 후행하여 선행 술어의 결과 사태를 서술하면서, 선행 술어와 관련된 결과 사태의 발생을 나타내는 ‘[]어디다’ 구문이 발생한 것이 ‘디다’ 문법화의 시작이 된다. 이는 구문 단위에서 의미 층위에 일어나는 변화이므로 구문 의미 평준화로 명명하기로 하자.¹⁴⁾ 다음 소절에서는 구문 의미 평준화의 압력이 ‘디다’ 표지의 문법화 진행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보겠다.

13) 신조어 ‘지르다’가 아닌 기존의 ‘지르다’ 동사로 이 용례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으나, 뉴스 스크립트에서 훌따옴표로 강조한 것을 보면 속어 ‘지르다’를 의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14) 이와 유사한 발상으로 구문 패러다임의 재구조화를 탐구한 연구로 Schöslar(2010)을 들 수 있다.

5.3.2 처소 변화 ‘디다’와 <결과> 표지 ‘디다’

하향이동 동사 ‘디다’는 문법화 과정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의미 탈색을 거쳐 2차 문법화를 겪었으며, 문법 표지로서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낙하 사태와의 연결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동사 ‘디다’는 수반 사태로 확장된 ‘(해가) 지다’, ‘(잎이) 지다’와 ‘(시험에) 지다’에 흔적을 남기고 ‘떠러디다’로 대체되었으며, 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세 번째 용법도 ‘떨어지다’로 대체되었다.

4.2절에서 확인한 ‘디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고려하면, 후기 중세 이전의 본동사 ‘디다’는 최소한 세 가지 사태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상의 물리적 낙하, 식물의 시듦, 그리고 쓰러짐이다. 식물의 시듦을 의미하는 ‘디다’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편이어서 다른 동사와 복합 사태를 구성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 의미의 ‘디다’는 문법화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4.3절에서 살펴본 대로, 낙하 사태 술어 ‘디다’와 쓰러짐 사태 술어 ‘디다’는 원인 사태를 부호화하는 술어에 후행하여 원인-결과의 복합 사태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7) 동사와 ‘디다’의 조합으로 서술된 원인-결과 복합 사태

ㄱ. 비록 害害 뽀들 니루와다 큰 블구데 미리 디여도 더 觀音力を 念하면 블구다
變하야 모시 ㄷ. 외며(假使興害意 推落大火坑 念彼觀音力 火坑變成池《妙法蓮華經卷第七》)《월인석보 19:42-43》

(참고) 시혹 須彌峯의 이서 누미 미리와다 떠러디여도 더 觀音力を 念하면 히
虛空애 住 旱 ㅎ. 며(或在須彌峰 為人所推墮 念彼觀音力 如日虛空住《妙法蓮華經卷第七》)《월인석보 19:43》

ㄴ. 羅卜이 그 말 듣고 모몰 싸해 부드터 디니 터럭 구무마다 피 흐르더니 싸해
것무루주거 오래 잇거늘 그 어미 아들 마즈라 나와 아드를 보니 싸해 디엣거늘
《월인석보 23:74》

(7ㄱ)은 타동사 ‘디다/tiy’와 자동사 ‘디다/ti’ 중에서 무엇이 사용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대구를 이루는 (7ㄴ)을 통해 보건대 자동사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밀다’의 주체는 해할 뜻을 일으킨 사람이다. 따라서 악인이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태를 서술한 것이다. (7ㄴ)은 나복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땅에 거세게 몸을 던져 쓰러지는 사태를 서술한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나복의 어머니가 나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므로, 몸을 던지는 사태는 원인이고 쓰러짐 사태는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이렇게 다른 동사와 함께 원인-결과 복합 사태를 서술하는 본동사 ‘디다’는 결과 사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4.2.2.1소절에서 다루었듯이, 원인과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수반하는 사태로서 동시에 하나의 술어로 부호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인 사태 술어에 후행하여 결과 사태를 서술하는 ‘디다’ 동사는 맥락상 추정 가능한 정보를 굳이 명시하는 강조 표현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떨어지다’에서도 그러한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8) 결과 사태 강조 전략으로서의 술어 덧쓰기

- ㄱ. 고양이가 컵을 책상 밖으로 밀었다.
- ㄴ. 고양이가 컵을 책상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 ㄷ. 현서가 계단에서 굴렀다.
- ㄹ. 현서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8ㄱ, ㄴ)과 (8ㄷ, ㄹ)이 서술하는 사태는 각각 동일하다. 그러나 ‘떨어뜨리다’와 ‘떨어지다’를 이용해 원인 사건에 직접 후행하는 결과 사태를 명시한 (8ㄴ, ㄹ)이 결과 사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서술로 해석된다.

‘떨어지다’나 ‘디다’와 같은 낙하 사태 술어들은 이동의 원인을 서술하는 술어와 결합하면 원인-결과로 이어진 하나의 사태를 서술하는 것으로 재분석되기 쉽다. 낙하 사태는 이동 대상이 이동에 통제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인 사태가 성립하는 순간 낙하 사태가

시작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하나의 큰 사태로 재분석될 수 있다. 또한 낙하의 원인을 나타내는 동사는 그 스스로도 이동 동사이므로, 부속 사건인 결과 사태를 단독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인이 되는 이동 사건이 성립했다면 반드시 낙하가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8ㄴ, ㄹ)의 ‘밀어 떨어뜨리다’, ‘굴러 떨어지다’와 같은 술어에서 ‘밀다’와 ‘구르다’는 수평이동 사태만을 가리키는 해석과, 수평이동에 이은 하향이동으로 구성된 사태를 가리키는 해석의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떨어지다’를 이동 동사가 아니라 문법 표지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낸다. 다음은 현대 한국어의 ‘떨어지다’가 하향이동이 아니라 결과와 관련된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이다.

(9) 현대 한국어 ‘떨어지다’의 결과 관련 의미 확장

- ㄱ. 처소 변화 : 굴러떨어지다, 나가떨어지다
- ㄴ. 상태 변화 : 끓아떨어지다, 나누어떨어지다, 노그라떨어지다, 녹아떨어지다,
맞아떨어지다, 얼어떨어지다

(9)의 각 어휘들은 현대 한국어의 ‘떨어지다’가 ‘지다’ 표지처럼 상태 변화와 관련된 추상적인 의미를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떨어지다’가 결합한 처소 변화 유형의 술어가 지니는 의미 중의성과 ‘떨어지다’의 의미 확장 양상으로 미루어 보면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가 문법화에 진입할 때에 일어난 변화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다.

다양한 원인 사태 술어에 결합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디다’의 의미를 하나로 포착하면, 불특정한 변화 술어에 결합하여 그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향이동에서 벗어난 추상적 의미를 얻은 ‘디다’는 ‘떨다’, ‘밀다’, ‘쁘다’ 등 낙하의 원인 사태를 서술하는 술어 외에도 ‘겄다’, ‘궂다’ 등 결과가 발생하는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에 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디다’ 표지가 서술하는 결과 사태 중에서 중력에 따른 낙하 사태는 대상에 일어난 변화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력에 역행하는 양력이 자연 발생하는 사태가 없기

때문이다. 처소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는 하향이동 사태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므로, 문법화 초기의 ‘디다’ 표지가 나타내는 결과 또한 회복 불가능한 결과였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4.3.2절에서 확인한 상태 변화 유형의 ‘디다’ 결합 술어의 유형별·시기별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표 4.5에 제시된 회복 불가능한 <결과> ‘디다’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가장 활발히 나타나며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도 가장 다양하다.

그러나 회복 가능 여부는 사람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앞서 ‘지르다’가 가격과 필요에 대한 판단의 다양성 때문에 사용되는 맥락이 확대된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결과 사태를 강조하는 ‘디다’도 점점 사용 맥락이 늘어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얼음이 ‘프러디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사태인가, 회복 가능한 사태인가? ‘지르다’로 부호화되는 사태의 내용에서 가격과 필요가 점점 탈색되듯이, ‘디다’ 표지와 결합하는 사태들이 전형적으로 지녔던 회복 불가능한 변화 특성은 시간이 갈수록 탈색되었을 것이다. 표 4.6에 수록된 ‘기울어지다’나 ‘흐터디다’와 같은 예가 그렇게 확장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디다’의 분포 환경은 낙하의 원인 사태를 서술하는 술어에서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로 넓어진다. 그리고 이 확대된 분포가 다시 ‘디다’에 의미 평준화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 첫 번째의 평준화가 ‘뼈러디다’ 류와 ‘업더디다’ 류의 ‘디다’를 설명하는 하나의 의미를 찾는 추상화였다면, 두 번째의 의미 평준화는 ‘뼈러디다’, ‘업더디다’ 류 외에도 ‘것거디다’와 ‘그처디다’ 류의 술어를 포함하여 이들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디다’의 의미를 찾는 추상화 작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 확대와 확대된 분포에 대응하는 의미 평준화가 반복되는 것이 곧 ‘디다’의 문법화 과정이 된다.

5.3.3 <결과> 표지 ‘디다’와 ‘잇다’의 비교

지금까지 ‘디다’ 동사의 문법화 진입 환경을 검토하여 그 첫 번째 의미가 <결과>였으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박진호(2003)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있다’를 <결과> 표지로 제시하고, 그 선대형인 ‘잇다’에도 동일한 용법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결과> ‘디다’

와 <결과> ‘잇다’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디다’ 표지의 의미를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소절에서 살폈듯이, 문법 표지 ‘디다’는 종결성 변화 사태 중에서도 회복이 불가능한 변화 사태 술어에 주로 결합한다. ‘깨다’, ‘꺾다’, ‘끊다’처럼 대상의 존재를 없애는 변화나 고유한 속성을 변질시키는 변화 등이다. 반면에 <결과> 표지 ‘잇다’는 회복이 가능한 변화 사태 술어에 결합한다. ‘죽다’ 사태에 결합한 ‘디다’와 ‘잇다’의 해석을 비교해 보자.

(10) ‘죽다’ 사태의 두 가지 <결과> 변형

- ㄱ. 제 신센들 남의 조식 어더 가지고 며느리는 보도 못 허고 아들은 뉙칠삭은
그리다가 필경 양면을 못 허고 죽어진 일 블샹블샹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23번, 여강이씨》
- ㄴ. 半 날을 주겠던 사루미 곧 숨 쉬느니 《구급방언해 상:75》
- ㄴ' 주근 사루미 머리를 쪘기 드러 더운 므리 비에 들에 허면 아니한 스미예 곧
살리라 《구급방언해 상:10》

(10 ㄱ)에서 화자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으므로 한이 남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즉, 이 ‘죽어지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사태를 가리킨다. 반면에 (10 ㄴ)의 ‘주겠다’는 바로 뒤에 ‘숨쉬다’가 이어지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사(假死) 사태를 가리킨다.

한편으로 ‘잇다’가 회복 가능한 사태 술어 ‘죽다’에 결합한다고 보는 대신에 ‘죽다’에 ‘잇다’가 결합한 술어가 회복 가능한 ‘죽다’ 사태를 부호화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결과상태]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잇다’에 부여하는 분석은 가사 사태를 서술할 때 언제나 ‘주겠다’ 형태가 쓰일 것을 예측하게 된다. (10 ㄴ')에서 보이듯, 일시적 기절을 ‘죽다’ 단독 형태로 서술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이 글은 화자가 가사 사태를 서술하는 술어로 ‘죽다’를 선택하고, 그 일시성을 강조하기 위해 ‘잇다’를 썼다고 본다.

15) 그러한 ‘죽다’의 용법을 은유(metaphor) 또는 유추(analogy)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죽다’의 의미로 인정하지

Nedjalkov(1988)에서는 이 영향입음성 개념을 회복 불가능한 변화 사태 술어와 회복 가능한 변화 사태 술어로 나누어 포착하고, “resultative” 표지가 둘 중 하나에만 결합하거나, 두 사태에 각각 다른 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등을 기술하였다. 이 분류에서 한국어의 ‘디다’와 ‘잇다’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 표지와 회복 가능한 <결과> 표지가 각각 별도로 발달한 유형이 된다.

‘디다’와 ‘잇다’의 문법화가 모두 <결과>로 향하면서도 의미에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동사 ‘디다’가 지시하는 사건에서 대상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동사 ‘잇다’가 지시하는 사건에 작인성 개체가 참여하면 해당 개체는 자신의 위치 변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 ‘디다’ 사태가 취소될 수 없는 것에 비해, 동사 ‘잇다’ 사태는 취소가 가능하다. <결과> ‘디다’와 <결과> ‘잇다’의 차이는 이를 표지의 기원이 되는 각 동사가 지시하는 이동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결과> 표지 ‘디다’와 ‘잇다’는 이들이 결합하는 술어가 지닌 변화의 영향입음성에 의해 구분된다. 그러나 이 구분은 ‘디다’의 <결과> 용법이 약화되면서 사라지고, 대신에 [작용] 술어를 [변성]으로 변환하는 ‘디다’와 [변성] 술어를 [결과상태]로 변환하는 ‘잇다’로 대립의 내용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2.3소절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 표지로 변형된 술어는 후기 중세 한국어와 달리 [결과상태]로 분석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한국어 ‘디다’ 표지의 <결과> 용법이 약화된 것은 기원이 되는 ‘디다’ 동사가 변화 사태 술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어휘가 의미 변화를 겪더라도, 애초에 지녔던 의미 특성은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는다. 따라서 ‘디다’ 표지가 결합한 <결과> 술어의 [상태] 해석은 ‘잇다’ 표지가 결합한 <결과> 술어보다 불안정하다.

않는 견해도 있지만, 언어 변화의 기제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유와 유추다. 의미 변화 연구의 관점에서는 언어 형태의 용법이 은유나 유추로 확장되면 곧 그 형태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박진호(2003)에서 현대 한국어의 ‘지다’와 ‘있다’ 표지에 결합하는 술어의 특성을 조사한 것을 보면, ‘지다’ 표지는 주로 2항 술어에, ‘있다’ 표지는 거의 1항 술어에 결합한다. ‘지다’ 표지로 변형된 술어는 대부분 변화 사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며, 종결성 [작용] 술어를 [결과상태]로 변형할 때에는 피동접사 ‘-이’를 결합하거나 ‘지다’ 표지를 결합하여 1항 술어로 줄인 다음에 ‘있다’ 표지를 결합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이는 종결성 [작용] 술어에 결합하는 <결과> ‘디다’가 쇠퇴하면서 다른 문법 표지를 조합하여 이를 대체할 수단을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4 ‘디다’의 문법화 진행

지금까지 하향이동 동사 ‘디다’가 다른 이동 동사와 함께 원인-결과 사태를 서술하는 맥락이 반복되면서 <결과> 표지로 추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추상화의 결과로 ‘디다’ 표지의 분포가 확대되고, 확대된 분포가 다시 의미 추상화를 일으키는 되먹임을 문법화의 진행 과정으로 주장하였다. 표 4.7의 ‘니쳐디다’, ‘헬쁘다디다’ 등은 종결성 변화 사태 술어에 결합하는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이 이렇게 확대된 결과로 출현하였을 것이다.

‘디다’ 표지의 분포 환경이 늘어날수록, 그 모든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디다’의 의미는 줄어든다. 이는 문법화에 수반되는 의미 탈색(bleaching)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 ‘디다’의 의미가 탈색되면서 문법 표지 ‘디다’에 남은 의미 특성을 다음의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행위주 부재: 사태를 통제하는 행위주를 알 수 없다.
- 변화 발생: 대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작용하였다.
- 결과 발생: 작용이 종료되어 결과가 발생하였다.

5.3.1절에서 ‘지르다’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했듯이, 의미 추상화로 인하여 어휘의 분포가 확대되면 맥락별로 어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달라진 의미들은 하나의 의미에서

분화한 것인만큼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점은 없다.

문법화를 겪는 형태들도 이와 비슷한 의미 분화를 일으킨다. ‘디다’ 표지의 첫 번째 의미인 <결과>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모두 표현하는 범주이다. 그러나 Haspelmath(1990)의 피동 표지 유형론에서 나타나듯이, 문법 표지는 비슷하지만 다른 문법적 의미를 하나 이상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법화 진행 과정에서 문법 표지가 의미 분화를 일으켜 여러 문법 범주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디다’ 표지의 <기동>, <반사동>, <변성> 의미는 <결과>에서 분화되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본 ‘디다’의 세 의미 특성이 각각 어떤 문법 범주들로 이어지는지, 5.2.2소절에서 논의한 비행위성 자동사의 문법화 경로를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5.4.1 행위주 부재

‘디다’가 지니는 변화 사태 술어의 속성과 행위주 부재 특성이 더해지면 <기동> 범주의 의미가 된다. 행위주 부재는 행위주를 모르는 경우, 행위주를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 행위주를 서술하고 싶지 않은 경우, 행위주가 없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기동> 표지가 <반사동> 표지를 겸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디다’ 표지가 변화 사태를 자주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달은 ‘디다’ 문법화 단계에서 일찍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기동> ‘디다’가 가장 흔하게 관찰된다면, 애초에 <기동> 표지로서 문법화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디다’의 문법화 진입 과정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은 ‘디다’의 문법화 진입 환경과 15세기 ‘디다’ 표지의 여러 의미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가 <결과>라고 본다.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동사에 ‘아/어’ 어미를 매개로 결합한 본동사 ‘디다’는 모두 쳐소 변화 사태를 가리키는데, 이때 ‘디다’는 물론 결합한 동사도 모두 1항 술어 또는 양용 동사로 확인되므로 ‘디다’가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디다’ 표지의 <기동> 및 <반사동> 의미가 <결과>에서 행위주 부재 특성과 변화 발생 특성이 강조되면서 발달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행위주 부재 특성은 비행위성 자동사가 피동 표지로 발달하는 토대가 된다. Haspelmath(1990)은 피동 표지의 문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특성으로 탈-행위 동사화(inactivation)를 들었다. 술어가 서술하는 사태에서 행위주를 배제하는 것이 피동 문법화의 첫걸음이며, 피동의 주된 기능으로 지적되는 행위주 배경화나 대상 전경화는 모두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디다’의 <기동> 변형에서 행위주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한국어 ‘지다’는 행위주를 도입할 때에 ‘-에 의해’라는 별도의 술어를 이용하지만, 앞으로 ‘-에게’ 표지를 이용하여 사격으로 행위주 논항을 도입하는 용법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위주 부재 특성을 핵심으로 하는 ‘디다’의 문법화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지다’의 비정형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형용사 결합 ‘지다’ 표지의 분포 환경 확장

- ㄱ.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도의적으로 금기시되어야 마땅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¹⁶
- 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종이조각에 불과해진 베네수엘라에서...¹⁷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형용사는 종류에 거의 제한이 없다.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대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속성]-[상태] 술어가 많지만,

16) 유은상 [2012.3.30] “잔존하는 인종차별, 한 17세 소년의 비극적 죽음”

<http://board.rhythmer.net/src/go.php?n=9345&m=view&c=21&s=feature> (2019.11.1. 접속)

17) 뉴스1 [2019.10.23] “‘종잇장 된 돈’…베네수엘라선 주유하고 담배 한 대 낸다”

<http://news1.kr/articles/?3750533>

현대 한국어에서는 ‘마땅하다’와 같이 화자의 판단 또는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조차도 ‘지다’ 표지에 결합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최근의 확장으로 생각되는데, 빈도도 낮거니와 비격식 발화에서 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앞서 3.2.3소절에서 [행위] 술어에 결합한 ‘지다’가 행위주의 작인성 없이 일어나는 변화 사태를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11)의 ‘마땅하다’나 ‘불과하다’와 같은 술어는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주체의 존재를 전제한다. 여기에 행위주의 작인성을 부정하는 ‘지다’ 표지가 결합하면, 술어에 전제된 평가 주체의 작인성이 부정된다. 그리하여 해당 판단이 주체의 선택이 아니라 주체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선택지로서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평가처럼 서술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기동〉 및 〈반사동〉 표지가 나타내는 행위주 부재가 사태에 참여하는 개체의 작인성 부재로 확대되었다가 사태에 전제된 개체의 작인성 부재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단 주체의 작인성을 부정하는 ‘지다’ 표지를 포착함으로써, ‘보여지다’, ‘생각되어지다’ 등의 이른바 ‘이중피동’이 사용되는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12) 현대 한국어 비격식 발화에서 ‘지다’ 표지의 객관성 표현

- ㄱ. 하원에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¹⁸
- ㄴ.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강하게 얘기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집니다.¹⁹
- ㄷ. 비교 대상 지역이 다른 ‘통계의 오류’로 보여진다.²⁰

위의 발화에서 화자들은 특정한 사태에 대하여 자신이 내린 판단을 보고하고 있다. ‘지

18) 김동찬 [2019.9.26]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MBC 라디오) 인터뷰 중

19) 강병원 [2019.7.18] YTN [더뉴스-더정치] “대통령·5당 대표 회동…‘동상일몽’ 할까?” 인터뷰 중

20) 한국일보 [2019.9.16]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너무 비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9161565378630?did=TW>

다’ 표지의 다른 의미는 물론이고, ‘지다’의 의미를 피동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이 맥락에서 화자가 ‘지다’ 표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되어지다’ 류의 표현은 “수동태” “번역투”로 설명되어 왔다.²¹ 그러나 설령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한국어 화자가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지다’ 표지를 번역어로 고르는가 하는 설명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글은 ‘생각되어지다’ 류의 ‘지다’ 표지 사용이 판단의 주체성을 부정하여 자신의 진술에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동기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이는 행위주를 배제하는 ‘지다’ 표지의 기능이 문법화를 거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로서, 현대 이전의 한국어에 없던 구조이나 외래의 구조가 이식되어 생겨났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지다’ 표지의 사용이 한국어 사용 규범에 편입될 수 있는가는 별문제이지만, 그 발생 연원이 언어 내적인 변화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5.4.2 변화 발생

〈결과〉‘디다’는 특정한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를 서술한다. 이 때 사태를 구성하는 변화는 〈결과〉‘디다’가 결합한 술어가 서술하는 것이지만, 〈결과〉 술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디다’가 변화를 서술하고 결합한 술어는 [상태]를 서술하는 것처럼 분석될 수도 있다. 현대 한국어의 예를 통해 그러한 구조적 중의성을 확인해 보자.

(13) 현대 한국어 ‘깨지다’의 [변성] 관련 확장

- ㄱ. 그 낡은 건물의 창문이 계속 깨지고 있다.(김윤신 2005:499,(19b))
- ㄴ. 어느 정도의 육식이 필요하다는 관념 또한 깨지고 있다.²²

(14) 현대 한국어 ‘깨지다’의 [속성] 관련 확장

21) 고정욱 [2004.8.31] 경향신문 “[우리말글이 흔들린다] 16. 영어·일어식 번역투 문장 넘쳐” 칼럼

22) 경향신문 [2019.8.30] “고기도 한때는 얼굴이 있었다” (2019년 11월 1일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302039025

- ㄱ. ?* 그 집의 창문이 점점 깨졌다.(김윤신 2005:503,(32b))
- ㄴ. * 그 집의 창문이 더욱 깨졌다.(김윤신 2005:504,(35b))
- ㄷ. 한참 올림픽 도로를 운행 중인데 자동차 유리가 점점 깨져 롱 크랙으로 약 40cm 정도로 금이 갔어요.²³
- ㄹ. 강화유리 필름보다 아이폰 액정이 더 깨졌다는 게 합정이지만²⁴

전형적인 용법의 ‘깨지다’는 김윤신(2005)에서 관찰했듯이 ‘-고 있다’와 결합하면 손상 사태의 반복으로 해석되고(13 ㄱ), ‘더욱’이나 ‘점점’과 같은 척도 관련 수식을 받을 수 없다(14 ㄴ, ㄷ). 그러나 ‘깨지다’의 특정한 용법이 아니라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13 ㄴ)과 같이 반복이 아닌 단일한 변화 사태를 가리키는 ‘깨지다’나 (14 ㄷ, ㄹ)과 같이 척도 관련 수식이 허가되는 ‘깨지다’가 사용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깨지다’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글의 관점에서는 인접 의미 유형의 동형 부호화 전략이 한국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용] 술어 ‘깨다’에서 변형된 [결과상태] ‘깨지다’는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된 [상태]를 부호화한다. [상태]와 [속성]은 동형으로 부호화될 수 있으므로, ‘깨지다’의 [결과상태] 부호화는 변화의 결과로 획득된 ‘손상됨’ [속성]의 부호화로 재분석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결과상태] ‘깨지다’가 [속성] 취득의 결과를 나타내는 ‘깨지다’로 확장된다. 이 확장된 ‘깨지다’ 사태는 일부분의 손상에서 시작하여 모든 부분의 손상으로 끝나는 척도를 부여받으므로 ‘더욱’이나 ‘점점’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형 부호화 전략이 작동하기 때문에 동일한 ‘깨지다’를 [작용] 술어에 결합한 ‘지다’와 [상태] 술어에 결합한 ‘지다’의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후자로 해석된 ‘지다’

23) novus114 [2019.3.27]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novus114/221498606411> (2019년 11월 1일 접속)

24) wnguswlssla2 [2018.9.14]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wnguswlssla2/221358925303> (2019년 11월 1일 접속)

는 [상태] 술어에 결합하여 해당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성] 표지가 된다. 이렇게 발달해 나온 것이 바로 ‘디다’의 <변성> 의미가 된다.

앞서 ‘마땅하다’나 ‘불과하다’와 같은 [상태] 술어에 ‘지다’가 결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변성> ‘디다’가 결합하는 [상태] 술어의 종류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5) 현대 한국어 <변성> ‘지다’의 분포 확대

- ㄱ. 최씨는 “풀냄새를 맡으니 사람 사는 것 같아져서 좋았”지만 ...²⁵
- ㄴ. 정말 주말 내내 시원하고 최적의 온도와 날씨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서야 가을이라는 계절에 걸맞아졌구나 싶었어요²⁶
- ㄷ. 책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팔려나가고 있었고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어졌지만²⁷

(15 ㄱ, ㄴ)의 ‘같다’, ‘걸맞다’는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2항 술어이다. [작용] 이외의 2항 술어 의미 유형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지만, 편의상 ‘관계’ 술어로 명명해 두자. (15 ㄷ)의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술어이다. 이들은 모두 변화가 없는 사태이므로 [상태]와 비슷한 속성을 지니며, 여기에 결합한 ‘지다’ 표지는 그러한 사태로의 변화를 서술한다. 이를 통해 <변성> ‘지다’의 분포 환경이 [(P)속성]-[(P)상태]에서 출발하여 관계 및 존재 술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5) 경향신문 [2019.10.4]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1) 10년을 기다렸어도…’ 대기자·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 (2019년 11월 1일 접속)

26) uranworld [2018.9.3]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uranworld/221351685505> (2019년 11월 1일 접속)

27) 공지영,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2016년

5.4.3 결과 발생

Nedjalkov(1988)에 따르면 <결과>는 완료와 표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가 나타내는 결과의 발생이라는 특성이 곧 사태의 종료로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국어 ‘디다’는 완료보다는 피동 쪽으로 변해 가는 중인데, 이는 사태의 종료가 곧 [상태]의 발생으로 해석되는 데 비해 ‘디다’는 변화 사태 술어로서의 속성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역사 자료 내에서 ‘지다’ 표지가 완료에 가까운 용법을 보이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6) 한국어 ‘디다’ 표지의 완료 유사 용법 관련 용례

- ㄱ. 빅성에 축향^후미 점점 어그여지고 빅성에 풍속이 점점 효박^한 거시 미상불 이를 말미아문지라 《척사윤음 2면, 1881년》
- ㄴ. 죠쳐^후기를 법에 어그여져서 한갓 빅성에 의혹을 더^한니 이도 나에 죄애라 《유팔도사군기로인민등윤음 1면, 1882년》
- ㄷ. 관원과 아전과 수^수부와 빅성드리 득체 윤과를 거스리고 텐리를 어그여져서 《과화존신 10면, 1880년》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어그다’는 (16 ㄱ)처럼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16 ㄴ)처럼 처격 논항과 함께 사용된다. 그런데 (16 ㄷ)처럼 대격 논항과 함께 사용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결과> ‘디다’는 행위주의 배제를 강한 특성으로 지닌다. 이는 <결과>에서 발달한 <기동>, <반사동>, <변성> ‘디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디다’ 결합 술어는 대격 논항을 취할 일이 없다. 한국어는 현대와 현대 이전을 통틀어 언제나 주격-대격 언어였으므로, 대격 논항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곧 행위주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격 논항과 함께 ‘어그여지다’가 쓰였다는 것은 ‘디다’에서 행위주 배제 특성이 탈색된 용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완료 범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 표지가 결과의 발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주로 [변성] 술어에 결합하는 ‘지다’ 표지가 그러하다.

(17) 현대 한국어 [변성] 술어와 결과 서술

- ㄱ. 영화 끝에 가면 이제훈이 많이 말라졌다.²⁸
- ㄴ. 부산의 수돗물 공급량 가운데 37%가 수도관이 낡아져 새나가는 등 허비된 채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1994년 1월 20일》
- ㄷ. 그때 오시면은 상담이 길게 잡혀져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전화 상담 채록, 2019년 10월 30일)

(18) 동남 방언의 ‘지다’와 [변성] 술어 결합

구남친이 경상도 남자였는데 외국에서 일하다가 여름에 한국 나가서 형네 집에 2 주 있다 오고 나서 그때 이미 헤어진 상태인 나한테 형수 옥을 그렇[게] 하더라고 냉장고에 과일이 썩어지는데 한번 [깎] 아주질 않는다고²⁹

(18)에서 ‘-는’ 표지가 결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한국어에서 [변성] 술어에 결합한 ‘지다’도 변화 사태 술어의 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17–18)의 ‘지다’는 〈결과〉 표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 ‘낡다’, ‘썩다’는 단독으로도 행위주 없이 자연발생하는 [변성] 사태를 가리키므로 〈반사동〉으로도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지다’는 ‘디다’의 의미 특성 중에서 결과의 발생이라는 측면이 흔적으로 남은 용법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17 ㄷ)의 ‘잡혀지다’는 다른 예약이 먼저 잡힘으로써 그 시간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별도의 표지를 써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경향신문 2017년 6월 19일 “‘컬투쇼’ 이제훈 ‘박열’ 위해 단식…1달 쌀 섭취 안 해”

<http://star.hankookilbo.com/News/Read/201706191549810302> (2019년 11월 1일 접속)

29) [트위터] shuichuzhuozu, [2019.8.28]

<https://twitter.com/shuichuzhuozu/status/1166516936890433537> (2019년 8월 29일 접속)

제6장 결론

지금까지 후기 중세 한국어의 하향이동 동사 ‘디다’가 어떻게 현대 한국어의 보조동사 ‘지다’ 표지로 발달하였는지 그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새로이 주장한 바를 요약하고, 주장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디다’ 표지에 선행하는 어휘들의 분포를 기술하려면 종래의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구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술어가 부호화하는 사태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술어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 체계는 술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분류 기준의 토대는 품사 유형론의 품사별 의미 특성 논의와 형식 의미론의 술어 분해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공시 문법 분석을 위해 제안된 술어 분류 체계를 화자가 없는 언어 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했다는 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글에서는 ‘디다’ 문법화를 설명하는 데에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유형들만을 도입했지만, 모든 술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술어 의미 유형 분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조어법, 태, 상 등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던 현상들을 하나로 묶는 대범주의 설정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종래 결과상과 완결상(completive) 등이 상 범주로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과 완료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들을 구분하는 단서는 거의 모든 술어에 결합하는 완료상 표지와 달리 결과상 표지는 결합하는 술어의 종류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Nedjalkov(1988)에서 제안된 <결과> 개념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결과> 범주는 대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종결성 사태 술어에 결합하여 변화의 결과로서 대상이 놓이는 [결과상태]를 서술하는 술어를 형성한다.

사태가 술어로 부호화될 때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지, 주로 영어와 한국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접한 의미 유형을 동형의 술어로 부호화하는 전략이 활발히 확인되었으며, 자·타 양용동사, 자·형 양용술어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별도의 술어를 할당하는

이형 부호화나 술어의 형태를 바꿔서 부호화하는 변형부호화 전략도 확인되었다. 동형 부호화와 변형 부호화가 공존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가 범주를 나누는 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범주가 언어로 표현될 때에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술어를 변형하여 다른 술어를 형성하는 현상은 종래 조어법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술어의 의미를 변형하는 것과 그 변형의 수단이 파생이나 합성인 것은 서로 별개의 현상이다. 파생, 합성, 모음교체, 성조변화, 구문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술어가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어법으로 국한하여 연구하는 것은 현상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이 대 범주는 사태의 구성 요소 조합을 변형하여 새로운 술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종래 논의되던 결합가 범주와 성질이 같다. 이 글에서 정의한 <결과>, <기동>, <반사동>, <변성> 외에도 이 대범주에 속하는 현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토대로 본동사 ‘디다’를 다시 기술함으로써, ‘디다’에는 낙하 이외의 별다른 뜻이 없다는 기준의 보고를 수정하였다(손세모돌 1992). ‘디다’의 의미가 하향이동의 수반 사태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장되거나, 처소 변화의 공간축을 상태 변화의 정도축으로 투사하여 은유를 이용한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빈도 동사들이 흔히 겪는 확장 양상이며, 그 점에서 후기 중세 시기의 ‘디다’가 문법화를 겪었다고 판단할 자료가 된다.

언어유형론에서 논의되던 “resultative”, “anticausative”, “fientive”를 이 글에서 제안한 술어 의미 유형 분류를 이용해 <결과>, <기동>, <반사동> <변성>으로 정의함으로써, 한국어 역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디다’ 표지의 분포와 의미를 기술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종래 보조동사 ‘지다’ 표지와 분리되어 논의되었던 ‘-으러지다’ 형 어휘들을 형용사에 결합하는 ‘지다’ 표지와 통합하는 성과가 있었다. 동시에 ‘-으러지다’에 포함되어 있는 ‘-을/을’ 접사를 추출하고 이 접사의 의미와 분포 특성을 일부나마 기술해 보았다. ‘-을/을’ 접사에 관해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으/으’과 ‘-ও/ও’ 접사와의 관계가 더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종종 확인되는 ‘반드시’-‘반드기’ 류의 ‘ㄱ~ㅅ’ 교체형 또한 이 접사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어 역사 자료 내에서 ‘디다’ 표지의 분포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디다’ 표지의 문법화 완료 시기와 진행 속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 한글 편지 자료와 필사본 조리서 자료를 통해 ‘-흐다’ 류 형용사에 ‘지다’ 표지가 결합하는 분포가 이미 17세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보조형용사 ‘만흐다’가 포함된다. 따라서 〈변성〉 ‘지다’ 표지는 17세기에 이미 중앙어에서 문법화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자료 내에서 〈변성〉 ‘지다’ 표지의 빈도를 확인해 보면 20세기 초반 까지 꾸준히 낮은 채로 유지되며 큰 변화가 없다.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변성〉 ‘지다’ 표지의 사용을 저지하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으로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이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어 [변성]-[결과상태] 부호화 전략으로서 〈변성〉 ‘지다’ 표지와 경쟁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역사 자료 내에서 형용사를 모두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동 형태소 분석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다른 접근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다’의 문법화 진입 과정에서 ‘디다’ 표지가 하나의 단위로 재분석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미 재분석을 일으킨 압력 요인으로 구문 단위의 의미 평준화 과정을 제안하였다. 평준화는 주로 형태론 층위에서 복수의 기저형이 하나로 수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단어 및 구문의 의미가 맥락에 강하게 결부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어 및 구문의 사용 맥락이 확대되었을 때 확대된 맥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것도 평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론의 패러다임 평준화가 복잡한 형태에서 단순한 형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듯이, 의미 평준화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수렴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제안한 구문 의미 평준화와, 종래 논의되어 온 은유와 유추 등의 의미 변화 메커니즘이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 한국어 ‘지다’ 표지에서 확인되는 가능 용법은 Haspelmath(1990)에서 의문으로 남겨둔 “potential passive”的 발달 경로를 〈결과〉와 연결짓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역사 자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용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을/을’ 접사 논의에서 검토했듯이, ‘지다’ 표지로 변형되지 않은 일반적인 술어들도 명사 수식형이나 현재 시제로 사용되면 [(D)속성]으로서 대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서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다’ 표지의 가능 용법으로 논의되어 온 용례들 중에서 진정으로 ‘지다’ 표지가 가능한 의미를 기여하는 용례는 [행위] 술어에 결합한 경우로 한정될 수도 있다. [행위] 술어에 행위주성을 부정하는 표지인 ‘디다’ 표지가 결합하였을 때 가능한 의미가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고영근 (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곽충구 (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237–268.
- 권재일 (1991). “한국어 문법범주에 대한 언어유형론적인 연구”. 《언어학》 13, 51–74.
- 김건희 (2015). “중세국어 형용사의 구문과 동사적 용법 -이영경(2007)을 중심으로”. 《형태론》 17.1, 92–113.
- (2016). “(한)국어 형용사의 관형사형 구성 새로 보기”. 《한글》 311, 123–164.
- 김경순 (1987). “조동사 ‘지다’ 연구 - 동사의 의미자질에 따른 접속환경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미경 (2014). “형용사의 상태 변화성 소실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글 조리서 말뭉치를 중심으로-”. 《제41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 (2015). “언어 변화 연구와 재분석의 이해: 기제에서 유형으로”. 《제2회 한국 언어 유형론 학회 학술대회》.
- (2016). “19세기 말 초기 신문자료에서 나타나는 '-어 지다'의 분포와 쓰임”. 《(사) 한국언어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 (2017). “중세 국어 동사 ‘디다’의 다의성과 그 해석”. 《2017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대회》.
- (2018). “석보상절 권3의 불경 발췌 양상 연구”. 《한국문화》 81, 323–363.
- 김미경 · 박수지 · 이상아 (2016). “형태소 깎는 노인 : 국어사 자료를 위한 형태분석 보조 기”. 《제2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39–43.
- 김선영 (2014). “상태 동사와 ‘잘생기다’류”. 《진단학보》 120, 159–191.
- (2016). “형용사와 ‘-어 가다’”. 《한글》 311, 165–196.
- 김윤신 (2005). “한국어 기동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와 생성적 기제”. 《어학연구》 41.3, 493–516.

- 김태곤 (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 남수경 (2011a).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 (2011b). “‘-어지다’ 意味 考察에 대한 試論 -類型論的 觀點에서”. 『어문연구』 39.3, 175–202.
- 남승호 (2000). “한국어 이동 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서울: 소화출판사, 229–282.
- (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1, 111–145.
- 노민정 (2012). “찰나刹那의 상속相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구사론』20권 <분별수 면품分別隨眠品>에 등장하는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논의를 중심으로”. 『宗教學研究』 30, 105–141.
- 박민정 (2005). “보조용언 ’V+ -어 디다’의 통시적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진호 (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 박철우 · 김종명 (2005). “한국어 용언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어학연구』 41.3, 543–567.
- 박희순 (1992). “보조동사 ’지다’에 대한 고찰”. 『돈암어문학』 5, 129–144.
- 배희임 (1986). “‘지-’와 피동”. 『국어학 신연구: 약천 김민수 교수 화갑 기념』. 탑출판사, 182–190.
- 서승현 (1996). “‘아/어지다’의 의미”. 『연세어문학』 28, 241–279.
- 서신혜 (Sept. 2015). “김훈의 아내 ‘신천강씨’라는 한 여성의 삶 재구”. 『동양고전연구』 60, 9–35.
- 성광수 (1976). “국어 간접피동에 대하여 -피동 조동사 ”지(다)”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3, 159–182.
- 소쉬르, 페르디낭 드 (2012). 『일반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김현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 소재영 (1984). “을병연행록의 한 연구”. 《송실어문》 1, 5–33.
- 손세모돌 (1992). “중세 국어의 ”부리다”와 ”디다”에 대한 연구”. 《주시경학보》 9, 78–93.
- (1994).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舊 한국학논집)》 24, 175–217.
- (1995). “”디다”와 ”지다”의 의미 고찰”. 《한국언어문화》 13, 997–1018.
- 신은수 (2001). “‘듣다’(落)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화》 79, 53–76.
- (2013). “‘X+지다’류 어휘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2016). “15세기 ‘V아디다‘ 기원의 합성어 ‘녹아지다’”. 《국어학》 80, 229–258.
- 신중진 (2008). “‘두드러기[癰疹]’의 형태사와 그 방언형 연구”. 《국어학》 53, 257–278.
- (2012). “어휘 구성소 ‘-알/을-’과 그 화석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1, 167–198.
- (2015). “어휘 구성소 ‘-알/을-‘의 분포와 의미 양상”. 《진단학보》 123, 173–193.
- 엄상혁 (2018). “한국어의 재분석에 의한 단어 형성”. 《한국어학》 81, 197–244.
- 우인혜 (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강로 (1967).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 -지-의 형태론적 연구”. 《仁川教育大學校 論文集》 2, 1–16.
- 이경수 (2009). “동사 ’지르다’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30, 181–204.
- 이기동 (1978).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1, 537–569.
- 이기문 (1972).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승재 (1992). “융합형의 형태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 10, 59–80.
- (2004). 《방언 연구 - 자료에서 이론으로》. 태학사.
- 이영경 (2003).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관하여”. 《형태론》 5.2, 273–295.
- (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태학사.

- 이정택 (1994). “보조동사 ’지-’의 특성”. 『제효 이용주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신청 어문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2001).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 38, 117–134.
 - (2004).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 이현희 (1987). “중세국어 ’둘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133–150.
- (1997). “중세국어의 강세접미사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문학논고』. 태학사, 707–724.
- 임홍빈 (1978). “피동성과 피동구문”. 『논문집(국민대학교)』 12, 35–59.
- (1993). “‘(-)지다’의 사전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양전 이용욱 교수 환력기념: 해양문학과 국어국문학』. 형설출판사, 423–464.
- 정언학 (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 조오현 (1983). “조동사 「지다」의 연구 -생성, 태, 의미, 구문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최기표 (2018). “『석보상절』 불교주해의 의의”. 『불교학보』 85, 111–134.
- 최동주 (201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태학사.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한정연 (2019). “국어 피동 표현과 일본어 영향설에 대하여”. 『한글』 80.2, 321–351.
- 함희진 (2007). “{뜨리-}의 범주와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34, 369–401.
- (2008). “‘v1-어+지다’ 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41, 403–429.
- 허웅 (1975). 『우리옛말본 -15세기 형태론-』. 샘 문화사.
- (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 · 어제-』. 샘 문화사.
- 홍재성 (1982). “-러 연결어미문과 이동 동사”. 『어학연구』 18.2, 261–271.
- 황국정 (2015). “15세기 국어 이동동사 구문 연구 -기본 문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27, 33–66.

- Argyropoulos, Giorgos P. (Feb. 2008). “The Subcortical Foundations of Grammaticalization”. In: *The Evolution of Language*. WORLD SCIENTIFIC, pp. 10–17.
- Beedham, Christopher (1987). “The English passive as an aspect”. In: *WORD* 38.1, pp. 1–12.
- Bergen, Benjamin and Nancy Chang (2013). “Embodied Construction Grammar”. In: *The Oxford Handbook of Construction Grammar*. Ed. by Thomas Hoffmann and Graeme Trousdale. Oxford University Press. Chap. 10, pp. 168–190.
- Binnick, Robert (1991). *Time and the verb A guide to tense & aspect*.
-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 (2007a). “Diachronic Linguistic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by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University Press, pp. 945–987.
- (2007b). “The Emergent Lexicon”. In: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Chap. 13, pp. 279–293.
- Bybee, J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51.
- Croft, William (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wty, David (1979). *Word Meanings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Dordrecht/Boston/Lond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Embick, David (2004). “On the Structure of Resultative Participles in English”. In: *Linguistic Inquiry* 35.3, pp. 355–392.

- Fillmore, Charles J (1970). “The grammar of hitting and breaking”. In: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Ed. by Roderick A. Jacobs and Peter S. Rosenbaum. Waltham, Mass. : Ginn.
- Fortson, Benjamin W. (2003). “An Approach to Semantic Change”. In: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Ltd. Chap. 21, pp. 648–666.
- Givón, T. (1991). “Serial verbs and the mental reality of ‘event’”. I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ume I.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Chap. 23, pp. 81–124.
- Haspelmath, Martin (1987). “Transitivity alternations of the anticausative type”. PhD thesis. Köln: Universität zu Köln.
- (1990). “The grammaticalization of passive morphology”. In: *Studies in Language* 14.1, pp. 25–71.
- (Jan. 2010). “Framework-Free Grammatical Theory”. In: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Ed. by Bernd Heine and Heiko Narrog. Oxford University Press. Chap. 14, pp. 375–402.
- Heine, Bernd and Tania Kutev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da, Laura A. (1986). *A semantic analysis of the Russian verbal prefixes ZA-, PERE-, DO-, and OT-*. Vol. 192. Munich: Otto Sagner.
- Janda, Laura A. and Olga Lyshevskaya (2013). “Semantic Profiles of Five Russian Prefixes: po-, s-, za-, na-, pro-”. In: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21.2, pp. 211–258.
- Jeong, Sunwoo (2018). “Causatives and Inchoatives in Korean : A Unified Account”. In: *Japanese/Korean Linguistics*. Ed. by Shin Fukuda, Mary Shin Kim, and Mee-Jeong Park. Vol. 25. CSLI publications.
- Koontz-Garboden, Andrew (2009). “Anticausativization”.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27. 1, pp. 77–138.

- (2010). “The lexical semantics of derived stativ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33.4, pp. 285–324.
- Kruisinga, E. (1924). “Contributions to English syntax.XIII: Aspect”. In: *English Studies* 6.1-6, pp. 87–91.
- Kuhl, Patricia K. (2000). “A new view of language acquisition”. 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7.22, pp. 11850–11857.
- Lakoff, George (1966). *Stative Adjectives and Verbs in English*. Tech. rep. Computation Laboratory of Harvard University.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urence, Anthony (2014). *AntConc(Version 3.4.2)[Computer Software]*. Tokyo, Japan.
-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1994년 재출간, 태학사.
-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eth and Malka Rappaport (1986). “The Formation of Adjectival Passives”. In: *Linguistic Inquiry* 17.4, pp. 623–661.
- Lyons, John (1977). *Semantics, Vol.2*. Cambridge, London, New York,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urelatos, Alexander P. D. (1981). “Events, processes, and state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14 Tense and Aspect*. Ed. by Philip J. Tedeschi and Annie Zaenen. Academic Press, pp. 191–212.
- Nedjalkov, Vladimir (1988).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Trans. by Bernard Comrie. John Benjamins Publishing.

- Nedjalkov, Vladimir and Sergej Je. Jaxontov (1988). “The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Typolog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John Benjamins Publishing. Chap. 1, pp. 3–62.
- Perlmutter, Davi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 157–189.
- Rhee, Seongha (1997).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chøsler, Lene (May 2010). “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a constructional paradigm: the case of dative two-argument constructions from Latin to Modern French”. In: *Acta Linguistica Hafniensia* 42.1, pp. 26–45.
- Senn, Alfred (1949). “Verbal aspect in Germanic, Slavic, and Baltic”. In: *Language* 25, pp. 402–409.
- Stassen, Leon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Clarendon Press Oxford.
- Talmy, Leonard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 57–149.
-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Vol. 2. The MIT Press.
- Taub, Sarah (1996). “How productive are metaphors? A close look at the participation of a few verbs in the STATES ARE LOCATIONS metaphor (and others)”. In: *Conceptual structure, discourse and language*, pp. 449–462.
- Van Valin, R. D. Jr. (1990). “Semantic Parameters of Split Intransitivity”. In: *Language* 66.2, pp. 221–260.
- Vendler, Zeno (1957). “Verbs and times”. In: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pp. 143–160.

Abstract

The Grammaticalization of *fall*: the Korean -*ji* case

Kim Migyeong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ource of Korean auxiliary *ji* a.k.a. *eojida* is the verb *ti* which means *to fall* and investigates the semantic change in its grammaticalization. As the participant in a falling event has no control on its movement, a falling event is always followed by a resultant state. When combined with various verbs which encode causes of the falling event, the verb *ti* is interpreted as designating various resultant states. This triggers a constructional semantic levelling which abstracts three characteristics from the meaning of *ti*: the absence of an agent, the occurrence of a change, the existence of a resultant state. A resultative meaning arises from this abstraction, which is the beginning of a grammaticalization.

This paper also proposes a new major grammatical category by expanding valency to include resultative and fientive. It also suggests that anticaustive must be divided into inchoative and anticausative to explai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s of anticaustive verbs and derived inchoative verbs. These categories change the semantic class of predicate: state to change of state, change of state to resultant state, transitive to intransitive, and so on. The Korean auxiliary *ji* marks these categories, not passive.

The conversion of the semantic class of predicate can be signalled by three ways: morphological or constructional marker, different predicate, or polysemy. Labile verbs represent the

last one. The reanalysis in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arises from the ambiguity provided by the polysemy strategy.

Keywords : grammaticalization, directed motion, change-of-state, passive, resultative,

-eojida

Student Number : 2013-30025